

第 13 章 觀光 및 『레저』

第 1 節 觀光産業

I. 우리나라 觀光産業의 發展推移

1. 1950年代－政策開發萌芽時期

우리민족은 옛날부터 산자수명한 경관지를 찾으며 풍류를 즐겨왔으나 레저산업으로서의 觀光이 정착하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라고 할 수 있다. 觀光政策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觀光産業은 철도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日帝時代 일본이 만주 및 중국대륙의 침략을 위해 한반도를 교두보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철도역의 주변에 철도호텔과 철도회관을 설립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관광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948년 우리정부가 수립되었으나 행정체제가 확립되기도 전인 6.25戰禍의 와중에 우리정부의 손에 의한 관광행정의 정비를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관광행정조직의 발원은 일제시대 관광업무를 주관하던 鐵道局 運送課 旅客係에서 관광 선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식민지통치가 종식되고 우리정부가 수립되면서 일본과의 국교가 사실상 단절되고 미국을 비롯한 구미제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구미인들의 한국여행이 늘어나게 되었으나, 관광부문의 수용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아 관광객 유치에 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1954년 2월 17일 교통부 陸運局에 觀光課가 설치됨으로써 처음으로 한국관광을 육성,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한국관광의 산실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전체에 전쟁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라 관광행정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전화로 인해 파괴된 도로,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을 복구, 확장하는 일이었다.

1958년도에 온양, 해운대, 불국사 등에 철도호텔을 개설하게 되었으며, 관광직행열차 및 관광버스 등도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이 무렵부터 관광에 대한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국내외에 걸친 觀光宣傳 등 觀光行政 본연의 사무가 미미하나마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다. 觀光事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58년에는 大統領令 제1850호에 따라 중앙에는 교통부장관 자문기관으로 中央觀光委員會, 지방에는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地方 觀光委員會가 설치되어

관광행정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집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2. 1960年代－政策基盤造成時期

1) 觀光法規의 制定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1960년대에 들어서 정부의 체계적인 政策基盤 造成과 民間觀光企業의 登場으로 외화취득산업으로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정부는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함에 있어 觀光事業이 稼得率이 높은 외화 취득산업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이나 傳統文化를 널리 소개하는 수단으로 국제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제효과를 감안, 이를 적극적으로 선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에 관한 각종 법제의 제정과 행정조직을 확대하게 되었다.

1961년 8월 22일에 韓國觀光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된 觀光事業振興法을 제정·공포(법률 제689호)하게 되고, 동법 시행령(1962. 7. 9 공포 : 각령 제874호)과 시행세칙(1962.12.23 공포 : 교통부령 제141호)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한 수용태세 확립과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전활동, 세계관광기구의 적극적 가입 등을 활발하게 촉진하기 시작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전환점을 이루었으며 관광과 관련되는 文化財保護法을 1962년 1월에 제정한 것을 비롯, 1969년 10월에 보사부가 숙박업법을 제정하여 觀光事業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담당하게 되었다.

2) 觀光行政組織의 整備

1962년 4월에는 觀光行政組織面에 있어서도 새로운 國營機關으로서의 관광기구설치를 위한 특별법인 國際觀光公社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國際觀光公社가 설립되었으며 觀光事業의 선도적인 기능을 위하여 1962년 2월 위키힐 운영권과 특정외래품 판매소 등을 인수하였고, 1963년에는 지방 7개호텔(온양, 해운대, 불국사, 대구, 서귀포, 설악산, 무등산)과 대한여행사, 운송사업소, 반도호텔 및 조선호텔 등을 인수하였고 동년 4월에는 위키힐이 개관되었다. 그리고 이들 업체중에서 1965~1968년 사이에 7개의 인수호텔은 民營化되었다.

1963년 9월에는 交通部의 觀光課가 觀光局(기획과, 업무과)으로 승격되어 觀光行政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항공과도 항공국으로 승격되었으며, 동년 3월에는 觀光事業振興法 제48조에 의한 특수법인 大韓觀光協會中央會(현 韓國觀光協會)가 설립되어 동경과 뉴욕에 최초로 해외선전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다. 觀光事業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1965년 3월 19일에는 국무총리실 觀光政策審議委員會規程이 제정되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觀光政策審議委員會가 설치, 발족되면서 觀光事業 발전을 위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졌다.

동위원회는 1965년 11월에 첫 심의회의를 갖고 동위원회의 운영세칙,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관광시설의 정비 및 관광개발기금확보 등 7개안건을 심의통과시켰다.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광인력의 양성면에 있어서도 1963년 최초로 경희대학교와 경기대학의 부설초등대학에 관광과가 신설되어 늘어나는 관광종사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등에도 관광학과가 설립되었다. 대학과정의 관광교육기관이 속속 신설케 됨으로써 고급인력 수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1964년에 출현하였으며, 1965년 4월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14차 태평양지역 觀光協會(PATA) 연차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觀光事業을 국제시장에 출현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고, 동년 9월에는 홍콩에서 개최된 미주시행업자협회(ASTA)총회에 무용단 10명을 포함한 19명의 대표를 파견하여 우리나라 觀光事業을 널리 소개하였다. 또 1967년부터는 11월을 ‘관광의 달’로 지정하여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과 관심을 제고시켰다.

3) 觀光地 開發의 着手

관광대상지인 觀光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여 1961년부터 관광자원개발의 일환으로 설악산 관광도로(全長 12km) 포장을 선두로 불국사도로, 제주횡단도로의 건설 등 관광지의 기반조성과 1964년 4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1967년 12월 공원법의 제정으로 國·道立公園의 지정 등 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작업이 이루어졌다.

교통부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보호를 위하여 1969년 1월에 20개의 지정관광지를, 1971년 5월에는 13개의 제2차 관광지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계층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4) 觀光事業의 國際化 推進

관광의 국제화를 기하기 위하여 1965년에 國際觀光公社, 세방여행사 등의 6개 단체가 ASTA에 正會員으로, 교통부 등 18개업체 준회원으로서 가입하였으며 1966년에는 대한관광협회, 국제관광공사, 대한항공이 각각 東亞細亞觀光協會(EATA)에 가입하였고 1966년에는 USOM의 지원으로 외국전문가에 의해 한국관광지를 최초로 진단한 Morton. D. Kauffman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때부터 우리나라 觀光事業 발전의 일대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일본에서 개최된 ‘EXPO 70’으로 인하여 많은 해외선전과 유치활동으로 외래관광객이 입국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는 觀光事業이 정착,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종합산업으로 체계적인 발전의 초석을 놓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1970年代－劃期的 發展時期

1) 觀光振興時期의 推進

1970년대의 한국관광은 관광산업을 經濟開發計劃에 포함시켜 국가의 주요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시키는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관광시장의 다변화와 관광진흥 저해요인 및 사례의 제거와 관광객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능률적이고 강력한 觀光行政機構를 강화한다는 觀光事業振興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또 觀光事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중요도를 재인식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초에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있어서 최초의 호경기를 누렸던 시기로서 관광객의 대폭증가와 막대한 외화취득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하여 관광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분명하게 표명되었다. 특히, 1973년의 관광객의 급증은 적극적인 振興政策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사회변화에 따른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로, 일본인들의 생활관의 변화, 직장 근로자의 위락휴가(Incentive Tour)의 장려, 여가시간의 증대, 소득수준의 향상에서 외국여행을 지향하는 가치관과 지역적으로 일본이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利點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계속되었다. 1971년에는 전국의 관광지를 10대 觀光圈으로 설정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말부터 지정되어온 國·道立公園과 관광지가 계속 지정되었다.

2) 觀光行政組織의 改編

1973년에는 國際觀光公社의 機構를 진흥개발 체제로 개편하여 국내의 관광진흥개발사업만 맡게 하고, 동 공사의 선도영업체인 위커힐(1973년 3월 12일 민영화), 대한여행사(1973년 6월 30일 민영화), 운송사업소(1973년 6월 29일 민영화), 特定 外來品 販賣所(1974년 2월 18일 민영화), 반도호텔(1974년 6월 7일 민영화) 등을 민간업체에 이관하였다.

1973년 4월 25일 大韓觀光協會中央會도 機構改編을 단행하여 관광사업진흥을 위한 홍보활동 및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고 업계의 권익증진 및 상호친선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구를 강화하고 韓國觀光協會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3) 觀光法規의 整備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본격적인 관광단지조성을 위해 1975년 4월 4일 관광단지개

발촉진법 공포에 이어 1975년 12월 31일을 기해 觀光事業振興法을 觀光基本法과 觀光事業法으로 분리·제정되었다. 종전 觀光事業振興法은 觀光事業의 종류를 8종으로 구분하여 오던 것을 대폭 정리하여 이를 시행알선업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3종으로 구분한 것이 이 때였다.

1970년대 후반에 관광에 관한 법규가 대폭 정비되었는데 그 주요사항은 觀光事業法(1975년 12월 31일 제정, 법률 제2878호), 관광기본법(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77호), 觀光事業法(1977년 12월 31일 개정, 법률 제3088호), 觀光事業法 施行令(1976년 7월 20일, 大統領令 제 8194호), 觀光事業法 시행규칙(1976년 7월 30일, 교통부령 제541호), 관광정책심의위원회 규정(1976년 9월 4일, 대통령령 제8238호) 등이었다.

4) 觀光與件의 變化

1979년에 들어와서 세계의 국제관광은 이란의 정변과 OPEC에 의한 석유가격의 대폭인상 등 정치경제적 주요요인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도 세계적 경제불황에 따른 소비절약풍조와 국내의 제반사태로 관광객은 1978년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나 당초목표에는 미달하였으며 외화는 전년대비, 20%나 감소하였다.

1980년도에는 120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여 이들 관광객을 통하여 5억불의 외화를 획득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 이러한 목표달성과 1980년대를 대비한 수용태세확립,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진흥을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으나, 내외정세의 불안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외래관광객의 방한이 크게 감소하였다.

결국 1970년대는 한국관광의 획기적 발전기로서 이 시기에 관광수요가 급격히 팽창하는데 대비한 관광시설의 정비, 관광자원의 개발확충, 고유문화재의 개발 및 보전, 관광요원의 자질향상, 관광서비스 개선 그리고 건전한 관광풍토 조성, 대규모 관광단지의 개발, 대량관광과 국민관광의 본격화와 특히 국민복지 실현을 위한 국민관광의 여건 등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관광시장 구성의 다양화, 판매방법의 개척, 관광조사통계의 정비, 관광학연구의 활성화, 관광협회의 업계지도, 관광행정의 쇄신과 관광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등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의 역할과 기능을 거대화한 한국관광의 획기적인 발전기라 할 수 있다.

4. 1980年代—成長과 跳躍時期

1980년대에 들어와서 1970년대 후반의 관광여건의 악화현상이 1980년대 초로 이어지는 과

정에서 어느 정도 회복의 징후는 보였으나, 정치·사회적 불안이 계속됨으로써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일본인들의 왜곡된 편향보도와 물이해로 일본시장에 의존하던 외래관광객의 격감을 가져옴으로써 관광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유치로 관광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정부의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1983년에는 50세이상 국민의 관광목적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국제관광시장의 매력과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크게 성장, 발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의 생활수준향상과 더불어 1970년대 후반부터 국민관광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무르익기 시작되어 관광이 대중문화 산업사회의 특징으로 등장하게 되어 국민의 국내관광은 국민화합과 지역개발의 촉진, 교통여건이 발전되어 국민각계층의 여가증대와 함께 관광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1983년 9월에 서울에서 열린 제 53차 ASTA(미주여행업자협회)총회는 세계각국의 여행업자에게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심어주어 일본인과 미국인에 편중되었던 外來觀光客層이 多元化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결국 우리나라의 관광은 중국의 문호개방정책으로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지리상의 이점과 세계 항공사의 한국노선취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 등으로 외국관광객수의 증가가 계속될 전망으로 한국경제에 있어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계속되어 무역외수입으로서의 높은 비중을 관광산업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

5. 1990年代－國際化時代

'93 大田 Expo개최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있어서 국제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II. 大邱地域 觀光産業의 發展方向

1. 觀光地域의 性格 및 範圍

1) 地域의 性格

대구지역은 大邱近郊圈의 5개 지역 중 가장 중심적인 지역으로 입지적으로 주위 4개지역에 둘러싸여 있다. 대구지역은 주변 4개 지역 및 주변도시와의 機能相關性에 관광기반으로서의

1) 《慶北觀光統計年報》, 1986.

측면과 대구시의 여러 도시환경자체가 관광의 대상으로서 기능을 갖는 두가지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고려될 수 있다.

도시관광환경의 조성을 위한 대구지역의 주요계획과제로 관광측면에서 도시가 지닌 상기의 두가지 특성을 보다 강화, 향상시키는 방안수립이 요구된다.

2) 地域의 範圍

행정구역상 대구직할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대구지역의 면적은 455.62km²로 대구근교권 전체면적의 7%에 해당한다.

2. 觀光資源 및 特性

1) 指定 現況

대구시의 공원 총면적은 59.2km²(73개소)로 이 중 基調性面積은 16.9km²(88년 기준, 자연공원제외)이며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공원면적의 95%에 해당하는 56.3km²이다.

유원지는 2개소로 금호강(동촌), 수성지 등에 계획되어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완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유원지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대구에 포함되어 있는 수성유원지와 동촌유원지의 면적은 2.7km²이다.

2) 開發 및 利用 現況

팔공산 자연공원은 4개 集團施設地區(동화사, 갯바위, 자연학습원, 파계사지구)를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성계획사업은 완료된 상태에 있다.

대구시의 도시공원 조성현황을 전체면적 26.0km²이며, 미개발지구는 공원녹지 용지의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부지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으로는 남구의 앞산공원, 동구의 봉무공원, 수성구의 범어공원 3개로서, 시가지에 인접, 접근이 용이하여 팔공산 자연공원과 함께 대구의 근린행락지로 이용되고 있다.

대구시 녹지체계는 팔공산과 비슬산(앞산)을 연결하는 산악경관축과 신천, 금호강, 낙동강을 연결하는 수변경관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3. 觀光都市로서의 開發方案

관광도시조성에 영향을 미쳐왔던 기존의 관련계획들을 살펴보면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

계획, 도시재개발계획, 도시설계구역지정이 있으며, 이외에도 건축법, 문화재 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장치를 갖추는 일은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고, 차선택으로는 현행법적·제도적인 여건하에서도 도시관광 활성화계획이 집행 혹은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인 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

1) 都市設計區域의 指定

관광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중 특히 가로환경의 개선과 상징시설물의 조성 등 그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역을 ‘都市設計區域’으로 지정하여 도시설계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都市基本計劃에 反映

「都市觀光環境造成」을 위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대상지역의 토지이용의 개선을 위한 지역지구제와 가로망 또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등 여러문제들을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3) 文化財 整備 및 補修計劃에 反映

도시관광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종종 도시내의 각종 문화재가 계획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도시내 주요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문화재 정비와 보수계획 수립시에 그 조성방안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 建築條例 및 建築審議 基準에 反映

현대 도시내에서 관광요소는 공간적 차원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시설이나 건물 등의 구체적인 형태나 색채, 규모 등을 다루어야 되는 사항들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건물이나 시설에 관한 내용을 당해 도시의 建築條例나 建築審議 基準에 포함시켜 시행함으로써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5) 公園設計·街路設計 등의 環境設計에 反映

도시관광요소들 중 공원녹지, 가로환경, 지장시설물 등에 관한 계획이나 설계들이 해당공원이나 가로에 의한 세부설계가 별도로 수립되어질 때, 그 관광적 특성이 설계안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III. 大邱地域의 觀光資源

1. 概 觀

대구는 1981년 7월을 기해 직할시로 승격된 우리나라 제3의 대도시로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三韓時代에는 達句伐, 新羅初期에는 達句火라 칭하였고,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大丘로 개칭했다. 高麗때는 壽城郡의 領縣으로 삼았으며 縣領을 두게 되었다. 朝鮮 世宗 元年(1419년)에 대구군으로 승격하여 수성을 그 속현으로 하고 현 대구와 달성군의 팔공면, 다기면, 성서면, 가창면을 포함하는 지역을 관할했다.

大丘를 大邱로 개칭하게 된 경위는, 丘字가 大聖 孔子의 위자이므로 이를 개칭하기 위하여 영조 26년(1750년) 대구유생 이형미가 상소한 바 있으나 왕의 윤허를 얻지 못하고 그후 약 30년후인 정조초기 1780년대부터 大邱로 쓰게 된 것이다. 고종때는 大邱郡으로 개칭했다가, 1910년 이후는 大邱府로 되었다.

1918년에 달성군의 봉덕동 및 대명동 일부를 市城에 편입하고 1937년 10월 1일 달성군의 수성면, 달서면, 상북면을 편입하여 공장지대로 조성하는 등 도시건설을 추진중 1945년 8.15와 더불어 路洞의 명칭이 바뀌었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府를 市로 개칭했으며, 1958년 1월 1일 달성군의 공산면, 동춘면, 가창면, 성서면, 월배면을 편입함으로써 시구성은 대폭 확장되었다.

1963년 1월 1일에는 區制실시로 서변동, 동변동을 제외한 팔공면과 읍동을 제외한 가창면, 성서면, 월배면을 달성군에 환원시키고 현재는 7개구(중, 동, 서, 남, 북, 수성, 달서)로 되어있다.

1965년의 제1차, 1969년의 제2차, 1974년의 제3차 도시계획을 거쳐, 지금은 인구 230만명의 嶺南雄都로서 敎育문화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또 구미, 포항, 울산공업단지를 잇는 내륙 섬유공업도시로 발전했다.

대구는 수도 서울과 항도 부산의 양도시를 잇는 중간요지로서 서울에서 철로 327.1km, 육로(국도) 320km이며, 부산에서 철로 117.4km, 육로(국도) 150.6km의 거리에 있다. 洛東江의 중류(하구에서 240km)인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점에 위치한 대구는 낙동강의 全流域平野를 배후로 삼고 있는 영남의 중심도시이다.

대구는 태백산맥의 支脈을 타고 북으로 팔공산(1,162m), 남으로 금호산(1,086m)에 둘러싸인 분지에 있다. 대구는 서문시장을 비롯한 90여개소의 대소시장과 9개의 백화점이 있고, 지금도 그 상권이 삼남에 뻗치고 있다. 특히 건어물, 포목, 사과 등의 거래는 대단하며, 또한

대구명물의 하나인 藥令市는 조선시대부터 구내의 한약재의 집산거래장이었다.

근래에 이르러 대구는 팔목할 만큼 공업이 발달하여 종래의 소비도시에서 섬유생산도시로 변모했다. 제일모직, 한국 나일론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섬유공업으로서, 면방직, 모직물, 견직물, 혼방, 화학섬유, 제사업을 망라하고 있다.

대구 사과 생산지로도 유명하다. 이는 1892년 미국인 선교사의 정원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구 사과의 영리적인 첫 재배는 1902년쯤이다. 대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성숙기에는 건조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며 일조량이 풍부해서 세계적으로 품질 좋은 사과가 생산된다. 대구 사과는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도 잘 알려져 있어 대구를 ‘사과고장’으로 알고 있다.

2. 觀光環境

1) 觀光地 現況

대구권내의 주요관광지를 교통부 지정관광지,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유원지로 대별하여 볼 때, 교통부 지정관광지가 5개소, 자연공원이 4개소이며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이 31개, 어린이공원 142개소, 유원지 3개소 등이 있다.

〈表 13-1〉 主要 觀光地 現況

구 분		명 칭 (위 치)	비 고
교통부 지정관광지		직지사(금릉군), 운문사(청도군) 가산산성(칠곡군), 청도온천(청도군), 경산온천(경산군)	운문사는 운문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와 중복지정
자연공원	국립공원	가야산 국립공원 백운동 지구 (성주군)	
	도립공원	팔공산도립공원(칠곡군, 군위군, 경산군, 영천군, 선산군), 금오산 (구미시)	팔공산도립공원 구역중 대구시계 구역은 대구시에서 관광
	군립공원	비슬산(달성군), 운문산(청도군)	
도시공원 및 유원지	도시자연공원	앞산(대구남구), 봉무(대구동구) 범어(대구수성)	도시공원 및 유원지는 대구 직할시의 경우임
	근린공원	달성, 중앙, 망우, 두류공원 등 28개	
	어린이공원 유원지	동구 14개소 등 142개소 화원(달성군), 동촌(대구동구), 수성(대구수성)	

資料 : 대구직할시 공원과, 《전국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 1989.

〈表 13-2〉 圈域內 觀光地 指定 現況 (단위: km²)

관 광 지 명	위 치	지정일자	지정면적	비 고
직 지 사	금릉군 대항면 운수동	1971. 5. 20	5.68	* 직지사의 최초지정 면적은 8.18km ² 임
운 문 사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981. 1. 18	0.162	
가 산 산 성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1986. 10. 24	0.392	
경 산 온 천	경산군 남산면 상대리	1987. 12. 10	0.262	
청 도 온 천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1989. 6. 3	0.473	

資料: 교통부, 《1989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 觀光地 指定 및 開發 現況

교통부 지정관광지로는 대구근교권의 지정관광지 5개소로 지정면적은 6,969km²이며 이는 전국 총 관광지 108개의 약 5%에 해당하며 전국 총 지정면적 301,779km²의 2.3%에 해당된다.

도립공원은 대구와 경북에 걸쳐있는 팔공산과 구미의 금오산이 있으며 그 면적은 도합 159.99km²에 해당하며 군립공원으로는 운문산과 비슬산으로 그 면적은 29.2km²이다.

3) 都市公園 및 遊園地

대구직할시내 공원 및 유원지 지정면적은 총 28.7km²로 도시공원은 공원 및 유원지 전체면적의 90%에 해당하는 26.0km²이며 유원지는 10%에 해당하는 2.7km²이다.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공원 전체면적 26.0km²중 76%에 해당하는 19.8km²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린공원이 23%에 해당하는 5.9km², 어린이대공원이 1%에 해당하는 0.3km²을 차지하고 있다.

〈表 13-3〉 公園 및 遊園地 現況(大邱市, 1991. 5. 31 현재) (단위: 천m)

구 분		계		계		계		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76	59,195	98	16,910	27	39,945	51	2,340
도 시 공 원	소 계	173	25,928	98	16,910	24	6,678	51	2,340
	도시자연공원	2	18,656	1	14,846	1	3,810		
	근 름 공 원	29	6,981	8	1,193	7	2,839	14	2,229
	어 린 이 공 원	142	291	89	151	16	29	37	111
팔공산 자연공원		1	30,593			1	30,593		
유 원 지		2	2,674			2	2,674		

資料: 대구직할시 관광과

4) 観光資源 現況

(1) 自然資源 現況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로는 지정관광지 5개소, 국립공원 1개소, 도립공원 2개소, 군립공원 2개소가 있으며, 앞산공원, 봉무공원, 범어공원이 대구직할시의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구근교권의 주요 자연자원으로서는 낙동강을 중심으로한 수계자원과 대구주위의 팔공산, 앞산, 비슬산, 청룡산 및 구미의 금오산, 청도의 운문산 등의 산악자원이 있다. 기존의 관광지는 대부분 산악자원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구시민의 온천관광지의 개발 및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表 13-4〉 資源類型別 觀光地 指定現況

자 원 유 형	명 칭	위 치	비 고
산 악 형 관 광 자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산산성 관광지 ·운문사 관광지 ·가야산 관광지 ·팔공산 관광지 ·금오산 도립공원 ·비슬산 군립공원 ·운문산 군립공원 	칠곡 청도 상주 대구, 선산, 달성 경산, 칠곡, 군위 구미, 금릉, 칠곡 달성 청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문사 관광지는 운문사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와 중복지정
내 수 면 형 관 광 자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원 유원지 ·수성 유원지 ·동촌 유원지 	달성 대구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호강 및 낙동강 연접지역 ·수성지주변개발 ·금호강수계개발
온 천 자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산온천관광지 ·청도온천관광지 	경산 청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중 ·미개발
역사·문화형 관광자원	·직지사 관광지	금릉	

資料：대구직할시 관광과

(2) 文化資源 現況

지정문화재를 살펴보면, 국보가 3종, 보물이 75종, 사적이 12종, 천연기념물 9종 등에 달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를 합쳐서 총 306개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문화재는 유형문화재

92종, 기념물이 27종, 무형문화재 7종, 민속자료 12종에 달하고 있다.

행정구역별로는 대구직할시가 총 72종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천군 및 청도군이 37종, 성주군이 25종을 보유하고 있다. 민속문화행사로는 대구근교권의 주요 민속문화행사로 총 10여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고령의 대가야문화예술제 및 성주의 성산문화제가 유명하며 이들은 가야문화를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3) 其他 觀光資源

사찰 및 불교문화유적으로서는 대구근교권에는 다수의 사찰 및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는데, 특히 대구의 남북에 위치한 팔공산 도립공원과 앞산 도시자연공원에는 도합 30여개의 사찰이 분포되고 있으며, 현재 건설중에 있는 운문댐과 성주댐은 앞으로 내수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며 고령의 중화저수지 및 청도의 동창천 등의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5) 觀光產業 現況

(1) 觀光宿泊業

관광숙박업은 관광호텔업, 유스호스텔업, 해상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구시에는 관광호텔이 35개소, 유스호스텔이 1개소, 휴양콘도미니엄업이 2개소, 가족호텔 1개소가 있으며, 대구근교권의 관광호텔은 특급 1개소(130실), 1등급 8개소(579실), 2등급 9개소(471실), 3등급 3개소(129실)로 총 21개소(1,309실)가 있다.

〈表 13-5〉 觀光호텔 登錄現況(1989. 6월 말 현재) (단위: 개)

구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기 타		합 계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전국	18	9,251	30	6,931	70	8,305	82	5,566	80	4,101	3	125	283	34,279
경북	3	917	—	—	3	358	5	362	7	376	—	—	18	2,013
대구	—	—	1	130	7	528	7	387	2	93	—	—	17	1,138
대구 근교	—	—	1	130	8	579	9	471	3	129	—	—	21	1,309

資料: 교통부, 『'89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89.

(2) 旅行業

대구근교권의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2개 업체, 국외여행업 23개 업체, 국내여행업 71개 업체가 있다.

〈表 13-6〉 旅行業體 登録現況 (단위: 개소)

구 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 국	158	358	1,000
경 북	1	6	81
대 구	2	23	38
대구근교권	2	23	71

資料: 교통부, 『'89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89.

(3) 觀光客 利用施設業

대구근교권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소 1개소,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10개소, 종합 휴양업 25개소가 있다.

〈表 13-7〉 市·道別 觀光客 利用施設業體 登録現況 (단위: 개소)

종 별 시 도	외국인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	관 광 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종합 휴양업	전문 휴양업
전 국	73	65	282	15	1
경 북	6	6	30	1	—
대 구	—	—	9	25	—
대구근교권	1	—	10	25	—

資料: 교통부, 『'89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89.

Ⅳ. 大邱 地域 觀光事業體 實態

1. 旅行業

1) 一般旅行業

一般旅行業體란 國內 또는 國外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및 기타 부수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그 밖에 여행상의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觀光事業體로서, 주요 해외시장에 조직망을 확보하고 경쟁국들과 판촉경쟁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7년 7월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一般旅行業體數는 총 90개사이며, 이들이 유치한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1986년의 경우, 59만 739명으로 총외국인 입국자의 36%이고, 순수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래객에 대한 점유비는 57.8%에 이른다. 그러나 1987년에는 7월까지의 累計가 29만 2,140명으로 총 입국자수의 33%에 그쳐, 그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

地域内에서는 (株)서라벌여행사와 (株)올림픽아여행사가 대구직할시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서울에 본사를 둔 뉴월드관광(株), (株)세기항공, (株)세방, (株)한국관광 등 4개소가 각각 대구지사를 두고 있으며, 경상북도에는 경주보문단지내의 「慶州朝鮮호텔」이 유일하게 일반 여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다.

2) 國外旅行業

이는 國外를 旅行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체로서, 종전에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따른 여권발급업무 및 여권수속대행업무에 등을 수행하던 항공운송대리점업을 1982년도에 그 登錄基準을 강화함과 아울러 명칭을 여행대리점업으로 변경했다가, 1987년 7월 1일에 다시 내국인의 국외여행에 대한 알선업무를 추가하면서 그 명칭을 바꾼 것이다. 1987년 7월말 현재 등록된 전국 국외여행업체는 모두 51개인데, 域内에는 大邱直轄市內에 4개사가 있으며, 경북도내에는 등록된 국외여행업체가 전무한 상태이다.

3) 國內旅行業

이는 國內를 여행하는 內國人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서, 종래에는 허가제로 되어 있던 것이 1982년도부터 登錄制로 변경됨에 따라 급증세를 보여, 1987년 6월 말 현재 전국에 725개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地域内에서는 현재 大邱直轄市內에 25개 업체가, 경북에 66개 업체가 등록되어 전국업체수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

2. 觀光宿泊業

1) 觀光호텔業

觀光호텔은, 1987년 7월 1일 觀光振興法施行規則의 개정으로 종전에 없던 최소객실수의

제한규정을 두어, 서울은 50실, 부산은 40실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등급구분에 있어서도 4단계에서 특급을 제1급과 제2급으로 세분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987년 6월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觀光호텔은 188개 업체에 2만 5,308실이며, 이중 대구·경북은 24개 업체에 2,273실로, 서울의 58개 업체 1만 2,049실이나 부산·경남의 40개 업체 4,675실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域内 觀光호텔을 等級別로 보면, 特級에는 대구의 「琴湖」를 비롯하여 경주의 「慶州도쿄」, 「慶州朝鮮」, 「코오롱」 등 4개업체에 총 971실이고, 1급은 대구의 「壽城」, 「한일」, 「동인」, 「동대구」, 「大邱파크」 등 5개 업체와 울진의 「백암」을 합해 객실수는 487개이다. 그리고 2급으로는 대구의 「뉴-영남」, 「뉴-종로」, 「동춘」, 「국제」와 구미시의 「금오산」, 울진의 「성류파크」, 포항시의 「포항비취」등이며, 3급으로는 대구의 「로얄」과 「동산」을 비롯하여 경주의 「불국사」, 「궁전」, 「보문호」와 경산의 「상대온천」 및 울진의 「백암동해」등이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既存 觀光호텔 이외에 역내에서 事業計劃承認을 얻었거나 건축 중이거나 이미 건축이 완료된 觀光호텔의 경우를 보면, 대구의 「대구프린스관광호텔」, 「대구관광호텔」, 「대구서부관광호텔」, 「대구타워호텔」, 「정동관광호텔」 등 5개 업체를 비롯하여, 울진의 「동해성류」와 「백암프라자」 등 2개 업체와 포항에 2개 업체, 그리고 경주시·구미시 및 청송에 각각 1개 업체씩 이다.

全國 觀光호텔의 總 利用客數는 1986년 중 5,848만 8,311명인데, 이들 중 72.7%는 내국인이고, 27.3%가 외국인이며, 부대시설 이용자와 객실 이용자의 구성비는 각각 83.7%, 16.3%씩이다.

客室利用者 中에서는 特級호텔을 이용한 人員이 442만 2,436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1級호텔 24.2%, 2級호텔 17.0%, 3級호텔 6.6% 등의 순으로, 高級호텔일수록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개 觀光호텔에서의 평균 숙박일수는 전체평균이 1.8일이고, 외국인평균이 2.0일, 내국인평균은 1.5일인데, 이를 외국인의 국내 평균체류일수인 5.5일과 비교하면,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보통 2~3개의 지역에서 숙박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客室當 평균투숙인원수는 1.7명인데, 이를 호텔 특 급별로 보면, 特級은 1.4명, 1級이 1.8명, 2級이 2명, 3級이 2.2명 등으로, 低級일수록 하나의 객실에 많은 인원이 투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大邱地域의 경우를 보면, 1986년 중 觀光호텔의 총이용인원은 전국의 8.7%인 510만 9,686명인데, 이 가운데 75.9%는 내국인이고, 24.1%가 외국인이며, 객실 이용자와 부대시설 이용자의 비중은 각각 17.5%, 75.9%씩이었다. 이와 같은 동향을 보인 域内 觀光호텔의 객실이용률은

대구직할시가 65%로 서울을 제외한 他市道에 비해 높은 반면, 경북은 52%로 전국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형편이다.

大邱地域 觀光호텔의 1986년도 총 수입금액은 전국 관광호텔 총 수입금액의 6.4%인 302억 5,841만원인데, 이 중에서는 경북이 174억 1,790만원으로 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大邱直轄市는 128억 4,052만원으로 4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주지역의 觀光호텔 총 수입금액은 대구직할시와 거의 비슷한 127억 4,434 만원으로 경북 전체의 73.2%를 차지하고 있다.

2) 유스호스텔業

유스호스텔은 靑少年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業으로서 靑少年들이 가정을 떠나 적은 비용으로 자연 속에서 오락 및 야외활동을 통해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도장이 된다.

이는 다시 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1種과 2種으로 구분되는데, 1種은 주로 외국 청소년들의 수학여행단 수용에 적합하도록 숙박시설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2種은 주로 내국인 청소년층의 단체여행에 적합하도록 겸소한 설비에 오락 및 운동시설과 회의장을 겸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7년 6월 말 현재 전국 12개소에 760실이었는데, 이는 모두 1종의 유스호스텔이며 2종 유스호스텔은 전북 남원시의 남원관광단지내에 44실 규모로 1개소를 시범적으로 건설하였다.

域内の 경우 大邱直轄市内에는 全無하며, 경주에 1개 업체가 80실을 갖추고 있다.

3) 休養 콘도미니엄業

休養을 위한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業으로서, 1982년 12월 31일 觀光事業法施行令을 개정하면서 관광숙박업종에 신설 추가한 것이며, 1987년 6월 말 현재 전국에는 6개 업체가 등록되어 11개소에 2,150실을 보유하고 있다.

域内에는 현재 「(株)한국 콘도미니엄」이 경주시 신평동에 1개소(한국콘도)를 설치하여 103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에 延面積 2만 8,202㎡에 지상 7층과 지하 2층 및 옥탑 2층의 「백암프라자리조트」이 신축되었다.

3. 觀光客利用施設業

觀光客利用施設業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 또는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하는 業이다. 1987년 6월 말 기준으로 볼때,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254개 업체,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69개 업체와, 이밖에 골프장업 31개소, 관광음식점업 26개 업체, 종합휴양업 13개 업체 등 총 393개 업체가 있으며, 전문휴양업은 등록된 업체가 없다.

그리고 이들의 86년도 觀光收入實績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이 247억 9,700만원, 관광음식점업이 171억 3,200만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이 117억 5,200만원, 골프장업이 20억 200만원, 綜合休養業이 13억 8,200만원 등이며, 業種別 업체당 평균 수입액은 관광음식점업이 6억 5,900만원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3억 5,900만원, 綜合休養業 1억 600만원, 골프장업 6,500만원, 외국인전용 음식점 4,600만원 등의 순이다.

大邱地域内에는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이 51개업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관광음식점업 8개 업체,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점 6개 업체, 골프장업 5개 업체, 종합휴양업 1개 업체 등 모두 71개 업체로 전국의 18.1%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골프장업체의 경우 경산의 「大邱칸트리클럽」(18홀), 경주 보문단지내의 「조선칸트리클럽」(36홀), 팔공산의 「팔공칸트리클럽」(18홀) 등 3개는, 회원제 골프장업체이고, 나머지 2개소는 간이골프장업체이며, 대중골프장업체는 아직 없다.

그리고 최근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민속문화자원의 소개시설, 운동시설, 유흥·오락시설, 음식·숙박시설, 기타 휴양에 필요한 시설 등을 복합하여 운용하는 종합휴양업체로는 경주시 천군동에 위치한 「도투락월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195만 5,921㎡에 운동시설과 오락시설 및 관람시설 등을 갖추고 1985년 5월 20일 개장되었다.

4. 國際會議 用役業

이는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國際會議의 계획, 준비, 진행 등과 같은 업무를 행사 주관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으로서, 관광진흥법상 새로운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추가된 것인데, 아직 전국적으로 등록된 업체는 없다.

5. 觀光便宜施設業

觀光客便宜施設業體란, 이상에 열거한 관광사업 외에 觀光振興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이다. 전국에는

1987년 6월 말 현재 일반관광식당업체 109개소와 관광사진업체 43개소가 지정되어 있을 뿐, 자동차정류장업, 관광토속주판매업 등으로 지정된 업체는 없다. 그리고 域内에는 1988년 2월말 현재 慶北에 전문관광식당업체 1개소와 일반관광식당업체 1개소가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表 13-8〉 大邱地域 主要 觀光資源 現況 및 特性

구	분	명 칭	위 치	자 원 특 성
자연 공원	자연공원 도립공원	팔공산	동구 도학동, 중대동, 능성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백산맥의 지맥으로 영남의 명산임 * 대구도심으로부터 북부로 약 22km지점에 입지 * 대구의 진산으로 동화사, 은혜사, 부인사, 파계사등 수십개의 사찰과 국보 2점, 보물 9점, 사적 2점, 30개의 명승지가 산재 * 개발 및 시설현황 동화사 집단시설지구(상업시설, 숙박시설, 식당등), 파계사 집단시설지구, 갯바위 집단시설지구, 팔공산 컨트리 클럽, 자연학습원지구, 수태골휴식소, 청소년야영장 * 이용현황 - 자연공원으로서 자연경관 탐방 - 동화사, 파계사, 갯바위 등 불교행사
도시 공원및 유원지	도시 자연공원	앞 산	남구 대명동, 송현동, 수성구 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의 남부지역에 입지 * 대구 최대의 도시자연공원 * 자원현황 청룡산, 산성산, 앞산, 대덕산 큰골, 고산골, 안지랑골, 용두골, 달비골 * 시설현황 충혼탑, 낙동강승전기념관, 수영장, 케이블카, 유기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승마장, 체육시설, 탐험놀이시설 * 이용현황 - 대구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처 - 케이블카와 등산로를 이용한 정상전망 및 등산 - 이용객 540만명(1985)
		범 어	수성구범어 동, 황금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에서 편리한 교통체계 *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시설유치

구 분	명 칭	위 치	자 원 특 성
도시공원 및 유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현황 어린이 회관, 과학관, 조정시설물 * 이용현황 - 어린이 및 가족위락활동 - 과학관 등 기술적 이용
	근린공원	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현황 * 삼한시대 토성유적지(사적지 제62호) * 관풍루(지방문화재) * 시설현황 토성, 관풍루, 문화관, 동물원, 어린이 현 장패, 최재우 동상, 조정시설물, 휴식소 * 이용현황 - 대구시민의 도심내의 휴식장소 제공 - 동물원 탐방 - 조기산책 - 이용객 1,543천명(1988)
		중 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현황 - 경상 감영유적지 - 과거 경북도청 위치 - 의화당, 등청각(지방문화재) * 시설현황 의화당, 등청각, 관리소, 통일의 종각, 분 수, 연못, 조정시설물, 팔각정 * 이용현황 - 시내중심지의 녹지로서 단기휴식의 기 회제공 - 산책 휴식 - 이용객 611천명(1988)
		두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현황 - 5개의 작은 산봉과 구릉지 - 도심내의 아름다운 녹지공간 - 체육, 문화시설을 갖춘 체육문화공원 * 시설현황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도서관, 수목전 시장, 성당못, 문화예술회관, 조정시설 물, 대구타워

구 분	명 칭	위 치	자 원 특 성
도시공원 및 유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활동과 관람 - 수목원, 성당못 주변의 산책과 휴식 - 청소년들의 도서관 이용과 휴식 - 이용객 8,323천명(1988) - 두류공원의 대구타워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유희시설 중심의 주제공원 계획
	유원지	동 촌	동구 효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우공원과 인접 - 하절기 수변놀이 * 시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케이블카, 유기장, 보트장, 체력단련시설 * 이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절기 수변놀이 이용 - 조기운동 코스
		수 성	수성구 두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성못과 주위의 산 - 신천과 인접 - 물 중심의 하계유원지 * 시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트장, 스포츠센터, 유기장, 대중음식점 * 이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절기 수상이용
도시환 경요소	가 로	동성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도심의 상업중심 가로 * 차량통행이 제한된 보행 중심도로
		동대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구역과 수성유원지 사이의 도시간 선도로 * 가로 및 중앙분리대의 녹지상태가 양호하며, 대구시 진입로의 성격을 가진 가로로 양호한 경관특성을 유지
	시 장	서문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영남지역의 섬유 및 의류집산지 역할
		약령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부터 형성된 전국제일의 약재시장 * 현재 다수의 한약방이 산재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약재유통의 중심지

구	분	명 칭	위 치	자 원 특 성
도시환경 요 소				* 대구 달구벌 축제기간에 약령축제를 개최
	건축물 및 기념비	대구타워	두류공원내	* 두류산 근린공원내에 유희시설과 함께 건설 * 탑신 : 153m * 층수 : 지하 1층, 지상 6층
		조양회관	망우공원내	* 3.1운동 이후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대응 민족혼 심기 위해 1922년에 건립 * 1984년 망우공원내로 이전 복원
		계산성당	중구계산2동	* 우리나라 고딕양식의 초기 건축물
		상화시비	달성공원내	* 시인 이상화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1948년에 달성공원에 건립
		낙동강전 승기념관	앞산공원내	* 실내에 전적유물 전시와 옥외에 사용 무기를 전시
문화재 국 보 보 물 사 적 기념물	국 보 제14호	거조암 영산전	영천군 청통 면 신천동	* 조선초기 목조전물
	보 물 제431호	관동석조 여래좌상 (갯바위)	팔공산	* 통일신라시대의 걸작으로 자연바위에 조각
		동화사	동구 도학동	* 대구도심에서 동북쪽으로 약 22km 떨어진 팔공산 남쪽기슭에 위치 * 보물 5점과 다수의 문화재 보유 * 자연자원이 수려
		파계사	동구 중대동	* 대구도심에서 서북쪽으로 약 19.5km 거리에 입지 * 804년 신라 애장왕 5년에 창건
	천연기념물 제1호	측백송림	달성군 도동	* 측백송림 군락지
	기념물 제2호	건들바위	중구 대봉동	—
	사 적 제202호	불로고분군	동구 불로동	* 고분군 211기 * 근린공원으로 개발 추진중

〈表 13-9〉

觀光圈域 交通體系

구분	개 선 방 향	비 고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접근도로의 정비,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 영천, 청송간의 31,35호선 국도의 포장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 대구~영천~포항의 국도 28호선의 확폭정비를 통해 동부지역 및 관광지와와의 연계성 강화 * 기존 주요 도로 건설계획의 조속 추진 - 구마 고속도로의 4차선화 - 중앙고속도로(대구~안동~춘천)의 건설 	대구~포항간 도로의 준고속도로화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부고속전철의 추진에 따라 철도 및 도로 연계시스템 강화 - 대구선(대구~영천)과 중앙선(대구~영천~안동)을 활용, 철도연계 수송체계를 강화 - 대구~영천~경주 구간을 철도관광코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키지 상품판매 · 서비스 및 시설개선(관광열차 운행) * 운행체계의 개선 - 운행회수의 증차/수단의 고급화 - 환승체계의 개선/연계시설 확충 	관광철도 육성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지역간 항공체계의 강화 및 국내 주요 지점간의 연계노선 취항 - 청주, 진주, 여수, 속초 등지에 대한 노선증설 * 국제선의 취항 - 국내 관광객의 해외여행 증대와 해외 관광객의 대구근교권 유치 	-

〈表 13-10〉

大邱觀光 沿革

年 代	主 要 事 項
1959. 9.	· 大邱觀光호텔 營業開始
1960. 1. 15	· 大邱 東村飛行場을 民航用으로 사용
1962. 7. 4	· 大邱飛行場 設置
1963. 5. 10	· 琴湖觀光호텔 개관
1968. 3. 20	· 大邱 壽城觀光호텔 개관
1971. 10. 21	· 大邱 韓一호텔 개관
1971. 11. 23	· 大邱 로얄호텔 개관
1975. 3. 4	· 大邱 뉴鍾路호텔 개관
1979. 1. 24	· 大邱 동인호텔 개관
1980. 3. 1	· 大邱관광센터 개관
1981.	· 뉴영남호텔 개관
1986.	· 파크호텔 개관

V. 觀光施設の 長期開發計劃

1. 大邱大公園 綜合開發計劃

1) 開發計劃의 概要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레저인구 및 수송수단의 발달로 공원이용차량이 날로 급증하고 시설욕구가 종합적이고 대규모적으로 변모함에 따라 대구근교의 약 670만평 규모의 광활한 대덕산 일대지역을 대구대공원으로 지정하여 인접한 휴양지 및 유원지, 공원을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대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레크레이션, 위락, 문화 및 교육 등의 활동이 조화된 세계적인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구대공원은 자연자원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형지물에 따라 자연특성을 살린 공원시설을 구상하고 있으며, 시민의 여가, 레크레이션 행태 등 공원의식을 조사하여 시민선호도를 반영 하도록 하고 있다.

조류, 야생동물, 어류, 약초원, 수생식물 등 자연탐방지구를 설정하여 교육적 기능을 최대로 부여하고, 인근에 위치한 경산, 청도의 온천휴양지와 수성유원지, 앞산공원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공간적 범위는 대구직할시 수성구 대덕산 일원에 위치하고 범물동, 삼덕동, 내환동, 옥수동, 노변동 일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면적은 22,150,000m²(6,700,000평)이다. 시간적 범위는 계획기준년도 1991년, 계획목표년도 2011년으로 수립하고 있다.

2) 開發與件의 内容

대구대공원 종합계획 및 관련된 계획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① 다양한 휴식 위락공간 및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의 유도, ② 관광여가산업을 국민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육성, ③ 자연자원과 역사 문화자원의 보전 및 여가활동의 제고, ④ 수요지와의 접근성을 감안한 시설확충 및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전국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한국관광공사, 1989)에서는 대구근교권 개발방향으로 ① 도시민 1일 관광지 및 주말이용의 휴양지로 팔공산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② 대규모 위락단지조성의 일환으로 낙동강유역의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며, ③ 도시의 관광기능 강화를 위해서 대구시의 관광이용기반의 구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동남권 종합계획조사(안) (건설부, 1986)에서는 대구관광지구개발방향으로 ① 도시민을 위한 관광휴양지의 확충개발과 역사, 문화관광지와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개발하며, ② 주말휴식위락공간 조성 및 순환일주관광도로망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넷째, 대구도시재정비 계획(대구직할시, 1987)에서는 공원 녹지계획으로 도시공간구조와 개발방향에 적합한 공원, 녹지종합체계망을 구성해야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立地與件

대구대공원의 위치는 대구직할시의 동남단에 입지하며 경상북도를 경계로하여 동측으로 경산시, 남측으로 경산군, 달성군에 인접하고 있다.

4) 自然環境

(1) 地形 및 地勢

대덕산을 중심으로 평탄지와 구릉지, 계곡과 고원지대, 수림으로 덮힌 산지 등의 다양한 지형을 연출하고 있다.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 최대표고자가 약 550m정도이며, 40%이상의 급경사가 55%를 차지하고 있다.

(2) 景觀

대구대공원은 산악, 구릉지, 연못, 계곡, 수림의 조화로 다양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덕산, 앞산에서의 조망은 공원전체와 대구, 경산시가지의 원경, 근경이 파노라믹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각 능선별로 시각의 한계가 명확하며, 대상지 북쪽에서의 조망은 수평적 요소(경작지)와 수직적 요소(산)가 조화를 이루며 sky line이 매우 양호하다.

5) 人文·社會環境

(1) 周邊地域 概況

대구시를 중심으로 반경 약 60km내에 경주, 가야산 국립공원과 금오산, 팔공산도립공원 및 부곡, 경산온천 등으로 연계 개발시 잠재성이 풍부하다. 그리고 주변의 앞산공원, 냉천유원지, 수성유원지 등과 연계하여 대공원권으로 개발시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용을 증가가 예상된다. 주변에 대규모 택지개발지(범물지구)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개발욕구가 점증되고 있다.

(2) 土地 및 交通 現況

대부분이 임야이며 과수원, 논, 밭 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6) 觀光環境

전국 5대관광권역중 동남관광권에 속한다. 또한 23개 소개발권중 대구근교권에 속하며, 계획공원의 특성으로는 대구 및 대구생활권 주민의 건전한 휴양처 및 위락공간으로 제공하며 인근 주민의 야외 레크레이션활동의 장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表 13-11〉 大邱大公園 綜合計劃 基本構想 (단위: m², %)

주제공원	계 획 공 원	시 설 공 원	면적(구성비)
총 면 적	—	—	22,150,000 (100.0)
시설부지 면 적	—	—	3,775,000 (17.0)
가로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산국도와 사업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을 개발하여 교통소통의 원활도모(상징가로) ·4차 순환로와 북측 경계에 계획된 대로1류 노선을 가로공원화하여 대공원의 이미지 부각 ·보행인에게 휴식공간 및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고라 ·벤취 ·음수대 	220,000 (1.0)
동 물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내 기이용시설(달성공원)의 용량이 한계에 달하였음을 감안하여 대구모로 개발 ·넓은 부지에 방사형의 동물원을 유치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토록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방사장 ·조류관 ·곤충관 	450,000 (식물원포함) (2.0)
식 물 원 및 자연 학 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식물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온실을 비롯한 각 식물군으로 형성된 수목원 개발 ·자연관찰과 교화, 계몽을 통한 관광 레크레이션 욕구가 만족되도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온실, 아열대온실 ·수목원 ·자연학습원 ·자연학습로 	85,000 (0.4)
민속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민가를 재현한 민가 박물관과 놀이마당 등 옛 것을 즐길 수 있는 공간창출 ·전통적인 가옥과 정원양식을 재현하고 정자의 형태와 입지유형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있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가박물관 ·민속장터 ·놀이마당 ·정자 	330,000 (1.5)

주제공원	계 획 공 원	시 설 공 원	면적(구성비)
체육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계층과 각 시설이 이용형태와 관련 측면을 고려하여 시설배치 ·모든 시민이 신체와 정신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단련의 장으로 개발 ·화합의 장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관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다목적 잔디구장 	150,000 (0.7)
청 소 년 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잔디구장을 개발하여 계층간, 지역간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창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정신과 육체의 수양을 위한 공간 제공 ·청소년만이 아닌 일반 이용객들도 건강단련의 장으로 이용토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심신 수련장 ·사이클링시설 ·야영장 ·잔디광장 	330,000 (1.5)
위락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공원내 여흥오락, 유희요소를 도입하여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이용객의 유인력 제고 ·대구시 및 근교에 있는 기존 위락시설과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유희시설 ·전자오락실 ·공연장 	250,000 (1.2)
중앙광장 및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의 주진입로에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두어 공원의 상징기능 부여 ·중앙광장을 핵으로 이용활동의 집중과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중앙광장 주변에 편의시설을 집중배치하여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목적강당 ·분수 ·대중음식점 ·휴게소 ·매점 	70,000 (0.3)
문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이 아닌, 모든 이용객들이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창출 ·자연속의 야외조각전시로 문화예술공간 형성 ·고정되지 않은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전시하여 변화하는 공간으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 ·야외조각 ·피크닉쉼터 	270,000 (1.2)
가족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한 공간을 도입하여 점증하는 시설 이용추세에 부응 ·가족적인 가족공원이면서, 타시설과 기능적으로 연결하고 공원의 개체성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잔디광장 ·운동시설 ·놀이마당 ·피크닉 잔디광장 ·삼림욕장 	① 250,000 (1.1) ② 90,000 (0.4) ③ 70,000 (0.3)

주제공원	계 획 공 원	시 설 공 원	면적(구성비)
근린공원	·인근지역 주민의 주이용공간으로써 휴식시설을 중심으로 용도의 다양성 추구 ·공원과 주거지 기능의 간이공간 기능을 수행토록 계획	·어린이놀이터 ·야외공연장 ·다목적 잔디구장 ·운동시설	90,000 (0.4)
승마공원	·국제수준의 승마 및 경마시설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승마장 ·경마장 ·관람대	
승마공원	·승마의 저변확대로 시민대중의 여가활동유도 ·각종 국내외 경기장으로 활용하여 선수의 훈련장으로 제공	·마사	
진입광장	·보·차 관리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이용객의 안전성 도모	·매표소 ·안내소	20,000 (0.1)
관리시설			50,000 (0.2)
주차장			400,000 (1.8)
기타(도로·정수장·이주단지)			660,000 (2.9)

資料 : 대구직할시

2. 友邦랜드 造成事業

- 위치 : 대구직할시 달서구 두류동 산302-11일대
-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 406,800㎡(123,057평)
 - －건축면적 : 27,555㎡(8,335평)
 - －건축연면적 : 63,725㎡(19,277평)
 - －시설면적 : 159,657㎡(48,296평)
- 총투자비 : 862억원
 - －용지매입비 : 290억원

- 대구타워건설비: 227억원
- 유희단지조성비: 300억원
- 건설제정비: 45억원
- 사업비: 635억원(부지매입비: 290억 포함)
- 공정계획: 기본계획완료 (1991. 12)
기본설계 (1991. 9월 완료)
공원조성 (1993. 4월 준공예정)

3. 架山山城 觀光地

1) 開發計劃의 概要

- 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일원
- 면적: 0.463km²

2) 觀光環境

가산산성 관광지와 인접한 주요자원으로는 야영장의 상부에 있는 한티성지를 비롯해서 송림사, 파계사, 동화사, 갯바위 등의 불교유적을 들 수 있다.

지세가 험준하고 산세가 뚜렷한 자연경관을 이루며 산의 정상부가 천연적인 산간분지로 형성되어 있다.

3) 人文·社會環境

전체 면적중 임야의 비율이 높아서 개발시 농지의 훼손이 적으며, 대도시의 관광배후시장과 인접하고 있어 개발여건이 증대하고 있다.

4) 開發目標 및 方向

대구와 경상북도 일원을 주이용권으로 청소년, 학생, 근로자 단위 및 가족단위중심의 야영장을 개발하며, 팔공산권역의 타시설과 관광이용체계를 연계, 3계절 관광지로 개발한다.

5) 投資計劃

총투자비는 9,374백만원(공공투자 1,541백만원, 민간투자 7,833백만원)이며, 투자기간은 1992~1996으로 예정하고 있다.

4. 雲門寺 觀光地

1) 開發計劃의 概要

- 위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일원
- 면적 : 0.162km²
- 기간 : 1992~1996

2) 人文·社會環境

운문사 도립공원지역 총면적 16,200,000m²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문사 사찰지는 92.6%인 14,901,279m²이며, 관광지 지정면적 162,000m²중 국공유지는 55,347m²으로 34%, 사유지는 106,653m²으로 66%를 차지하고 있다.

3) 觀光環境

운문사 관광지 주변지역의 주요관광자원으로는 운문사 일원의 사찰, 공암풍벽, 삼계리계곡, 동창천 그리고 서부지역의 남산 및 청도읍, 화양읍 일원의 폭포, 사찰, 유호연화, 석빙고, 서원 등이 있다.

운문사 관광지로부터 직선거리 10km지점에 있어 향후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한 온천, 휴양관광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4) 事業推進投資計劃

- 총투자비 : 5,948백만원
 - 공공투자 : 1,195백만원
 - 민간투자 : 4,753백만원
- 투자기간 : 1992~1996

VI. 觀光市場 長期展望

1. 觀光市場 與件展望

1) 觀光利用圈의 展望

수송체계의 발달, 교통수단의 고속화, 정보시스템의 광역화 등으로 1990년대의 4시간권에서 2000년대 고속전철시대가 도래하면 더욱 단축될 전망이며, 마침내 전국이 단일 도시권으로서의

이용패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관광이용권의 변화는 앞으로 전국이 단일권화될 전망을 보여주고 있어 대구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그 권역은 전국적 차원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 人口展望

대구의 인구증가는 과거 20년간 연평균 4.4%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거나 주변위성도시 등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증가는 둔화가 예상되며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계획인구는 2001년 315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경북의 인구는 공업화의 계속적인 추진에 의한 도시인구의 증가, 농촌소득구조의 개선과 생활환경의 향상에 의한 농촌인구의 정주성 제고 등의 요인에 의하여 완만하게나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1991~2001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0.9%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表 13-12〉 市·郡別 人口推移 (단위: 천명)

구 분		1991년	1996년	2001년	2011년
대 구 군 교 권		3,696	4,068	4,419	4,900
대 구 시		2,600	2,900	3,150	3,300
시 부		401	480	587	700
	김 천	83	89	97	107
	구 미	198	253	323	397
	영 천	58	66	75	88
	경 산	62	72	92	112
군 부		695	688	682	677
	달 성	92	104	116	128
	군 위	43	42	41	38
	영 천	78	70	62	54
	경 산	87	91	95	99
	청 도	68	64	60	70
	고 령	40	38	36	34
	성 주	57	50	43	36
	칠 곡	82	85	89	94
	금 룡	80	74	68	60
	선 산	68	70	72	74

資料: 1) 경상북도, 《2000년대를 향한 경북지역 경제 발전계획연구》, 1989.

2) 대구시, 《대구시재정비 계획》, 1987.

3) 地域經濟 展望

대구의 시민 1인당소득은 1991년에 1,700천원, 2001년대 2,810천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의 산업인구구조는 과거 산업구조의 변화추이와 장래의 대구 및 주변지역의 산업화 등을 감안하여 전망된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의 51.4%에서 2001년에 58%로, 취업율은 1980년의 73.3%에서 2001년에 90%로 증가가 예상된다.

대구시의 1차산업은 향후 감소될 전망이다, 2차산업의 생산액 구성비는 공업기반의 확충으로 인해 1980년의 39.4%에서 2001년에 41.5%로 증가가 예상되며, 3차산업 생산액의 구성비는 1980년의 60.0%에서 2001년에 58.1%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表 13-13〉 地域總生産 展望(大邱直轄市) (1980년 불변가격 기준)

구	분	단 위	1986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11년
G N P (A)		10억원	53,677	75,358	103,245	138,246	
연평균성장율		%	7.5	7.0	6.5	6.0	5.0
1인당GNP(B)		천원	1,283	1,680	2,159	2,734	
G R P (C)		10억원	2,722.0	4,424.0	6,263.0	8,867.0	
전국점유율(C/A)		%	5.1	5.9	6.1	6.4	
연평균성장율		%	11.3	10.2	7.2	7.2	
1인당GRP(D)		천원	1,200	1,700	2,160	2,810	
전국평균대비(D/B)		%	93.5	101.1	100.0	102.7	

註: 단계별 GNP증대의 전망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재정비〉

資料: 대구직할시, 《대구도시재정비계획》, 1987.

〈表 13-14〉 産業別 生産額構成比 展望 (단위: %)

구	분	1980년	1986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11년
구 분 (A)	제1차산업	16.9	14.8	11.6	9.3	7.5	
	제2차산업	30.7	35.0	39.4	42.3	44.7	
	제3차산업	52.4	50.2	49.0	48.4	47.8	
지 역 (B)	제1차산업	0.6	0.7	0.6	0.5	0.4	
	제2차산업	39.4	40.0	40.5	41.0	41.5	
	제3차산업	60.0	59.3	58.9	58.5	58.1	

資料: 대구직할시, 《대구도시재정비계획》, 1987

2. 觀光需給 分析

1) 大邱近郊圈 觀光資源 類型別 需給分析

〈表 13-15〉 大邱近郊圈 觀光資源類型別 一日需要量 (단위: 천명, %)

구	분	1980년	1991년	1996년	2001년	비 고
산악형	산악관광형 (비율)	153.4 (33.9)	187.5 (31.0)	205.7 (29.4)	223.9 (28.7)	계곡, 명승지, 관광지, 자연공원, 기타
내륙형	도시관광형 (비율)	141.6 (25.3)	191.8 (31.8)	217.8 (31.2)	230.8 (29.6)	도시공원, 고궁, 기타 도시내 휴식처
	역사문화형 (비율)	1141.2 (25.3)	139.1 (23.0)	160.3 (22.9)	183.3 (23.5)	사찰, 문화유적, 민속관, 기념물 등
	위락 및 휴양형 (비율)	5.0 (1.1)	11.2 (1.9)	18.6 (2.7)	24.1 (3.1)	관광지, 온천장, 골프장, 종합위락단지
내수면형	수변관광형 (비율)	38.1 (8.4)	74.4 (12.3)	96.2 (13.8)	118.0 (15.1)	유원지, 강변, 저수지, 호수
계 (비율)		452.3 (100.0)	604.0 (100.0)	698.6 (100.0)	780.1 (100.0)	—

〈表 13-16〉 大邱近郊圈 觀光資源類型別 需給分析 總括 (단위: 천명)

구		분	최대공급		1988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11년
산악형	감상 및 탐방형	184.9	일일수요량		153.4	187.5	205.7	223.9	
			수급비교		+ 31.5	- 2.6	- 20.8	- 39.0	
	도시관광형	276.5	일일수요량		141.6	191.8	217.8	230.8	
			수급비교		+ 134.9	+ 84.7	+ 58.7	+ 45.7	
내륙형	역사/문화형	143.2	일일수요량		114.2	139.1	160.3	183.3	
			수급비교		- 29.0	+ 4.1	- 17.1	- 40.1	
	위락 및 휴양형	21.4	일일수요량		5.0	11.2	18.6	24.1	
			수급비교		+ 16.4	+ 10.2	+ 2.8	- 2.7	
내수면형	수변관광형	85.6	일일수요량		38.1	74.4	96.2	118.0	
			수급비교		+ 47.5	+ 11.2	- 10.6	- 32.4	
계		711.6	일일수요량		452.3	604.0	698.6	780.1	
			수급비교		+ 259.3	+ 107.6	+ 13.0	- 68.5	

2) 収用能力

대구근교권의 숙박시설 수용능력은 기존시설의 실제수용능력은 15,836실, 기존 및 계획시설을 합한 최대수용능력은 18,331실로 나타났다. 야영장의 경우, 실제수용능력은 0.042km²에 약 2,125명, 최대수용능력은 0.169에 약 8,468명으로 나타났다.

〈表 13-17〉 宿泊施設別 所要客室 (단위: 실)

구 분	1988년	1991년	1996년	2001년
호 텔	122	253	652	1,120
콘도미니엄	15	47	117	251
유스호스텔	12	38	86	152
여 관	260	373	620	842
민 박	521	742	1,259	1,727
계	930	1,453	2,734	4,092

〈表 13-18〉 野營場 所要面積 (단위: km²)

구 분	1988년	1991년	1996년	2001년
야 영 장	147,943.9	215,775.1	361,947.3	522,527.7

〈表 13-19〉 宿泊施設別 年間需要量 (단위: 천명)

구 분	1988년	1991년	1996년	2001년
호 텔	31.1(8.8)	64.5(11.6)	166.7(16.2)	286.1(18.3)
콘도미니엄	8.1(2.3)	25.6(4.6)	63.8(6.2)	137.6(8.8)
유스호스텔	8.1(2.3)	25.0(4.5)	56.6(5.5)	100.0(6.4)
여 관	56.9(16.1)	81.8(14.7)	135.8(13.2)	184.5(11.8)
민 박	114.2(32.3)	162.4(29.2)	275.7(26.8)	378.3(24.2)
야 영 장	135.0(38.2)	196.9(35.4)	330.3(32.1)	476.8(30.5)
계	353.4(100.0)	556.2(100.0)	1,028.9(100.0)	1,563.3(100.0)

3. 観光資源 現況

自然公園이란, 산악·계곡·폭포·암·동굴 등 아름다운 自然風景 및 뛰어난 自然景觀을 비롯하여, 야생 그대로의 동·식물상이 분포되어 있는 광대한 자연지역을 대상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되는데, 이는 다시 建設部長官이 지정하는 國立公園과, 道知事(서울 특별시장 및 직할시장 포함)가 지정하는 道立公園, 그리고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郡立公園 3종으로 나

누어진다.

먼저, 國立公園 現況을 살펴보면 대구지역내에는 경주시와 월성군에 걸친 경주국립공원, 청송군과 영덕군에 위치한 주왕산국립공원이 있고, 상주군과 문경군의 속리산국립공원, 영풍군과 봉화군지역의 소백산국립공원, 문경군의 월악산국립공원을 각각 충북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성주군의 가야산국립공원을 경남과 공유함으로써, 이들 6개 국립공원의 大邱地域 總面積은 574.1km²에 이르고 있다.

이 중 慶州國立公園의 경우는 전국의 다른 국립공원들과는 달리, 그 지역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져 서로 떨어져 있는데, 이를 보면 첫째, 불국사·토함산·석굴암·기림사·골굴암·덕동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둘째, 김유신장군묘와 무열왕릉 등을 포함한 선도산 지역, 셋째, 탈해왕릉과 백률사 일대의 지역, 넷째, 백제암과 신선사 등이 위치한 단석산 지역, 다섯째, 삼채석불·경애왕릉·청룡사·와룡사·남산·금오산 일대의 지역, 여섯째, 문무대왕해중릉과 감은사지가 소재하는 월성군의 용당리와 봉길리 일대지역, 일곱째, 월성군 금강리 일대지역 등이다.

周王山 國立公園은 주왕산에 所在하는 主要觀光資源으로 대전사 등 유서깊은 3개 사찰을 비롯하여 암자 2개소, 폭포 4개소, 성터, 기암, 절벽, 동굴 등이 있고, 또한 393종의 식물과 59종의 산짐승, 100여종의 산새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에서, 주왕이 마일청장사 형제와 싸울 때 식량과 병사가 모자라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해 기를 쫓았다는 높이가 45m의 기암은 매우 인상적이며, 아침햇살을 받으면 마치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병풍바위 또한 장관을 이루고, 구슬을 내뿜듯 맑은 물이 떨어지는 第1瀑布, 仙女湯, 그위의 第3瀑布는 보는 이의 폐부까지 시원하게 적셔 줄 만하다.

그리고 훈련탕으로 사용되었다가 지하성 뒤쪽에 길이 150m 너비 7m의 연화암과 무기를 저장했던 무장굴 및 주왕이 숨었다가 잡힌 주왕굴 등 모두가 신비롭다. 또한, 주왕산의 4대 명물중 하나인 수단화(수달래)는 주왕의 죽은 님이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꽃이고, 봄이면 天然紀念物 207호인 망개나무와 고양목, 산자약 등 많은 꽃나무들이 만발하여 무릉도원을 이루며, 산자약 이외에도 복령, 백술 등의 약초와 송이버섯도 유명하다.

道立公園의 경우를 보면, 구미시와 금릉군 및 칠곡군에 위치한 금오산 도립공원, 칠곡군과 군위군 및 경산군을 비롯하여 영천군과 대구직할시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는 팔공산 도립공원, 문경군에 소재하는 문경새재 도립공원, 봉화군과 안동군에 위치한 청량산 도립공원 등 4개소에 總面積은 305.53km²이며, 상주군과 문경군의 4개소 11개동에 걸쳐 있는 도장산이

새로운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도장산은 속리산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최고 높이 827.9m, 면적 64.82km²로서, 문경군 용암면 내서리 일대의 연장 4km에 이르는 수려한 용류계곡과 상주군 화서면 일대의 청사계곡에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쌍룡·오송·무석·서재 등 4개 폭포가 절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화서면 하송리의 견천산성, 화북면 상오리의 7층석탑과 은척면 화평리의 하령사 등 4개 사찰을 비롯하여 20여개의 文化財가 散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종닭, 토종꿀, 청미나리, 재배단지가 있으며, 산채와 도토리묵이 대량 생산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郡立公園의 경우를 보면, 울진군의 유명한 불영계곡, 역시 울진군의 매봉산 계곡을 중심으로 소와 폭포 및 암반들의 어우러짐이 일대장관을 이루는 덕구온천, 12폭포가 저마다 기암절벽에서 웅장하게 떨어지는 영일군의 실경사, 산세가 웅장하고 수목이 울창하며 계곡의 경치가 좋아 특히 登山 코스로 적합한 청도군의 운문산, 달성군의 비슬산, 의성군의 빙계계곡 등 6개소로 그 總面積은 69.58km²에 달한다.

그러므로 이들 國立公園과 道立公園 및 郡立公園을 합친 역내의 자연공원은, 1988년 2월말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만도 16개소에 總面積이 949.21km²이다. 따라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자연공원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안동·영주·김천·영천·포항·상주·점촌 등 7개 시와 고령·선산·영양·예천·울릉 등 5개 군 뿐이며, 또한 이들 시·군도 대부분 자연공원에 접근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도 역내에는 自然景觀型 觀光資源의 寶庫인 자연공원이 거의 전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²⁾

〈表 13-20〉 大邱地域內 自然公園 現況(1988년 2월 현황) (단위 : km²)

종 류	공 원 명	위 치	면적	지정 연월일
국 립 공 원	경 주	경주시·월성군	138.1	1968. 12. 31
	주 왕 산	청송군·영덕군	105.58	1976. 3. 30
	속 리 산	상주군·문경군·충북	70.52	1970. 3. 24
	가 야 산	성주군, 경남	9.8	1972. 10. 13
	월 악 산	문경군, 충북	77.8	1984. 12. 31
	소 백 산	영풍군·봉화군·충북	172.3	1987. 12. 14
도 립	금 오 산	구미시·금릉군·칠곡군	37.91	1970. 6. 1
	팔 공 산	대구직할시·군위군·경산군·영	122.08	1980. 5. 13

2)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자원총람》, 1985, p. 679.

종 류	공 원 명	위 치	면적	지정 연월일
공 원	문경새재 청량산	천군 문경군 봉화군·안동군	5.3 48.76	1981. 6. 4 1982. 8. 21
군 립 공 원	불영계곡	울진군	25.14	1983. 10. 5
	덕구온천	울진군	6.1	1983. 10. 5
	보경사	영일군	8.3	1983. 10. 1
	운문사	청도군	16.2	1983. 12. 29
	비슬산	달성군	13.0	1986. 2. 22
	빙계계곡	의성군	0.84	1987. 9. 25

註: 면적은 대구 및 경북내의 소재면적임
資料: 慶尙北道 都市課

1) 達城公園(史蹟 62號)

달성공원은 대구시민에게 가장 친근한 휴식처다. 이 공원은 삼한시대의 부족국가였던 달구벌의 城址였다. 즉, 달구벌성이 줄어들어 달성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그후 달구벌은 신라에 병합되었고, 고려 공양왕 2년(1390년)에 달성은 수축되었다. 고려중엽 이후에는 달성 여씨의 세습 사유지였으나, 조선시대 세종 6년 여씨일문이 국가에 헌납하여 국유로 귀속됐다. 선조 29년(1596년)에는 慶尙監營을 두고 다시 축성했으나, 다음 해인 정유재란때 불타버려 감영을 시내 포정동, 현 중앙공원 자리로 옮겼다.

청일전쟁때 (1894~1895년)는 일본군이 주둔했고, 고종 광무 9년(1905년) 공원으로 조성했다. 1967년 5월 대구시에서는 새로운 종합공원 조성계획을 세워 오늘날과 같은 대공원으로 만든 것이다. 현재의 공원면적은 39,000평, 土城 1,600m의 사적과 프롬나드(遊歩道路), 잔디, 광장, 화단 등의 현대식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달성공원에는 종합문화관(600평)과 동물원(60종 75마리), 觀風樓, 동학의 시조 崔濟愚동상, 의병장 許薦 事蹟碑, 달성 여씨 遺墟碑, 어린이헌장비 등 많은 기념물이 있다. 또한, 대구가 낳은 정열의 시인 李尙火(본명은 李相和)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1948년 2월 金素雲씨가 달성공원에 건립한 이상화시비도 있다. 달성공원은 숲이 우거져 대구의 도심속의 푸른 섬이며 연간 입장객이 140만명이나 된다.

2) 中央公園

중앙공원은 원래 경상감영이 있던 곳이다. 달성공원이 대구의 지붕이라면 중앙공원은 대구의 딸이다. 중앙공원자리에 경상감영이 든 것은 안동에서 달성으로 옮긴 감영을 선조 34년(1601년) 다시 이전하면서부터인데 1910년부터 1968년까지는 慶尙北道廳舍가 들어 있었으며, 중앙공원조성은 1970년 4월에 착공, 그해 10월에 완공했다.

넓이 약 5,000평의 자그마한 공원이지만 宣化堂, 澄清閣 두 유서깊은 건물과 옛 건물의 멋을 살린 콘크리트로 된 정문, 분수, 돌담, 자갈 깔린 산책로 등 인공미를 최대한 살렸다.

선화당은 경북도 지방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것인데, 선조 34년 감영을 처음 이리로 옮길 때 지은 건물이다. 그후, 선화당은 1670년, 1730년, 1806년 세차례나 불탔다. 지금의 건물은 1807년 慶北觀察使 겸 大邱府使였던 尹光顔이 중건한 것이다. 등청각은 선화당과 같은 시기에 세워져 세번 화재를 만났고, 1807년에 중건되었으며 지방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선화당은 관찰사가 집무하던 청사이며, 등청각은 관찰부의 內衙로서 관찰사가 살던 관사였는데, 이 두 문화재는 1970년 공원조성때 다시 보수된 것이다.

중앙공원에는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의 종’이 있다. 연간 약 50만명이 입장한다.

3) 앞산公園

1970년부터 10년계획으로 개발한 앞산공원은 대구 최대의 자연공원으로 총면적은 500만평에 이른다. 녹음길은 계곡이 장관을 이루며, 정상까지 800m코스에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정상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대구시내는 물론 성서, 경산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앞산공원 기슭에는 34,000평 넓이의 골프장과 궁도장, 승마장, 수영장이 있고 대구가 낳은 시조작가 李豪雨시비 등이 있다. 유기장은 면적이 857평으로 회전비행기, 회전그네, 회전목마, 동물가족, 허니문카, 팽이놀이, 전자오락실 등이 있다.

1978년 9월 30일 준공되어 다음해 6월25일에 준공된 落東江 勝戰記念館은 2,500평의 터에 세워진 건평 620평의 4층건물이다. 4개의 풀장엔 1,5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골프연습장, 국궁장, 양궁장, 승마장 등의 시설이 완비되어있다. 안지랑골짜기 스카이웨이는 드라이브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4) 忘憂公園

대구·부산고속도로 진입로변에 있는 망우공원은 1971년에 개발되었으며, 총면적은 19,300평이다.

이곳에는 임란때 경남북 일대에서 신출귀몰한 작전을 펴서 왜적을 무찔렀고 그때마다 붉은 戰布를 입어 홍의장군이라 불린 忘憂堂 郭再祐장군의 동상과 망우당기념관이 있다.

기념관에는 병풍, 칼, 말안장, 포도연, 인장, 갓끈, 그릇 등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들 유물은 지방문화재 66호로 지정되어있다. 이 공원은 특히 동촌유원지와 인접해 있어 연중 찾는 이가 끊이지 않는다.

5) 頭流公園

대구도심에서 서쪽으로 3km 떨어진 서구 내당동과 성당동 일원에 조성된 공원이다. 면적이 511,814평으로 해발 135m의 야산을 개발한 것이다.

1977년 10월 28일 大邱市民憲章碑가 제막되었고 축구장이 조성되었으며, 1981년 5월 야구장이 준공되었다. 그해 9월에는 공원내에 두류도서관이 준공되었는데 연건평 1,050평에 열람석 1,200석, 장서수용능력은 89,000권이다. 시민문화생활센터로 시민교양증진과 청소년 선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6) 壽城遊園地

수성유원지는 수성못의 물이 1년내내 풍족하여 동촌과 함께 대구에서 보트놀이를 할 수 있는 귀한 유원지다.

수양버들이 늘어지고 봄의 벚꽃이 아름다운 수성못 주변과 인접한 산기슭은 또한 대구시민의 소풍지와 야유회장이기도 하다. 녹음이 우거진 가운데 베이비골프장, 어린이놀이터 등 몇가지 오락시설이 되어있다. 호반에 있는 대구관광호텔은 조망이 좋으며, 수영장 등 여러 위락시설을 갖추고 있다.

7) 泛魚公園(어린이대공원)

수성구 범어동과 황금동 일원에 만들어진 354,954평 규모의 공원이다. 공원내에는 30,000평부지에 연건평 2,445평의 어린이회관이 들어서 있고, 과학관, 박물관이 있다.

5,600평의 동물원과 4,400평의 수영장, 놀이시설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그외 도서관 및 회의장, 실내체육관, 실내오락장, 운동장, 야구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과 야외음악당, 식물원 등이 있다.

8) 東村遊園地

금호강을 끼고 있는 동구 만촌동, 방촌동을 중심으로 한 대구사과의 주산지인 이곳 일대를

일컬어 동촌이라 한다. 대구시내 중심가에서 동쪽으로 4km거리에 있는 동촌은 교통이 편리하여 봄에는 복숭아꽃 구경과, 그네뛰기, 여름에는 수영과 보트놀이와 낚랑, 가을에는 밤줍기와 산책 등으로 휴일을 즐길 수 있는 유원지이다.

동촌유원지는 넓은 금호강의 풍부한 물과 절벽위의 누각, 사찰, 강을 가로지르는 峨洋橋, 吊橋, 케이블카(2개소) 등 천혜와 인공을 함께 갖춘 훌륭한 유원지로 야외수영장, 골프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각종 위락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 특히, 아양교는 멀리 보이는 팔공산(峨)과 강물(洋)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우아한 교명을 자랑한다.

9) 桐華川遊園地

대구시 불노동에서 동북쪽으로 3km쯤 더 가면 파계사로 가는 길이 서쪽으로 뻗어 있고 여기에 계속 북쪽으로 2km쯤 더 나가면 도로 동쪽에 동화천유원지가 있다.

여기는 팔공산의 염불암계곡, 양진암계곡, 수숫골, 폭포골물이 합쳐 桐華川을 이루어 흘러내려오다 다시 도중에서 內鵬계곡, 地藏寺계곡, 冠巖계곡 등 많은 계곡의 물을 합쳐 이 지점에서 하폭이 약 70m에 이른다. 사방에 울창한 산림이 둘러져 있어 유원지로 개발되었다. 이곳도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10) 花園遊園地

대구시내에서 서남쪽으로 15.2km거리의 화원면에는 대구시 소유의 유원지가 있다.

푸른 강물과 깎아지른 절벽, 건너편에 보이는 넓은 백사장이 일품이다. 이곳은 신라때 군량미의 창고가 있었던 곳이고, 산정에는 성터와 조선시대에 봉화를 올리던 터도 남아 있다.

원래는 신라왕족이 종종 이곳 산위에 올라 건너편 多斯들에 가득히 핀 꽃을 감상했다하여 지명도 화원으로 되었으며 꽃을 즐기던 자리를 사람들은 賞花臺라 불렀다.

시원하게 펼쳐진 낙동강과 강변의 백사장, 밤나무숲 등 주위의 경치가 아름답고 보트장, 골프장 등 많은 오락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구한말에 있었던 화원의 倭物庫는 대일무역센터 역할을 했다. 일은 상인들은 배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화원에서 교역했다.

11) 冷川遊園地

八鳥嶺(신천발원지)에서 흘러오는 물이 맑고 시원하여 冷川이라 이름했다. 이 냉천을 끼고 형성된 유원지를 말한다. 계곡을 가득 메운 크고 작은 바윗돌이 공해에 시달린 눈을 시원케 한다. 닭찜, 삼계탕 등의 음식이 유명하고 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대구에서

남쪽 11km지점이다.

新川 상류지점에는 가창댐이 건설되어 있어 상수도 저수지로서, 대구시민의 급수량의 70%를 공급하고 있다. 이 댐의 주위도 풍경이 아름다워 피서지로서 또는 探勝地로서 찾아드는 사람이 많다.

12) 藥令市(약전골목)

대구에는 옛부터 한약촌의 집산지여서 약령시가 번성했다. 대구 약령시는 조선시대부터 전국적으로 이름난 국내 제일의 약재시장이었다. 대체로 1650년대에 개시되었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이며, 그후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는 동안 제도의 변경과 다소의 浮沈이 있었지만, 대체로 1년에 두번 春市와 秋市가 각각 열흘간 열렸다. 그때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약종상과 거간들로 득실거렸다.

약령시는 국내 약재의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외에 감영이 약재를 매입하여 조정에 진상하였다. 그리고 약재가 부족했던 일본은 대마도주를 통해 교역하여 가는 일들을 이루는 데도 의의가 있었다. 그러므로 대구 약령시가 전성기였을 때는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에 까지 널리 알려져 그곳에서 상인들이 약재를 사러 오곤 했다. 그러던 약령시가 근대에 들어오면서 서양의술의 보급으로 사람들은 양약을 찾게 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약령시는 1930년대까지는 1년에 한번 추시를 열어 명맥을 이어왔다.

이렇게 약령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쇠퇴했으나, 지금도 南城路 일대에는 40개소의 건재상, 한약방이 모여 있어 약전골목이란 이름과 함께 옛 약령시의 잔영을 간직하고 있다. 오늘날 비록 건물은 현대화되어 옛 풍물을 찾아볼 길이 없지만, 그래도 이 거리에 들어서면 한약재 냄새가 물씬하게 풍긴다.

13) 架山山城(史蹟 216號)

팔공산 남북쪽에 위치한 가산은 해발 902m로 일대는 평탄한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다. 가산에는 인조 18년(1640년)에 축조한 산성이 있는데, 그 규모가 웅장하며 서,북,중,동의 네 門樓가 있었다. 이 산성은 왜란이후 국토방위를 위해 축조된 것으로 내성, 중성, 외성으로 되어 있다. 자연풍치가 절경을 이루어 관광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그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13-21〉 架山山城의 範圍

구 분	내 용
공간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일원 ◦ 면적 : 0.463Km² —지 정 면 적 : 0.392Km² —추가개발면적 : 0.071Km²
시간적 범위	◦ 1992~1996년
내용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조사 : 자연환경, 인문환경, 관광환경, 관련계획, 관광지개발 및 이용현황 등 ◦ 개발구상 및 계획 : 정비/보완구상, 토지이용계획, 교통/동선계획, 시설물배치계획, 사업추진계획, 관리운영 및 마케팅 등

〈表 13-22〉 架山山城 開發潛在力 現況

구 분	내 용
입 지 여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의 관광배후시장과 인접하고 있어 개발여건 증대 · 대구~춘천간의 중앙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광역접근성 증대
자 연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수림 및 지형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자연자원 특성이 양호하여 자연자원 특성이 우세함 · 배수가 양호하여 지형여건에 의해 경관특성이 강함
인문사회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면적중 임야의 비율이 높아서 개발시 농지의 훼손이 적음 · 주접근로인 지방도 908호선의 포장으로 접근성이 양호하며 향후 추가 개발시 투자비 절감가능
관 광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자연자연 및 역사 문화유적이 산재 · 탐방체계 정비시 지구별 기능 특성화 가능
조성계획 및 사업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공산 순환도로의 건설로 집단시설지구 및 각 관광자원간의 연계성 증대 · 공원의외부에 입지하여 다양한 시설개발이 가능 · 한티성지 등 주변자원의 정비에 의해 지역적인 관광특성이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시설에 대한 선도투자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절감 가능 · 야영기능을 중심으로 추가기능을 도입할 경우, 대도시에 입접한 종합관광지의 특성 보유 예상 · 야영장 지구와 추가개발 지구가 동선에 의한 연계성을 유지 하면서 지형적으로 분리되어 지구별 특성유지가 가능

4. 交通部 指定 觀光地 現況

觀光行政의 主務部處인 交通部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려한 관광자원을 광범위하게 개발하여 국민관광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지원의 효율적인 보호를 기하기 위해 觀光基本法 제12조와 觀光振興法 제23조에 의해 관광지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의 지정기준은, 첫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천연적인 조건과 역사적 유물이나 문화재 또는 전설 등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 둘째, 주위환경이 관광 및 휴양에 적합한 지역이며, 셋째, 교통수단의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고, 넷째, 기타 觀光政策上 관광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으로 되어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1971년 5월 20일 금릉군 내항면 운수동의 직지사가 가장 먼저 관광지로 지정된 이래, 그 수는 계속 늘어나, 현재 대구직할시내의 1개소와 경북도내의 16개소에 總面의은 26.06km²로 지역수와 면적에서 각각 전국의 15.6%, 5.6%씩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역내 각 지정관광지의 명칭과 위치 및 주요관광자원은 <表 13-23>와 같다.

<表 13-23> 大邱地域 指定觀光地 現況(1988년 2월 말 현재)

지역	관광지명	위 치	면적(km ²)	지정일자	주 요 자 원
대구	동 화 사	동구 공산일동	0.217	1981. 1. 18	자연경관, 약수터, 사찰
경 상 북 도	직 지 사	금릉군 내항면 운수동	8.180	1971. 5. 20	직지사, 운수암, 비로봉, 백운봉, 신성봉, 비룡폭포
	문경새재	문경군 문경읍 상초리	5.000	1979. 5. 24	유적지, 자연경관
	경주지역	경주시 천군동	10.239	1979. 7. 2	호수,보문단지
	백암온천	위진군 온정면 소태면	0.156	1979. 12. 31	온천
	보 경 사	영일군 송라면 중산리	0.179	1981. 1. 18	폭포, 계곡, 사찰
	은 해 사	영천군 청통면 치일동	0.198	1981. 1. 18	저승굴, 장군약수, 흔들바위
	성 류 굴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0.056	1981. 1. 18	자연동굴, 양어장
	운 문 사	청도군 운문면 신원동	0.162	1981. 1. 18	자연경관, 사찰, 약수터
	영 일 만	영일군 구룡포읍 대포리	0.115	1981. 12. 31	해수욕장
	화진해수욕장	영일군 송라면 화진리	0.370	1981. 12. 31	해수욕장
	대진해수욕장	영덕군 영해군 대진리	0.038	1981. 12. 31	해수욕장
	장사해수욕장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0.028	1981. 12. 31	해수욕장
	포항송도	포항시 송도동	0.425	1983. 8. 1	해수욕장, 자연경관
	오전약수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0.137	1985. 9. 10	약수터, 계곡경관
	가산산성	칠곡군 동명면 득명동	0.392	1986. 10. 24	자연경관
	경 천 대	상주군 사벌면 묵하리	0.170	1987. 6. 20	충무사, 무우정, 기암절벽

資料 : 교통부·한국관광공사, 《觀光動向에 대한 年次報告書》, 1987년, 大邱直轄市 및 慶尙北道 觀光課

5. 觀光休養地域 및 溫泉地區

觀光休養地域이란, 國土利用管理法上 土地用途 中の 하나로서 정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이 집단화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곳이다.

1987년 6월 말 기준으로 본 전국의 관광휴양지역은 101개소에 그 총면적은 165.191km²인데, 대구지역은 1988년 2월 말 현재 15개 지역에 9.265km²이며, 이의 명칭 및 위치와 개별적 면적은 <表 13-24>과 같다. 그런데 이들 중 長沙·大津·華津해수욕장과 직할시 및 경천대 등 5개 지역은 교통부가 지정한 관광지와, 그리고 문장대온천은 후술할 온천법상의 온천지구와 명칭 및 위치가 각각 동일하고, 또한 영일만지구도 관광지인 포항송도와 같은 지역이다. 한편, 가산산성은 팔공산 도립공원내에 오전약수탕은 소백산 국립공원내에 소재하여 각각 교통부지정관광지와 중복되어 있다.

溫泉地區란 온천원 賦存地域을 중심으로 온천의 공공적 이용 증진과 온천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溫泉法 제3조에 의해 도지사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여기서「溫泉」이라 함은, 지하에서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987년 6월 말 현재 전국에 23개 溫泉地區가 지정되어 있으며, 역내의 경우에는 <表 1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 지정되어 그 개발이 한창인 경주온천지구와 청도·경산을 비롯하여 울진의 백암과 덕구, 상주의 문장대 등 6개 지구이다.

이 중 白岩溫泉地區는 교통부지정 관광지와 같은 지역이며, 문장대온천지구는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表 13-24> 溫泉法에 의한 域內 溫泉地區 現況(1988년 2월 말 현재)

온 천 명	위 치	면 적(km ²)	지정 연월일
백 암	울진군 온정면 溫井里	0.176	1981. 10. 12
경 산	경산군 남산면 상대리	0.262	1983. 4. 20
덕 구	울진군 북면 덕구리	0.491	1983. 12. 26
문 장 대	상주군 화북면 雲興中伐里	5.303	1985. 2. 21
청 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0.501	1985. 6. 1
경 주	경주시 구정·시래·조양동	1.500	1987. 7. 13

資料：慶尙北道

〈表 13-25〉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大邱地域 觀光休養地 現況 (1988년 2월 말 현재)

명 칭	위 치	면 적(km ²)	비 고
長沙해수욕장	영덕군 남정면 장사·부경동	0.100	관 광 지
大津해수욕장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0.185	관 광 지
	영덕군 병곡면 휘리·지경리	0.135	
化津해수욕장	영일군 송라면 화진·지경리	0.522	관 광 지
영일만 地區	영일군 대보면 대보리	0.073	관 광 지
羅亭해수욕장	월성군 감포읍 나정리	0.040	
경 산 온 천	경산군 남산면 상대동	0.262	
가 산 산 성	칠곡군 동명면 득명동	0.392	팔공산도립공원, 관광지
직 지 사	금릉군 대항면 운수동	5.680	관 광 지
경 천 대	상주군 사벌면 삼덕동	0.170	관 광 지
문장대 온천	상주군 화북면 운흥·중벌리	0.956	온 천 지 구
오전 약수터	봉화군 물야면 오전동	0.137	소백산국립공원, 관광지
봉 래 폭 포	울릉군 울릉면 저동	0.053	
沙洞 새각단	울릉군 울릉읍 사동	0.216	
죽 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	0.208	
나 리 분 지	울릉군 북면 나리동	0.235	

資料：慶尙北道 觀光課

6. 其他 法定觀光地

그 밖에 特殊目的으로 관광지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청소년 야영장, 자연학습원, 심신수련장, 도시공원, 유원지 등이 있는데, 청소년 야영장이란, 靑少年들이 적은 돈으로 마음놓고 우정을 나누며 心身을 단련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운동시설, 강당, 시청각실, 전기, 전화, 종합시설 등 기본시설을 갖추어 놓은 지역이다. 域内에는 현재 경북 청도군 매전면 장연동산 8번지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淸道野營場이 있다.

自然學習園이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자연애호정신을 증진시키고 심신단련과 학습훈련으로 협동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곳으로, 합숙, 연수, 관찰, 취사시설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심신단련장과 마찬가지로 초·중고·대학생 및 지도교사, 청소년단체회원, 노동청소년, 자연보호회원, 직장·기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1주일 이내의 短期教育을 하고 있는데, 域内에서는 1983년에 개원한 구미시 금오산에 자연학습원이 있다.

心身修練場은 청소년야영장이나 자연학습원과 비슷한 목적 및 시설에다, 특히 모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域内에는 大邱의 앞산에 1개소가 1984년부터 개장되어 있다.

한편 都市公園法에 의한 역내 주요 都市公園으로서는 大邱의 두류공원, 망우고원, 앞산공원, 어린이대공원을 비롯하여 경주의 홍성공원 등이 있고, 都市計劃法상의 유원지로서는 大邱의 수성유원지와 동춘유원지, 그리고 慶北達城郡의 화원유원지와 냉천유원지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7. 觀光客 來到 現況

우리 나라 觀光産業의 초기 발달단계였던 1960년대는 觀光政策이 주로 외화획득에 의해 國際收支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국제관광부문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내국인의 관광부문, 즉 국민관광은 소홀히 다루어졌다.

그후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經濟開發計劃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국민소득이 증대됨과 더불어 국민들의 여가선용 욕구가 증대하기 시작함에 따라, 觀光政策도 국제관광 일변도에서 국민관광의 병행 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는 정부가 국민관광을 복지행정적 차원에서 인식하여, 國際觀光과 國民觀光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외국인 입국자는 1964년의 2만 4,954명에서 1968년에 10만명을 넘어섰고, 1978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하게 되었으며, 1987년에는 187만 8,308명으로, 전년대비 13.2%가 늘어났다. 이들 외국인 관광객을 국적별로 보면, 일본이 89만 6,701명으로 전체의 47.7%, 미국이 32만 6,397명으로 17.4%씩을 차지하여 이들 양국에의 의존도가 전체의 65.1%에 이르고 있다.

또한 來韓 目的別로는 1986년의 경우, 순수 관광목적이 61.6%이고, 상업상으로 내한한 경우가 16.1%, 訪問이나 視察目的이 14.2%, 공무가 4.5%, 기타 3.6%이다.

그리고 이들이 입국한 장소별로는 김포공항이 75.9%, 김해공항 14.9%, 제주공항 4.1%로 항공기 이용이 전체의 9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항구가 3.0%, 인천항구가 0.2%, 기타항구가 1.9%로 선박 이용자는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大邱地域 觀光客의 增減推移를 보면, 1980년에 1,483만명이던 것이 1983년까지 연평균 16.3%씩 계속 증가하다가, 1984년 중에는 전년대비 9.7%인 215만명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으나, 그후 현재까지 연평균 38.9%씩의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1987년도에 大邱地域을 다녀간 관광객수는 총 4,314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內國人이 4,231만명으로 98.1%를 차지하고 있으며, 外國人은 83만여명으로 1.9%에 불과하다.

이러한 域內 觀光客 現況을 다시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2,618만명으로 6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은 1,696만명으로 39.3%이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만으로 본다면, 경북이 55만명으로 69.9%인데 반해, 대구는 28만명선으로 34.1%를 차지하여 내외국인을 합한 전체 관광객 점유비와 정반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域内の 觀光客 중 内國人 觀光客의 주류층이 대구시 및 인근 거주자들로 구성되어, 이들이 주로 공휴일을 이용하여 휴식을 목적으로 하루 또는 몇 시간씩 교통이 편리한 대구시내의 도시공원이나 유원지 등을 찾고 있는 대신,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는 대구보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주지역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域内 觀光地別 입장객의 수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즉 <表 13-26>에서 보면, 역내 22개의 주요 관광지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지역은 두류공원으로 이곳의 내국인 관광객은 연간 6백만명을 넘고 있으며, 2위와 3위도 역시 대구시내의 팔공산과 앞산공원으로, 각각 4백만명을 넘는다. 그 다음으로는 4위에 경주보문단지, 5위에 불국사, 6위에 대구 달성공원, 7위에 울진의 백암온천, 8위에 경주박물관, 9위에 석굴암, 10위에 경주대릉원, 11위에 구미시의 금오산, 12위가 대구 망우공원이다.

그러나 外國人 觀光客 規模로는 1위에서 5위까지가 모두 경주지역으로, 이들 5개 관광지의 外國人 觀光客 數가 연간 모두 10만명을 上廻하고 있으며, 6위가 구미시의 금오산으로 2만명, 7위가 하회민속마을로 1만명 등이며, 대구지역 관광지로서는 앞산공원과 달성공원이 각각 8위와 9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인원수는 각각 4천명선, 2천명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表 13-26> 大邱地域의 年度別 觀光客 推移 (단위: 천인)

구분 연도	대구 직할시(A)			경상북도(B)			합 계 (A+B)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1980	8,695	118	8,813	5,764	249	6,013	14,459	367	14,826
1981	10,596	135	10,731	6,504	305	6,809	17,100	440	17,540
1982	11,941	145	12,086	7,459	299	7,759	19,400	444	19,845
1983	13,050	127	13,176	8,567	314	8,882	21,617	441	22,058
1984	10,642	148	10,790	8,760	362	9,123	19,402	510	19,913
1985	15,720	183	15,903	11,075	430	11,505	26,795	613	27,408
1986	19,192	329	19,520	12,571	392	12,963	31,763	721	32,483
1987	25,896	285	16,410	16,410	550	16,960	42,306	835	43,141

資料: 大邱直轄市, 《大邱統計年譜》 및 慶尙北道, 《慶北統計年譜》

〈表 13-27〉 大邱地域의 年度別 觀光收入實績 推移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대구 직할시(A)			경상북도(B)			합 계 (A+B)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1980		4,476	773	5,249	12,982	3,328	16,310	17,458	4,101	21,559
1981		5,651	1,245	6,896	13,676	5,680	19,356	19,327	6,925	26,252
1982		6,044	1,431	7,475	23,057	6,616	29,673	29,101	8,047	37,148
1983		5,768	1,727	7,495	45,262	8,166	53,428	51,030	9,893	60,923
1984		6,196	2,091	8,215	28,385	10,995	39,380	34,581	13,014	47,595
1985		5,631	2,184	7,815	34,325	10,508	44,833	39,956	12,692	52,648
1986		11,271	5,408	16,679	42,926	9,134	52,060	54,197	14,542	68,739

資料: 大邱直轄市, 《大邱統計年譜》 및 慶尙北道, 《慶北統計年譜》

8. 觀光收入 實績

大邱地域의 觀光收入實績을 살펴보면 1980년에 216억원이던 것이 1983년에는 609억원으로 3년간 年평균 60.9%씩 늘어났다가, 1984년에 476억원으로 떨어졌으나, 그 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6년 실적은 687억원이었다.

이를 地域別로 보면, 대구직할시가 167억원, 경북이 521억원으로 양지역의 점유비가 24.3% 대 75.7%인데, 이는 同期間(1986년) 중 관광객수의 점유비인 60.1% 대 39.9%와는 크게 상반되는 현상이다. 이는 대구직할시내의 경우 당일 또는 시간단위의 관광객이 주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찾는 관광지도 대부분 무료입장지역인데 반해, 경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숙박관광객이 많은데다가, 유료입장 관광지가 많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第2節 레저 스포츠

I. 레저 스포츠 振興의 背景

레저 스포츠진흥의 배경에는 국민생활수준 향상 및 여가 증대로 레저 스포츠에 대한 市民欲求가 多樣化 해짐으로써 건전 레크레이션 및 여가 선용 시설의 확충으로 청소년 문제등 사회문제 해결과 나아가서 競技力 向上으로 시민의 단결과 명예, 긍지를 높이려는데 있다.

II. 레저 스포츠의 目標

시민 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나아가서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또한 생활 체육의 확산을 통해 시민기본체력의 향상과 自我實現 욕구를 충족한다.

한편 경기력 향상과 체육행사의 생활화로 체육의식고취 및 시민의 단결, 애향심을 제고시키는데 시민 레저 스포츠의 기본 목표를 두었다.

III. 레저 스포츠의 推進計劃

1. 社會體育의 活性化

- 시민 체육 클럽의 육성
- 생활 체육 활동의 일상화
- 시민 체력 평가제의 시행
- 직장 체육의 육성
- 국민 체조의 생활화
- 각종 체육대회의 내실확대

2. 學校 體育의 振興

- 학생기본 체력의 향상
- 학교간 경기대회 개최
- 교기 지정 육성
- 체육 학교 설립

3. 優秀選手 및 指導者 養成

- 우수선수 조기발굴 육성
- 시 대표선수 육성
- 정책종목의 중점육성
- 대학 및 실업팀 창설

- 우수지도자 확보
- 우수선수 훈련센터 설치운영
- 유공선수 기념 광장 조성
- 체육단체 활동 강화

4. 體育施設の 整備擴充

- 체육시설의 개방활용
- 체육시설의 확충
- 학교체육 시설의 개방
- 체육공원 이용의 생활화

5. 體育振興基金의 造成

- 기금 조성
- 기금 운용

Ⅳ. 레저 스포츠의 投資計劃

1. 總事業費

◎ 17,609百萬元

- 市 1,793백만원 • 體育會 6,209백만원
- 市教委 4,257백만원 • 民 資 5,350백만원

2. 年度別 內譯

(단위: 百萬元)

計	1986	1987	1988	1989	1990
17,609	1,842	1,757	6,532	1,938	5,540

3. 年度別 機關別 內譯

(단위: 百萬元)

구 분	計	市	市教委	體育會	民 資
計	17,609	1,793	4,257	6,209	5,350
1986	1,842	688	50	1,104	
1987	1,757	161	51	1,195	350
1988	6,532	195	52	1,285	5,000
1989	1,938	574	52	1,312	
1990	5,540	175	4,052	1,313	

V. 레저스포츠 施設 現況

1. 公共體育施設 現況

(단위: m²)

구 분	부지면적 (m ²)	시 설 내 역			수용인원 (명)
		경기장	스탠드	녹지 및 기타	
계(21개소)	530,523	171,173	61,291	298,059	123,140
시 민 운 동 장	93,423	37,978	15,960	39,485	30,000
시 민 운동장야구장	20,500	13,843	6,657		15,000
시 민 체 육 관	5,353	1,147	829	3,377	960
두 류 축 구 장	33,025	17,926	15,099		30,000
두류운동장야구장	31,300	14,900	8,640	7,760	19,000
두 류 유 도 관	2,300	558	557	1,185	500
두 류 수 영 장	54,803	5,005	3,652	46,146	8,000
두 류 다 이 빙 장	1,720	625	310	785	200
두 류 테 니 스 장	13,628	7,436	605	5,587	540
대 구 체 육 관	19,770	2,404	3,622	13,744	7,000

구 분	부지면적 (㎡)	시 설 내 역			수용인원 (명)
		경기장	스탠드	녹지 및 기타	
대구 체육관 유도도장	1,500	1,278	109	113	140
봉 무 사 격 장	57,418	14,849	684	41,885	700
만촌자전거경기장	44,955	3,880	772	40,303	1,800
궁 도 장	8,698	4,350		4,348	500
양 궁 장	3,501	2,700		801	5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9,918	2,012		7,906	1,000
만 촌 로 울 러 장	5,290	1,689	285	3,316	800
대 덕 승 마 장	48,611	9,620	900	38,091	500
범 어 궁 도 장	5,950	4,350		1,600	
수 성 구 민 운 동 장	22,260	14,450	2,610	5,200	5,000
봉 무 레 포 츠 공 원	46,600	10,173		36,427	1,000

2. 水泳場 現況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면 적(㎡)		정 원 (명)	
			바닥(총)	수영조	입 장	수영조
사 록	선스포츠	수성구 범어4동 332	898(2,636)	463	270	150
	효성코아	남구 봉덕2동 1071-6	1,189(2,199)	495	360	160
	광장코아	서구 내당4동 463-34	1,199(2,042)	495	360	160
	유성스포츠	수성구 범어3동 1801	730(1,512)	430	220	140
	정 우	남구 대명1동 629-1	354	180	100	60
설 고	파크실내	수성구 만촌1동산98-1	1,365	678	410	220
	파크실외	〃	4,060	1,670	1,230	550
	앞 산	남구 봉덕3동 산152-1	2,180(3,332)	1,152	660	380
	칠곡태양열	북구 읍내동 982	619 (820)	377	190	100
	레저타운					(98)
	녹원스포츠	수성구 지산동 761-8	515 (841)	262	150	80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면 적(㎡)		정 원 (명)	
				바닥(총)	수영조	입 장	수영조
사 설	신 고	삼익뉴타운 (실외)	서구 내당동 308-1	868(1,980)	418	260	130
		그린파크 (실외)	동구 효목1동 1015	2,550(4,959)	1,617	1,210	440
		시민운동장 (실외)	북구 고성3가 2	5,200 (〃)	2,653	1,570	880
		두류·실내	달서구 성당2동 169-1	4,300(5,100)	1,284	1,300	420
		두류·실외	〃	9,910(12,500)	3,000	3,000	1,000
		올 림 픽 기 념 관	달서구 본동산 37-5 (본리공원)	1,152(1,645)	495	340	160
		미리내아파 트(실외)	남구 봉덕3동 89-3			130	60
		대덕빌라 (실외)	수성구 지산동 1190			70	30

3. 學校體育施設 現況

1) 學校現況

(단위: 개)

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비 고
279	133	83	63	93.3 현재

2) 開放實態

(단위: 개)

구 분 (시 설 별)	개 소 수				개 방 시 설 수				개방율 (B/A)
	계(A)	초	중	고	계(B)	초	중	고	
계	505	221	150	134	418	194	131	93	83 %
운 동 장	248	127	69	52	243	127	68	48	98 %

구 분 시 설 별	개 소 수				개 방 시 설 수				개방율 (B/A)
	계(A)	초	중	고	계(B)	초	중	고	
체육관(강당)	57	21	11	25	24	7	7	10	42 %
야 구 장	7	1	3	3	6	1	3	2	86 %
테니스장 (면수)	128 (186)	46 (61)	48 (70)	34 (55)	89 (129)	33 (44)	38 (54)	18 (31)	70 %
배구장	22	10	5	7	21	10	5	6	95 %
사격장	5		3	2	1		1		20 %
농구장	16	5	5	6	15	5	5	5	94 %
핸드볼장	9	3	3	3	8	3	3	2	89 %
씨름장	11	8	1	2	11	8	1	2	100 %
기 타	2		2						

4. 大邱直轄市 마을體育施設 現況

구별	시설수	조성면적 (m)	시 설 유 형 별								체력 단련 시설 (점)	부대 편익 시설 (점)
			체 육 공 원	고 수 부 지	마 을 공 터	아 파 트 단 지	약 수 터	등 산 로	도 시 공 원	기 타		
계	39	342,678		7		3		5	19	5	841	2,314
중 구	1	54,502		1							25	158
동 구	7	128,667		3		1			1			547
서 구	5	4,119						1	2	3	75	130
남 구	6	32,419							6		217	481
북 구	3	6,988		1		2					44	48
수성구	10	99,094		2				4	3	1	239	718
달서구	7	16,889							7	114	234	

5. 약수터 現況

구 별	명 칭	소 재 지
계	14개소	
동 구 (3)	동화사 약수터	팔공산 동화사내
	부인사 약수터	팔공산 부인사내
	도 동 약수터	평광동 입구
남 구 (11)	고산골 제1약수터	심신수련장 토굴암 동편 200M
	고산골 제2약수터	심신수련장 야외무대 동편 30M
	고산골 제3약수터	심신수련장 야영장 동편 500M
	고산골 제4약수터	심신수련장 야영장 남편 200M
	대덕사 약수터	대덕사 위로 500M (안수암 옆)
	안일사 약수터	안일사 입구
	운주사 약수터	파동 용두골 운주사밑
	은적사 약수터	앞산 케이블카 동편 150M
	매자골 제1약수터	매자골 체육공원옆
	매자골 제2약수터	매자골 200M
	매자골 제3약수터	매자골 좌측 100M

6. 市民運動場

1) 위치 : 대구직할시 북구 고성 3가 2번지

2) 연혁

- 1948. 4. 20. 운동장 건립
- 1975. 7. 21. 주경기장 중·개축
- 1981. 11. 15. 주경기장 전천후 포장 (1종 경기장 공인)
- 1985. 8. 아주대회대비 주경기장 전면보수
- 1988. 9. 88올림픽 대비 주경기장 전면보수

◦ 시설규모

경기장 총면적 : 119,276㎡ (녹지 및 공지 44,800㎡ 포함)

경기장별	경기장(잔 디)	스탠드(단 수)	규격(M/면)	수용인원(최대)
계	51,868(29,274)	22,600	—	52,00(65,000)
주경기장	18,610(8,850)	10,004(23-28)	•트랙400×8	24,000(30,000) (의자 : 23,278석)
야 구 장	13,843(9,300)	6,657(13-21)	•좌우 98m •중앙 114m	13,000(14,000) (의자 : 12,681석)
정 구 장	4,056	1,297(7)	11×23.8×3면	4,000(6,000)
배 구 장	4,274	1,310(9)	9×18×3면	5,000(7,000)
수 영 장	2,700	2,547(5)	50×25×2면	3,000(4,000)
보조구장	8,385(7,850)	802(8)	90×67	3,000(4,000)

7. 大邱體育館

1) 위치 : 대구직할시 북구 산격동 1427-1

2) 연혁

- 1965. 5. 경북체육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경상북도)
- 1971. 4. 경북체육관 건립
- 1975. 6. 경북도로부터 재산 및 관리권 인수
- 1984. 9. 대구체육관으로 명칭 개칭

3) 시설규모

(단위 : m²)

부 지	연 건 평	경 기 장	스탠드	수용능력	비 고
21,270	14,735	1,970	3,513 (7-12단)	7,000명	부속도장-4개소 (의자 : 5,604석)

4) 부대시설

시 설 별	시 설 내 용	수 량	비 고
수전설비	200KVA	1회선	예비 1회선 비상발전기 1대 (145KW)
조 명	매탈할라이드 2KW	84등	조도 1,500-7,000
방 송	•앰 프 100-240W •스피커 15-125W	18대 158대	— —
전 광 판	전자식 4×1.3M	2조 4면	—
난방설비	온풍기 200,000 kcal/HR	7대	—

註 : 주차능력 : 3개소 120대

8. 봉무 射擊場

1) 위치 : 대구직할시 동구 봉무동 산 139번지 (봉무공원내)

2) 연혁

- 1984. 8. 사격장 건립
- 1984. 9. 사격장 시설 공인인가

3) 시설규모

(단위 : m²)

부 지	연 건 평	경 기 장	스 텐 드	사 대	수용능력(석)
61,988	2,515	12,114	342	93	484

註 : 사대, 실내 80, 스킵트 8, 트랩 5

4) 부대시설

시 설 별	시 설 내 용	수 량	비 고
전 기	계약전력 66KW	1회선	—
방 송	· 앰 프 150-240W	5대	—
	· 스피커 3-20W	26대	—
자동방출기	서킷트	2대	—
	트 랩	15대	—
무 기 밋	무 기 17m ²	1개소	—
탄 약 고	탄약고 5m ²	1개소	—
용 수	취수펌프 20 (지하수)	1대	—

註 : 주차능력 : 2개소 70대

9. 두류 水泳場

1) 위치 : 대구직할시 달서구 성당동 169-1

2) 연혁

- 1984. 7. 25 수영장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경상북도)
- 1984. 9. 22 제1종 경기장 공인(대한수영연맹)
- 1991. 4. 20 다이빙장 지붕 설치(수용인원 200석)

3) 시설규모

(단위 : m²)

부 지	연 건 평	스탠드	녹지 및 기타	플 장	수용능력(최대)
56,523	13,761	3,652 (4-7단)	47,800	6개소	1,531명 (6,500)

4) 부대시설

시 설 별	시 설 내 용	수 량	비 고
수전설비	1.150KVA	1회선	비상발전기1대(400)
방 송	·앰 120W ·스피커 10-150W ·믹서기(16 IN-40 OUT)	16대 107대 1대	-
전 광 판	전자식 7.1×4.1M	1조 1면	-
통 신	자동교환기센트리 40형	1대	국선100회선, 내선250회선
냉 난 방	·보일러 7톤 ·난방기 600,000kcal/HR ·냉방기 45,000kcal/HR	2대 2대 1대	-

註 : 주차능력 : 1개소 26대

10. 만촌 自轉車競技場

1) 위치 : 대구직할시 수성구 만촌동 60-1(망우공원내)

2) 연혁

- 1984. 9. 20 경기장 건립
- 1984. 9. 22 1종 벨로드롬 경기장 공인(대한 사이클 연맹)
- 1985. 4. 9 국제공인(국제 사이클 연맹)

3) 시설규모

(단위 : m²)

부 지	연 건 평	경 기 장	스탠드	녹지 및 기타	수용능력
62,501	1,929	3,880	772	57,848	2,000명

註 : 피스타(콘크리트) : L=333^m 1/3^m, B=9^m, 경사도 7-38.5°

4) 부대시설

시 설 별	시 설 내 용	수 량	비 고
전 기	계약전력 52KW	1회선	—
방 송	·앰 프 60-240W ·스피커 3-60W	5대 31대	—
용 수	취수펌프 20HP	1대	—

註: 주차능력: 5개소 80대

수 목: 메타세코이아외 41종 5,107본 (시민운동 전체분)

5) 시설연혁 및 주요행사

시민운동장 전체분

- 1948. 4. 20 대구운동장 건립
- 1962. 10. 23 종합경기장(개칭)
- 1962. 10. 24 제4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 1963. 8. 5 종합경기장 시설 인수(경북 체육회로부터)
- 1975. 10. 1 1종경기장 공인(대한 육상연맹)
- 1975. 10. 7 제5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 1976. 1. 1 대구시민운동장 개칭
- 1978. 5. 27 제 7 회 소년체육대회 개최
- 1981. 11. 15 주경기장 전천후 포장
- 1981. 12. 4 전천후 1종 경기장 공인(대한육상연맹)
- 1984. 10. 11 제6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 1986. 9. 21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 대구축구 예선대회 개최
- 1988. 9. 17 제24회 서울올림픽경기 대구축구 예선대회 개최

11. 봉무 레포츠公園 現況

- 1) 위치: 동구 봉무동 산 153-2 일원
- 2) 면적: 46,000㎡(시설 10,173, 도로 15,668, 주차장 2,962, 녹지공간 17,797)
- 3) 시설내역
 - 체육시설: 7종 12면(테니스장 2면, 농구장 1면, 배드민턴장 3면, 게이트볼장 2면, 배구장

- 2면, 로울러 스케이트장 1면, 씨름장 1면)
- 체력단련시설 : 20종 40점
 - 어린이 놀이시설 : 7종 7점
 - 피크닉 시설 : 5종 11개소(야외 공연장1, 야영장2, 취사장1, 음수대3, 구이시설4)
 - 편익시설 : 5종 9동(관리소 1동, 화장실 4동, 샤워실 2동, 노인정 1동, 매점 1동)
 - 기타시설 : 8종 84점(파고라4, 벤치332, 휴지통22, 소각장1, 오물집하장1, 방향유도관3, 종합안내판1, 시설안내판20)
- 4) 주차장 : 74대 (대형 19대, 소형 55대)
- 5) 이용인원 : 동시수용 600명, 1일수용 2,000명
- 6) ·사업비 : 2,372백만원
- 채원별 : 교부세 300, 시비 1,972, 구비 100)
 - 투자별 : 공사비 1,976, 보상비 396
- 7) 공사기간 : 1990. 12. 22~1992. 10. 17
- 8) 개관일 : 1992. 10. 31

12. 體育施設業 現況

구 분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합 계		1,901	249	282	265	214	329	329	309
등 록 시 설	소 계	39	7	5	4	3	6	10	4
	골프장(회원제)	1		1					
	빙 상 장	1							
	종합 체육 시설	37	7	4	4	3	6	9	4
신 고	수 영 장	7(4)		1(1)	1(1)	2(1)		3(1)	
	볼 링 장	22	6	1	3	1	4	3	4
	정 구 장	25		7	1		4	8	5
	골 프 연 습 장	27		3	2	4	2	12	4
	탁 구 장	81	9	13	12	11	14	13	9
	롤러스케이트장	9(5)		2(2)	2(2)	1	1		3(1)
	체 력 단 련 장	64	12	7	10	8	6	6	15

구 분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체	미 용 체 조 장	136	9	30	23	9	14	27	24
	당 구 장	1,097	182	147	157	133	208	106	164
육	체	소 계	394	24	66	50	42	70	77
		권 투	8	2		3		2	1
		유 도	8		1		1	2	4
시	육	태 권 도	225	14	37	22	24	43	44
		합 기 도	102	5	18	20	9	16	24
설	도	육 체 미	6	1			1	2	2
		우 슈	12		4	1	3	1	2
	장	활 기 도	3	1	1			1	
		요 가	8				2	1	3
		권 격 도	1	1					
		수 박 도							
		활 법	7		4	1		1	1
		격 투 기	3				2	1	
		공 권 도	1			1			
		검 도	6		1	2		1	2
		궁중무술	1				1		
		십 팔 기	1					1	
		도 봉 술	1				1		
		불 무 도	1					1	

第3節 地域 觀光產業의 課題와 展望

I. 觀光資源開發小圈의 設定과 積極的 開發

관광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전국토의 관광자원개발이라는

전국적, 종합적인 계획을 대전제로 하여 역내 관광자원을 일정한 범위의 합리적인 관광지역으로 분할·적정화하는 관광권의 설정이다. 따라서, 최근 교통부에서는 전국토의 관광자원화와 권역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기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 연계성을 지닐 수 있는 8대 관광이용권을 설정하고 26개 관광개발소권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8대 관광이용권중에서는 영남권에 속하고, 26개 관광개발권으로 보면 경주권과 안동권 및 가야산권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관광개발소권의 설정은 타시 도와의 유기적인 연계성과 권역내 관광자원 특성을 중요시하되 가급적 시, 군, 면 등의 행정구역과 경계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II. 國民觀光客을 위한 觀光施設の 擴充

지금까지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시책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옴으로써 주요 관광지내에서의 관광시설도 주로 고급호텔 및 부대위락시설이 중추를 이루고 있어 일반대중이 이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오늘날 국민 관광객은 급증추세를 보이면서 관광목적도 매우 다양한 실정이어서 국민관광수요에 부응하여 가족단위의 숙박이나 휴양에 적합하고 저렴한 여러가지 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III. 綜合觀光情報센터의 設置

관광객들은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관광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세밀한 관광 ‘스케줄’을 세워야 하는데, 이때에 각 관광지에 대한 관광자원의 특성과 교통사정 소요시간과 이용시설현황 등 종합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내에서 관광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곳은 여행사나 관광협회 및 관광안내소 등이 있으나,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어서 잠재적인 관광수요자들이 관광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종합관광정보센터의 설치가 당면과제라고 하겠다.

IV. 交通網의 擴充 및 整備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외 및 외국인 관광객들을 최대한 유치하고 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지역 관광지를 순회할 수 있도록 교통망의 확충 및 정비가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대구-춘천간의 중앙고속도로가 조속 개통되고 대구에 국제공항이 설치되며 포항-울릉도간의 운항선박의 초고속화 및 운항회수의 확대, 경비행장 설치 등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V. 觀光行政體系의 一元化

관광자원의 개발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비롯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등 여러가지 다른 법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관광지의 지정이나 관리문제에 관한 규정은 관광진흥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온천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관광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조직망은 교통부, 건설부 및 문화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관광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교육부, 보사부, 내무부, 산림청, 수산청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한다. 지방행정망에서도 관광과, 도시과, 공원과, 문화재계 등이 각각 그 상급의 조직단위인 국이나 실 등을 달리하여 편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체계 및 행정조직의 다원화는 관광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법체계의 정비 및 행정조직의 일원화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VI. 觀光弘報活動의 強化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홍보활동이 강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사업체에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서어비스 개선을 기하고 매력있는 관광 기념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第14章 經濟團體 및 經濟關聯 研究機關

이 章에서는 대구지역의 주요 경제단체와 경제관련 연구기관의 연혁 및 사업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大邱商工會議所에서 1993년에 발간한 〈大邱地域 協同組合, 商工團體 現況〉資料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약 50여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50여개의 전국상공단체 지부 및 20여개의 지방상공단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경제단체가 대구지역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 가운데 大邱商工會議所를 비롯한 몇개의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960년대 초 이후에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금까지 大邱地域 經濟團體에 대한 歷史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¹⁾

일반적으로 ‘經濟團體’란 동일 산업 혹은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옹호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 결성되어진 단체로서 會, 協會, 聯合會, 組合, 協同組合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團體史를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통사적 측면에서 각 시대별로 경제단체의 성립과정을 살펴보는 방법과 각 주요 단체의 역사를 연혁에 기초하여 주요 사업내용과 조직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前者의 방법이 단체사에 대한 巨視的 분석이라고 한다면 後者의 방법은 微視的 분석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양자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團體史에 대한 거시적 분석방법은 대구지역 경제단체의 변천과정을 대구경제의 변화와 함께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단체가 196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시대구분의 의미가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시적 분석 방법은 주요 경제단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경제단체 전체를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구지역 경제단체에 대한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第1節에서는 大邱地域 經濟團體의 주요형태와 성립과정을 시대별로 개관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1960년대 이전의 경제단체의 성립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 초점을

1) 대구지역 경제단체사에 대한 포괄적 연구는 없으나 각 경제단체에 대한 연구로는 1977년과 1986년에 大邱商工會議所에서 발간한 《大邱商工會議所七十年史》와 《大邱商議八十年史》가 있으며, 1990년에 纖維技術振興院에서 발간한 《大邱纖維產業史》의 제8편 〈域內 主要 纖維 有關團體〉에 대한 연혁 및 현황소개가 있다. 사실 개별 경제단체에 대한 자료로도 위의 자료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맞출 것이다. 第1節에서의 분석을 토대로하여 第2節부터 第4節까지는 대구지역 주요 경제단체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第2節에서는 대구지역에서 소위 우리나라의 경제5단체로 불려지는 大韓商工會議所, 韓國貿易協會, 韓國經營者總協會,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 全國經濟人 聯合會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大邱商工會議所, 韓國貿易協會 大邱慶北支部,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大邱慶北支部, 大邱經營者協會 및 農業協同組合 中央會 大邱支部의 역사와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第3節에서는 대구가 섬유도시인 만큼 섬유관련 협동조합의 결성이 두드러지다는 점에서 이들 조합의 연혁과 주요사업 내용을 정리해 볼 것이다. 第4節에서는 第2節과 3節에서 논의의 성격상 제외되었으나 대구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타 주요 전국단체의 지부나 지방단체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²⁾ 따라서 第2節에서 第4節까지의 각 단체에 대한 논의는 사실 資料의 개괄적인 정리 차원을 벗어나기 어렵다.

한편 第5節에서는 대구지역에 존재하는 경제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구지역에 경제관련 연구기관의 역사는 매우 일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역사적 분석이라기 보다는 資料의 정리 차원에 머물 수 밖에 없다.

第1節 大邱地域 經濟團體史 概觀

세계사적으로 경제단체에 대한 역사는 中世都市의 商人길드(guild of merchant)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중세 서구에서 도시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상인이었으며, 이들은 봉건영주 계급에 대항하여 자기계급의 권익을 옹호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組合을 조직하고 도시자치권을 획득하여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로 결성된 상인길드는 그 내부에 대해서는 각종 규약을 설정하고 상인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영업시간, 영업조직, 가격 등에 대한 단속규약을 만들고 또 상호간의 이익을 방해하는 경쟁을 배제하려 하였다.

또 상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호협조와 곤란시의 원조 등 사회보험의 사업도

2) 이 글을 위해 대구지역에 존재하는 100여개 이상의 협동조합 및 상공단체에 자료협조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나 50여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자료를 제대로 보내 준 단체는 불과 7~8개 단체에 불과했다. 하는 수 없이 이 글을 정리하는데 꼭 필요한 단체는 방문조사를 하였고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서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생략할 수 밖에 없었다.

하였다. 그런데 상인길드는 상인계층의 상호이해관계에서 결합된 단체라는 점에서 領主的關心에서 결속된 신분적인 장원질서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동직자의 상호협조관심에서 조직된 것이며, 비경제적인 강제력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기업가 협동과는 일치될 수 없었다.³⁾

한편 상인길드의 도시차치권에 대한 독점에 대항하여 도시의 수공업자들 역시 同職者組合인 수공업자(혹은 工匠)길드(craftman guild, Zunft)를 결성했다. 이 수공업자길드가 어떻게 상인길드에 대항했으며, 그 투쟁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는 각국의 정치적 사정 및 상인길드 조직과 수공업자 길드 조직의 역관계에 따라 그 경과를 달리하고 있었다.

대체로 영국의 경우에는 상인길드가 수공업자를 포용하는 종합길드(general guild)적인 성격이 강했음에 반해 독일의 경우에는 상인길드와 수공업자 길드간에는 대항적 관계로 나타났다. 수공업자 길드 역시 상호부조와 공장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구성원의 공존공영을 경제윤리로 한 공동체로서의 수공업자 길드는 대내적으로 구성원간의 경쟁을 배제하고 대외적으로 독점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14세기 중엽 이후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匠人과 職人の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장인의 지위는 점점 세습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一般職人은 점점 匠人으로 상승할 기회로부터 배제되었다.⁴⁾ 이에 따라 장인과 직인간에 계급적 분리가 나타났고, 職人은 장인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소위 職人길드(yeomen guild, journeymen's society)를 조직하였다. 직인길드는 기존의 수공업자길드 체제내에서의 근로조건 개선에 지향하고 장인에 대한 대항도 타협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近代勞動組合의 선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⁵⁾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세도시에서 성립 발전된 상인길드와 수공업자길드는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협동조합이나 상공단체의 모태가 되었고, 직인길드는 노동단체인 노동조합의 모태가 되었음을 알 수

3) 趙璣濬, 《社會經濟史》, 日新社, 1987, pp. 204~211 참조.

4) 수공업자 길드는 匠人(master), 職人(journeyman) 및 徒弟(apprentice)의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匠人은 작업장, 도구 및 원료를 소유하고 자신의 노동과 함께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여 공업생산을 영위하는 자본가이며 노동자였고 독립적인 생산자이며 판매자였다. 徒弟는 일정기간(3~8년)동안 匠人과 동거하면서 노동봉사를 하는 한편 그로부터 기술을 습득하는 修習工을 말한다. 도제기간이 지나면 도제는 職人으로 된다. 職人은 임노동자로서 어느 匠人과도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았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金宗炫, 《經濟史》, 경문사, 1988, pp. 109~110.

5) 김종현, 앞의 책, p. 111.

있다.⁶⁾ 이하에서는 경제단체에 대한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대구 경제단체의 생성과정을 시대별로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I. 舊韓末까지의 經濟團體

우리나라의 經濟團體에 대한 역사는 조선시대에 오늘날 협동조합과 유사한 상부상조의 원리에 바탕을 둔 契組織이나 鄉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이전의 경제단체에 대하여 상세히 고찰할 수 없는 것은 역사적 資料 자체가 미비할 뿐 아니라 상품화폐경제와 수공업의 미발달로 인해 서구의 중세도시에서와 같은 상인길드나 수공업자 길드적인 권익옹호 단체로서의 성격이 약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 후기 資本主義 萌芽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수공업자 조합에 대한 資料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항 당시까지 존속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상인단체로는 樛負商團과 貢人組合⁷⁾ 및 市塵人 組合⁸⁾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공인조합과 시전인 조합은 주로 한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인단체이기 때문에 大邱와는 거의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樛商團의 경우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경상도 지방의 상업중심지였던 大邱에도 일정한 조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보부상⁹⁾의 길드적인 조직은 조선조 초기부터 생긴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보부상단은 樛商團과 負商團의 두개 단체로 발족하였다. 이들은 단원 상호간의 친목과

6) 따라서 經濟團體를 광의로 표현한다면 상공단체 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즉, 노동조합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경제단체’라는 표현은 자본가들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협동조합과 상공단체에 한정하여 살펴 볼 것이다.

7) 貢人組合은 大同法 실시 이후 정부의 需用品을 조달하는 貢人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들은 정부의 수용품 조달과정에서 이권을 독점 장악하고 타인의 침범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貢人 契(組合)를 조직하고 공인상호간의 친목과 同濟相救의 엄격한 규율을 갖고 있었다. 조기준,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 대왕사, 1982, p. 296 참조.

8) 여기서 말하는 시전인 조합이란 六矣廬을 중심으로 조직된 ‘都中’을 말한다. 이들은 한국경제에서 개항 전후에 존속하고 있었던 주요한 상인단체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1791년의 辛亥通共 이후에도 특권적인 상업활동을 영위해온 六矣廬은 개항 이후 상업의 자유화 풍조가 거세게 몰아치자 ‘都中’을 중심으로 더욱 굳게 뭉쳤으며 상호간의 계율도 엄격하였다. 그러나 갑오개혁에서 육의전의 특권이 폐지되고 상업의 자유화가 선포되면서 ‘都中’은 와해되었다.

9) 樛商은 직물이나 금은세공품을 樛에 싸가지고 다니며 장사하는 ‘벗집장사’이며, 負商은 도기, 가구, 소금, 담배, 해초류 등을 지게에 지고 다니는 장사를 말한다. 보부상은 지방시장을 순회하면서 화물의 매매에 종사하는 행상이었고, 이들은 서구의 길드와 같은 강력한 조직체로 결성되어 있었다.

상호단결을 도모하고, 비단원으로부터 상권침탈을 보호하기 위해 성립된 전국적인 단체로서 각 道에는 지역단원을 관리하는 接長을 두었고 그 위에 도의 단원을 총괄하는 都接長을 두어 엄격한 규율 하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항 후 거세게 유입되는 상업자유화 풍조는 한국의 전통적인 상인단체의 특권을 용인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상인단체의 개편은 정부의 정책적인 추구하고 상인층의 자발적인 결속을 서로 보완하면서 전개되어 나갔다. 1883년에 설치된 惠商工局¹⁰⁾의 설치와 1895년의 商務會議所 規則의 발포는 전자의 예이고, 개항 후 부산, 원산, 인천 등 주요 개항장에 조직된 商議所 혹은 商會所와 光武年間に 전국 주요 도읍에서 결성된 한국인 상업회의소는 후자의 예라 하겠다.¹¹⁾

이처럼 외국상인의 시장침탈 활동이 본격화된 것을 계기로 하여 해상공국이 설치될 무렵 대구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조직의 보부상단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商團을 조직했으며 그 활동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거의 알 수 없다. 다만 崔正福 編著의 《大邱天主教會史》의 기록에 따르면 대구 보부상단의 중심인물은 ‘앞박걸’ (지금의 桂山洞 1街로 옛 대구성의 남문)의 천주교 신자였던 상인이 많았다는 점과 이들 가운데 崔哲學이란 인물이 1870년대부터 대구지방 보부상단의 都會長으로 활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¹²⁾ 또한 대구의 보부상단이 해상공국의 설치로 지방관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재조직되어 활동했는지도 알 길이 없다. 단지 당시의 지방 行政街의 실정은 중앙에서 상업을 중하게 여겨 보부상을 조직하기 위해 해상공국을 설치하려 했던 의도와는 달리 전국적인 賣官賣職의 횡포에 의해 중앙의 상업육성정책이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달될 수 없었으며, 大邱地方 역시 이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한편 원산, 인천, 부산, 목포와 같은 개항장에는 다수의 客主가 집결되어 客主組合이 결

10) 임오군란 이후 국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정부의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 統理軍國事務衙門 관할에 惠商工局을 신설하여 민족상인 계급인 보부상단을 보호하려 했던 정책은 두가지 측면에서 풀이되고 있다. 첫째는 개항후 상업 자유화로 보부상들이 외국상인에 밀려 극심한 난국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당시의 보부상단이 강력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들을 이용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11) 조기준, 앞의 책, p. 297.

12) 《大邱天主教會史》에서는 崔哲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慶北都會長 崔哲學氏は 大邱邑 성외 앞박걸(현 계산동 1가)에 거주하였는데, 大邱 天主教會 本堂 설치 이전(1880년대)의 일이었으므로 都會長을 누가 임명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당시 남들이 都會長이라 칭호하였고 그 자신도 都會長이라 자처하였다.” 大邱商工會議所, 《大邱商工會議所七十年史》, p. 181에서 재인용.

성되었다. 이들은 元山商議所, 仁川客主商會(뒤에 紳商協會), 釜山商法會社, 木浦商客主(뒤에 士商會로 개칭) 등 여러가지 명칭을 가졌으나 그것은 모두 개항장에 설립된 日本人商議所에 대항하여 상권옹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韓國人 단체였다. 客主會는 개항장의 外商, 특히 日商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규탄, 고발하고 정부에 그 시정을 촉구했고, 상거래상 개혁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하여 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外商으로부터 상업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회원에게 주지시키고 회원들의 영세자본을 모집하여 근대적인 會社設立을 촉구했다.

이와 같이 개항장의 客主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결성된 상인단체는 정부의 비호하에 성장한 보부상단과는 달리 보다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근대적인 상업회의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각지의 客主會가 상업회의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客主會는 근대적 상업회의소의 전신이며 이것이 모체가 되어 그 속에서 한국인 상업회의소의 설립이 이루어졌다.¹³⁾ 한국인 상업회의소는 1895년 11월 10일에 법률 제17호로 발포된 商務會議所規則에 따라 광무년간에 각 지방에서 창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원산, 인천, 부산과 같은 개항장에 비해 外商(주로 日商)의 진출이 늦었던 내륙도시인 大邱에서는 시장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06년에야 ‘大邱朝鮮人商業會議所’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이하에서 대구조선인상업회의소가 설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에 처음으로 일본상인이 진출한 시기는 1893년이었으나 그 수가 2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부철도 공사를 계기로 대구에 이주해온 일본상인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대구는 일본인들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었다. 1905년의 대구는 인구 2만여의 농촌도시에 불과했음에 반해 이미 1,200여명의 일본상인들이 이주해 와 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1905년 11월에 일제의 무력에 의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1906년 9월에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관인 大邱理事廳이 설치되었으며, 통감부의 보호를 받는 大邱日本居留民團이 생겨났다.

이 당시 대구에는 상업회의소와 같은 근대적 상인단체는 없었으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장상인(보부상)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상인단체가 私設 都會를 형성하고 있었다. 사실

13) 그러나 각 개항장의 객주회가 상업회의소의 모체가 되었다고 해도 상업회의소가 창출된 후 각지의 객주회가 모두 상업회의소에 흡수되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객주회는 한국인상업회의소와 더불어 한말의 상인 단체로서 상업옹호를 위하여 주요한 임무를 담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都會의 형태로 단결해 온 대구의 경제인들은 일본거류민단이 설립되자 이에 대항하는 단체로 ‘大邱市議所’ 혹은 ‘大邱民議所’를 결성하였다.¹⁴⁾ 이것이 대구에서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상인단체로서 상업회의소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대구민의소의 강령을 보면 “이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보급하며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진력한다”고 함으로써 단순 상인들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의 성격을 넘어서 민족적 애국적 단체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우리나라 국채보상운동이 대구민의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민의소는 국채보상운동으로 인해 일제의 집요한 탄압을 받게 되자 장소를 경상북도 관찰부 앞 官衙建物에서 西門內(지금의 서문로)로 이전하고 大邱市廳으로 개칭하여 활동하다가 결국 1907년 6월 경에 해산하고 말았다. 그런데 河井朝雄은 그의 저서인 《大邱物語》에서 “일본인들이 상업회의소를 설립하자 이를 모방하여 大邱朝鮮人商業會議所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기록해 놓았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大邱民議所가 大邱朝鮮人商業會議所로 개칭된 것으로 생각된다.¹⁵⁾

그리고 大邱朝鮮人商業會議所는 1909~1910년 사이에 그 명칭을 다시 大邱商務所로 개칭하였다. 당시 전국에는 14개의 조선인상업회의소와 11개의 일본인상업회의소가 있었는데 대구와 원산만은 대구상무소와 원산상의소로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14) 《大邱商工會議所七十年史》상, p. 247에서는 大邱市議所가 1906년 9월에 설립된 것으로 서술해 놓고는, 다시 p. 249에서는 1906년 8월에 대구시의소가 대구민의소로 재발족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대구시의소와 대구민의소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추 측이 있다. 하나는 河井朝雄이 그의 저서인 《大邱物語》에서 “조선인들은 일본거류민단에 대항하는 조직으로 大邱市議所를 결성하였다.”는 표현에서 大邱市議所는 大邱民議所의 誤記라는 입장이다. 《大邱商議八十年史》p. 93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한편 鄭喬의 《大韓季年史》와 黃玟의 《梅泉野錄》에는 1907년 2월22일에 大邱民議所를 설치하여 국채보상 단연운동을 전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大邱商工會議所七十年史》상, p. 253의 註에서는 “1906년에 상인들을 규합하여 대구시의소로 발족했다가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키면서 범국민적 호응을 얻기 위해 단체의 문호를 넓히는 뜻에서 大邱民議所로 개칭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두번째의 추측이 일견 설득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았듯이 대구시의소와 대구민의소의 설립시기가 모순되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구시의소가 대구민의소의 誤記라는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

15) 그러나 그 명칭이 河井朝雄의 기술대로 ‘대구조선인상업회의소’였는가에 대해서는 《大邱商議八十年史》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당시에는 국호가 朝鮮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大韓自強會, 大韓每日申報, 大韓協會 등 모두가 大韓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인이 단체를 만들어 굳이 조선인(혹은 한국인)이라고 불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大邱朝鮮人商業會議所’로 개칭하였다는 것은 일본인의 상업회의소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표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상공회의소, 《大邱商議八十年史》, 1986, pp. 93~94 참조.

II. 日帝下の 經濟團體

1910년 한일합방이 강행된 뒤 민족상인들은 상권보호와 상업진흥을 위해 일치단결하여 대구상무소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했다. 대구상무소는 소장과 부소장 등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평의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상무소를 이끌어온 25명의 평의원과 2명의 특별의원이 누구였는가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단편적인 資料에서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所 長：徐相燾, 2代 朴基敦

副所長：金子賢

議 員：朴基敦, 李柄學, 鄭在學, 韓潤和, 李英勉, 安潤五, 李章雨, 李一雨, 徐相目, 徐相鉉, 洪宙一

한편 대구상무소가 이 당시 상업진흥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당시 대구상무소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른바 신상업, 신공업에 앞장서서 상업진흥에 이바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박기돈은 1909년에 이미 서문로에 대구 목공조합소(製材공장)를 설립하는 한편 인쇄공장 晦山活版所와 普惠藥房(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발관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구상무소는 1909년 2월에 아편을 밀매하는 청국상인을 단속하여 그 폐해를 막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도 앞장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구상무소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정 공포된 朝鮮商業會議所令에 따라 1915년 7월 15일에 대구 일본인상업회의소로 합병되기까지 어떠한 사업을 펼쳤는지는 소상히 알 수 없다. 다만 朴基淳의 子 朴用鎭의 증언에 따르면 大邱商務所는 약령시가 개시될 때면 지금의 鐘路街道에 임시집포를 지어 전국에서 모여드는 잡화상인들에게 대여하는 등의 상업진흥책을 폈다고 한다.¹⁶⁾

이러한 적극적인 사업으로 대구상무소는 해마다 재정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는데, 1913년에는 491圓, 1914년에는 1,020圓, 1915년에는 1,100圓이었다. <表 1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재정규모는 대구일본인상업회의소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의원수나 선거권자는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회원의 재력을 말해주는 피선거권자는 일본인이 194명인데 비해 한국인은 120명으로

16)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의80년사》, 1986년, p. 96.

대구상무소의 회원들이 영세한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대구 일본인상업회의소로 편입된 이후의 대구상업회의소의 역사에 대해서는 2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表 14-1〉 大邱商務所와 大邱日本人商業會議所の 運營現況 (단위: 명)

區 分	會員 數	特別 會員	會議 度數	議事 件數	選舉 權者	被選舉 權 者	財 政 規 模(圓)		
							1913	1914	1915
大邱常務所	25	2	16	28	220	120	491	1,020	1,100
大邱日本人商議	12	4	45	78	205	194	2,272	2,741	2,588

資料: 조선총독부, 《통계연감》.

한편 대구 일본인상업회의소 외에도 이 당시 대구내에 존재했던 商業團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穀物輸出組合이 그 사무소를 상업회의소에 두고 십수명의 조합원으로 곡물거래의 범위개척을 획책했다. 또한 스탠더드석유 대구조합이 있어서 판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폭리를 취했다. 이밖에도 日本麥酒販賣組合, 藥業組合, 醬酒販賣組合 등도 있었다.¹⁷⁾ 그러나 이들 조합은 대구경제의 활성화의 차원보다는 외국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인단체였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대구상무소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리고 農村金融을 위한 金融組合도 생겨났는데 대구에서는 1908년 9월에 達城金融組合(조합장 金鎔佑)이 현재의 달성농협 자리에 설립되었다. 또한 朝鮮植產銀行이 창립된 이듬해인 1919년에는 도시금융조합령의 시행에 따라 大邱金融組合(조합장 吉武甲子男)이 설립되었고, 1924년 4월에 大邱西部金融組合(조합장 鄭海鵬)과 1927년 1월에 達城東部金融組合(조합장 秦喜蔡)이 설립됨으로써 1920년대에는 4개의 금융조합이 대구 금융계의 한몫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도 기본적으로는 일제의 침략야욕을 만족시키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III. 解放後의 經濟團體

해방후 대구지역 경제단체사에 대한 시기구분은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관련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제1기는 1945년~1953년의 혼란기, 1954년~1961년의

17) 權寧旭, 〈大邱地方における經濟的動向〉《朝鮮學報》43, 1967, p. 94.

전후부흥기, 1962년~1971년의 경제개발기, 1972년~1981년의 고도경제 성장기, 1982년~현재까지의 경제구조 조정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혼란기에는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각종단체들의 설립이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이나 업적은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농업단체로는 일제 하에서 설립된 金融組合과 産業組合이 해체되고 난 후 이렇다 할 단체가 없었으나, 민간인에 의한 협동조합의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 전후부흥기에는 金融組合의 후신으로 農業銀行이 발족되고 農業協同組合도 설립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商工會議所도 전쟁의 혼란을 딛고 일어나 地域 商工人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역내 중소기업들도 상부상조를 위해 동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활동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¹⁸⁾ 혼란기에 설립된 대표적인 단체로는 1951년 10월 10일에 설립된 畜産企業組合 中央會 大邱支部와 1952년 5월 7일에 설립된 大邱市漢醫師會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1960년대의 경제개발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양적증가에 힘입어 업종별로 조합결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60년대 초반에는 비철금속조합, 기계조합, 직물조합, 메리야스조합 등 20여개에 달하는 조합이 발족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대구지역에서 협동조합의 본격적인 활성화는 1960년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의 고도성장기에는 두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지역경제가 당면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내 경제단체들이 각 부문에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한 상공부문에서의 공동사업과 협력사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중앙부처의 정책담당자와의 懇談會 개최와 활발한 對정부 건의, 共同販賣事業 및 技術 經營指導, 工業團地조성과 유치, 協業化 추진 등은 특기할만 하다.¹⁹⁾

한편 1976년 7월 말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전국조합이 69개, 시도별 지방조합이 118개로 총 187개 조합에 조합원수는 1만 1,206명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대구경북지방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조직현황을 보면 1975년 말 현재 19개의 업종별 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조합원수는 1,735명에 이르고 있다. <표 14-2>에 나타나 있듯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수를 보면 지역의 대종산업인 섬유관련조합이 전체의 56.5%를 차지하여 중소섬유업체의 과밀집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업종별 조직현황을 보면 섬유를 비롯한 제조업분야는 거의

18) 경상북도사 편찬위원회, 《경상북도사》 하, 1983, p. 565.

19) 경북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566.

망라 되었으나 運輸事業과 商業 및 서비스組合은 中小企業協同組合法이 2차 개정된 1973년 이후부터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화물자동차조합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만이 결성되었다.²⁰⁾ 大邱商工會議所와 協同組合을 제외한 1960~70년대에 설립된 그 밖의 상공단체로는 韓國工業標準協會 大邱慶北支部(1962. 3. 13), 大邱濁藥酒製造協會(1972. 8. 25), 大邱地方稅務士會(1974. 12. 14), 大邱直轄市商人協會(1979. 3. 2)등을 들 수 있다.

〈表 14-2〉 1975年 大邱慶北地方 中小企業協同組合 現況 (단위: 명, 천원)

區 分	설립연월일	조합원수	비조합원수	출자좌수(좌)	출자금액	1976년도예산
직물조합	1962. 5. 17	304	50	700	21,000	66,368
메리야스조합	1962. 4. 18	164	100	664	19,920	36,485
비철금속조합	1962. 3. 23	43	5	123	3,690	7,275
기계조합	1962. 3. 26	144	108	207	6,210	19,352
비누조합	1962. 4. 1	12	—	102	3,060	1,180
인쇄조합	1962. 4. 18	108	112	144	4,304	12,160
공예조합	1962. 3. 27	32	44	278	8,340	6,115
한지조합	1962. 5. 29	33	9	320	9,600	18,601
시멘트조합	1966. 10. 31	41	961	700	21,000	44,000
가구조합	1963. 9. 1	61	300	104	3,120	9,515
연료조합	1962. 3. 18	16	59	760	22,800	64,527
염색조합	1966. 9. 20	103	25	374	11,220	32,049
견직물조합	1969. 3. 13	410	54	2,671	80,130	370,994
麵製造組合	1964. 3. 31	37	36	260	7,800	15,745
軟食品組合	1970. 12. 29	57	13	57	1,710	13,100
貴金屬組合	1971. 12. 29	49	50	190	5,700	1,960
화물자동차조합	1973. 12. 10	37	25	370	18,500	
토산품조합	1974. 3. 20	31	—	154	4,620	9,248
자동차정비조합	1975. 7. 11	53	17	155	4,650	6,186
계	—	1,735	1,968	8,333	257,410	—

資料: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경북지부.

마지막으로 경제구조 조정기인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구경제의 양적성장에 따라 경제 단체의 수와 규모도 크게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실시로 한국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대구경제는 상대적 낙후상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이 뒤떨어진 산업경제를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

20)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칠십년사》 하, pp. 303~304 참조

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설립이 긴요하게 되었다.

당시 朴允甲 대구상의회장과 鄭琛鎭 대구직할시장의 합의에 따라 1981년 7월 범시민적 추진체제의 설립이 구성되었다. 곧 이어서 대구지역 경제협회의 설립에 관한 기본방침이 확립되고 동년 12월 28일에 창립총회가 열려서, 우리나라 지방으로서는 처음으로 계획적인 연구기관이 설립되게 되었다. 대구지역경제협회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구지역 경제 협회회의 설립목적은 직할시 승격을 계기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產·學·官 협동의 범시민적 상설협의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관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표출된 의사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제 부문의 과제를 현실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개발코자 한다.

대구지역경제협회는 1981년 말에 설립되어 1983년 말까지 2년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수차에 걸친 회의와 연구로 일정한 성과를 낳았다. 현안문제의 해결과 업계 건의사항의 해결은 물론이고 대구지역의 《섬유산업의 실상과 육성》이라는 연구와 《88 올림픽 고속도로의 개통과 영호남경제교류 방안》 등의 연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84년부터 經濟長官協議會 밑에 市道經濟協議會가 구성되고 各市道에 地域經濟協議會가 官主導로 구성되게 되어 大邱地域 經濟協議會는 1983년 말에 발전적 해산을 하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섬유관련 협동조합 이외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결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2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조합수를 보면, 연합회가 14개, 전국조합이 127개, 시도별 지방조합이 225개, 특정조합이 4개, 사업조합이 142개로 모두 512개의 조합에 조합원수는 4만 3,654명으로 나타나 있다.²¹⁾ 그런데 1993년 6월 30일 현재 대구지역 협동조합의 현황을 보면 전국조합 2개, 지방조합 29개, 사업조합 19개로 모두 50개의 조합에 5,239명(대구 3,911명, 경북 1,328명)의 조합원수를 나타내고 있다.

〈表1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대구 경북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29개 지방조합 가운데 15개의 조합이 1980년대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19개의 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모두 1984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조합원수로는 지방조합중 기계공구상조합이 7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자좌수로는 사업조합인 捺染組合이 1만 1,167座로 가장 컸다. 특히 捺染組合은 1993년도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29억 5천만원으로 가장 크다.

21)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중소기업현황》, 1992, p. 86 참조.

그러나 조합의 예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날염조합, 중앙여성패션조합, 비철금속조합, 견직물조합에 불과하다. 조합의 예산규모가 대부분 1억원에서 5억원 사이에 머무르고 있으며, 1억원 이하인 조합의 경우도 무려 14개나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구지역 협동조합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은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합 역시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활동영역도 대부분 공동구매나 공동판매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업계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업계의 문제점을 사전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하는데에는 역부족이라 하겠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정보제공 기능은 대부분의 조합의 경우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²²⁾

한편 1980년대에는 협동조합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상공단체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1993년도 대구지역 상공단체의 현황에 따르면 약 70여개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이 아마 대구지역 상공단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資料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資料에는 단체명과 소재지 및 회원수만 조사되어 있을 뿐이다. 이글에서는 70여개의 상공단체 가운데 전화연락이나 직접방문이 가능했던 40여개 단체의 설립년도, 회원수, 1993년도의 예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조사해 보았으며, <表14-4>는 이를 요약한 것이다. 이들 조사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대부분의 단체들이 80년대 이후에 설립되었다는 점과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예산규모 역시 대부분 1억원 정도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14-3> 大邱地域 中小企業協同組合 現況

組合名		區 分	設立日	任職員數		組合員數			出資金		1993豫算 (千圓)
				任員	職員	大邱	慶北	計	座數	金額 (千圓)	
合計	50個組合			672	240	3,991	1,328	5,239	66,762	6,671,350	15,237,995
	織 物		62. 5.18	25	8	236	68	304	662	66,200	365,000
	綿 織 物		69. 2.10	29	17	467	297	764	3,338	333,800	1,164,442
	메 리 야 스		62. 4.18	24	5	326	9	335	827	82,700	242,200

22) 대구직할시·대구권경제사회발전연구원, 《대구경제백서》, 1991, p. 296.

組合名		區 分	設立日	任職員數		組合員數			出資金		1993豫算 (千圓)
				任員	職員	大邱	慶北	計	座數	金額 (千圓)	
地	染 色		66. 9.20	22	12	180	5	185	1,003	100,300	555,007
	掌 甲		87. 6. 4	19	3	152	8	160	2,441	244,100	173,004
	機 械		62. 3.26	19	5	259	26	285	806	80,600	370,560
	非 鐵 金 屬		62. 4.18	15	3	88	12	100	309	30,900	145,413
方	시 멘 트		66.10.31	15	24	39	98	137	7,541	754,100	1,396,809
	碎 石		85. 6. 4	11	2	7	8	15	240	24,000	103,000
	骨 材		90. 8.16	11	10	3	19	22	312	31,200	405,349
	燃 料 (慶 北)		62. 4.18	12	3		30	30	6,237	623,700	188,685
組	家 具		63.11. 4	15	5	72	52	124	963	96,300	152,480
	工 藝		83. 3.24	15	1	57	5	62	200	20,000	57,100
	印 刷		62. 4.20	16	5	152	40	192	324	32,400	276,060
	軟 食 品		70.12.29	16	8	8	69	77	3,430	343,000	226,770
合	自動車	(大邱)	75. 7.11	19	5	90		90	171	25,650	162,000
	整 備	(慶北)	88.12.30	18	3		64	64	236	23,600	103,428
	廣 告 物	(大邱)	88.12.13	9	1	21		21	247	24,700	28,856
		(慶北)	93. 5.11	11			21	21	260	26,000	
(29)	가 스		85. 9.13	13	2	229		229	281	28,100	82,240
	寫 真	(大邱)	87. 3. 7	14	2	70		70	222	22,200	93,600
	앨 범	(慶北)	87. 4.13	11	1		72	72	200	20,000	58,830
	수 퍼	東北部(大邱)	90. 2.14	9	10	79		79	533	53,300	355,200
合		中西部(大邱)	90. 2.14	12	1	126		126	1,336	120,200	94,732
		慶 北	90. 4.18	19	1		246	246	243	24,300	60,350
	機 械 工 具 商		91.10. 5	17	3	775		775	1,091	109,100	120,560
	化 粧 品		92. 7.21	18	3	65		65	550	55,000	132,380
(29)	飲食料品	(大邱)	92.10.20	11	1	31		31	310	31,000	67,310
		(慶北)	92. 5.16	18	2		40	40	420	42,000	166,200

組合名 區 分		設立日	任職員數		組合員數			出資金		1993豫算 (千圓)
			任員	職員	大邱	慶北	計	座數	金額 (千圓)	
全國	傘	82. 7.30	6	4	5		5	3,512	351,200	158,498
組合	學	62. 5. 9	19	6	53		53	463	46,300	169,200
事	鍍 金	現 代	85. 9.13	8	11	7	7	280	28,000	420,000
		嶺 南	85. 9.27	8	8	7	7	300	30,000	354,801
		新 羅	86. 6.17	6	10	5	5	300	30,000	243,906
業	燃 料 (大 邱)		86. 2.19	6	4	5	5	3,512	351,200	158,498
	中央自動車(城西)		86. 4.15	5	6	8	8	811	81,100	70,500
	第一自動車(檢丹)		87. 6.26	9	3	8	8	4,202	420,200	139,122
	아 스 콘		87. 4.11	9	7	4	20	24	560	415,936
	레 미 콘	(大邱)	87. 9. 4	13	5	16	16	3,024	302,400	276,836
		(慶北)	88. 4. 6	14	11	45	45	4,276	427,600	448,474
	捺 染		87. 8.26	5	5	14	14	11,167	1,116,700	2,950,000
	製 鋼		88. 3. 7	11	1	27	18	45	210	21,330
	鐵 物		87.11.16	11	4	45	3	48	246	200,300
	慶州民俗工藝村		84.11.23	8	2	18	18	200	20,000	55,800
組	眼 鏡		88. 9.19	7	2	15	15	390	39,000	28,800
	불 트		88. 8.17	5	1	9	9	200	20,000	32,800
	月 城 纖 維 團 地		91. 7.10	7	1	12	12	220	22,000	71,288
	(19) 프 라 스 틱		92. 3. 9	13	2	40	19	59	660	149,393
	石 材		92.10.15	12	1	8	7	15	200	101,855
	中 央 女 性 패 셴		92. 7.21	14	2	33	33	330	33,000	1,429,200
合										

資料：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대구지부.

〈表 14-4〉 大邱地域 商工團體 現況 (1993년 6월) (단위 : 명, 천원)

단 체 명	설 립 일	회 원 수			'93 예산
		대구	경북	계	
대한건설협회대구시회	1981. 7. 1	85			560,000
대한전문건설협회대구시회	1985. 8. 13	413			
대한설비공사협회대구시회	1989. 11. 25	97			
한국열관리시공협회대구지부	1992. 6. 16	380			179,000
한국주유소협회대구지회	1988. 12. 14	183			83,966
에너지관리공단대구지부	1980. 7. 4				
새마을금고연합회대구지부	1981. 7.	174			1,600,000
축산기업조합중앙회대구지부	1951. 10. 10	1,280			
한국공업표준협회대구·경북지부	1961. 3. 13			400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경북지부	1987. 3. 26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대구지사	1975. 7. 2				
한국원사직물시험검사소대구지소	1970. 4. 27				
한국의류시험검사소대구지소	1981. 1				
한국관세사회대구지부	1977. 2				
대구지방세무사회	1974. 12. 14	156	35	191	126,313
한국특종물업연합회대구지부	1981. 7. 1	2,600			
한국목욕업중앙회대구시지회	1983. 3. 18	350	62,633		
한국목욕업중앙회대구시지회	1983. 3. 18	350	62,633		
대한요식업중앙회대구시지회	1982. 11. 10	15,205			130,000
한국이용사회대구시연합회	1993. 4. 1	1,430			9,335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대구시지부	1983. 10. 5	198			
대한의약품도매협회대구경북지부	1981. 7. 1	40	5	60	35,000
대한건축사협회대구시건축사회	1981. 1. 1	280			
대구직할시버스운송사업조합	1981. 8. 11	37			
대구직할시택시운송사업조합	1981. 7. 1	102			300,000
대구직할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1981. 10. 13	53			197,000

단 체 명	설 립 일	회 원 수			'93 예산
		대구	경북	계	
대한요식업중앙회대구시지회	1982. 11. 10	15,205			130,000
한국이용사회대구시연합회	1993. 4. 1	1,430			9,335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대구시지부	1983. 10. 5	198			
대한의약품도매협회대구경북지부	1981. 7. 1	40	5	60	35,000
대한건축사협회대구시건축사회	1981. 1. 1	280			
대구직할시버스운송사업조합	1981. 8. 11	37			
대구직할시택시운송사업조합	1981. 7. 1	102			300,000
대구직할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1981. 10. 13	53			197,000
대구직할시용달자동차운송사업조합	1981. 9. 14	742			
대구경북연사직물생산협력협회	1985. 10. 25	80			150,000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1993. 5. 22	49			
대구경영자협회	1981. 5. 29	1260			439,293
대구탁약주제조협회	1972. 8. 25	67			36,000
대한다방업중앙회대구시지회	1982. 8. 6	2,300			170,000
대구직할시관광협회	1981. 7. 2	190		198,000	
대구직할시상인연합회	1979. 3. 2	108			
대구직할시약사회	1981. 11. 11	1,185	132,000		
대구직할시한의사회	1952. 5. 7	480			100,000
대구제3공업단지관리사무소	1974. 4. 19	318			120,000
대구염색공업공단	1980. 11. 18	112			65,520,000
대구성서공업단지관리공단	1990. 2. 28	700			

註: 빈칸의 경우는 미확인되었거나 밝히기를 꺼려한 경우임. 1993년에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대구지역 협동조합, 상공단체현황>에 나와 있는 명부를 기초로하여 작성.

第2節 大邱地域의 主要 經濟團體

I. 大邱商工會議所

1906년 「이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보급하며,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 항무지를 개간하는데 진력한다」는 강령을 표방하고 출발한 大邱商工會議所는 술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大邱商議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의 모든 商議의 형태가 그러하듯이 大邱商議 역시 그동안 정치의 변화와 함께 파란만장한 변천을 거듭해 왔으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 기능과 사업내용도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것이다. 특히, 大邱商議는 그 출발부터 강한 애국적 성격 때문에 외부의 강한 압력을 받아야만 했었다. 대구상의는 순수 민간 상공단체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오래된 단체일 뿐만 아니라 규모와 역할면에서도 대구경제에 커다란 공헌을 한 단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구상의의 역사는 대구지역 경제단체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大邱商議의 험난한 시대적 흐름을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해방이전은 다시 舊韓末(∼1910년), 日帝下(1910∼1945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며, 해방이후는 다시 激動期(1945∼1952년), 再建期(1953∼1962년), 發展期(1961∼1972년), 安定期(1973∼1978년), 轉換期(1979∼현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²³⁾ 그러나 해방 이전의 대구상의의 역사에 대해서는 앞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만을 간략하게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大邱商工會議所의 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평가 및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解放 以前의 大邱商工會議所

1) 舊韓末(∼1910년) : 大邱商業會議所의 胎動

한국침략을 치밀하게 추진해 온 일본은 1904년 韓日議政書를 강제로 체결하고 1905년에는 강압적인 제2차 韓日協約, 이른바 乙巳保護條約을 체결하면서 총독부를 설치하고 그 지방조직으로 大邱理事廳을 두었으며 보조기관으로 日本人居留民團과 日本人商業會議所 등을 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金光濟 등 유지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1906년 일제의

23) 이러한 구분은 《大韓商議 100年史》에서의 시대구분과 동일한 맥락을 이루고 있다.

大邱理事廳에 대항하는 대구인의 자치단체인 大邱民議所를 설립하였다.²⁴⁾ 이 大邱民議所가 바로 大邱商議의 모태이다. 그러나 大邱民議所는 1907년 국권회복을 위한 國債保償運動을 벌이다가 日本統監府로부터 압력을 받아 1년만에 해체되는 비운을 맞았다.²⁵⁾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그해 6월 다시 大邱朝鮮人商業會議所라 칭하는 상인단체를 조직하고, 日本人商業會議所에 대항하여 민족상권을 옹호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大邱朝鮮人商業會議所는 1915년 조선총독부의 朝鮮商業會議所令에 따라 大邱日本人商業會議所와 합병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앞절에서 상세하게 살펴본 것과 같다.

2) 日帝占領下(1910~1945년)

조선총독부는 1915년 7월 15일 制令 제4호로 朝鮮商業會議所令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대구에서는 조선인 및 일본인을 포함한 大邱商業會議所가 설립되었다. 이는 지역 내에 병존하는 두 商業會議所를 병합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상은 기존 韓, 日 商業會議所를 모두 해산하고 새로운 통합회의소를 설립하는 것이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각지역 日本人商業會議所가 우리의 商業會議所를 병합, 흡수하는 것이었다.²⁶⁾ 그리고 大邱商業會議所는 1930년 大邱商工會議所로 개칭될 때까지 15년간의 존속기간 중 5명의 會頭가 바뀌었다.

1930년 5월 商議聯合會의 건의로 조선총독부는 1930년 11월 19일 朝鮮商工會議所令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大邱商業會議所는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大邱商工會議所로 새로 발족하게 되었다. 1931년 11월 大邱商工會議所 초대선거가 실시되었다. 초대의원은 일반의원 29명과 특별의원 6명 등 모두 3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초대會頭에는 小倉武之助가 선출되었다.²⁷⁾ 大邱商工會議所의 사업을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²⁸⁾

1931년 마직물전람회 개최, 대구의학전문학교기성회 조직, 全市마켓 개최, 南鮮師團설치期成會

1932년 낙동강 高靈橋 건설 건의, 경북실업대회, 경북광업대회 개최

1933년 稅務監督局 설치 건의, 대구비행장 설치 건의, 부산~대구간 전화중설 건의, 대구교통망 촉진기성회 조직

1934년 일본방적공장 유치운동, 대구비행장 설치를 위해 일본에 시찰단 파견, 대구토산품심사회 개최, 동

24)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의 80년사》, 1986, p. 73~86.

25) 위의 책, p. 86.

26) 위의 책, pp. 119~120.

27) 위의 책, p. 141.

28) 위의 책, pp. 143~148.

해중부선철도의 광역화 건의, 慶北商工聯合會 결성

1936년대구안내조감도 건립, 우수도산품전시회 개최, 직물전람회 개최, 제2회 점원훈련소 개설, 일본의 鍾紡에서 대구에 방적공장 설립기로 합의, 南鮮合電 本社 대구 유치운동, 대구비행장 설치 결정

1937년 대구본사상품의 애호운동, 동해중부선 및 京慶線 시찰, 商工相談所 설치1938년중일전쟁을 계기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령 실시에 따른 협조

1939년 代用品展覽會 개최, 일본 각지에 가내공업 및 상업조사단 파견, 공업연구소의 道 이관 진정

1940년 대구경제통제협력회 창립, 경상북도상공단체연합회 결성, 공업연구회 창립총회

1941년 12월 8일 미국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商議의 정상업무는 거의 중단되었고, 전쟁수행을 위한 뒷받침에 급급했다. 태평양전쟁 도발로 인력과 물자의 극심한 소모로 일본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고, 경제위기 현상이 심해지자 일제는 전쟁물자의 생산확대를 위해 모든 경제체제를 전시체제로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1942년에는 중소기업정리령을 공포하여 기업의 합병과 폐합을 단행하고 경제단체도 전시체제로 개편하였다. 일제는 패색이 짙어지자 초비상 전시체제로 돌입하기 위해 朝鮮商工會議所를 폐쇄하고 대신에 朝鮮商工經濟會令을 공포, 각지에 經濟會를 발족시키기에 이르렀다.²⁹⁾

1944년 8월 조선총독부는 制令 30호 朝鮮商工經濟會令을 공포, 상공회의소의 폐합을 단행하였다. 이 制令에 따르면 商工經濟會는 道商工經濟會와 朝鮮商工經濟會로 하며 종래의 지방商議를 道단위로 통합하고 연합체로서의 朝鮮商工經濟會를 두는 것이다. 商工經濟會는 태평양전쟁에서 패퇴한 일본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이른바 「本土決戰」을 위한 최후의 몸부림으로 취한 조선총독부의 조치였던 것이다.

朝鮮商工經濟會令에 따라 각지의 商工會議所는 해체되고 道지역의 商工經濟會는 1944년 9월 20일까지 조직하게 되었다. 慶北商工會議所는 9월 20일 창립총회를 갖고 會頭に 伊藤吉三郎을 임명했다. 慶北商工經濟會의 사무실은 大邱商議가 사용하던 大邱公會堂 2층을 그대로 썼으며, 직원들도 大邱商議 직원 그대로였다. 慶北商工經濟會는 經濟統制協力會(會長은 會頭가 겸임)의 업무도 함께 추진하여 기업체를 정비하는 것과 중요 기업체를 軍需産業化하는 일에 치중하였다.³⁰⁾

29) 앞의 책, p. 160.

30) 위의 책, p. 162.

2. 解放 以後의 大邱商工會議所

1) 激動期의 商工會議所(1945~1952년)

1945년 8월 15일 군국일본이 미국 등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연합군에 의한 타율적 해방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혼란을 치뤄야 하는 아픔으로 변하고 말았다. 해방 후 1945년 9월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조선총독의 항복문서를 받고 남조선과도정부를 수립하였다. 미군정은 남한을 통치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각 분야에서 일본적인 체제와 영향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미군정청이 취한 조치 가운데서 상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일인의 재산을 적산으로 간주하여 모두 군정청에 귀속시켜 管財令으로 관리, 운영한 일이다. 군정청 법령 제33호로 인해 朝鮮商工會議所의 후신인 朝鮮商工經濟會의 재산도 적산으로 간주하여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 미군정청은 朝鮮商工經濟會가 일본의 전쟁수행에 적극 협력한 단체였다는 이유로 회관건물과 모든 재산을 적산으로 몰수, 회관을 그들이 사용했던 것이다.³¹⁾

그즈음 경제인들은 해방된 새시대의 새로운 商工會議所를 재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1946년 4월 자주적인 商工會議所를 조속히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설립받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5월 19일 朝鮮商工會議所(大韓商工會議所) 창립총회가 저축은행 회의실에서 열렸다. 여기서 59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한편 초대의원총회를 열어 閔奎植(경기도 商工經濟會 會頭)을 會頭로 선출하였다.

한편 대구에서도 1946년 3월 2일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慶北商工業者會議를 개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慶北商工會議所를 설립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드디어 5월 26일 옛 大邱商工會議所가 회관으로 사용했던 大邱公會堂에서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가졌다. 초대會頭에는 李鐘完, 副會頭에는 柳基龍, 權淵龜를 선출하였다. 慶北商工會議所는 대구를 비롯하여 경북전역을 관할하였으며 사무국에는 총무, 조사, 사무, 경리 4개과를 두었다.³²⁾

그러나 미군정 초기에 발족한 각지의 商工會議所는 이에 따르는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했다. 미군정청은 일본의 전쟁수행에 협력한 단체였다는 이유로 朝鮮商工經濟會의 재산을 적산으로 몰수하였던 것인데, 이 단체의 설립근거가 된 朝鮮商工經濟會令과

31) 앞의 책, p. 168.

32) 위의 책, p. 179.

同施行令은 폐지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商工經濟會가 존속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朝鮮(大韓)商工會議所는 초대위원을 구성하면서 남한의 各道 商工經濟會 대표를 무선거 의원으로 추대하였던 것이다. 경상북도는 慶北商工會議所의 설립을 인정하기 위해 1946년 4월 15일에 慶北商工經濟會를 발전적으로 해체한 일이 있다.

그러나 경북도의 이러한 조치도 따지고 보면 합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광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했던 조치였다. 미군정청은 이러한 과도기적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1946년 7월 조선총독부가 제정했던 朝鮮商工經濟會令과 同施行令을 폐지하고 이어 10월에는 朝鮮(大韓)商工會議所를 승인하였다.³³⁾

慶北商工會議所는 비록 임의단체로 출범하였지만 「상공업의 발전과 사회복지를 도모한다」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혼란기에도 지역사회의 경제부흥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慶北商工會議所는 정부수립 후 새로 제정, 공포된 大韓商工會議所法에 따라 발전적으로 해체, 1953년 10월 公法人 大邱商工會議所로 개편될 때 지 7년간 존속하였다. 慶北商工會議所의 사업은 종래의 商工會議所와 비슷하지만 「각국 경제사절단의 초빙과 파견」사업은 일제의 속박에서 해방된 경제인들이 독립국가의 자유민으로서 세계를 향해 질주하려는 무한한 욕망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1952년 大韓商議에서는 부흥과 지자제의 무드를 타고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商工會議所法 제정에 박차를 가하였다. 전쟁 중인 1952년 12월 13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회를 통과한 商工會議所法에 따라 임의단체로 발족했던 전국 각지의 商工會議所는 公法人으로 발전 개편되었다. 慶北商工會議所 역시 1952년 12월 25일에 慶北商議 총회에서 大邱商工會議所로 개칭하고 관할구역을 대구시 행정구역으로 한다는 등의 정관을 개정하였다. 1952년의 주요사업은 샌프란시스코박람회에 경북산 공예품 26종 출품, 慶北商工産業振興會社 설립 추진, 大邱府내 생산공장에 비상전력선 절단조치가 내려지자 독자적인 생산공장 전선 가설을 南電 당국에 건의, 경북상공인과 상공부흥좌담회 개최, KAPX국산품전시회 개최 등이다. 1953년 9월 商工會議所法 施行令과 議員選舉令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돼 公法人 商工會議所 시대가 개막되었다. 大邱商工會議所는 商議法에 의한 첫 의원선거를 1954년 1월에 실시해 초대會頭에 呂相源이 당선되었다.³⁴⁾

33) 앞의 책, p. 180.

34) 위의 책, p. 209.

2) 再建期の 大邱商工會議所(1952~1960년)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된 이후 商工會議所의 활동은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한편으로는 商工會議所 조직의 정비를 서두르면서 거의 황폐화된 산업시설 및 중요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진력했다. 법적인 보호아래 발족한 大邱商工會議所는 구태를 벗어나 그 목적인 사업수행에 쫓 능동적이며 참신한 의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기존 기업체의 시설보강을 비롯 신흥자본의 도입, 중소기업체의 장기융자 등은 가장 중요시된 급선무였다.

1950년대를 통한 중요한 활동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건자금의 알선, 전력난 해소를 위한 제반대책, 세입완화를 위한 건의 진정 등의 활동, 邱馬鎭 철도의 계속적인 추진, 대규모 섬유공장의 유치, 商道義昂揚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행사, 공과대학 설립추진 등 인재배양 대책, 시장의 근대화 추진 등 상공업계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수행에 주력하였다.

1959년 10월 8일 대구시 중구 東門洞에 신청사를 마련함으로써 해방후 최초의 독립청사를 가지게 되어 상공업계의 심장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公法人 大邱商工會議所가 재발족한 시기의 사회적 배경은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부정부패의 만연 등 비관적인 상황이었다. 한국의 경제재건을 위해 들어오는 막대한 외국원조자금이 몇몇 개인에게 정치적으로 배정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낭비되었다. 모든 경제정책은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져 지방의 산업육성은 도외시되고 이른바 권력형 기업이 부정한 경제정책의 혜택을 받아, 성장하는 반면, 많은 중소기업은 희생을 당해야 했다.

이러한 시기의 商工會議所였던 만큼 상공업의 개선 발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업계에 봉사하는 商議가 아니라 권력형의 기관으로 군림하게 되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商議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업계를 위한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商工會議所는 1950년대에 있어서 유일한 종합경제단체로서 간담회, 토론회 등을 수없이 주재하여 각 산업간 또는 관민간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고 그와 동시에 각 산업별 협회, 조합 등의 결성을 알선 또는 조성하였음은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물론 건의, 조사사업에 있어서 전문성, 체계성의 부족으로 단순집계적 성격의 조사에 그친 경우가 많았으나 경제재건기를 통하여 商工會議所 활동의 주요 골격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³⁵⁾

35) 앞의 책, pp.319~320.

3) 發展期の 大邱商工會議所(1961~1972년)

5.16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포고 제6호를 발하여 별도의 허가가 없는 단체는 일체 해체키로 결정하여 1961년 7월 12일에 공포된 「商工會議所 및 大韓商工會議所에 關한 臨時措置法」과 상공부령 제74호로 1961년 7월 25일에 「商工會議所 및 大韓商工會議所 운영에 關한 臨時措置法 施行細則」이 공포되었다. 1952년 12월 20일 법률 제274호로 현행 商工會議所法이 제정 실시되어 왔으나 5.16 직후 상공회의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1961년 7월 12일 제정 공포된 임시조치법으로 그간 상공회의소는 이상의 두 법률을 병립해서 실시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商工會議所가 그 임무의 과감한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적용받고 있는 상공회의소법과 임시조치법을 종합하여 단일법률로 제정하는 동시에 그간 변화된 사회여건에 일치되고 앞으로 전개되는 조국근대화 작업에 과감하고 고차적인 사업수행에 부합된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大韓商工會議所와 각 地方商工會議所에서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오래전부터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 오다가 1966년 12월 21일에서야 국회 본회의에서 상공회의소법 개정법률안이 의결, 통과됨으로써 정부에서는 1967년 1월 법률 제 1877호로 공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商工會議所法 시행령과 의원선거령의 개정이 불가피하였는데 이것도 1967년 4월 17일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으로써 그동안 전국상공업계의 숙원이던 상공회의소 법령의 개정정비가 일단락되었다.³⁶⁾

이시기 한국경제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하나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외자도입이 늘어나고 수출이 계속 신장되어 외자부문이 활기를 찾게 됨으로써 한국경제는 과거의 정체를 벗어나 고도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현저히 높아져 1966년에는 12.4%, 1967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로 7.8%수준으로 둔화되었으나 1968년에는 다시 12.6%, 그리고 1969년에는 15.0%에 이르는 높은 성장을 나타내었다. 1960년대 후반의 이같은 높은 성장률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조하기 시작하였는데,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국제통화의 불안으로 말미암아 국제경제질서가 혼미를 거듭하게 됨에 따라 선진각국은 보호주의적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으로 세계시장의 동향에 크게 의존하게 된 한국경제는 수출면에서 중대한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경제성장 패턴을 크게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36) 앞의 책, p. 346.

그동안 수출제일주의정책과 무차별한 외자도입의 결과로 산업구조 자체가 내부적으로 취약점을 드러냈고, 또한 고도성장과정에서 자라난 많은 기업들이 시장, 재무구조, 경영의 면에서 적지않은 어려움에 부딪힘으로서 새로운 여건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체정비가 불가피 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말부터 많은 대기업들의 부실화가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1972년에는 기업의 재정비를 위한 「8.3조치」가 내려지는 사태에 이르렀다.³⁷⁾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여건 아래서 大邱商工會議所의 활동은 실로 막중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상공업의 개선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작성과 계획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그리고 계획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마찰의 극소화를 위하여 상공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종합하여 對정부 건의, 진정 및 답신활동을 전개했다.

이에는 기본적인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건의, 진정 및 답신활동 뿐만 아니라 부문별로는 국가의 재정, 금융, 조세, 무역의 진흥과 물가의 안정, 각종 산업정책, 지역사회개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경제정책수립과 상공업의 개선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을 들어보면, 邱馬鎭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건의가 결실을 맺어 개통을 보게 되었고, 지방은행의 설립추진을 위한 활동의 결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구은행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또한 박대통령 임석 하에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商工會議所의 조사사업에 있어서는 국내의 경제전반에 걸친 조사와 연구, 통계의 작성 및 간행물의 발간사업은 기업에게는 경영의 지침으로, 정부관계기관에는 政策資料로, 학계와 언론계에는 研究資料로,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는 參考資料로 널리 활용되었다. 또한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체질개선을 위하여 실무지식의 보급, 강습, 강연회 개최, 기업의 당면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세무, 특허 등의 상담업무와 지도사업, 각종 실무기능의 보급을 위한 기능검정 및 경기대회의 개최, 국내의 전시회, 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산업시찰단의 파견, 회원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對정부 건의 및 진정을 위한 「회원의 날」을 매월 지정하여 행사하였다. 기업의 창의적인 경영자세의 확립과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다짐하는 자생적인 경제윤리운동을 펴 나가고 해마다 경제윤리강령의 제정 및 실천, 산업합리화 운동의 전개 등을 활발히 실시하기도 했다.³⁸⁾

이밖에도 종합경제단체로서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사업의 전개와 지원, 정부당국과 민간 기업간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고 상호협력증진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했다.

37) 앞의 책, p. 489.

38) 위의 책, pp. 489~490.

4) 高度成長期の 大邱商工會議所(1973~1978년)

1970년대 중반, 정확히 1973~1978년 사이에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마무리 짓고 제4차 5개년계획으로 들어선 고도성장기이자 1973년 말의 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그야말로 성장과 침체, 시련과 도전 그리고 격동과 파란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 초 오일쇼크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세계인플레이션상이 심화되고 개도국은 자원, 에너지난으로 원자재 수급과 가격급등에 시달리며 치솟는 물가에 곤혹을 치루었다. 이러한 대외적 요인에 국내적으로는 중화학공업 추진 등으로 투자수요는 급증한 데 반해 국내저축은 부진한 대외 의존적 개발로 소위 개발인플레이션 현상이 누적되어 갔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여 이미 1972년 「8.3조치」에 잇따라 1974년의 1.14긴급조치, 1975년 관세환급실시 및 수출증대로 세계적인 최악의 불황을 극복하고 드디어 1977년에는 사상최초의 경상수지균형을 달성하는 한편 100억불 수출, 1,000불 소득을 달성함으로써 호황을 누렸다.³⁹⁾ 대구지역 경제도 섬유공업의 수출경기와 기계금속업 등 전업종의 호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大邱商工會議所의 사업활동도 전례없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⁴⁰⁾ 1973~1978년까지 6년 동안 조사연구활동과 對정부 건의활동이 각각 180여건에 달하였다. 대구지역의 섬유공업실태조사와 육성방안 건의, 기계금속공업실태조사와 육성대책 건의를 비롯하여 수출진흥책 종합건의, 중소기업육성책 종합건의, 부가가치세제보완 종합건의 등의 산업정책 건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지역경제정책에서는 상공행정업무 지방이양과 상공부 대구사무소 설치 건의와 수출유관기관 유치 건의를 비롯하여 대구지역의 지방세 중과세대상지역 제외 건의, 지방공단육성 및 공업개발장려지구지정 건의 등을 추진하였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대표작은 구마고속도로 건설 건의로 1977년 12월 개통으로 지역숙원사업이 성취된 것을 들 수 있다. 조사연구활동도 지역경제동향을 비롯한 경제동향조사, 산업실태 및 환경조사, 유통경제부문조사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상공진흥사업에 있어서는 기능경기대회, 기능검정사업, 기능공통신훈련, 경영자연수원 설치, 순회경영기술지도,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등 고위 경제당국자 초청 상공인 간담회 및 수출의 날 기념행사 등의 사업을 광역으로 추진하였다. 1976년에는 새마을부가 신설되고 공장새마을운동 추진지부가 商議내에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공장새마을 사업은 이 당시

39) 앞의 책, p. 545.

40) 이하 1970년대의 대구상의의 주요 업적은 위의 책, pp. 577~621.

大邱商工會議所의 부문사업 가운데 가장 활기찬 사업을 펼친 것으로 평가된다.

회원봉사사업으로는 회원봉사실을 설치, 운영한 바 있으며, ‘회원의 날’을 제정 시행하고 산업디자인실을 운영하였다. 1975년 국제부가 신설된 후 비록 불발은 되었지만 대구지역에 종합무역상사 설립을 추진하였던 일, 10여회에 걸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것, 한미우정사업, 영국 웨스트 민스터商議와의 자매결연 등은 주목할 만한 사업이었다. 출판홍보사업은 정기 간행 《대구상의 뉴스》紙와 격월간 《대구경제》紙 등이 팔목할 만한 사업이었으며, 경북상공 진흥관사업도 1973년부터 폐관되기까지 5년 6개월간 부설기구로서는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하였다.

5) 轉換期の 大邱商工會議所(1979~현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가 원유가의 급등과 함께 급격히 침체되면서 수출신장이 둔화되고 중동지역으로부터의 건설용역대금의 수입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상수지는 악화되었다. 또 원유가의 폭등이 국내물가에 반영되면서 국내인플레이션은 더욱 악화되어 물가상승은 무려 39%에 이르렀다. 이러한 외부의 충격에 대하여 국내의 정치적 불안 및 사회적 혼란은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198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로 급락되는 등 불황과 침체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에 1982년의 사채파동과 각종 대형 경제사건, 1983년에는 금융긴축의 강화 등에 의한 자금난 가중으로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에의 충격은 심각하였다.

그러나 1986년부터 3년간 지속된 ‘3저호황’으로 연 12%에 달하는 고도성장이 이루어졌다. 대구지역 경제도 국내 경기 호조와 궤를 같이하면서 섬유업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호황 추세가 이어졌다. 1989년에 이르자 이러한 추세는 반전되어 원화의 평가절상, 임금의 상승,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과 계속되는 노사분규,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 재테크로 인한 소득격차의 심화 및 과소비풍조의 팽배 등으로 지금까지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구가하던 고도성장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1990년도에 들어서는 왜곡된 경제흐름과 기술개발의 부진, 급격한 임금상승 및 선진국의 개방압력 등 대내외적인 불리한 경제여건으로 인해 수출은 둔화되는 반면 수입은 급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시기 경제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商工會議所는 각종 회의나 건의,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주창하게 되었고 조사사업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따라서 大邱商議는 지방경제의 활성화,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지역경제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진정 건의 활동, 조사연구사업, 상공진흥, 공장새마을, 기

업체정화, 국제협력, 출판 및 홍보사업 등 商工會議所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왔다. 大邱商工會議所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¹⁾

지역금융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하여 오던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가 1979년에 설립되고 1989년에는 다가오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대구지역에 본사를 두는 大東銀行과 東洋投資信託을 설립하였다. 무엇보다 대구는 섬유공업을 중심으로한 중소기업의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섬유공업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또한 대구상공업계의 권익옹호 뿐만아니라 지역업계의 해외시장 개척과 시장확충을 도모코저 민간경제외교사절단을 파견, 금속도금공업전문공단 건설, 대구국제공항설치 건의, 중소기업불황타개를 위한 금융지원 건의, 유통단지조성 건의, 대구직할시 승격에 따른 도시구역조정 건의, 지역유통업계의 근대화 촉진책과 당면한 애로사항 건의, 대구지역 보험회사 설립 건의, 대구~김해간 고속도로건설 추진, 지역경제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긴급자금지원 건의, 중소기업범위조정 건의 등 다양하고도 활발한 건의를 통하여 지역개발과 상공업 육성에 노력하였다.

건의활동의 기초로서의 조사연구사업으로는 대구섬유민속촌 건립방안연구, 지자체에 대비하여 지역산업의 구조적 취약점 등 지역경제의 당면 문제점을 조사,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효율화 제고를 위한 조사, 섬유종합유통단지 조성연구 및 심포지움,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조사 등 다양한 조사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지역경제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전담할 대구경제연구센타를 商議내에 설치하였다.

상공진흥사업으로는 경제장관 및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경영전반에 걸친 각종 설명회, 교육강좌, 노무관리연수반 신설 및 운영, 각종 기능검정시험, 전시회, 해외 바이어 안내 및 상담 추진, 나아가서 기관장, 상공의원, 기업체대표 등이 참석하여 지역경제동향보고회를 개최하여 수시로 지역숙원사업과 업계애로사항을 타개하였으며 상담소를 확충하여 회원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였다.

3. 大邱商工會議所의 現況

大邱商議는 대구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민간기관으로서 여론의 집합처, 행정과 주민의 대화채널,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다

41) 이하 1980년대 대구상의의 주요업적은 대구상공회의소, 앞의 책, pp. 709~815와 각년도 사업보고서 참조.

양하면서도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大邱商議의 설립목적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대구지역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발전과 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업계의 대변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공인받고 부하된 실무를 완수하며 국민경제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大邱商議가 「상공업의 종합적인 경제단체」인 동시에 「지역단체」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경제단체」와 「지역단체」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大邱商議는 1992년 12월 현재 회원수는 법인 2,158명, 개인 2,045명으로 총 4,56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大邱商議의 관할구역은 大邱直轄市와 漆谷郡이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의결기관인 의원총회, 상임의원회와 8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되고 사무국에는 집행기관으로서 상근부회장과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1실 9부와 경영자연수원, 대구경제연구센터를 두고 85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⁴²⁾

大邱商議는 그동안 대구지역 상공인의 공동관심사를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친목도모와 유대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요사업은 특정업종이나, 특정 기업인의 문제만이 아닌 상공업계의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건의 및 조사연구사업(정책개선 건의, 경제연구사업, 조사연구사업), 상공진흥사업(경영자연수원 운영, 경영지도사업, 각종 행사 및 지원, 기술진흥 및 검정사업, 전시사업), 산업평화정착사업, 통상증진 및 국제협력사업, 회원봉사사업, 출판 및 홍보사업(월간 大邱商議, 월간 지역경제動向, 분기별 유통경기전망 조사보고서, 분기별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 기타 수시간행물), 군지부사업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4. 大邱商工會議所의 評價 및 課題

1) 大邱商工會議所 活動의 評價

大邱商議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여러 측면에서 가능하겠지만 그 설립취지에 맞추어 몇가지를 지적해 보기로 한다. 우선 大邱商議는 대구지역의 유일한 종합민간경제단체로서 설립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 상공인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인사들간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해 왔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또한 大邱商議는 지역상공인들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관계자들이나 중앙정부의 경제부처 인사,

42) 대구상공회의소, 《사업보고서》, 1992, p. 21.

타지역 상공인들간의 대화의 창구로서 중요한 구실을 해온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大邱商議가 대구상공인들에게 언제나 충분하고도 알찬 봉사를 해왔다고 말하기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경제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중앙집권화가 강화되면서 大邱商議가 관료화됨에 따라 대구지역 상공인과 거리가 생겨 친목도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식적 기구가 되지 못한 적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성과 노력으로 상공인들의 친목도모와 유관기관의 대화창구를 위한 여러가지 통로를 만드는데 주된 노력이 경주되었음도 사실이다.

둘째, 大邱商議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정치체제의 변화 그리고 경제발전 등에 따라서 그 기능과 주요사무가 바뀌어져 왔고 또 대구 지역사회에서 갖는 大邱商議의 위치도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공통된 점은 대구지역 상공업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상공업에 관한 통계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기업경영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으며, 정보와 資料를 수집하여 책자로 간행하고 국내외 상사의 분쟁이 발생했을시 중재, 조정하는 임무 등 대구지역 산업의 발전에 음과 양으로 기여해 왔다.

또 그것은 大邱商議의 설립 목적인 대구지역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발전과 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계의 대변기관이라는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大邱商議는 거시적으로는 산업정책, 경제법령, 행정개선, 산업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미시적으로는 기업경영합리화를 위해 경영애로와 상공업의 애로요인을 조사하여 정책당국에 진정, 건의하고, 또 통상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회원업체에 대한 봉사사업 등 지역경제전반은 물론이고 한국경제의 문제점도 자주 지적, 건의하여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지방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

셋째, 大邱商議가 지역 상공업 발전에 기여한 많은 활동과 사업중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의의있는 활동 중의 하나는 대구지역의 각종 상공업에 관한 통계의 정기적인 작성, 경제단체의 통계 및 資料의 수집 및 제공과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각종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온 것을 들 수 있다.

大邱商議가 조사 작성하고 있는 주요한 통계 및 資料를 대상별로 세분하면, 월간 지역경제동향을 조사하는 지역경제조사, 기업경영애로요인과 근로자 의식구조 및 기업경영조사, 물가와 마케팅 실태조사를 비롯한 유통물가조사가 있으며, 이외에도 수시 특별조사가 있다. 또 조사영역별로 보면, 크게 정기조사, 일반조사, 물가조사로 구분된다. 정기조사는 지역경제동향조사, 기업경영애로조사, 분기별 기업경기전망조사, 기업사금융이용실태조사, 공공서

비스요금실태조사 등이 있고, 일반조사는 그때 그때 업계의 문제점과 관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물가조사는 주요 생필품의 도매, 소매동향조사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각종 홍보물과 資料집을 간행해 왔다. 특히 1965년에 《商議月報》를 창간하여 大邱商工會議所와 회원업체 간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맡도록 하였으며, 현재에는 《大邱商議》를 월별로 발간하여 업체뿐만 아니라 학계, 금융계 인사들도 참여케 함으로써 산학협동의 한 장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大邱商工名藍》, 《商工會議所 70年史》, 《大邱經濟總藍》, 《大邱商議80年史》 등 종합資料집을 발간하여 대구지역산업의 연혁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資料가 되어 업계와 회원 및 지역인사의 요구에 부응해 왔다.

그러나 商議의 다양한 조사연구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즉 연구조사된 資料가 적시에 보급되지 못해 실제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든가, 형식적인 사업이라 전문성, 정확성이 결여되었다든가, 실제경제에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資料라든가 하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들이다. 이제 大邱商議의 조사연구사업도 전문화, 분업화, 국제화된 시대를 맞이하여 업계의 여망을 토대로 더욱 계획성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大邱商議는 상공업의 진흥과 전망을 도모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사업도 다방면에 걸쳐 추진하여 왔다. 지역사회를 위한 大邱商議의 봉사활동은 상공업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순수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과 민간공익기관으로서 갖는 위치로 인한 사회사업적인 측면까지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2) 課題와 展望

大邱지역경제의 중추기관인 大邱商議가 맡아야 할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의 전망을 전제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진취적인 것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大邱商議에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역할은 우선, 국내외적 변화의 실상과 그 방향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회원업체는 물론 지역민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각 경제주체가 이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둘째, 大邱商議는 그 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중소업체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스스로 지역경제 전체의 나아갈 확고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환기적 상황에서의 대응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혼란과 마찰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다. 넷째, 지방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민간경제단체로서의 구실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방향은 물론이고 개개지역에 따른 특수성까지 고려하여 대구가 대구·경북권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연구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조직의 탄력성과 효율성 유지를 위해 조직기구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타지역의 商議, 大韓商議, 外國商議가 갖고 있는 조직기구의 장단점도 면밀히 검토하여 대구경제의 특성과 산업구조에 맞게 창의적인 조직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大邱商議가 지역업체의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인력자원의 확보가 시급하다. 사무국 직원의 채용에서부터 훈련, 재교육, 배치, 평가와 승진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인사관리체제의 합리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인력의 현저한 자질향상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일 것이다.

셋째, 대구지역의 자립적 경제기반 확립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개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역량에 비해 과대하게 추진되어온 사업활동을 지역경제의 특성과 지방화시대의 도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사업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또 일부는 배제시킴으로써 大邱商議 활동의 정예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업체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각 업체에 제공함은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수립에도 일조가 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대외 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조사, 연구, 건의 등 상공진흥을 위한 모든 사업이 양질의 측면에서 대폭 확충된, 체계화됨과 동시에 국제적인 시각과 국제경제, 산업동향과의 관련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원업체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체인 大邱商議는 對회원서비스의 강화와 大邱商議 활동에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회원들의 요구를 업종별로 공통된 점과 특수한 점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 위에 보편성과 합리성을 가지도록 작성해야 하며, 건의한 결과는 반드시 보고회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알림으로써 商議활동에 직접 참여한다는 기분을 충족시켜 주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업체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을 더욱 개발하고 확충해 나가야 하며, 회원들에게 大邱商議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설득구조를 더 알차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갖고 있는 상공업의 인허가 사무, 경제단체의 분산된 상공업무를 商議로 통합, 회원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I.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大邱支部

1.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의 設立經過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의 중소기업단체들은 주로 업종별 협회 또는 연합회였다. 이들은 대부분이 해방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동종업계의 권익을 옹호하고 업계가 당면한 제반문제와 업계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였다. 이들 업종별로 설립된 협회들은 업종간의 유기성이 결여되어 중소기업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중소기업 전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 당시로서는 유일한 종합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에 결집하게 되었다.⁴³⁾

1956년 무렵부터는 상공회의소내에 중소기업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商議는 전산업에 걸친 대변기관이어서 중소기업에만 관심을 쏟거나 전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리하여 1946년 8월 韓國貿易協會의 창립을 필두로 시차는 있었으나 韓國經濟人協議會 등이 상의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단체를 구성하였다. 이때 중소기업인들도 1959년 말경부터 업종별 회의 또는 연합회를 규합하여 中小工業團體聯合會의 창립을 서둘렀으며 그 명칭도 商議를 배제하고 진솔하게 중소기업계만으로 구성할 의도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하였다.⁴⁴⁾

中小工業團體聯合會는 1960년 6월 30일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고 동년 7월 12일 대한상의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동년 10월 14일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명칭을 사단법인 中小工業中央團體聯合會(이하에서는 中工聯)로 개명하고 기초업무를 시작하였다.

中工聯이 업무를 시작한지 8개월이 못되어 5·16군사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정부는 중소기업단체들을 공법단체로 조직화할 목적으로 1961년 12월 27일 특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제정·공포하고, 1962년 2월 14일에 기협법 시행세칙을 제정·공포함으로써 협동조합설립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1962년 5월 1일 19개 조합을 발기인으로 하여 1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중앙회가 출범하게 되었다.⁴⁵⁾

4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협30년사》, 1992, p. 319.

44) 위의 책, pp. 320~321.

45) 위의 책, pp. 322~324.

2. 沿 革

1962.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공포(법률 제884호), 중소기업협동조합 결성추진위원회 구성
(대한인쇄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
1962. 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창립총회 개최
1962. 7. 상공부장관 설립인가
1974. 6. 중앙회 대구·경북 지회 설치
1976. 6. 중앙회 부산, 대전·충남, 광주·전남지회 설치
1977. 3. 중앙회 경남,전북지회 설치
1978. 4. 중앙회 인천·경기, 충북지회 설치
1978. 7. 중앙회 강원지회 설치
1984.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설치
1988. 6. 중앙회 제주지회 설치
1989. 12. 중앙회 서울지회 설치
1991. 5. 중소기업인력정보센터 설치

한편 전국에서 중소기업체가 가장 밀집된 대구에 1974년 6월 1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경북지부를 설치하여 사무소를 경북메리야스회관 내에 두었다. 그러다가 1978년 9월 21일에 경북섬유회관이 신축되어 사무실을 섬유회관 4층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1981년 9월 8일에 지부명칭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대구·경북지부로 변경하였다.

3. 組織 및 機構

중앙회의 조직기반은 중앙회 회원인 각급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업종 및 지방별로 구분할 수 있다. 1961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으며,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과 더불어 동년에 연합회 9개, 전국조합 33개, 지방조합이 75개로 모두 117개 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협동조합이 설립은 계속 증대되어 1967년도에는 무려 176개 협동조합이 조직되었으며 1967년도 이후 1978년 말경 중소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조합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2년도에는 193개 조합에 달하게 되었다. 1980년 국보위의 유사단체 통폐합 및 부실단체 정리조치에 따라 귀금속(련)외 18개 조합이 해산·정리되었으며, 1982년 소조합제도 도입과

1984년 주무관청인 상공부의 상업협동조합 설립 유보조치가 일부 해제되면서 신규조합설립이 가속화되어 1987년도에는 338개, 1990년도에는 451개 조합수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각급 협동조합의 조합수는 설립초기인 1962년도에 5,124명에 불과하였으나 1967년도에는 7,42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72년도까지 조합원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다가 1977년도에는 1만명을 돌파하여 조합원이 1만 3,541명이 되었으며 그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제품촉진법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도입되면서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률이 크게늘어 1987년에 2만 4,809명, 1991년도에는 3만 9,424명으로 669.3% 급신장하였다.⁴⁶⁾

한편 대구 경북지부에서는 일반기구로 지부장, 차장, 총무과, 지도과 등 2과를 두고 있으며, 직원수는 10여명이다. 그리고 특별기구로서는 대구·경북지구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구성된 이사장협의회와 상무이사로 구성된 실무이사회를 설치하여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조합운영이나 지역 중소기업계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그 타개책을 구하고 있다 대구·경북지부는 1993년 5월 말 현재 연합회 회원 지방조합이 19개 조합, 연합회 미설립지방조합이 10개 조합, 사업조합이 19개 조합, 전국조합이 2개 조합 등 50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⁷⁾(앞의 <表 14-3> 참조)

4. 主要 事業內容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요약된다.

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 ② 협동조합의 조직과 사업지도, ③ 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도·교육 및 정보제공, ④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관리, ⑥ 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 ⑦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업무 지원, ⑧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과 사업영역 보호

이밖에도 특히 대구 경북지부에서 수행한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⁸⁾

1) 共同購販事業 支援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을 중앙회와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조합에 앞선 지원함으로써

46) 앞의 책, 1992, p. 330.

4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부, <회원명부자료>, 1993.

48) 이하에서는 대구매일신문사, 《每日年鑑》, 1985, 1986, 1987, 1988을 주로 참조하였다.

1984년 말에 635억 7,600만원, 1985년 말 579억 7,200만원, 1986년 말에 969억 1,000만원, 1987년 말 1,188억 6,1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또한 원부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면사, 선철, 합판, 벙커C유, 시멘트 등을 조합의 공동사업으로 구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하였다. 지방자치 단체 및 정부투자 기관, 공공단체에 협동조합 제품 단체수 의계약에 의해 우선 구매토록 협조를 요청하여 1984년 말에 268억 5,400만원, 1985년 말 237억 9,600만원, 1986년 말에 244억 9천만원, 1987년 말 284억 4,0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2) 稅務指導事業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해 세무지도 강습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직접세무 기장지도와 세무회계 시책 등에 대한 상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984년 : 590명의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연 2회 세무지도 강습회, 세무기장지도 연 50회, 상담 487회.

1985년 : 825명의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연 3회의 세무지도 강습회, 세무기장지도 연 100회, 상담 710회.

1986년 : 925명의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연 3회의 세무지도 강습회, 세무기장지도 연 200회, 상담 743회.

1987년 : 708명의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연 3회의 세무지도 강습회, 세무기장지도 연 200회, 상담 840회.

3) 調查事業

중소기업 경영 및 경기에측 조사, 중소기업 가동상황 조사, 중소기업 기본실태, 경기동향, 지역경제 동향 등에 대하여 1984년 40회, 1985년 72회, 1986년 142회, 1987년 86회 등의 조사활동을 펼쳤다.

4) 理事長 協議會 및 實務理事會 開催

이사장 협의회와 실무이상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건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表 14-5〉 理事會 活動現況

	이사장 협의회	실무이사회	각종건의 건수
1984년	5 회	10회	42회
1985년	5 회	10회	45회
1986년	6 회	12회	51회
1987년	6 회	12회	43회

資料：대구매일신문사, 《每日年鑑》, 1985, 1986, 1987, 1988.

5) 中小企業 控除基金 加入 및 控除基金 貸出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연쇄도산 방지를 위하여 1984년부터 추진한 공제 기금의 1987년 말 현재 가입실적은 지부관내 1007개업체에 월부금액이 1억 5,480만원이다.

또한 이 재원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 자금으로 15개 조합에 40억 5,900만원을 대출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거래 상대방의 도산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대출이 235개 업체에 43억 8,200만원이나 되었다.

6) 協同組合 監査 및 事業計劃 規約 承認

지방조합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업무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정기감사 4~6회, 입회감사 2회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규약 및 제정을 수십회 승인하였다.

7) 弘報事業

중소기업에 관한 시책을 신속히 알리고 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일간신문 방송 및 중소기업통보 등을 통해 매년 수백회씩 홍보했으며, 중소기업통보 수만부씩을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III. 韓國貿易協會 大邱·慶北支部

1. 韓國貿易協會 成立史⁴⁹⁾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은 17세기 중엽 이래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에도 對日무역은 1606년에 양국의 통이 재개됨에 따라 통신사의 왕래로 피차의 예물교환형태의

49) 한국무역협회, 《무역30년사》 하, 1977, pp. 1537~1557.

교역이 있었으나 교역으로는 보잘것 없었으며, 개항과 더불어 많은 日商들이 부산에 대거 진출하게 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고 하겠다.

일본인들이 1879년 8월에 釜山商法會議所를 설치하여 그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게 됨에 따라 경합하고 있던 부산상인들도 釜山客主商法會社를 1889년에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무역단체의 효시이다.

일본통치가 강화되고 만주사변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면서 일본인들은 朝鮮貿易協會 그리고 東亞貿易株式會社(第三國貿易)를 설립하게 하여 무역통체를 강화함에 따라 민족 자본의 무역상들은 이에 경합할 여지를 갖지 못한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직후 미군정기에 국내물자 결핍을 계기로 대일밀무역이 성행하더니 1946년에 들어서는 對中密貿易도 성행하여 약탈물자의 교환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었다. 이무렵 정계일각에서는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 대외무역을 이끌어 나갈 기관의 설치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다수의 무관심 속에서도 특히 金度演, 李 活 兩人은 그 중요성을 절감하고 무역협회 설립에 발벗고 나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吳楨洙 상무장관의 권고로 朝鮮商工會議所(現 大韓商工會議所의 전신)가 무역협회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1945년 7월 5일 조선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韓國貿易協會 設立準備委員會를 개최하고, 10여명의 상임준비위원을 선임하여 설립취지서, 회칙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리하여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무역진흥과 무역업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민법 32조에 의거 1946년 7월 31일에 설립되었다. 창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출입국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국무역협회가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다언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많다. 따라서 한국무역협회의 대구 경부지부가 설치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한 연혁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2. 沿 革

- 1946. 7. 31. 한국무역협회 창립총회
- 1947. 7. 12. 외국무역규칙 제1호 발포
- 1949. 8. 16. 일간 ‘무역통신’ 발간
- 1949. 12. 30. 《무역년감》제1호 발간
- 1952. 무역진흥공사 설립

- 1953. 10. 부산지부 설치
- 1957. 무역법의 제정 공포
- 1963. 11. 26. 일본어판 ‘무역통신’ 발간
- 1964. 1억불 수출달성과 ‘수출의 날’ 제정
- 1966. 한국무역윤리위원회 설치
- 1969. 5. 19. 香港 코리아센터 설치
- 1969. 7. 함부르크 지부 설치
- 1969. 8. 27. 한국수출진흥주식회사 설립
- 1971. 11. 해외경제연구소의 설립
- 1972. 5. 韓國荷主協議會 설립
- 1973. 3. 한국무역회관 준공
- 1973. 8. 한미경제협의회 설립
- 1973. 10. 주간 ‘내외경제’ 설립
- 1974. 3. 산학협동재단 설립
- 1974. 9. 한국센타 USA 설립
- 1975. 11. 사단법인 중동문제 연구소 설립
- 1976. 12. 31. 한국종합전시장 건설본부 설치
- 1979. 4. 16. 대구지부 설치

3. 組織 및 機構

한국무역협회의 기구는 매우 방대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국내지부로서 대구·경북지부는 1953년 10월에 부산지부가 설치된 지 무려 26년만에 대구·경북지역 업계의 각종 무역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두번째로 설치되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는 1979년 4월 16일 대구상공회의소내에 사무실을 임대해 업무를 시작하여 1992년 10월에는 사무실을 국제오피스텔 7층으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종합 무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⁵⁰⁾ 그러나 설치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1993년 현재에도 대구·경북지부의 조직은 지부장, 지부장대리, 참사, 직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대구·경북지역 무역업체를 상대로 무역협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50)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자료.

한편 대구·경북지부의 회원업체를 보면 1984년에는 355개업체(대구: 235개업체, 경북: 120개업체), 1985년 433개업체(대구: 284개업체, 경북: 150개업체), 1986년 577개업체(대구: 388개업체, 경북: 189개업체), 1987년 810개업체(대구: 523개업체, 경북: 287개업체)로 나타나있다. 1987년의 경우 회원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대구지역의 경우 섬유업체가 48.1%인 251개업체, 기계금속이 78개(14.9%), 광학이 44개(8.4%), 화학 23개(4.4%), 전기 전자 22개(4.2%), 농수산 7개(1.3%), 기타 98개(18.7%) 등이다.

그리고 이것을 무역형태별로 보면 갑류무역업이 173개로 33.1%, 을류무역업이 339개로 64.8% 및 기타 11개로 2.1%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1993년 5월 말 현재 한국무역협회의 회원업체수는 갑류 1만 8,976개사 을류 1만 3,058개사 총 3만 2,025개사이며 특별회원 128개사를 포함하여 협회 회원은 총 3만 2,153개사이다. 이에 반해 1993년 현재 대구·경북지부의 총 회원업체는 1,500여 업체로서 한국무역협회 전체 회원업체 수의 약 5%에 불과한 실정이다.

4. 主要 業務와 實績

한국무역협회의 주요 업무는 무역업허가 안내, 상담 추천 및 증명서 발급, KOTIS·일간무역·조사資料 제공, 세미나·설명회 개최, 도서실 운영, 거래알선, 해외홍보지원, 통상협력활동, 종합무역연수, 수출애로신고센터·하주협의회 운영,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건의,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등이다.⁵¹⁾ 이 가운데 몇가지 주요업무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KOTIS(종합무역정보 서비스) 情報提供

KOTIS란 무역업체 및 유관기관이 급변하는 국내외 무역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수집한 무역정보를 On-Line통신망으로 제공하는 One-Stop서비스이다. KOTIS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무역, 경제통계, 무역업부, 법규정보, 해외마케팅정보 등이며 PC 나 MO-DEM 등 기본수신설비 구비 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첨단 무역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유선으로도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貿易相談 및 隘路打開 活動

품목별 수출입 요령, 대외무역법, 외환관리법, 관세법 등 수출입 절차 및 관련법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업체 설문조사, 대정부건의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993년 대

51) 대구매일신문사, 《매일연감》, 1985, 1986, 1987, 1988을 참조.

구·경북지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사업은 무역업체(1,500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이다.

3) 貿易研修 및 說明會 開催

무역실무 강좌(종합무역실무강좌, 무역서식작성요령강좌, 무역통신문, 무역영어강좌 등)를 년 4~5회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대두되는 무역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4) 政府貿易業務 受託支援

1993년 7월 1일부로 무역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무역업등록 및 변경신청업무를 무역협회(지부)에서 수임처리하고 있으며, 외국환관리규정(제13-9조)상의 해외지사(사무소) 설치요건 미비업체 중 일정요건 충족시 설치승인을 추천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회원업체의 수출실적(통관기준)증명 발급, 구매자점사 대상업체 확인서 발급, 17개 수출추천기관의 추천위임 품목에 대한 수출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貿易關聯書式 및 刊行物 販賣

수출·수입승인신청서, 수출입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구매승인신청서, 특혜원산지증명서 등의 무역관련서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품목별 수출입요령, 수출입업무요람, 영문무역통신사례집 등 무역협회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무역시책, 고시, 공고, 국내 무역업체 및 해외시장 동향, 거래알선 및 바이어 안내 등 무역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日刊貿易>을 발행하여 업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구·경북지부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 경북지역 무역업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하였다.⁵²⁾

6) 貿易振興事業

지역업체의 무역진흥을 위한 협의회 및 간담회를 매년 7~8회씩 개최했고, 수출입 실무상의 상담을 수천건씩 하였으며, 상담을 통해 제기된 각종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7) 調査事業

매년 대구·경북지역 수출업체들의 특수성 조사와 분기별로 세관 수출입통관조사를 실시해 이 지역 무역동향을 발간했다. 특히 수출용 원자재 공급대책 수립과 지역특화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84년에는 우산, 양산, 안경업체의 실태조사, 1985

52) 한국무역협회, <업무안내>.

년에는 광학, 안경업계의 실태조사를, 1986년에는 우산, 양산, 자동차부품업계의 실태조사를, 1987년에는 공예 및 섬유업계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하였다.

8) 會員事業

지역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에 해당조합이 없는 업체들에게 매년 수백건의 수출추천을 해주었다. 그리고 수시로 무역관계 특별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업체의 업무 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무역실무 종합강좌 및 무역영강좌도 실시하고 있다.

IV. 大邱經營者協會

1. 經營者協會의 性格

대구경영자협회는 1981년 5월 19일에 사용자들의 긴밀한 유대강화로 노사간의 화합과 이해증진을 제고하여 건전한 노사협조 풍토를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창립되었다. 동협회를 소개하는 《경영자협회란...》이라는 팜플렛에서 경영자협회의 성격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먼저 경영자협회의 성격은 노·사·정(노동자, 사용자, 정부) 3자 구성의 협의체 내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단체이며, 韓國經營者總協會를 중심으로 노사협력의식을 고취하여 노사 공생공영의 이념을 구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영자협회는 앞에서 살펴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대구지부나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처럼 중앙조직의 산하단체가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는 독립적인 사단법인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2. 沿 革

- 1981. 4. 29. 협회설립 발기인회(발기인 회장 최익성)
- 1981. 5. 29. 창립총회(초대 최익성회장 피선)
- 1981. 8. 25. 설립허가(노동부 노허 제82호)
- 1981. 12. 31. 회원사 77개 업체
- 1982. 8. 20. 고용윤리위원회 설치
- 1982. 8. 30. 고용서비스센터 설치
- 1984. 6. 21. 제규정 제정

1987. 5. 26. 산재보험사무조합 설치

1992. 12. 31. 회원사 1,260개 업체

1993. 2. 13. 재규정 전면 개정

3. 會員現況과 附設 運營機構

1993년 현재 大邱經營者協會의 조직구성을 보면 고문 1명, 명예회장 1명, 회장 1명,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단 14명, 이사 72명, 감사 2명으로 총임원이 92명이며, 총회원수는 1,260개 업체이다.⁵³⁾ 그리고 1992년 12월 현재 大邱經營者協會의 업종별 회원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섬유업종에 종사하는 회원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금속업종이 17.4%, 운수업종이 13.2%이다. 또한 종목별로 보면 섬유업종 가운데에서도 직조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이 37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염색분야 107명, 조립금속분야 89명, 기계기구분야 87명 순으로 나타나 있다.

이밖에도 대구경영자협회의 산하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1) 雇傭倫理委員會

1982년 8월 20일에 기업간의 부당한 인력스카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고용질서와 인력관리관행을 정립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착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주요업무로는 부당스카웃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신청으로 각계 인사 9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고용윤리위원회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조정 및 해결을 하는 것이다.

2) 雇傭서비스 센터

1982년 8월 30일에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적재적소 배치 및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고용서비스 센터의 주요업무로는 구인 및 구직 접수와 알선, 구인 및 구직 정보지 발간, 기타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다.

3) 產災保險事務組合

1987년 5월 26일에 중소기업체(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과 건설업 중 상시 근로자 200인

53) 대구경영자협회 자료

〈表 14-6〉 大邱經營者協會 業種別 會員現況(1992년 12월 현재) (단위: 업체)

업종별	종 목	회원수	비율(%)	업종별	종목	회원수	비율(%)
섬 유	직 조	370	73.9	운 수	버 스	44	28.6
	염 색	107	21.4		택 시	80	51.9
	봉 제	17	3.4		화 물	11	7.2
	기 타	7	1.3		기 타	19	12.3
	소 계	501	42.8		소 계	154	13.2
금 속	철 강	13	6.4	써 비 스	도매업	22	43.1
	비 철	5	2.5		호텔업	14	27.5
	조립금속	89	43.8		관광업	7	13.7
	기계기구	87	42.9		위생업	1	2.0
	기 타	9	4.4		기 타	7	13.7
	소 계	203	17.8		소 계	51	4.4
비 금 속	요 업	2	3.6	기 타	전기전자	26	2.2
	유 리	2	3.6		건 설	31	2.7
	벽돌, 타일	3	5.4		금 용	6	0.5
	시멘트	16	29.1		식료품	32	2.7
	연마, 주물	17	30.9		종이, 인쇄	30	2.6
	기 타	15	27.4		목 재	5	0.4
	소 계	55	4.7		안 경	13	1.1
	화 학	프라스틱	6		26.1	의료업	5
의약품, 화장		3	13.1		용역업	4	0.3
농 약		1	4.3		기 타	31	2.7
고 무		6	26.1				
기 타		7	30.4				
소 계		23	1.9		소 계	183	15.6
총 계					1,170개 사업장		

註: 기타업종에 나타나 있는 비율은 총사업체에 대한 비율임.

資料：대구경영자협회.

미만)의 산재보험에 관한 사무편의를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보험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두고 설치되었다. 산재보험사무조합의 주요업무는 확정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보고 납부,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신고,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 등이다. 1993년 9월 현재 산재보험조합의 위탁사업장 수는 2,410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4. 主要事業 內容과 實績⁵⁴⁾

大邱經營者協會의 주요사업으로는 (1)노사협조 증진사업, (2)준법적 혹은 합리적 인사 노무관리 풍토조성 사업, (3)사업체 지원 사업, (4)社勢強化 사업, (5)해외 연수 및 교육사업, (6)조사연구 및 출판사업 (7)정책건의 사업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주요사업 내용에 기초하여 대구경영자협회는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오고 있다. 大邱經營者協會 사업실적 가운데 주요한 것들을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勞使協助 增進事業

노사협조 증진사업은 대구경영자협회의 주요사업 활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창립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노사협조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거의 매년 노사간담회 개최, 노사정월례조찬회 개최, 노동자의 날 체육대회 지원, 노사협조 모범사업체 시찰, 모범노동자 표창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동관계 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노동정책관계 담당관 초청 간담회 개최, 노동관계자 간담회 개최, 노동행정개선에 관한 건의 등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노사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산별노련 관계자 초청 간담회, 산재환자 위문 격려, 근로자 전화상담실 설치운영(1992년 2,817명) 등을 통해 노사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2) 遵法的 혹은 合理的인 人事勞務管理 風土造成

1989년까지는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인사노무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와서는 노사화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에는 준법적인 인사노무관리 풍토의 조성을 위해 사업장 노무관리 담당자 교육, 산재보험 위탁사업체 실무자 교육, 노무관리 모범 사업체 시찰, 노무관리 실무상담 및 지도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존의 사업 활동에 부가하여 원만한 임금협상을 위한 조정지침 시달, 취업규칙, 단체협약 체결기법 지도상담, 체불임금 현황 파악 및 지도, 단체협약 취합 분석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3) 事業體 支援事業

사업체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으로는 경영자 세미나 개최, 고용서비스 센터의 운영, 고용

54) 이하의 내용은 대구경영자협회의 1981년~1992년까지 각 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요약한 것이다.

윤리위원회의 운영, 위장노동자 취업방지 정보 제공, 사업체 방문지도 등을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1990년에는 사업장 내에서 불법 부당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별, 지역별 업체 및 단체 등으로 광범위하게 구성된 공동협의 기구인 大邱經濟團體協議會⁵⁵⁾(경단협)를 구성 운영하였다. 그리고 1991년과 1992년에는 분규사업장 및 노무관리 현장상담 실시, 5대 “10% 더하기 운동” 전개, 농촌 유흥인력 활용을 위한 지도 등을 새롭게 실시하였다.

4) 社勢強化 事業

198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직기능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84년 1월 27일에 회원 87명으로 구성된 구미지역지부를 설치하였으며, 85년에는 임원1인 1회원 영입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87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 말에는 회원수가 216개 업체에 불과했으나 1987년 말에는 777개 업체로서 무려 561업체나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시기에 신규회원수가 이처럼 급속히 증가한 데에는 물론 지속적인 신규회원 영입운동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노사분규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지역 경영자들의 결속이 필요함을 그들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회원수의 급속한 증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1989년 이후에도 사세강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92년에는 미가입 사업장을 방문하여 가입을 권유하고 회비조정을 위한 실태조사, 연체비 징수 독려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1992년 말 현재 1,260명의 회원수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에 존재하는 경영자 협의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5) 海外研修 및 教育事業

창립년도인 1981년부터 이미 동남아 5개지역에 노무관리 연수단을 파견한 것을 필두로 하여 거의 매년 일본 경영자 대회 및 일본기업 산업시찰단을 파견하고 있다. 또한 1991년에는 모범사원 해외연수단 파견(8회, 255명), 관계기관 추천 근로자 해외연수, 북구 및 EC경영시찰단 파견, 노사합동 동남아 순항 연수단 파견 등이 있었고, 1992년에는 10회에 걸친

55) 업종별 단체 및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업체를 중심으로 1990년 2월 2일 대구경제단체 협의회 설립총회를 갖고 과격노사분규에 신속히 대처하여 산업평화의 기반구축과 노사대화의 가교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본목표로 하는 설립취지문의 채택과 운영요강 및 사업활동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90년 한해동안 임금교섭 위크숍과 생산현장 중심의 교육 및 분규사업장의 현장지도, 단체협약체결 지도 등의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대구경영자협회, 《사업보고서》, 1990, p. 7.

모범사원 해외연수단을 파견함으로써 지금까지 25차에 걸친 연수단 파견이 이루어졌다. 교육사업으로는 주로 인사노무관리자 연수교육, 노무관리 실무담당자 교육, 임금교섭 전략 세미나, 노동관계 설명회, 연말정산 교육 등이 연중 혹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6) 調查研究 및 出版事業

대구경영자협회의 조사연구 사업은 1984년부터 주로 經總과 결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독자적인 조사활동도 수시로 이루어져 왔다. 조사연구 결과는 資料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연도별로 기록해보면 다음과 같다.

〈表 14-7〉 大邱經營者協會 調查研究事業 實績

연 도	조 사 연 구 사 업
1984년	경총과 제휴하여 각 사업장의 신규인력 동태, 임금조정 동향, 여성노동자의 고용 관리실태 등을 조사
1985년	임금조정 전망조사(120개소), 임금실태조사(780소), 신규인력채용실태조사 (180개소), 취업규칙 분석조사(30개소), 임금인상조사(142개소).
1986년	사업장 임금실태 조사, 86년 신규 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산재보험적용 대상사업장, 보험료 실태 조사, 86년임금 조정동향조사, 임금 관리제도 실태조사, 승진 관리 실태조사, 새해 경제전망 여론 조사.
1987년	신규인력 동태조사, 임금조정 동향조사, 임금실태조사, 임금정년제 실태조사, 기업 정년제 실태조사, 기업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최저임금설정에 대비한 임금 실태조사, 하반기 임금조정 동향조사, 100대기업 최고경영자 새해경제 전망조사.
1988년	신규인력채용 동태 조사, 임금동향 조사, 직급별 모델 임금조사, 대구지역 노사동향 조사, 기업복지 후생 실태 조사, 100대기업 최고경영자 새해 전망 조사, 지역노사분규 동향 조사, 지역 노동조합 설립 상황 조사.
1989년	신규인력 채용 실태조사, 임금동향 조사, 노동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 실태 조사, 기업간 임금조정 영향도 조사, 직급별 모델 임금 조사, 대기업 최고 경영자 새해 전망 조사, 1990년도 노사관계 전망 조사, 기업별 임금조정 동향 조사, 지역별 노사 분규 동향 조사, 노동조합 설립상황 조사.
1990년	신규인력 채용 동태 조사, 단체협약 중 주택관련 조항 조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취합분석, 기업의 근로자 주택 지원 실태조사, 1990년 임금조정 동향 조사, 경영성과 배분사례 조사,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대학(원)생 현상 논문집, 위법부당한 단체협약 사례조사, 협회 활성화 여론 조사, 근로자 소년소녀 가장 실태조사, 사실혼 근로자 결혼식 미필자 조사, 추석명절 대책에 대한 실태 조사, 근로시간(제도) 실태조사, 인사노무관리 제도의 개선사례 수집, 근로시간 단축실태 조사, 기업의 고용실태 조사, 승진승급관리 실태 조사, 직급별 모델 임금 실태 조사, 100대기업 최고경영자 새해 경제 전망 조사, 91년도 임금대책을 위한 조사, 지역 노사분규 실태 조사, 지역 임협상 상황조사, 지역노동정보 상황 파악.

연도	조 사 연 구 사 업
1991년	100대기업 최고경영자 새해경제 전망 조사, 설날 명절 대책조사, 신규인력 채용 동태 조사,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방카C유수급량 실태조사, 노무관리 조직 및 실태 조사, 위법 부당한 단체협약 사례조사, 생산직근로자 의식조사, 임금조정 동향 조사, 하계 휴가 실태조사, 추석명절 대책조사, 직급별 모델 임금조사, 업무평가 설문조사, 지역 노사분규 실태조사, 노동조합 설립 현황조사, 지역 노동정보 및 상황조사.
1992년	경협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신규인력 채용 동태조사, 기업 복지후생 실태조사, 설날 휴가 및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하계휴가 실시에 대한 실태조사, 추석명절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평균 근속년수 및 이직 조사, 근로자 의식조사, 임금조정 동향조사, 대기업 최고경영자 새해경제 전망조사,
	직급별 모델 임금조사, 임금교섭 실태조사, 인력난 해소에 대한 설문조사, 기업의 인력동향 조사, 5.1(메이데이) 휴무실시에 대한 실태조사, 최저임금 대상사업장 실태조사, 기업 연수계획 실태조사, 파트타임 근로자 실태조사, 기업의 휴일휴가 실태조사, 체불임금 및 부도업체 현황조사, 법정업무 고용 대상인원 조사, 노동조합 설립현황 조사.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경총과 협력하거나 독자적으로 다음과 같은 출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해 오고 있다.

①경영교실(매월), ②노동판례(격월) ③각종연구보고서(수시), ④경영계 (매월) 경총, ⑤경총회보 (매월) 경총, ⑥속보 노사동향 (수시) 경총, ⑦국제 노동동향 (계간) 경총, ⑧경영과 안전보건 (수시) 경총, ⑨임금 실무資料 (매년) 경총, ⑩노동 경제 연감 (매년) 경총

7) 政策建議 事業

大邱經營者協會 설립 초기부터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정책건의의 주된 것은 노동관계법개정, 임금문제, 직업훈련, 고용문제 등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건의 활동을 연도별로 요약하면 아래의 <表 14-8>와 같다.

〈表 14-8〉

大邱經營者協會 主要政策建議事業

연도	정 책 건 의 사 업
1981년	노동기준법상 법정수당 인하와 최소3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건의, 생산성 기준의 임금정책 건의, 종신�직업제와 연공가급 임금제도의 장려 건의.
1982년	현행 노동관계법령을 현실화하도록 개정하여 줄 것과 노동자의 퇴직예고제를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
1983년	민사소송에 가름하는 재해보상제도를 실시하여 중대화재 발생시에 사업주의 2중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자협회에서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를 위탁징수하도록 제도화 하고 사업장의 노무관리자 교육 역시 경영자협회에 위임하여 교육을 일원화 하도록 건의.
1984년	사망 또는 퇴직노동자에 대한 금품청산제도에 관한 건의,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건의, 노동관계법령 개정 운동에 관한 대책 건의 등.
1985년	노동자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 설치 건의, 시간외 야간 휴일 노동수당에 대한 건의, 퇴직금 산정기준을 통상임금으로 개정 건의, 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에 대한 건의, 퇴직금 총당금 사외적립 제도에 관한 건의, 임금체불에 대한 연차이자 지불문제에 관한 건의, 임금 우선특권 규정 삭제 건의, 노동법 개정운동에 관한 대책 건의.
1986년	경총과 공동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 건의, 의료보험 기구 및 재정 통합에 관한 건의, 노동복지 제도에 관한 의견제시, 국민연금법안에 관한 의견제시.
1987년	창조적 노사협력을 위한 우리의 자세 권고, 헌법개정에 따른 경영자의 의견 건의,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권고, 노사제도 개정 방안에 의한 건의, 노동관계법 개정 건의, 1,000만 노동자에게 보내는 권고, 전환기에 있어 민주적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경영자의 다짐 권고.
1988년	직업훈련 기본법 개정 건의, 88임금 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 직업안정법 개정 건의, 남여고용평등법 제정에 관한 건의, 근로소득세 개정에 관한 건의, 대졸 미취업자 인턴쉽제도에 관한 건의, 사업체 특별학급 설치기준령에 관한 건의, 사업장 무허가 건축물 단속완화에 관한 건의, 노동법 권위 회복과 노사자율풍토조성을 위한 경영계의 의견 제시, 사내 복지기금법에 관한 건의, 노동법 재개정 움직임에 관한 건의, 89 최저임금 재심에 관한 건의.
1989년	노동법 개정논의에 관한 의견 제시, 경영권 수호와 준법적 노사관행 정립('89 경영자 선언), 노동계 5.1총파업 기도에 대한 경영계 대책 권고, 기금 관리 기준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 산재 보험사업조합 운영 합리화를 위한 건의서 제출.
1990년	노동관계법 개정 건의,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안)에 대한 건의, 정부의 근로자주택 25만호 건설계획에 대한 건의,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행령에 대한 건의, 직업훈련 기본법에 대한 건의, 산재보험법 개정에 대한 건의, 경제난극복을 위한 경영계의 다짐 권고, 위장취업 사전방지 권고, 급진노동세력침투 방지 권고, 최저임금고시에 관한 권고.

연도	정 책 건 의 사 업
1991년	섬유직업 훈련원 건의 확정, 국제경쟁력 강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건의, 국민 연금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 영육아 보육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 기준령 개정 건의, 중고령자 고용 촉진법(안)에 대한 건의, 사내 근로복지 기금법(안)에 대한 건의, 기금관리 기본법(안)에 대한 건의, 기타 노동관계법 개정 건의.
1992년	국민연금법 중 퇴직전환금 정산에 관한 건의,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건의, 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건의, 산재 초과 보험제 도입에 관한 건의, 기타 노동관계법 개정 건의.

8) 其他 事業

첫째, 국내의 노동관계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 사용자기구(IEO) 및 각국 사용자 단체(세계 자유진영국가 100여개 단체)와 교류하여 노사관계 노동법제 등의 정보교환 및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취업규칙 작성지도, 근로계약서 작성 지도, 임금대장 기재요령 지도,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지도, 년월차 휴가 사용관계와 대장 작성 지도, 노사협상의 전략과 기법 지도, 노무관리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제공 등과 같은 실무적인 부문을 지도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산재보험 사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경영자협회의 산하 기구로서 무료로 운영하는 산재보험 사무조합에서는 1992년 말까지 총누계 2157개 사업장의 조합원을 확보하였다. <표14-9>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조합에서의 1992년도 위탁징수실적은 1,413개 사업장분 위탁징수금 총 68억 6,400만원이었으며, 1993년도 6월경에 수령할 징수비용 교부금 예상액도 약 9천 4백여만원에 달하는 성과를 올렸다

〈表 14-9〉 산재보험 수탁 사업장수와 징수비용교부금액

		1991년도 분	증 감
수탁사업장 수	* 수탁사업장 총누계 : 2,157개 * 실제위탁 징수한 사업장 : 1,413개	1,413개	52.7% 744개
징수비용교부 금 액	94,154,410원(예상)	65,035,510원	44.8% 29,118,900원

註 : 1992. 12. 31. 수탁해지 사업장 : 90개
資料 : 대구경영자협회 부설 산재보험사무조합.

V. 農業協同組合中央會 大邱市支會

1. 設立目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單位組合과 特殊組合을 회원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단위의 연합 조직체이다. 본래 중앙회는 전계통조직의 지도조직으로서 그들을 대표함과 동시에 그들의 각종업무 및 사업을 지원함은 물론 경영지도, 감사, 조사연구, 농정활동 등을 통해 농협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앙회조직이 존재해야 할 필요성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경제에 경제적 약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은 지역적인 개별조합만으로는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유리성과 조직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연대조직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⁵⁶⁾

2. 沿革

- 1961. 8. 15. 달성군조합 설립(지소: 동촌, 화원, 현풍, 구지, 하빈)
- 1963. 9. 5. 대구지소 개점
- 1966. 2. 10. 중부지소 개점(현: 북성로 지점)
- 1971. 9. 10. 구지지소 폐쇄
- 1973. 8. 27. 하빈지소 폐쇄
- 1978. 1. 30. 현풍지소 폐쇄
- 1979. 8. 16. 화원지소를 성당지소로 명칭변경
- 1981. 1. 1. 조직개편: 3단계 조직→2단계 조직(회원조합-중앙회) 축협분리
- 1981. 7. 1. 경산군지부 안심지소 ————— 대구직할시 승격으로 달성군지부
 칠곡군지부 칠곡동지소 ————— 관할로 소속 변경
 칠곡군지부 동호동 예금취급소
- 1981. 10. 1. 대구시지회 발족(4과, 13개소, 1개 예금취급소)
 달성군지부→대구시지회
 성당지소→달성군지부
- 1984. 8. 14. 명칭변경: 지소→지점

56) 농협중앙회 대구시지회, 《대구농협 30년사》, 1991, pp. 69~70.

- 1985. 5. 1. 대구경북원예농협 대구시지회 소속으로 변경
- 1986. 2. 17. 대구3개 공판장 대구시지회 소속으로 변경
- 1987. 9. 1. 대구시교육 출장소 개점
- 1988. 3. 1. 대현동지점 경북도지회 소속으로 변경
- 1989. 3. 15. 북대구공판장 출장소 개점
- 1989. 5. 23. 두류지점 개점
- 1989. 12. 11. 평리지점 개점
- 1990. 5. 14. 대구농산물공판장 중부분장 본장으로 승격 총무과 신설(1부 4과) 1990. 8. 29. 수성로출장소 개점
- 1991. 6. 4. 경북도교육청 출장소 개점

3. 組織 및 機構

농협의 조직체계는 농민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위조합과 특수조합이 있고, 이 단위조합과 특수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조직된 중앙회가 존재하는 바 현재는 2단계 계통조직을 이루고 있다. 1961년 종합농협 발족 당시에는 마을단위의 이동조합, 군단위의 군조합, 전국단위의 중앙회의 3단계 조직이었다. 이동조합이 읍 면단위의 조합으로 합병됨에 따라 그 명칭이 단위조합으로 바뀌었다. 1981년 1월 1일부터는 농협법 개정에 따라 군조합이 중앙회의 지사무소화되어 2단계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중앙회는 각 도마다 도지회를 두고 있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특별시 직할시에는 시지회를, 시 군단위에는 시 군지부를 지사무소로 설치하고 있으며 다시 시지회와 군지부 밑에는 지점을 두고 있다.

대구농협에는 중앙회의 지사무소인 시지회 및 3개 공판장, 17개 지점, 4개 출장소가 있으며, 회원조합은 단위조합이 10개(조합원수 12,000명, 준조합원수 2만 5천명 이상), 특수조합이 1개(대구 경북원예농업협동조합)로 총 11개이고 또한 회원조합의 지사무소가 27개로 조직되어 있다.⁵⁷⁾

大邱農協의 기구를 보면, 시지회는 지회장을 중심으로 지회장을 보좌하는 부지회장과 영업부장이 있으며 기획관리, 총무, 지도경제, 금융과가 있다. 따라서 시지회의 기구는 1부 4과체계이며 그밖에 대구 북대구 중부공판장을 두고 있다. 1990년 12월 31일 현재 시지회

57) 농협중앙회 대구시지회, 《대구농협 30년사》, 1991, p. 59.

기구는 다음과 같다.

〈表 14-10〉 農協中央會 大邱市支會 會員組合 現況 (단위 : 개소)

조합명	지 소	설립연월일	조합원수	조합명	지 소	설립연월일	조합원수
동대구	중동 효목 신암 신천 대명 수동	72. 11. 28.	1,288	동 촌	불로 방촌	72. 11. 28.	1,232
		86. 12. 22.				77. 9. 6.	
		74. 7. 22.		공 산	서부	89. 3. 29.	1,431
		77. 4. 16.				72. 10. 21	
		75. 2. 24.		성 서	동부 남부	75. 3. 6.	1,063
		76. 5. 25.				69. 8. 13.	
서대구	비산 성당 만평 노원	90. 2. 13.	1,128	월 배	중앙 상인	74. 8. 20.	999
		73. 1. 8.				87. 6. 1.	
		76. 5. 11.		철 곡	대전	69. 12. 3.	1,499
		75. 4. 25.				80. 1. 15.	
북대구	침산 대현 검단 대도	87. 6. 1.	1,052	고 산	신매	89. 7. 13.	1,298
		88. 12. 22.				73. 1. 11.	
		71. 11. 28.		반야월	동부	76. 5. 31.	1,373
		75. 11. 10.				72. 10. 17.	
		77. 5. 4.				74. 5. 21.	
계				10	24		12,363

資料 : 농협중앙회 대구시지회, 《대구농협 30년사》, 1991. pp. 62~63에서 재작성.

4. 主要事業

1) 指導事業

지도사업이란 농협의 기본이념(농민의 자주적인 협동단체로서 조직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생존과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을 능동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참여의 정신과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영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전개, 조장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주·자조·협동적 실천행위를 통하여 농업생산성의 증진과 생활을 합리화함으로써 농민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및 지도활동을 말한다.⁵⁸⁾

58) 앞의 책, pp. 123~154.

- 조직기반 정비, 경영기반 조성
- 지역농업개발과 조합원 조직육성, 복지농촌 육성
- 영농지도: 농업생산기술지도, 농업경영지도, 농산물유통개선지도
- 협동조직 육성: 영농회, 부녀회, 작목반, 4-H회
- 후계조합원 육성: 농민후계자 지도 지원, 4-H회 지도 지원, 농과계학생 영농정착 지원
- 생활지도: 소비생활합리화 지도, 의 식 주 생활개선 지도, 건강증진활동, 문화복지활동, 취미 교양 정서 지도활동
- 교육 및 홍보: 조합원 교육, 임직원 교육, 산학협동, <농민신문>, <새농민>, <어린이 동산> 간행
- 지역농업종합개발사업: 새마을 소득종합개발사업, 복합영농사업, 지역특산물 개발운동, 농공지구 조성사업, 농가공산물 임가공사업, 농어촌 특산단지조성사업, 관광농업 개발사업

2) 購買事業

농민은 생산을 위하여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석유류, PE필름, 종자 등 생산재를 구매하게 되고 소비생활을 위하여 문방구, 내구 소비재, 잡화 등 생활물자를 구입하게 된다. 따라서 농협은 구매사업을 통하여 유통의 협동화를 도모하여 농민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직접구매 또는 생산, 공급함으로써 상업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부당한 이윤을 배제하여 생산자적 이익과 소비자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농협의 구매사업은 판매사업과 함께 농협 경제사업의 주축을 이루어 왔는데 61년 발족 당시에는 정부 위촉사업인 비료를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61년 취급비율 81%) 점차 농약, 농기계, 종자 등 각종 생산자재의 취급확대에 노력하였고, 70년부터 종합농협이 연쇄점을 개점하여 양질의 생활물자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구매사업은 크게 성장하였다.

한편 81년 조직개편으로 군지부의 구매사업이 단위조합으로 대부분 이관됨에 따라 군지부의 사업은 대폭 감소한 반면 단위조합의 구매사업량은 급격히 신장되었는데 사업 방식도 종래의 하향식 구매사업 방식에서 영농계획에 기초한 농민 신청이나 단위농협의 판단에 의해 소요예상량을 신청하는 상향식 구매사업 방식으로 바꾸었다.

대구농협은 급변하는 지역여건에 따라 최근에는 생산자재 공급 구매사업보다는 소비자 공급 구매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990년 말 현재 구매사업 총취급액은 198억원으로써 조합당 평균 19억 8천만원이며 구성비에 있어서는 생활물자가 78%로써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⁵⁹⁾

59) 앞의 책, 1991, p. 155.

3) 販賣事業

판매사업은 다수농민의 협력에 의한 농산물의 공동판매를 통해 상인과의 대응력을 높이고 유통마진을 절감함으로써 개별농민으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농산물 판매과정의 편익을 추구하고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농가수취가격의 안정적 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62년 5월 대구공판장이 개설되고 64년 3월에는 대구공판장 중부분장이 개설되었다. 1975년 「농산물유통정보센터」가 신설되면서 전국적인 농산물가격 및 반입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산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상업적 영농이 더욱 진전을 보여 소득작목으로의 집중화, 전문화, 규모화가 진행되는 한편 대구농협은 1981년 大邱市支會가 발족하면서 산지유통보다는 소비지 유통기능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1980년 11월 대구공판장이 내당동으로 신축 이전하고, 84년 11월부터 시작된 대구직할시 공영도매 시장이 완료됨에 따라 88년 10월 북대구공판장이 공영도매시장내에 개설되었으며, 1986년 12월 동대구슈퍼마켓이 개점되는 등 소비지유통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식품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우루과이 농산물 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고추파동, 배추파동 등 농협외적인 요소에서 농산물 유통에 대한 농협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1990년 말 도시농협 유통활성화 3개년 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大邱農協은 공동판매 실적증대, 우리농산물 애용코너의 전점포 설치, 슈퍼마켓 설치 확대, 가공공장 설치, 관광직판장 설치, 공판장 경영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및 우리농산물 애용창구에 농산물공급을 위한 간이집배센터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⁶⁰⁾

4) 利用加工事業

농협의 利用加工事業은 농민조합원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 영농비 절감, 소비지출의 합리화 등 직접 간접으로 조합원 농민에게 편의와 이익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61년 종합농협 발족 당시에는 군조합은 창고 운송 가축시장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도정공장은 이동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그후 1970년대 초에 이동조합이 면단위조합으로 합병되면서 대농민업무의 단위조합 이관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단위조합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가축시장 관리사업은 축협이 농협에서 분리되면서 축협중앙회로 이관되었다.

60) 농협중앙회 대구시지회, 《대구농협 30년사》, 1991, pp. 168~169.

사업의 성장추이를 보면 창고사업은 보관물량의 감소 및 양곡창고의 폐쇄로 보관실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운송사업은 사업 초기에는 취급품목이 제한되고 실적도 미미하였으나 1976년부터 유상운송이 허용됨에 따라 구 판매품 수송 등 계속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⁶¹⁾

5) 信用事業

1961년 종합농협의 발족과 함께 성장한 농협의 신용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유희자금을 흡수하여 이를 농민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농업자금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아울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으며 한편으로는 농협의 지도 경제사업 등 여타 사업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협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1981년 大邱市支會가 발족되면서 신용사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욱 발전하였는데 1990년 말 현재 중앙회 총예수금은 3,09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시지회 발족 당시 예수금 514억원의 6배에 해당하며 총조달자금의 65%를 점유하고 있어 농업자금의 안정적 확대공급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춧돌이 되고 있다.

한편 대출금도 대폭 증가되었는데 1965년 말 4억원에서 시지회 발족해인 1981년말에는 19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 말에는 87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총예수금의 20%에 해당하는 622억원이 저축추진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또한 1972년에 시작된 「농림수산업과 신용보증사업」은 1990년 말 491건에 13억 7500백만원의 보증액을 시현하고 있다.

여수산업부와 함께 신용사업에 있어서 3대 사업의 하나인 환업무는 농협의 방대한 전국 조직망을 통하여 격지간의 자금을 중개해 줌으로써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대구농협의 경우 1991년 8월 말 현재 회원조합을 포함한 60개의 고객환 취급사무소가 있으며, 그외에도 1982년 시지회 영업부를 필두로 1986년에는 북성로지점이 그리고 89년에는 두류지점이 외국환업무를 개시하여 외환사업의 기반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신용사업 중 가장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온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은 1970년 성서조합을 시발로 90년 말 현재 10개 회원조합과 1개 특수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다. 1970년 3백만원에 불과하던 상호금융 예수금은 1991년 5월 3천억원을 돌파하여 이제 회원조합은 농촌금융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⁶²⁾

61) 앞의 책, 1991, p. 186.

62) 위의 책, pp. 190~191.

6) 控除事業

농업생산 및 농가생활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협공제는 장래의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불행에 의해 발생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농협공제 가입자를 경제적 파탄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협동조합의 정신을 구현하는 보험제도이다.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른 국내 보험산업의 비약적인 성장과 더불어 농협의 공제사업도 종합농협 설립 당시에는 화재공제와 가축공제 단 2종류만을 취급하던 것이 그동안 신종공제의 지속적인 개발에 힘입어 1991년 8월 현재 생명공제 13종, 손해공제 7종 등 20종으로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 또한 방대한 계통조직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추진, 저렴한 공제료, 다양한 복지사업실시 등 민영보험에 비해 유리한 조건하에서 급성장한 결과 대구농협의 1991년 8월 현재 보유계약고는 2,330억원으로, 대구농협 발족당시인 1981년의 58억원에 비해 40배에 달하는 괄목할 만한 사업신장을 이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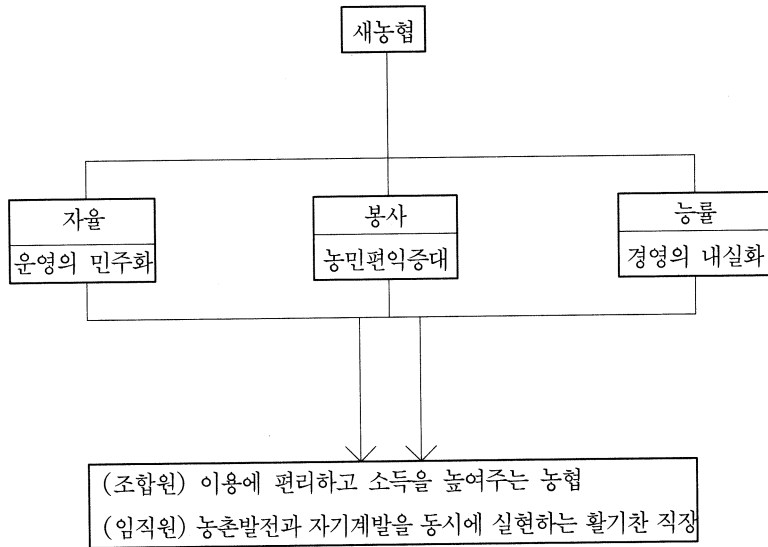
질적인 면에서도 농민조합원과 공제계약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 면학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관광휴양을 위한 복지관 이용사업 등 공제계약자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하여 왔다.⁶³⁾

7) 새農協運動

새농협운동은 농협임직원들이 의식과 발상을 농민조합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식개혁 운동이며, 또한 진정한 농민의 농협을 구현하고자 하는 실천운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농협운동」은 자기성찰과 발상전환의 바탕위에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견지하고 아울러 농민조합원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킴으로써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임을 실감나도록 사업기능과 체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것인 바 이를 위해 농협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다.⁶⁴⁾

63) 앞의 책, pp. 203~204.

64) 위의 책, pp. 214.



〈圖 14-1〉 새農協運動의 指向 目標

第3節 纖維工業 關聯 經濟團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구지역은 우리나라 纖維工業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지역과 비교하여 纖維工業이 일찌기 발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섬유공업 관련 협동조합도 여타 조합에 비하여 비교적 일찌기 체계화 되었다. 따라서 대구지역에 존재하는 경제단체들 가운데 섬유공업 관련 경제단체의 역할과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섬유공업과 관련된 주요 경제단체의 연혁과 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I. 纖維技術振興院

1. 設立前史

1983년 9월에 발족된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의 前史는 1977년부터이다. 먼저 1977년 9월에

慶北纖維技術專門訓練所의 설치조례가 공포되고 1978년 6월에 개소식을 가지게 되었다. 동 훈련소의 설립목적은 섬유기능공을 양성하여 섬유기능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영세민자녀 및 불우청소년 기능훈련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섬유산업체 종업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1979년 5월에는 慶北纖維技術指導所 설치조례가 공포되고 1980년 3월에 개소되었다. 동 지도소의 설립목적은 중소기업진흥에 기술개발정보를 보급하고, 섬유기술의 혁신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신상품개발로 수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경북섬유기술전문훈련소와 경북섬유기술지도소는 지방행정의 재정지원능력의 한계성으로 연구장비 및 연구요원 등 연구실습비의 충분한 지원이 불가능했고, 기업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업계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1980년 9월 당시 南惠祐 국무총리의 대구지방순시때 慶北纖維技術指導所의 운영 활성화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을 건의하게 되었고 동년 10월 내무부, 상공부, 경상북도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섬유연합회 등이 모여 제1차 관계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섬유업계 및 학계관계자가 참석한 긴급임시회의에서도 섬유기술지도소의 조속한 위상구축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경북섬유기술전문훈련소와 경북섬유기술지도소를 통합하여 섬유전문기관에 이관시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었다.⁶⁵⁾

그 결과 이들 양기관을 통합하여 새롭게 설립된 것이 慶北纖維技術振興센터이다. 경북섬유기술진흥센터는 섬유공업근대화 촉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同法 제18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韓國纖維產業聯合會가 지방재정능력의 한계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기관을 경상북도의 요청으로 1981년 1월 27일에 이관받아 통합하여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업주체가 정부에서 법인체로 바뀐과 동시에 기관명도 ‘韓國纖維產業聯合會 附設 纖維技術振興센터’로 개칭되었다.

2. 大邱纖維技術振興院의 發足과 沿革

경북섬유기술진흥센터가 신규로 중견간부를 비롯 연구요원을 공개모집하여 확충하고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982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산이 삭감되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도 대구에 있는 부설기관을 운영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없어 소신껏 사업을 전개해 보지도 못한채 다시금 표류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센터재산의

65) 섬유기술진흥원, 《創立10周年 記念誌》, 1992, pp. 50~51.

소유권자인 대구시는 1983년 4월 8일에 '83년 제3차 경북섬유기술진흥센터 임시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센터의 발전적인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한 결과, 대구시가 마련한 사단법인체로의 개편계획이 수립되었다. 수차례의 실무회합을 거친 이후에 마침내 1983년 8월 13일 사단법인 대구섬유기술진흥원 설립허가를 승인받아 동년 9월 1일자로 개원하게 되었다.⁶⁶⁾

그러나 대구섬유기술진흥원으로 개원하자 바로 직면한 문제는 여전히 1984년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것인가였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 소재한 연구기관에 국비를 보조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진흥원은 사실상 전국에 있는 모든 섬유업체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감안하여 그 명칭을 '大邱纖維技術振興院'에서 '大邱'를 삭제하고 '纖維技術振興院'으로 개칭(1984. 11. 8.)하게 하였다. 이후 섬유기술진흥원은 섬유기술분야에서 확실한 업적을 쌓아 섬유산업 발전에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편 이와같은 우여곡절 속에서 설립되어 발전해온 纖維技術振興院은 1990년 2월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민간생산기술연구소로 지정됨에 따라 섬유기술진흥원으로 법인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섬유기술진흥원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情報資料 수집 및 보급, 연구지도, 기술연수, 기능인력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섬유업계의 현대화 촉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섬유기술진흥원의 설립전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연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沿革〉

- 1977. 9. 22. 경상북도 섬유기술전문훈련소 설치조례 제정 공포
- 1978. 6. 21. 개소와 동시에 1차훈련생 입소
- 1979. 5. 1. 경상북도 섬유기술지도소 설치조례 제정 공포
- 1980. 3. 7. 경상북도 섬유기술지도소 개소
- 1981. 3. 1. 양기관 통합, 경북섬유기술진흥센터로 개소
- 1983. 9. 1. 사단법인 대구섬유기술진흥원 개원
- 1984. 11. 1. 사단법인 섬유기술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 1987. 4. 3. 부설 섬유기술교육원 개원
- 1988. 12. 7. 부설 섬유기술대학으로 명칭 변경
- 1990. 2. 22. 중소기업특별조치법에 의거 민간생산기술연구소로 지정(시행령부칙 제2항), 섬유기술진흥원으로 법인 변경

66) 섬유기술진흥원, 《대구섬유산업사》, 1990, p. 635.

3. 組織 및 機構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섬유기술진흥원은 1980년대 초에 기관의 소속이 두번이나 변경되고 기관명이 세번이나 개칭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설립전사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장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법인의 변경 등을 통해 조직과 기구의 확대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1993년 현재 섬유기술진흥원의 조직은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하는 30여명의 理事陣과 60여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연도별 운영비는 국고보조금과 대구시보조금 및 자체수입금으로 각종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80년대 초에는 자체수입금 가운데 초급기능공 훈련분담금과 업체훈련분담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현재에는 연구용역비 및 회원가입금, 시험수수료, 간행물분담금, 교육분담금, 연수 및 전시회 참가비, 기술지도분담금 등 다양한 재원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회원 업체는 1984년에 불과 73개사에 불과하던 것이 1987년에는 139개업체로, 1992년에는 245개 업체로 늘어났다. 또한 1985년 부터는 업체에 대한 회비경감과 개인을 위한 資料會員制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1992년 현재 67개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섬유기술진흥원의 조직변화가 있을때마다 기구도 개편되었다. 경북섬유기술진흥센터의 시기에는 소장, 운영위원회, 부소장과 2部 5課(2室)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1987년에는 총회, 이사장, 이사회, 원장, 부원장 및 4部(團) 9課(室)로 확대개편 되었다. 이후에도 한두번의 기구개편이 단행되었다.

4. 主要事業 內容과 實績

1) 纖維技術向上을 위한 研究開發

섬유기술진흥원에서는 국책연구수행에 따른 국내섬유기술진흥과 중소기업의 당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섬유기술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주요 연구개발 분야로는 고부가가치화 및 고기능성 연구, 에너지 및 원가절감 기술연구, 품질 및 공정관리 기술연구, 기계자동화 핵심연구,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전연구 등이 있다. 특히 섬유기술개발 연구사업의 특징은 중소기업분야의 연구, 즉 제직, 제편, 염색가공 분야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순수한 기초과학이나 소재개발, 신제품 개발연구보다는 현장의 생산기술을 위주로 한 응용기술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1990년까지의 연구실적은 총 62건으로 분야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表 14-11〉 纖維技術振興院 年度別 研究開發 件數 (단위: 건)

구 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계
제 직	1	.	1	3	4	4	2	1	3	1	20
제 편	1	1	1	1	1	1	1	1	1	1	10
염색가공	1	1	3	4	3	5	3	3	2	2	27
섬유디자인	1	1	1	3
섬유 일반	1	1	2
계	4	3	5	8	8	10	6	6	7	5	62

資料: 섬유기술진흥원, 《창립 10주년 기념지》, 1992, p. 93.

2) 纖維製品의 品質向上을 위한 試驗 및 分析

동 진흥원에서는 연구 및 신제품개발, 품질관리 및 공정개선을 위한 시험분석과 바이어의 요구에 의한 시험분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된 시험분석 대상은 섬유원료, 사류, 직물류 및 기타 섬유제품과 염료, 각종 조제 및 수지 등이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도에 1044건의 섬유류를 시험분석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30~40% 정도의 양적 증가를 보여왔으며 1990년도에는 7,158건(1,720업체)을 처리함으로써 진흥원의 시험분석결과가 대외에 공신력을 크게 인정받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表 14-12〉 纖維技術振興院의 年度別 依賴試驗 處理 實績 (단위: 건/개소)

연 도	실 적/업체수	연 도	실 적/업체수
1980	260	1986	5,692 / 1,351
1981	1,044 / 96	1987	6,647 / 1,361
1982	1,325 / 166	1988	6,338 / 1,423
1983	1,493 / 119	1989	5,410 / 1,376
1984	3,298 / 677	1990	7,158 / 1,720
1985	5,023 / 1,205		

資料: 섬유기술진흥원, 《창립 10주년 기념지》, 1992, p. 124.

또한 시험의뢰 업체의 지역별 이용 현황은 섬유가 주종산업인 대구지역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미, 경산, 논공 등의 경북지역에서 15%를, 서울 경기 등 기타지역에서 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 등지의 경우 2개의 검사소와 KOTITI 등 전문 시험기관이 있지만 지리상 거리감으로 이용도가 낮은 반면에, 역내 업체의 대부분은 진흥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새로운 시험방법의 개발과 바이어의 검사권 획득 등을 통하여 그 영역이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3) 纖維技術 指導 및 普及

섬유품질의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소섬유업체에 대한 현장으로 기술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도대상업체는 진흥원의 회원업체 및 각종 지원사업 참여업체, 신기술 신제품개발 추진업체, 수출유망업체 등이다. 섬유기술진흥원에서의 기술지도는 제직, 염색, 염색, 니트분야로 나누어 해당 전문기술지도사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지도방법으로는 시범화 공장지도, 종합 및 부문지도, 합동지도, 순회지도, 기술상담지도 등이 있으며 이들 지도의 대부분은 진흥원 소속의 기술지도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 외에 공진청 등 외부 기술지도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한 용역기술지도와 전문기술 분야의 외국인을 초청하여 실시한 외국인 초청기술지도 및 국내외 전문기술인을 초빙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업체의 기술진흥에 이바지 하고 있다.

〈表 14-13〉 纖維技術振興院의 年度別 業體技術指導 實績 (단위: 건)

부문 \ 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계
시범화공장지도	—	2	—	—	—	—	—	—	—	—	4
종합 및 부문지도	32	35	14	8	7	2	26	16	18	17	155
합 동 지 도	—	—	—	2	—	—	4	4	6	—	18
순 회 지 도	—	—	—	—	102	166	203	112	150	127	860
기술상담지도	52	63	73	103	255	208	151	135	156	153	1,349
외국인초청지도	20	9	4	—	—	—	—	—	—	—	33
용 역 지 도	—	—	9	5	2	1	1	9	3	34	64

資料: 섬유기술진흥원, 앞의 책, p. 111.

4) 纖維技術 情報發刊 및 資料調査

(1) 정기간행물 발간

섬유기술진흥원에서는 중소섬유업체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염색가공에 관한 專門技術誌인 월간 《染色加工》의 창간호를 1983년 3월에 발간했으며 이어서 산업전반에 관한 각종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기 위하여 《纖維振興》誌를 1984년 2월부터 격주간으로 발간하였다.

《染色加工》誌는 국내외 각종 기술정보를 망라한 종합기술정보지였으며 1987년 11월에 《纖維技術振興》誌로 題號가 변경되어 현재까지 섬유분야별 최신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최신 섬유정보資料 및 동향을 소개하는 纖維振興誌는 처음에 8면으로 발행하였으나 1990년 말부터는 40면으로 증면하여 발행하고 있다.

또한 1982년부터는 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간되는 纖維뉴스誌 및 《纖維技術情報誌》의 발간사업에도 참여하여 1988년까지 회원업체를 중심으로 역내섬유업체에 배포해 왔다. 그리고 변동되는 섬유시설 현황을 종합정리한 統計資料를 작성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체계적인 작업에 착수하여 매년 각종 섬유관련 統計資料를 수록한 《纖維工業統計》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현장기술자들의 전문기술 능력향상을 위하여 기술도서를 매년 1종씩 발간하고 있다.

(2) 부정기 간행물 발간

급변하는 국내외의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섬유기술진흥원에서는 국내외의 정확한 산업정보 및 시장정보, 기술개발동향, 산업정책 등을 신속히 입수하여 이들 資料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4. 12. 日本 福井縣 섬유산업진흥 시책
- 1985. 7. 大邱·慶北 纖維産業의 進路
- 1988. 9. 중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법규
- 1989. 1. 아시아 4개국 섬유산업 동향
- 1989. 7. 세계 주요국별 섬유산업 및 정책현황
- 1989. 10. 일본 섬유산지의 환경변화와 구조개선 정책
- 1990. 2. 大邱纖維産業史
- 1990. 11. 북한, 소련, 동구 7개국 섬유산업 현황
- 1991. 5. 80년대 섬유산업 수출입 구조분석

이 가운데 특히 대구 섬유산업의 기원 및 세계적인 섬유산업지로 성장한 대구지방 섬유산업의 발전과정과 배경을 정리한 《大邱纖維産業史》는 이번에 섬유관련 협동조합을 정리하는데 매우 유용한 史料로 이용되었다.

5) 資料電算網 運營 및 纖維機械 展示

중소섬유업체에 신기술 및 새로운 정보資料를 제공하고 전산화를 통한 資料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제공의 온라인화와 섬유도서관의 운영 등을 통해 섬유종합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1983년 진흥원이 개원된 후 展示업무가 기획조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본격적인

종합전시가 추진되었다. 1984년 제1회 대구섬유기계 전시회가 개최된 이후 신소재 전시, 기계부품 전시 등 각종 전시회가 매년 다양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6) 纖維專門技術 人力養成 및 中堅社員 技術研修

섬유기술진흥원 개원 초기업무 가운데 주요 사업이었던 초급기능공 훈련사업은 실제로 생산인력 부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역내 업계에 기능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1978년 5월 13일 제1기 초급반 연수교육을 실시한 이래 1987년 5월 31일 까지 총 4,048명의 제직 염색 봉제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교육시켜, 이 가운데 92.40%인 3,742명을 업계로 취업시켰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초급기능공 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급속한 저하와 생활력 향상으로 초급반 교육은 폐쇄되고 말았다.

초급반 훈련기능교육이 폐쇄되고 纖維技術大學의 기능으로 변모되었지만 진흥원의 개원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중견사원에 대한 각종 연수교육은 현재에도 매우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1991년 말 현재 중견사원 연수교육 실적은 총 287회에 1만 2,930여명 정도에 이르며 이 가운데 44% 정도가 3년 이하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49% 정도가 고졸, 47% 정도가 30세 미만이었다.⁶⁷⁾ 이 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1983년 6월 11일부터 위탁연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역내 섬유업체뿐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도 품질관리나 연수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 중소기업 종업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7) 纖維技術大學 運營

섬유기술대학은 우리나라 수출주도 산업인 섬유산업의 육성 발전과 대외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동 대학은 1986년 5월에 계획된 상공부의 섬유기술진흥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 1987년 4월 3일 섬유기술진흥원 부설 섬유기술교육원으로 개원하고 첫해 년도에 3개학과 165명(제직과 : 55명, 염색가공과 : 65명, 섬유디자인과 : 45명)을 모집하였다. 이듬해인 1988년 10월 17일에 재학생 149명의 연대서명으로 섬유기술교육원 명칭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1988년 12월 7일 校名을 섬유기술진흥원 부설 섬유기술대학으로 변경하였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배출된 동 대학 졸업생의 취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67) 섬유기술진흥원, 앞의 책, pp. 141~142 참조.

〈表 14-14〉 纖維技術大學 卒業生 就業 現況(1989~1991) (단위: 명)

구	분	모집인원	졸업인원	취업인원
製	織	課	152	73
染	色	課	173	75
織	維	課	126	87
編	成	課	83	27
計		534	262	242

資料: 섬유기술진흥원, 《창립 10주년 기념지》, 1992. p. 134.

II. 大邱·慶北絹織物工業協同組合

1. 設立趣旨

1963년 코오롱 대구공장에서 나일론 필라멘트 化纖施設을 착공하여 1964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日産 2.5톤의 나일론 원사를 본격적으로 생산하였다. 이를 원료로 나일론 태피터가 제직됨으로써 化纖織物의 대변혁을 일으켰으며 化纖織物이 수출을 주도하여 1967년도에 대구지역 纖維輸出은 2,451만달러를 기록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나일론 태피터 직물이었다. 그리하여 직물생산 품목도 종전의 生絲, 綿絲 위주에서 化纖絲 織物로 전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化纖織物 製織業者가 날로 늘어나게 되어 絹 및 化纖織物製織業者 155명이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가 시급함을 인식하고, 慶北織物工業協同組合 제6회 정기 총회에서 絹·綿 분리를 결의하였다. 同年 12월 18일 慶北絹織物工業協同組合 發起推進委員會를 발족하여, 1969년 1월 7일 大邱商工會議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⁶⁸⁾

창립이후 조합은 지역 섬유산업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71년부터 제 3공업단지에 糊付整經 共同利用施設을 조합이 직접 설치운영하기도 하였으며, 纖維有關機關 및 단체와 업계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외국바이어의 유치 등 纖維輸出報國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섬유회관 건립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1976년 8월에 착공하여 1978년 11월 13일에 완공하였다.⁶⁹⁾

同組合은 지역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의하에 梨峴工團內에 纖維技術專門訓練所 설립을 추진하여 1978년 4월 30일에 완공하

68) 앞의 책, p. 681.

69) 섬유기술진흥원, 《대구섬유산업사》, 1990. p. 684.

였다.⁷⁰⁾

또한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纖維技術指導所 설립을 경상북도에 건의하여 섬유기술전문훈련소내에 설치하여 纖維技術開發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였다. 이 경상북도 纖維技術專門訓練所와 纖維技術指導所가 오늘의 纖維技術振興院으로 발전적인 변신을 하였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대구은행과의 협조로 대구경북연사직물생산협력협회를 설립키로 하고 1985년 10월 상공부 장관의 法人設立認可를 받아 城西工業團地內에 건립하였다.⁷¹⁾

2. 沿 革

- 1968. 2. 18. 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 제6회 정기총회에서 건면분리 결의
- 1968. 12. 18. 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 발기준비위원회 발족
- 1969. 1. 7. 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 창립총회(144인)
- 1969. 2. 10. 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제1322~403호)
- 1969. 5. 20. 풍기분사무소 설치(영풍군 풍기읍 소재)
- 1970. 10. 1. 수출입업 허가(상공부)
- 1970. 12. 31. 공동리용시설장(호부, 정경시설)설치운영(1976. 1. 30 폐쇄)
- 1971. 9. 8. 홍콩출장소 설치(홍콩 코리아센타)
- 1971. 10. 1. 對香港독점수출권 획득(나일론 태피터, 인견, 트월)
- 1972. 12. 21. 뉴욕출장소 설치
- 1977. 4. 1. 무역대리점 등록(한국무역대리점협회)
- 1977. 10. 7. 《경북섬유》월간지로 정기간행물등록(문공부 라2246호)
- 1978. 9. 28. 경북새마을섬유회관건립 입주
- 1981. 10. 22. 대구·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3. 組織 및 機構

慶北絹織物工業協同組合이 창립되던 1969년에는 조합원이 114개업체였으나 1993년 5월말 현재 법인 203개, 기타법인 3개, 개인 506개 등 766개 업체로 늘어났다. 지역별 조합원 분포상황을 보면, 대구직할시가 법인 112개, 기타법인 1개, 개인 341개로 454개 업체이며 경북지역이 법인 91, 기타법인 2개, 개인 210개로 312개 업체이다.⁷²⁾ 조합의 기구는 최고 의

70) 앞의 책, p. 685.

71) 위의 책, pp. 685~686.

72) 대구·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 《임시총회서류》, 1993.

결기관인 총회를 비롯하여 감사, 이사, 상무이사 및 1室4部4課로 구성되어 있다.

4. 事業內容

1) 共同購買

조합은 조합원이 주종으로 제작하고 있는 나일론 태피터의 원자재인 나일론絲와 조오제트織物의 원자재인 폴리에스테르絲를 원사메이커로부터 공동으로 구매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면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원사 조합직배제를 마련함으로써 조합의 공동구매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1979년부터는 人絹絲 大邱 北販賣代理店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共同購買事業은 종래 나일론絲 및 폴리에스테르絲 위주에서 原 副資材 機資材 및 機料品 등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2) 貿易事業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내수산업의 수출산업으로의 전환과 아울러 化纖織物 수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1970년 9월 8일 조합은 慶北單一貿易商社로 지정을 받고 同年 10월 1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출입 허가를 받아 무역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나일론 태피터 織物을 홍콩시장에 직수출하였으며, 1971년 9월 8일 홍콩출장소를 설치하였고 同年 10월 1일 對香港 독점 수출권을 획득하여 수출업무를 활발히 수행하였다.

1977년 오퍼商 등록을 하여 原·副資材 및 機資材 등 수입업무를 확대하였으며 현재는 직접수출을 중단하고 조합원의 수출입업무 및 중소수출입업체들의 거래알선 및 상담 등 수출입대행 기능을 강화하여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3) 指導事業

지역의 化纖織物 製織業體가 해마다 늘어나고 제직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조합내에 1976년 9월 3일 刺繡織物製織業者協議會를 결성한 이후 각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각 협의회별로 경영관리, 생산기술, 품질,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정보를 회원 상호간에 제공하여 활용함으로써 과당경쟁의 지양, 중복작업의 제거, 기술향상, 생산성 제고, 경영합리화 등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질서 확립 및 제값받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업계활로의 개척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합에서는 매년 각 협의회별로 운영위원회 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건의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결의를 얻어 관철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월 조합원업체 가동실태를 조사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상공부 및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의 委囑에 따른 각종 조사업무 실행, 해외시장 실태조사,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을 년 2회 파견하여 해외시장 다변화 및 심화를 꾀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합원업체의 경영합리화와 자체능력배양을 기하기 위해 기술, 세무회계, 무역실무, 품질관리, 노무관리, 경영관리 등의 강습회를 실시하고 있다.

4) 弘報事業

조합 弘報事業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1977년 10월 7일 문화공보부로부터 정기간행물 등록을 畢하고 세무, 회계, 제직기술, 해외시장동향 등 전반에 걸쳐 업체홍보를 위한 《慶北纖維》紙를 타블로이드판 8면 1,500부를 발행하여 월1회 업체, 유관기관, 관련단체 등에 배포함으로써 대변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III. 大邱·慶北織物工業協同組合

1. 設立趣旨

섬유공업은 綿絲, 絹, 人絹絲, 生絲, 化纖絲, 기타 原絲로서 제직가공하여 원단인 직물을 생산하는 것을 총칭하며 그 종류는 원료(原絲)의 사용 또는 가공방법에 따라 다르며 그 수는 수백종에 달한다. 오늘날 대구지역 섬유업계의 대종을 이루는 직물공업은 1915년 東洋染織工場이 그 효시로 일컬어진다. 그후 대구의 직물공장은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와 의생활의 향상으로 점차 발전되어 각종 직기를 증설하던 중 1950년 6.25동란으로 막대한 직기의 파손을 입게 되어 직물공업은 잠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업계에서는 재건을 위해 노력하던 중 정부의 외화대부 정책을 밑바탕으로 외국으로부터 각종 직기부품을 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소규모 경영을 하던 중소기업은 대기업 경영의 우세로 인하여 쇠퇴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고 대기업의 독점을 전환기로 하여 생산면이나 고용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체가 살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혁명정부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 中小企業協同組合法 및 事業調整法이 1961년 12월 27일(法律 제83호)자로 공포 시행하게 되어 대구지역 직물업자 및 연사업자, 염색업자 중 관심을 가진 몇사람이 중심이 되어 1962년 3월 5일에 제1회 協同組合設立發起人會

회의를 하고 1962년 3월 26일 慶北染織工業協同組合 제1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⁷³⁾

기존 慶北織物組合은 해산시키고 경북도내에서 織物製造業, 染色加工業 및 撚絲工業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종업원수가 5명이상 100명이하 이거나 자산총액이 2억원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을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하였다. 창립당시 경북지역에 조합원 자격자 500여명 중 352명이 조합에 가입하였다.⁷⁴⁾

2. 沿 革

- 1959. 5. 29. 사단법인 경북직물회 창립
- 1962. 3. 26. 경북염직공업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 1962. 5. 16. 조합설립 인가
- 1962. 8. 10. 서울출장소 설치운영
- 1964. 2. 7. 염색조합과 연사조합 분리, 면직부와 견직부 구분운영
- 1964. 2. 14. 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 개칭등기
- 1965. 1. 23. 타올조합 분리
- 1966. 3. 26. 織手養成所(대구공고) 설치 위탁운영
- 1967. 3. 23. 서울사무소 설치운영
- 1969. 1. 17. 견직물조합 분리
- 1978. 9. 25. 무역부 등록설치
- 1981. 12. 31. 대구·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으로 사무구역 및 명칭변경인가
- 1984. 4. 27. 대구·경북 모직물 제직업자 협의회 발족

3. 組織 및 機構

설립 당시인 1962년에 조합원업체는 352개였으나 1992년 말 현재 306개 업체이며 지역별 분포상황을 보면 대구직할시에 239개업체, 경북지역에 67개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 당시에는 綿織物, 絹織物, 타올, 染色, 撚絲業體 등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1964년도에는 染色과 撚絲組合, 1965년도에는 타올組合, 1969年度에는 絹織物組合이 분리됨으로써 현재 조합원은 綿織物 및 일부 絹織物業體로 구성되어 있다.

73) 섬유기술진흥원, 《대구섬유산업사》, 1990, pp. 695~696.

74) 위의 책, p. 696.

조합의 기구는 총회를 비롯하여 이사, 상무이사, 감사 및 4부로 구성되어 있고, 1992년 말 현재 임원 24명, 직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 事業內容

1) 共同購買事業

설립 당시에는 조합원의 구매신청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여 미국, 서독, 이탈리아, 일본 등지에서 인견사, 아세테이트, 나일론사 등을 구입하여 공급하였으며, 특히 綿絲구입에 있어서는 군납위주로 물량이 공급되어 일부 업체에서는 내수물량의 품귀로 조업중단상태에 이르게 되어 조합에서 2,456梱의 綿絲를 구입공급함으로써 가동과 시중가격조절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1980년 1월부터 綿絲直配制度의 폐지에 따라 직배당시 연간 25,000~30,000餘梱 공급하던 물량이 계속 급격히 감소, 1987년에는 4,300餘梱 밖에 공급치 못하여 조합운영이 일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공동구매사업의 확대를 위한 조치로 1979년에는 싸이징 원료인 PVA 수입과 1982년에는 澱粉 구매사업을 실시하여 綿絲판매 부진에 따른 수수료 수입결함을 보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原資財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조절에 크게 기여하였다. 원사 공급은 1989년 2,959梱, 1990년 3,290梱, 1991년 2,380梱, 1992년에는 7,850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PVA는 각각 257.7톤, 261톤, 258.6톤, 268톤을, 그리고 澱粉은 각각 18,700포, 14,691포, 5,803포, 2,180포를 공급하였다.⁷⁵⁾

2) 貿易事業

섬유수출은 196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수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오고 197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왔다. 1963년 수출을 시작한 이래 꾸준한 성장을 보이던 수출실적은 1979년 상반기부터 수출수요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그 불황이 1985년까지 장기화됨으로써 대부분 업체는 채산성이 악화되어 경영의 부실을 가중시켰으며 많은 업체가 부도로 인해 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내적으로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과잉시설, 생산저하의 원인이 되는 노후시설의 과다, 신소재의 미흡 등과 외적으로 선진수입제국의 수입규제강화, 중국의 값싼 저가품의 대량공급, 후발개도국들의 섬유의 자급자족 및 수출시장의 대거 참여로 국제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등 국내외적으로 대두된 여러 장애요인 때문이다.

75) 대구·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 <정기총회서류>, 1993.

3) 指導事業

조합의 지도사업으로는 설립 이후 조합원 업체에 대한 가동상황과 경영실태 및 경기에측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제, 금융 및 시설개체 등의 지원을 위한 각종 설명회, 강습회, 세미나 및 해외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시설근대화 촉진,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수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73년 구미에 慶北輸出協業團地를 조성하고, 1978년에는 全國協同組合 중 두번째로 조합자체에 무역부를 설치하여 업계의 수출촉진과 내수업체의 수출산업체로의 전환을 유도하게하였다. 1984년에는 毛織物製織業體를 전문화, 계열화하고 자조적인 협업을 통한 품질향상과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大邱·慶北織物製織業者 協議會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또한 매년 2~3회에 걸쳐 국내외 교수 및 기술자를 초빙하여 섬유기술강습회 및 현장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986년 섬유산업이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조합원 업체의 시설개체에 필요한 자금으로 産業構造調整資金 지원알선을 적극 추진하여 1992년에는 11개 업체에 37억 8천 200만원의 합리화 자금을 배정받게 했으며, 긴급운영자금으로 165개 업체에 71억 4,0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62개 업체에 46억 5천 100만원을 추천케 하였다.⁷⁶⁾

4) 建 議

업계의 당면 문제점 도출과 타개책을 강구하여 조합원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업계의 애로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원화절상에 따른 섬유업계의 문제점에 대한 건의, 직물제조업의 합리화 지정 및 합리화 계획 기간 연장건의, 노후시설폐기 개체자금 지원에 따른 건의, 중동사태에 따른 특별자금 지원건의, 기능인력난 해소책 건의, 섬유기술대학 학력인정 건의, 중소기업외국인 인력 수입제도 개선건의, 산업구조조정자금 금리변동에 따른 시정건의 등을 들 수 있다.

76) 앞과 같음.

IV. 大邱·慶北메리야스工業協同組合

1. 設立趣旨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중소기업 운영상의 각종 곤란과 애로를 극복하고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慶北메리야스工業組合은 메리야스공업의 개량 및 발달을 위한 협동사업을 행함으로써 공동이익의 증진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공동출자에 의해 조직되었다. 생산, 가공, 판매 및 구매 등 공동사업과 기술 및 경영의 지도교육, 정보제공, 생산품의 규격통일과 검사실시, 사업자금의 앞선 또는 조합원을 위한 복리시설의 운영, 단체협약 등 제반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⁷⁷⁾

2. 沿革

- 1930. 경북메리야스공업조합 창설
- 1940. 경북막대소공업조합으로 개편
- 1945. 同조합 해산
- 1946. 경북메리야스공업조합 재건
- 1950. 경북메리야스공업협회로 개편
- 1962. 3. 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협회 해산, 경북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 설립
- 1962. 4. 18. 경상북도지사 설립 인가(제2021호)
- 1962. 6. 29. 설립등기
- 1967. 11. 15. 메리야스회관 건립
- 1982. 3. 18. 대구·경북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으로 명칭변경 상공부장관 인가(제114호)
- 1982. 6. 30. 대구·경북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설립 인가(제12-1-22호)

3. 組織 및 機構

慶北메리야스工業協同組合이 설립되던 1962년에는 총조합원수가 93개 업체이던 것이 1992년 말 현재 334개 업체로 증가했다. 업종별 분포상황을 보면 內衣 110개 업체, 洋襪 117개

77) 섬유기술진흥원, 《대구섬유산업사》, 1990. p. 707.

업체, 經編 53개 업체, 掌甲 52개 업체 스웨터 2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⁷⁸⁾

조합의 기구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를 비롯하여 이사장, 상무이사, 감사 2명, 직원 6명으로 2部3課로 구성되어 있다.

4. 事業內容

1) 共同購販事業

메리야스업체의 원사 구입경로는 도매상을 통한 구매가 70%이고, 원료사 생산공장에서 직접구입이 10%, 소매상과 조합의 공동구매가 각각 10%로 원료의 대부분을 도매상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원사 구입결제는 현금 90%, 외상 10%이며, 생산제품 결제방법은 현금이 20%, 외상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자금난을 가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원가절감, 물량확보, 자금난 해소, 시중가격조절 등을 위하여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설립년도인 1962년에는 原絲, 나일론絲 등을 5만 7,289천원을, 1979년에는 掌匣機 등을 수입하여 업체에 공급하였으며, 1987년에는 39억 6,13만 1,000원을 그리고 1992년에는 原絲, 混紡絲, 化纖絲, 人絹絲 등 총 25억 7,498만 2천원의 실적을 올렸다.

또한 메리야스제품의 판매난을 해소하고 안정가동을 통한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기 위하여 1976년부터 공동판매를 시행하고 있다. 초년도에는 면장갑 8,719족 700만원을 성취하였으며, 1981년에는 운동복, 내의류, 장갑, 양말 등 2억 5,300천원을 그리고 1992년에는 장갑, 양말, 내의, 운동복 등 12억 7,285만 8천원의 실적을 올렸다.⁷⁹⁾

2) 企劃調查事業

기획 및 정책반영에 필요한 資料조사는 물론 업체의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계당국에 건의, 해결토록 하고 있다. 건의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확보와 대기업의 浸透沮止로 중소기업의 안정가동을 기하기 위해 양말, 유아용 내의류, 잠옷, 트레이닝복을 中小企業固有業種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 工業發展基金 중 合理化 施設改替資金支援擴大 건의,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건의 등이 있다.

또한 기업운영에 필요한 中小企業運營資金으로 工業發展基金支援, 中小企業育成資金 融資 등을 통해 노후시설의 자동화 개체에 힘쓰으로써 시설근대화 및 산업구조개선사업을 수행토록

78) 대구·경북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 <정기총회서류>, 1993.

79) 앞과 같음.

하였다.

조사사업으로는 조합원 업체의 생산, 판매, 재고, 수출실적, 종업원수, 가동상황 등 업체의 문제점, 애로사항을 매월 조사하고 있으며, 정부의 中小企業育成施策과 景氣對策樹立 등에 필요한 기초資料로 활용코자 매분기 20업체를 선정,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에 제출하고 있다. 1988년 1월 6일부터 일주일간 대구지역 메리야스제품 판매 확대방안을 강구기 위하여 서문시장을 비롯 백화점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992년에는 내의, 양말업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산업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다.⁸⁰⁾

3) 指導事業

업체의 지도사업 및 연수교육은 관계기관의 협조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纖維技術振興院에서 매년 5~6개 업체를 선정하여 전문기술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컴퓨터연수교육, 品質管理綜合教育, 中小企業經營人과 기술자를 위한 기술강좌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및 大邱商工會議所, 韓國貿易協會 등의 협조로 세무, 금융, 경영, 무역 등 강습회 개최 및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주요사업으로 1969년 第3工業團地內에 스웨터 수출 공업단지를 조성, 스웨터 기능공 양성소 운영, 공동판매 사업장 개설 운영, 새마을금고 설립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V. 大邱·慶北染色工業協同組合

1. 設立背景

해방 직전의 대구염색업체는 慶北織物組合染色部와 1941년 일본인이 세운 郡是紡績 大邱工場의 염색부 정도가 대구염색공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해방 이후의 대구염색업체는 10여개의 개인기업과 2개의 법인기업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영세하였고 기술수준도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이들은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에 임의친목단체인 慶北染色協同組合을 조직하여 동업자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1961년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社會團體解散令이 공포되어 동업조합은 그 기능을 정지당했다. 同年 12월 27일 中小企業協同組合法이 새로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동업조합은 해산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慶北織物組合과 慶北中小纖維組合이 모체가 되어 1962년 5월 18일에 설립된 慶北染織協同組合에

80) 앞과 같음.

흡수당했으며 그 중 일부 회원은 慶北메리야스조합에 가입하였다.

1963년 中小企業協同組合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同年 12월 16일 염색업자들은 慶北染織協同組合에서 분리되어 서울에 韓國染色工業協同組合이라는 전국 단일조합을 결성하였다. 1966년 7월 상공부로부터 전국단일조합이던 韓國染色工業協同組合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지역별 단위조합을 구성토록 인허가 됨에 따라 慶北染色工業協同組合을 창립하게 되었다.⁸¹⁾

2. 沿 革

- 1966. 7. 12. 창립총회 개최
- 1966. 9. 20.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
- 1976. 9. 염색전용공업단지 조성 건의
- 1977. 5. 염색공단조성계획 확정
- 1980. 5. 비산염색공업단지 입주지정
- 1980. 11. 대구염색공업공단 설립인가
- 1980. 12. 공동폐수처리장 시설 준공
- 1981. 7. 1. 비산염색공업단지 조성 완공
- 1981. 12. 18.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대구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으로 명칭변경 인가
- 1982. 12. 8. 외국염료 MAKER와 기술협약체결(서독:BAYER, BASF, 영국:I.C.I, 일본:주우화학공업(주))
- 1983. 3. 비산염색공업단지 전용공업용수시설 준공
- 1983. 5. 14. 대구직할시에 수출입업허가 등록
- 1985. 1. 11. 열병합발전소건설 공사 기공
- 1987. 12. 11. 열병합발전소 준공
- 1989. 12. 28. 염색공단 확장지역(제2차단지) 조성 및 폐수처리장 준공
- 1990. 10. 30. 대구직할시 서구 평리5동 402-2번지로 사무실 이전

3. 組織 및 機構

1966년 조합설립 당시에는 조합원이 54명이었으나 1980년에는 조합원이 145명, 1992년 말

81) 섬유기술진흥원, 《대구섬유산업사》, 1990, pp. 729~730.

현재 조합원은 181명으로 늘어났다.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상황을 보면, 대구지역이 176명, 경북지역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종별로 보면, 폴리에스터 60명, 나일론 28명, 면직물 36명, 날염 27명, 사염 19명, 가공 10명, 특별회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자금 역시 증가하여 설립당시인 1966년에는 248만원이었던 것이 1992년말 현재 9,930만원으로 늘어났다.⁸²⁾ 조합의 기구는 총회를 비롯하여 감사, 이사회, 상무이사 및 3부6課로 구성되어 있다. 1991년 현재 임원이 22명, 직원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 事業內容

1) 共同購買事業

공동구매사업은 염색가공에 필요한 주요 原·副資材의 유통구조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염료유통질서를 바로잡아 原·副資材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으로 양질의 섬유제품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1970년 5,774만원, 1980년 17억 2,560만 1천원, 1990년 161억 9,943만 9천원, 1992년에는 국내 3,074억 3,941만 5천원, 국외 1,667억 5,058만 7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⁸³⁾

2) 調査 및 指導事業

조사 및 지도사업으로는 매월 실시되는 생산 실적조사와 분기별로 실시되는 中小企業經營實態調査 이외에 각종 염색가공기술 관련 세미나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1983년부터 실시하여 온 해외기술연수와 산업시찰은 국내 염색가공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1982년 외국염료메이커와 기술이전 협력을 맺어 매년 평균 4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외국의 신기술 습득으로 기술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1985년 韓·伊 민간염색공동위원회 발족 이후 이탈리아 섬유기술단이 내한하여 3회의 섬유기술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으며, 국내 기술자가 이탈리아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고 오기도 했다. 1991년 일본, 대만, 홍콩 등에 4차례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992년에는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해외연수생을 초청한 바 있다.⁸⁴⁾

82) 앞과 같음.

83) 위와 같음.

84) 위와 같음.

3) 貿易事業

조합은 영세한 조합원업체의 수출입을 진흥하기 위하여 1983년 9월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수출입 허가를 받아 수출입 대행에 주력하여 1990년 413건 1,190만 9,569.5달러, 1992년에는 449건 1,434만 7,860달러의 실적을 올렸다.⁸⁵⁾

4) 染色團地 造成事業

조합은 지역주종산업인 섬유공업기지화를 위하여 가장 낙후 취약분야인 염색가공업의 시설현대화와 계열화, 전문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염색공업의 고도화, 다양화 및 분업화로 타지역으로의 염색가공물량유출저지와 유입촉진으로 지역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염색전용단지 조성을 건의하여 1980년 제1차단지 설립을 허가받고, 1989년 제2차단지 조성 및 폐수처리장을 준공하였다.⁸⁶⁾

VI. 大邱飛山染色工業工團

1. 組織 및 運營

大邱染色工業公團은 工業團地管理法이 적용되는 飛山染色專用工業團地의 관리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地方工業團地 管理公團이다. 공업공단의 관리는 법규정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로서 필요시에 관리공단을 설립 그 업무를 위임하도록 규정된 바에 근거하여 경상북도지사의 허가(第80號)로 설립되었다.

工業團地管理公團의 조직 및 운영은 工業團地管理法에 의하여 조직운영하며 同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바 大邱染色工業公團은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기구와 실무를 집행하는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⁸⁷⁾

집행부의 조직은 이사장단과 상근임원 외에 총무, 발전, 폐수처리의 3개部 1室8課로 편성하고 따로 예비군연대를 두고 있다.

85) 앞과 같음.

86) 섬유기술진흥원, 《대구섬유산업사》, 1990. p. 738.

87) 위의 책, p. 748.

2. 業 務

大邱染色工業公團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飛山染色團地에 대한 법정관리업무와 입주업체 지원업무이다. 관리업무로는 단지내 용지의 매각 또는 임대와 입주기업체 시설의 설치 매각 또는 임대와 관한 승인 및 입주계약 체결 등의 입주관리와 도로, 하수도, 가로등 시설녹지 등의 공공시설 설치 및 그 유지관리, 그리고 공업용수, 전력, 蒸氣 등 에너지의 제공과 이들에 부대된 업무 등이 있다. 이 중 도로, 하수는 대구직할시로부터 일부운영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병합발전의 집단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양질·저가의 전력과 蒸氣를 생산공급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하는 한편, 입주업체의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입주업체의 지원업무로는 공동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 오물수거,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외에 기술향상 및 운영합리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원유치 그리고 공장새마을 운동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추진하고 있다.⁸⁸⁾

3. 大邱染色工業團地の 現況

염색가공업은 섬유제품의 최종단계 가공업종으로 에너지 다소비 공해배출 및 양질의 용수와 다양한 디자인 등의 불리하고 까다로운 특성과 거의 대부분이 하청가공이라는 기업지위의 취약성에 따른 다수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제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염색가공공장을 집단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시설현대화와 계열전문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지를 조성하여 무절제하게 배치된 업체에게 공장입지를 확보하여 주고 공해방지 등 공동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染色工業團地가 조성되었다.

工業團地の 합리적인 운영을 수행할 조직구성의 필요에 따라 1979년 染色組合總會에서 飛山染色工業團地 運營委員會 構成決議에 의하여 同會任員會가 구성되었으며, 1980년 2월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工業團地管理法 적용에 동의함에 따라 同年 3월 8일 비산染色工業團地管理公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심의 채택 및 임원선출로서 조직이 완비되었으며, 1980년 11월 28일 경상북도 허가 제80호로 관리공단이 정식출범됨으로써 단지조성 및 공동시설 설치와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 관장하게 되었다.⁸⁹⁾ 大邱染色團地에 대한 概要는

88) 앞의 책, pp. 748~749.

89) 위의 책, p. 750.

〈表 14-15〉과 같으며, 보다 상세한 논의는 이미 3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表 14-15〉 大邱飛山 染色工業工團의 概要(1990)

조성목적		염색가공근대화, 공해방지효율화, 국제경쟁력강화(수출증대)
사업주체		대구직할시, 대구염색공업공단
위 치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동, 평리동, 이현동 일대
지 형		금호강 후배습지
조성기간		1979~1980(확장지구 : 1987~1988년)
입 지 여 건	항 만	부산항 이용
	교 통	철도 : 대구역 기점5km, 고속도로 : 경부, 구마, 88고속도로 대구 서부인터체인지 3km
	용 수	공업용수 : 90,000 m ³ /일, 생활용수 : 3,000m ³ /일
	배 수	폐수처리장 : 85,000m ³ /일 처리의 하수도시설 (기존단지 70,000m ³ /일, 확장지구 15,000m ³ /일)
	공원, 녹지	11,111km ² (시설녹지)
	전 력	38,000kw/H
	통 신	전화 600회선
진입도로		0.3km(4차선)
입주업종		염색가공
입주자격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참조
입주절차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참조
분양가격		기존단지 : 22,000원/m ² , 확장지구 : 50,185원/m ²
납부방법		기존단지 : 3회분할납부(계약시 1/3, 1개월마다 2회분할납부)
		확장지구 : 2회분할납부(계약시 1/10, 1개월이내 납부)

資料 : 섬유기술진흥원, 《대구섬유산업사》.

VII. 韓國纖維織物輸出組合 大邱出張所

1. 設立目的

대구·경북지역의 섬유 직물류의 輸出推薦, 쿼터관리, 자율규제관리, 見品通關推薦 및 기타 수출지원업무를 위해 설립되었다. 정관상에 나타난 同조합의 목적은 수출진흥을 위한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섬유직물수출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있다.⁹⁰⁾ 그리고 동 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섬유직물이란 천연섬유, 인조섬유 및 혼방섬유의 원료류, 사류, 직물류 및 이들의 가공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2. 沿革

- 1975. 7. 2. 한국직물원사수출조합 대구출장소 개소(대구상의 5층)
- 1976. 9. 2. 수출조합 대구합동사무소로 확대 개편(직물원사, 의류, 스웨터, 메리야스, 면제품의 5개 수출조합 수출추천 업무 수입)
- 1980. 11. 1. 홀치기제품 수출조합의 흡수통합으로 홀치기제품 수출가격 심사제 실시
- 1981. 3. 6 벨벳직물 수출자율규제 업무수입
- 1981. 7. 1 섬유직물조합의 통합으로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대구출장소로 개칭
- 1981. 7. 23 자수직물 수출자율규제 업무 수입
- 1981. 11. 17 섬유직물류 연간 수출추천실적 1억불 돌파
- 1982. 9. 11 관세청으로부터 전품 통관추천 및 업무수입
- 1985. 6. 1 전산 온라인망 설치
- 1985. 7. 1 한국합성수지제품수출조합(현 생활용품수출조합) 수출추천업무 수입
- 1985. 8. 1 쿼터 품목 수출추천 업무 수입
- 1987. 1. 1 폴리에스테르직물 수출자율규제(계열화) 업무 수입
- 1987. 12. 31 섬유직물류 연간 수출추천실적 2억불 돌파

3. 組織 및 任職員 現況

서울본부의 경우 상근부이사장, 상무이사 2명의 임원과 관리부, 기획조사부, 업무1부,

90) 앞의 책, p. 763.

업무2부, 업무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지사의 경우 지사장, 과장, 대리, 서기 등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⁹¹⁾

4. 主要事業과 實績

한국섬유수출직물조합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실적은 다음과 같다. 대구에는 출장소의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실적을 나타내기 어려운 관계로 동 조합의 전체 실적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 主要事業

- 輸出品의 共同 또는 委託에 의한 輸出入 代行 및 購入에 관한 사업
-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을 위한 융자알선 및 對정부건의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불공정한 수출거래의 방지 및 분쟁의 중재와 수출거래 또는 국내거래에 필요한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 섬유직물의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
- 수출증진을 위한 국내외 선전, 거래알선, 해외시장조사 및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정부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업무
- 생산성 제고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타 수출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대외무역법, 수출조합법에 의해 인정되는 사업
- 韓國纖維製品輸出組合의 위임업무
- 韓國生活用品輸出組合의 위임업무

91)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섬유직물》, 1993.

2) 事業實績

〈表 14-16〉 年度別·品目別 輸出實績 (단위: 1,000 \$)

연 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총 계		3,966,716	4,807,410	5,388,156	5,961,456	7,053,770	7,831,415
사 류	섬유원료	112,872	195,843	281,077	340,360	391,953	446,526
	모사	124,035	195,562	153,625	101,567	139,124	155,121
	면사	199,556	213,655	197,754	166,399	184,491	143,382
	인조장섬유사	102,396	169,461	259,833	288,903	324,083	460,376
	인조단섬유사	211,445	223,574	235,602	272,658	280,457	229,381
	기타사	40,351	22,328	21,059	18,140	39,806	42,211
	소 계	790,655	1,020,423	1,148,950	1,188,027	1,359,914	1,476,997
직 물 류	견직물	180,534	261,898	277,288	263,541	324,045	301,439
	모직물	62,996	71,170	73,096	65,178	86,339	108,447
	면직물	256,347	275,134	288,602	310,603	354,469	355,039
	인조장섬유직물	1,508,235	1,755,822	1,969,859	2,342,561	2,874,281	3,368,837
	인조단섬유직물	420,894	447,614	499,117	648,926	710,595	684,017
	기타직물	376,305	457,442	540,879	665,836	824,079	960,619
	소 계	2,805,311	3,269,080	3,648,841	4,296,645	5,173,808	5,778,398
제 품 류	캠핑용품	122,518	135,779	126,090	122,612	138,467	131,572
	기 타	248,232	382,125	464,275	354,171	381,581	444,448
	소 계	370,750	517,904	590,365	476,783	520,048	576,020

資料: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섬유직물》, 1993.

〈表 14-17〉 品目別 輸出入 比率 (단위: 천달러/%)

품 목		수출실적(US천)	점유비(%)	수입실적(US천)	점유비(%)
사 류	섬유원료	277,653	6.2	977,659	43.6
	견 사	22,581	0.5	49,137	2.2
	모 사	54,154	1.2	12,800	0.6
	면 사	60,743	1.4	98,068	4.4
	인조장섬유사	238,635	5.3	235,083	10.4
	인조단섬유사	103,299	2.3	83,370	3.7
	기 타 사	21,019	0.4	19,683	0.9
소 계		778,084	17.3	1,475,801	65.8

품	목	수출실적(US천)	점유비(%)	수입실적(US천)	점유비(%)
직 물 류	견 직 물	151,819	3.4	92,858	4.1
	모 직 물	73,007	1.6	63,970	2.9
	면직물	175,282	3.9	118,232	5.3
	인조장섬유직물	1,948,634	43.4	83,941	3.7
	인조단섬유직물	353,236	7.9	198,498	8.8
	기타직물	652,631	14.5	93,822	4.2
	소 계	3,354,609	74.7	651,321	29.0
제 품 류	섬유제품	358,603	8.0	116,220	5.2
합 계		4,491,297	100.0	2,243,342	100.0

資料：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섬유직물》, 1993.

〈表 14-18〉 地域別 輸出入 比率 (단위：천달러/%)

지역	수출실적(US천)	점유비(%)	수입실적(US천)	점유비(%)
아시아	2,696,195	60.0	1,368,200	61.0
중동	478,134	10.6	29,529	1.3
유럽	336,804	7.5	272,634	12.2
(E.C)	(216,065)	(4.8)	(200,789)	(9.0)
북미	394,715	8.8	413,093	18.4
중남미	366,221	8.2	40,783	1.8
아프리카	73,718	1.6	6,874	0.3
대양주	67,323	1.5	99,398	4.4
기타	78,187	1.8	12,831	0.6
합계	4,491,297	100.0	2,243,342	100.0

資料：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섬유직물》, 1993.

Ⅷ. 大邱·慶北撚絲織物生産協力協會

1. 設立背景

1980년대 초 수출불황으로 섬유업체들의 대외경쟁력 약화, 제품재고 증가, 도산기업 속출 등 혼란에 빠진 지역섬유산업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지역섬유업체 원로들이 다방면으로 열의와 연구를 거듭한 결과, 우선 국제시장 수요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충분한 대외경쟁력을

가진 조오제트직기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실추된 상품가치와 채면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뜻을 모으게 되어 협회의 결성이 이루어졌다. 1985년 10월 2일 상공부로부터 비영리법인 「大邱·慶北撚絲織物生産協力協會」로 승인받고 1985년 11월 1일부터 纖維技術振興院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⁹²⁾

2. 目的 및 事業內容

同 협회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연사직물(조오제트)을 비수기에 원가 이하로 수출할 경우 제품담보에 의한 단기자금 융통으로 덤핑수출을 방지하고 연사직물특성의 부가가치를 유지 발전시켜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증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⁹³⁾

이러한 목적하에서 동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① 非需期 및 輸出不況時 原緞備蓄에 의한 物品代金을 金融機關으로부터 借入하는 行爲와 貸與業務의 限度管理 및 回收
- ② 撚絲織物技術開發 및 共同研究
- ③ 海外市場調査 및 情報提供
- ③ 輸出價格 適正線 維持를 위한 제값받기運動 擴散
- ⑤ 製品의 規格統一
- ⑥ 기타 附帶事業

3. 製品保管倉庫 建立

1985년 11월 1일부터 대구직할시 서구 중리동 소재 纖維技術振興院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여 500여평의 운동장에 조오제트직물 보관업무를 시작하였다. 1986년 2월에는 적재 최대능력인 900만야드가 보관되어 보관장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긴급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보관창고 건립에 뜻을 모아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며 273백만원의 건립자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韓國化纖協會 會員社로부터 10억원의 자금지원을 약속받았으며協會는 이 뜻에 부응하여 原絲製品業體를 특별회원으로 推戴하였다. 이리하여 성서공업단지 61블럭 4,255평에 총건립자금 1,273백만으로 同年 8월 1일 撚絲織物保管倉庫建立의 기공식을 가지게 되었다. 1987년 1월 7일 섬유인들의

92) 섬유기술진흥원, 《대구섬유산업사》, 1993, p. 769.

93) 위의 책, p. 771.

숙원사업이던 제품보관창고가 약 600평 규모의 창고 4棟과 78평의 사무실 1棟으로 준공되어 同年 3월 18일 약 300명의 섬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⁹⁴⁾

IX. 韓國纖維技術研究所 大邱事務所

1. 設立趣旨

한국전쟁관으로 인해 방직시설이 대부분 파괴됨에 따라 1956년 이래 국내 綿製品의 구매력 감퇴로 불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운영난 타개를 위한 綿製品의 새로운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시급하게 되었으며, 또한 소요 원료의 대부분이 원조 原綿에 의존하였으므로 매년 줄어드는 원조자금이 끊어질 경우에 대비, 원료확보를 위하여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으로 原綿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1955년 1월 大韓紡織協會는 수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출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험검사 시설을 도입하는 한편 大韓紡織協會內에 기술과를 설치하여 각종 기술사업과 시험분석 업무를 시작하였다. 1956년부터 綿製品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수입국의 품질수준, 기술 및 경험부족으로 구매자로부터 품질상의 문제점이 자주 제기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련업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섬유기술의 개발 및 진흥과 아울러 섬유제품과 원료에 대한 시험, 연구, 조사 및 原綿 품선사업 수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직협회 기술과를 확대 개편하여 1961년 9월 28일 국내 최초의 민간 纖維技術振興機關인 紡織協會 부설 紡織試驗檢査所(SWAK LAB)를 발족시켰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수출 증대 및 해외 시장에서 수출상품의 대외 성과유지 향상을 위하여 1962년 7월 25일 무역법에 의한 輸出綿織物 및 綿絲의 검사 기준과 검사품목을 고시하고 紡織試驗檢査所를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同年 8월 25일부터 綿織物 및 綿絲 등에 대한 법정 수출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1962년 10월 상공부가 수출 검사법을 공포함에 따라 섬유제품의 수출검사기관으로 갱신지정되었으며 1964년 명칭을 「韓國纖維試驗檢査所(KOTITI)」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기반을 강화하였다. 한편 수출증대에 따라 1965년부터 수출검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당국 및 업계에서는 수출검사기관의 통합 또는 법인화 문제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1968년 상공부의 수출검사 관리업무가 商易局 품질관리에서 공장 연구소 輸出調查部로 이관됨에 따라 수출검사기관은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민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토록

94) 앞의 책, pp. 772~773.

지시받아 1969년 3월 27일 사단법인 韓國纖維試驗檢査所로 발족하게 되었다.

지역에서는 1973년 10월 1일 KOTITI 대구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그후 업종의 증가에 따라 1976년 9월 대구출장소를 대구지소로 승격시켰으며 1977년 경북새마을섬유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13층 일부를 분양받아 최신의 시험기와 시험실을 설치하여 시험, 분석업무를 현지에서 정확, 신속, 친절하게 실시하여 대구지역 섬유업체의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수검업체에 대한 집중기술지도 실시, 직물류에 대한 정밀검사 및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슬라이드 상영 등을 통하여 수출 증대 및 섬유업계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1980년 정부의 무역절차간소화 조치에 따른 수출검사기관 통·폐합조치로 KOTITI는 업계의 여망을 반영해 법정 수출검사 업무를 자진반납하고 창립당시의 고유사업 목적인 纖維技術振興機關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31일을 기하여 법정 수출검사 업무는 마감하게 되었다. 한편 1981년 3월 12일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명칭을 사단법인 韓國纖維技術振興센터로 변경하고 섬유산업의 발전 및 기술진흥을 위하여 업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그동안의 국내외적인 공신력에 힘입어 해외 유수상사 및 국내종합상사 등이 계속 KOTITI의 의뢰검사를 요청함에 따라 대구지역의 업무가 증가하고 또한 同지역이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본고장이라는 점을 감안 1982년 9월 1일 대구사무소를 재설치하였고 각종 시험시설을 구비하여 업계의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오다 1990년 2월 22일 韓國纖維技術研究所로 개칭하여 본격적인 연구, 기술지원업무를 실시하고 있다.⁹⁵⁾

2. 沿 革

1961. 9. 大韓紡織協會 부설 紡織試驗檢査所 발족
1963. 2. 輸出檢査法(1962.10. 4 법률 제1164호)에 의거 수출검사기관으로 지정
1964. 3. 한국섬유시험검사소(KOTITI)로 명칭변경
1966. 7. IWS Wool Mark 섬유제품 품질시험 한국 표준기관으로 지정
1967. 2. U. S. A. KPA-KOTITI 합동검사(군복지) 협정체결
1969. 4. 사단법인체로 개편독립
1970. 12. 부산지소 설치
1972. 3. AWC(호주양모사무국)의 Wool Pack 품질검사 대행기관지정
1973. 10. 대구지소 설치

95) 앞의 책, pp. 774~776.

- 1975. 5. NZWB(뉴질랜드 양모사무국)의 Wool Pack 품질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
- 1975. 7. Little Woods사(영국)의 품질검사대행기관 지정
- 1975. 12. 본소를 강남구 역삼동으로 신축이전
- 1976. 2. IWTO(국제양모기구)로부터 한국표준시험기관 지정
- 1976. 9. 대전 및 광주에 출장소 설치
- 1978~1979. 섬유분야 공장새마을분임조 경진대회 개최(업종별 최초)
- 1980. 5. Mondial사 품질시험 대행기관 지정
- 1980. 7. USTC(HK)/LABTEST(HK)와 국제협력 시험검사협정체결
- 1980. 12. 수출검사법에 의한 수출검사 업무폐업
- 1981. 3. 사단법인 한국섬유기술진흥센터로 명칭변경(KOTITI는 현행대로)
- 1981. 7. S. G. S 와 국제협력시험기관협정체결
- 1982. 9. 대구사무소 개설
- 1982. 5. 미 Textest와 국제협력 시험계약체결
- 1985. ACTS Testing Lab Inc. 협력시험검사
- 1987. 8.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민간전문시험검사기관지정(공진청 고시 제87~1564호)
- 1987. 9. 소비자보호원과 업무협력합의서 체결
- 1987. 11. 일본화학섬유검사협회와 업무제휴 협정체결
- 1990. 2. 22. 한국섬유기술연구소로 명칭변경

3. 主要業務

1) 研究·技術支援業務

(1) 研究用役事業

- KOTITI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과제(상공자원부), 정책자금 과제(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공업발전기금), 일반자금 금융과제(한국산업은행자금)
- KOTITI를 위탁개발사업기관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
- KOTITI와 업체의 단독 및 공동 연구개발사업

(2) 技術支援事業

- 섬유기술전반에 대한 기술애로봉사사업, · 현장 기술지도(출장 및 상주 기술지도)
- Pilot설비 및 시험 설비 임대

(3) 技術情報 普及事業

- KOTITI 및 KINITI보유 정보의 검색 및 資料제공
- 요청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資料 수집 및 정리
- 섬유기술誌를 통한 신제품, 신기술 정보 제공

2) 纖維製品의 試驗檢査 및 品質認證

- 국내외 섬유제품의 시험분석 · 국내외 섬유제품의 품질인증 및 의뢰검사
- 국제시험분석규격의 도입활용 · 국제품질보증기관과의 교류 및 제휴강화

3) 纖維技術의 教育訓練

- 고급기술자의 재교육 · 중간기술자의 재훈련

4) 纖維技術情報의 普及 및 文獻刊行

- 최신 섬유기술 정보와 수집 · 전문기술도서의 발간보급
- 정기간행물의 발간

X. 韓國原絲織物試驗檢査所 大邱支所

1. 性格 및 大邱支所 設置背景

1965년에 설립된 검사소는 정부지정 섬유제품 품질검사기관으로서, 수출섬유제품과 내수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신속, 정확한 시험검사는 물론 기술지도와 섬유기술資料의 보급 등으로 섬유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구지소는 대구지역 업계에 대한 근접지원의 필요성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1970년 4년 27일 상공부 연관 제1313~79호에 의하여 지소설치승인을 받고 同年 5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⁹⁶⁾

96) 앞의 책, p. 778.

2. 沿 革

- 1964. 12. 30. 수출검사기관 지정
- 1969. 4. 1. 한국직물시험검사소 설립
- 1974. 9. 4. Wool Mark제품 품질검사기관 지정
- 1979. 3. 20. 한국직물의류시험검사소로 개칭
- 1979. 8. 25. Silk Label제품 품질검사기관 지정
- 1981. 1. 1. 한국원사직물시험검사소로 개칭
- 1983. 8. 1. Labtest International Ltd와 상호인증시험검사 실시
- 1985. 7. 25. Q Mark품질보증업무 실시
- 1985. 12. 16. 수입검사기관 지정
- 1986. 9. 22. 내수품 사전검사기관 지정
- 1986. 9. 23. 공업진흥청 품질관리능력평가기관 지정
- 1986. 10. 23. 해운항만청 선박용품 형식승인기관 지정
- 1987. 7. 1. 경제기획원 소비자보호원 전문시험기관 지정
- 1987. 8. 25.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기술지도기관 지정
- 1987. 10. 21. 공업진흥청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
- 1988. 6. 29. 일본공업규격 특정외국검사기관 지정
- 1989. 8. 1.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 소비자보호국 시험기관 지정
- 1990. 5. 1. 소비과학 연구센터 설치
- 1991. 4. 25. 수산청 어선용품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 1991. 11. 4. 공업진흥청 위해정보센터 지정
- 1992. 1. 25. 공업진흥청 공산품 품질검사기관 지정
- 1992. 3. 16. 공업진흥청 민간기술지도기관 지정

3. 事業內容⁹⁷⁾

1) 試驗業務

· 일반분석시험

· 국내유통소비자 보호시험

97) 한국원사직물시험검사소, 《섬유정보》, 1992.

- 바이어 요청에 의한 국가간 상호 인증시험
- 정부 및 공공단체 납품시험
- 토목섬유 및 산업자재시험
- 유해물질 분석시험
- 불만제품불량 원인 분석시험
- 울-마크시험
- 선박용품 및 어선용품 형식승인시험

2) 檢査業務

- 수출검사법에 의한 수출검사-방모사/모직물/면직물/합성섬유방직사직물/합섬직물/인견 직물/교직물/코듀로이직물/자수직물/타올류/러그 및 모포류
-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양탄자/등산용 로우프
-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후검사-유해물질함유제품 품질검사: 섬유제품/생활용품/화학제품
- 수요자 요구에 의한 의뢰검사-수출제품/수입제품/내수제품

3) 技術指導 및 教育業務

- 공장품질관리등급 심사 및 지도
- KS 공장심사 및 지도
- JIS 공장심사 및 지도
- 일반품질관리지도 및 교육

4) 資料調查 및 普及

- 섬유관련 기술 정보資料 조사
- 기술 정보資料의 정기 및 비정기 발간 보급

5) Q마크 品質保證制 實施

Q마크란 내수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검사소의 엄격한 검사를 거친 제품에만 부착하는 표시를 뜻한다. 한편 검사소와의 국제협력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양모사무국(IWS), 국제견업협회(ISA), 국제산업직물협회(IFAI), 국제부직포 및 단용재협회 등 18개단체이다.

XI. 韓國衣類試驗檢查所 大邱支所

1. 設立趣旨

섬유 및 그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시험연구, 기술지도 및 기술인력 양성을 통하여 섬유기술을 진흥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섬유, 봉제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⁹⁸⁾

2. 沿 革

- 1964. 7. 大韓메리야스工業協同組合聯合會 조사부로 발족
- 1964. 12. 輸出檢查機關 지정
- 1969. 3. 대한메리야스시험검사소 설립
- 1973. 10. WOOL MARK제품 품질시험검사기관 지정(IWS)
- 1974. 5. 메리야스제품시험검사업무 위탁계약체결(日本메리야스檢查協會)
- 1979. 10. 工產品 品質管理法에 의한 檢查機關 지정
- 1980. 1. AATCC회원가입(미국)
- 1981. 1. 韓國衣類試驗檢查所로 명칭변경
- 1981. 5. 日本縫製科學研究所와 技術協約締結
- 1981. 7. 日本縫製品檢查協會와 技術協約締結
- 1986. 1. 輸入商品檢查機關 지정
- 1986. 9. KS品質管理能力評價機關 지정(工業振興廳)
- 1987. 5. 認定職業訓練院 認可(勞動部)
- 1987. 6. Shirley Institute會員加入(영국)
- 1987. 7. 專門的試驗檢查機關 지정(소비자보호원)
- 1987. 8. 技術指導委託機關 지정(中小企業振興公團)
- 1987. 10. 品質管理等級工場審査機關 지정(工業振興廳)
- 1988. 6. 日本工業規格(JIS)工場審査를 위한 特定外國檢查機關 지정

98) 앞의 책, p. 782.

3. 主要業務

1) 試驗業務

섬유 및 전서류제품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를 보유하고 KS 및 외국규격과 AATCC 등 외국기관과의 상호인증에 따른 시험업무를 수행.⁹⁹⁾

(1) 對象品目－신사복/숙녀복/코오트/셔츠/Y－셔츠/브라우스/한복/잠옷/수영복/장갑/실고무띠/자켓/스웨터/오리털의류/바지/드레스/운동복/유아동복/내의류/양말/재봉사/기타섬유제품

(2) 試驗方法－KS, JIS, ISO, BS, DIN, CNS, ANSI, ASTM, AATCC, FS, IWS, CS, CPAI, AWC

(3) 試驗內容

- 품질 및 취급주의표시용－혼용률, 세탁방법, 다림질법
- 제반규격확인(E/L용)－번수, 밀도, 중량 등 전항목
- 염색상태평가－세탁, 일광, 마찰, 땀堅牢度
- 치수안정성평가－수축률, 形變態, 耐드라이性
- 품질특성평가－인장강도, 마모강도, 마찰帶電壓
- 오리털시험－깃털조성, 酸素價, 充填度, 濁度, 냄새
- 유해물질·加工濟物性試驗－포르말린, 중금속함량
- 세균저항성시험－위생가공, 방균방미가공
- 불량요인분석, 소비자불만해소, 업체애로사항타개시험
- 기타 섬유 및 공산품에 대한 시험

2) 檢査業務

- | | | |
|-------------------|-----------|---------|
| · 품질보증검사 | · 납품검사 | · 의뢰검사 |
| · 공정검사 | · 시제품검사 | · 수출검사 |
| · 품질보증검사 | · 전수검사 | · 공산품검사 |
| · WOOL MARK 봉제품검사 | · 바이어검사대행 | |

99) 한국의류시험검사소, 《의류기술》, 1992.

3) 技術指導 및 教育訓練

- 봉제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능력평가
- 위탁용역 기술지도
- KS 및 등급공장화 기술지도 및 심사
- JIS마크 획득검사대행
- 중소기업 기술진단, 지도
- 섬유제품에 관한 연구 및 기술資料 보급
- 표준기준물(SRM) 생산보급
- 외국과의 상호인증사업
- 업체검사원 양성교육
- 생산성향상 및 제조설비지도
- 봉제기계기사 교육
- 봉제기능사 양성교육(노동부인가)
- 검사원 양성교육
- 현장검사원 실무교육

第4節 其他 經濟關聯團體

앞에서 살펴본 주요 경제단체 및 섬유산업 관련 단체들을 제외하고도 대구지역에는 다수의 경제관련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단체의 자료를 수집하려고 일차적으로 100여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것이 50여 곳이나 되었으며, 자료를 보내 준 단체는 몇 개의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여기에서는 자료수집에 협조해 준 단체를 비롯하여 방문이나 전화연락을 통해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단체들의 연혁과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I. 韓國生産性本部 大邱·慶北支部

한국생산성본부는 공업발전법(제16조)에 의거 1957년에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기업 생산성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생산성배가운동추진 중추기관이다.¹⁰⁰⁾

1. 沿革

1957. 8 재단법인 한국생산성본부 창립

100)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회원 가입안내>.

- 1959. 12 경영연구회 결성 및 생산성회원제도 운영
- 1961. 4 아시아생산성기구(APO) 회원국으로 가입
- 1962. 8 생산성향상 5개년사업(1962~1967) 실시
- 1978. 3 상공부, 재무부로부터 중소기업 경영지도기관 및 내자조달물자 원가계산 담당기관으로 지정.
- 1986. 1 공장간이자동화(LCA)사업 및 경영정보시스템(MIS)사업 착수
- 1986. 7 공업발전법에 의거 특별법인으로 발족, 공장자동화 설비 상설전시장 개장
- 1986. 8 상공부 지정, 사무자동화 추진 사무국 설치
- 1987.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지정
- 1987. 7 제1회 생산성대상 시상, 한국기업상담(주) 설립, 유통업전문경영진단 및 연수기관으로 지정
- 1989. 4 전국 공단순회 생산성배가촉진대회 개최
- 1989. 11 대구경북, 대전충청지부 개설
- 1991. 7 부산경남, 광주호남지부 개설
- 1992. 1 일본 동경지부 개설
- 1992. 3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중소기업제조업 정보화, 자동화부문 국가기술지도기관으로 지정

2. 主要事業

한국생산성본부는 1957년 창립 이래 전산업계에 생산성향상의 확산 보급 및 산업인력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정부기관으로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국내외 기업의 경험을 폭넓게 수렴하여 세계시장을 향한 우리나라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지원하고, 회원기업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¹⁰¹⁾

1)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생산성향상 교육과 기업경영전반에 걸친 각 분야별 인재양성 교육 : 한국생산성본부의 교육훈련은 600명의 분야별 전문강사진이 경영관리 전문교육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공장관리 교육 그리고 산업평화와 노사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노사교육 등을 신입사원에서 최고경영진에 이르기까지 전계층에 걸쳐 300여개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2)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ISO 9000시리즈, 공장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지도·교육 :

101)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기업의 공장자동화 도입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최신 생산이론을 토대로 현장의 경험을 익혀 온 전문인력이 기업의 공장자동화 계획 수립부터 현장의 공정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자동화 설비 도입, 각 현장에 적합한 운용방법 제시에 이르는 자동화 진단 및 지도를 해 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사무자동화를 도입하고자 할때 선행되어야 할 업무표준화작업부터 전산화 타당성 검토, 사무자동화 추진방안 수립, 하드웨어의 선정에서 각 분야별 소프트웨어 시스템설계, 전산시스템의 효율성 진단·지도에 이르는 종합적 지원을 하고 있다.

3)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진단, 지도 : 1960년대부터 선진 경영이론을 도입, 정착시켜온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기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경영상의 비능률적인 요인을 비롯한 제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개별기업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장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0여년 동안 3천여건 이상의 경영진단·지도를 통해 축적된 문제해결 경험과 우수하고 노련한 전문인력을 토대로 전환기에 서 있는 기업이 넘어야 할 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자문역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아시아 각국 생산성본부와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축적한 최신경영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 이의 확산·보급에 힘쓰고 있다.

4) 정부의 산업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생산성 향상기법의 개발, 보급 : 최근 급격한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로 어려워지는 기업환경에 대처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개별기업 및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어 노사협조, 기술개발, 자동화 도입, 설비투자확대, 경영합리화 등에 힘써 제조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을 5년간 2배로 증대시킬 수 있는 생산성 배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産·學·官·研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성 배가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생산성연구소에서는 산업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생산성 관련 통계자료의 발표는 물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저해시키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생산성향상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5) 생산성향상을 위한 출판, 영상교재의 발행 보급 : 최신 경영관리, 산업정보, 생산성향상기법,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일선실무자와 관리자를 위한 전문지침서 및 경제·경영도서 등을 발간·보급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기술의 진보, 국제화의 가속, 노사관계의 변화, 미디어세대의 증장 등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는 인력관리를 위한 교육훈련방식의 새로운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강의 중심의 평면적인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시각과청각을 통한 입

체적인 접근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6) 국제협력사업 : 1961년 아시아생산성기구(APO)의 창설시 창립회원국으로서 정부를 대행하여 가입한 이후 회원국간 상호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생산성향상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아시아생산성기구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PO회원국간의 공업, 농업, 서비스분야 최신생산성 향상 경험 및 정보를 상호교류하기 위해 국제 세미나와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연구시찰단 기술전문가를 파견하는 한편 해외 선진경영기법, 성공사례 등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특히 미국생산성본부를 비롯하여 일본생산성본부 등 각국 생산성본부 및 생산성 유관단체와의 최신 정보교류를 통한 국제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II. 産業技術情報院(KINITI) 大邱·慶北地域센터

산업기술정보원은 국내외의 산업·무역 및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보급하고 산업간 및 지역간의 원활한 정보유통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공부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이다.¹⁰²⁾

1. 沿革

- 1962. 1.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설립(1978. 5. 1. 대구사무소 개소)
- 1982. 1. 11.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합하여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개원(대구지원 개원)
- 1984. 8. 8. 산업연구원으로 명칭변경
- 1988. 5. 20. 산업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보센터 개편
- 1990. 12. 17. 산업기술정보원법 국회입법, 산업기술정보센터를 독립법인으로 개편
- 1991. 1. 14. 산업기술정보원법 공포(법률 제4,320호)
- 1991. 1. 24. 산업기술정보원(KINITI) 개원(대구·경북지역센터 개소)

2. 大邱·慶北地域센터의 主要業務

본원과 연계하여 각 연구기관의 정보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지역내에 보급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¹⁰³⁾

102) 산업기술정보원, 〈산업기술정보원안내〉, 1993, pp. 3~4.

103) 산업기술정보원 대구경북지역센터, 《대구경북센터현황》.

- 지역내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 국내외의 산업, 무역 및 기술, 특허에 관한 정보의 지역내 보급
- 산업기술정보망 및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정보보급체계의 구축
- 정보의 이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 잠재 정보수요 개발 지역정보자료코너를 설치, 열람, 개방

3. 大邱·慶北地域센터의 發展方向¹⁰⁴⁾

- 지방자치제에 대비한 산업기술정보관련 지역정보센터의 역할 수행
- 지역내 정보활동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지방 공업기술원, 연구기관, 대학, 유관기관 등과 지역정보 유통망 구축
- 지역고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정보소재안내, 기업정보, 상품정보, 시책정보 등)
- 지역 중소기업 정보화 및 중소기업의 정보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상담 및 자문활동을 강화
- 지역내 정보수집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의 정보실 역할 수행

III. 기타 商工團體

1. 韓國電氣工事協會 大邱支部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지부는 1982년 2월 본부 정기총회에서 대구지부 설치를 결의하고 1982년 4월 경북지부에서 분리되어 대구지부가 발족하게 되었다. 대구지부는 지부장을 비롯하여 협의위원회(협의위원 7명), 윤리위원회(윤리위원 7명), 제2종 협의회 운영위원회(운영위원 7명),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1년 12월 말 현재 회원수는 제1종이 61, 제2종이 215로 총 276이며, 이는 발족 당시의 89에 비해 3배이상 증가한 것이다.¹⁰⁵⁾

대구지부가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전기공사업 면허발급, 전기공사 시험대비 교육, 접지저항 측정기 공동구매 추진, 전기공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범국민 전기소비절약 가두, 캠페인 참가, 감사원의 전기공사업체 면허기준 보유 실태조사 지시, 전기공사업 경영자 세미나

104) 앞의 책 참조.

105)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지부, <제10회 정기총회 업무보고서>, 1992.

참석, 하도급 거래제도 교육실시, 장학사업 추진, 인입선 공량단가 시범운영에 관한 의견서 제출, 각종 책자 배포 등이 있다.¹⁰⁶⁾

2. 大邱直轄市 버스運送事業組合

경상북도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자동차관련 조합단체 정비지침에 의거 1980년 11월 1일 경상북도 버스여객운송사업조합과 합병(등기 1981년 2월 10일)하여 1980년 12월 16일 경상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1년 7월 1일 대구시의 직할시 승격에 따른 행정관할구역의 변경으로 행정구역별 조합분리를 추진하여 1981년 8월 법인 대구직할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설립되었다. 조합이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토큰제 실시 및 자율버스운행 결의, 시내버스운전자 1일 2교대제 실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버스운전자 “바이리듬” 실시, 시내버스 요금조정, 대학생 시내버스요금할인제 폐지,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시행, 시내버스 직행좌석 승차권 실시, 사업용자동차 일제점검을 대구시로부터 수입, 시내버스 운행방법 2군제로 변경시행, 시내버스 전용차선제 실시, 시내버스 운행방법 2군 4조제에서 1군 3조제로 제도개선 실시 등을 들 수 있다.¹⁰⁷⁾

3. 韓國關稅士會 大邱支部

관세사는 수출입 화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稅番·稅率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수출입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수행,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 대구지부는 관세법에 의한 법정법인인 한국관세사회의 대구·경북일원의 관세사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로 1977년 2월에 창립되었다. 현재 지부는 회원 18명, 관세사무원 28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1년 관세사통관실적은 수출이 21만 402건, 수입이 8만 8,691건으로 총 29만 9,093건이며, 이는 총통관실적의 94%에 해당된다.¹⁰⁸⁾

106) 앞과 같음.

107) 대구직할시버스운송사업조합 자료.

108) 한국관세사회대구지부 자료.

4. 韓國特種物業聯合會 大邱市支部

韓國特種物業聯合會는 회원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옹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장물의 발견과 신고로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방법태세를 자율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사회질서 확립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1965년 5월 연합회가 발족(등기 제886호)하고 1965년 6월 경북지부가 발족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1981년 7월 대구직할시 승격으로 경북지부에서 대구지부가 분리되었다. 지부에는 지부장, 부지부장 2인, 감사2인과 중부, 동부, 서부, 달서, 수성, 남부, 북부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⁹⁾

5. 大韓建築士協會 大邱直轄市建築士會

대한건축사협회 대구직할시건축사회는 1965년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회원 32명의 참석하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중구 동문동에 경상북도 사무실을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으로 대구직할시건축사회로 분리되었으며, 발족 당시 회원수는 164명이었으나 1992년 5월 현재 26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원 및 일반시민의 건축행정에 관한 궁금증 해소 및 사회적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공사감리 점검반을 구성하여 완벽한 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서검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건축작품전을 실시하여 지역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보화상 시상식, 구역별 간담회, 학술세미나 개최, 회원친목활동을 위한 취미부서 활동, 불우아동 후원금 및 불우이웃돕기 참여, 일선 신문보내기운동 등을 꼽을 수 있다.¹¹⁰⁾

6. 에너지 管理工團

에너지 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0년 7월 설립되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¹¹¹⁾

- 1) 에너지관리 診斷 및 技術指導: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요원이 업체를 방문, 풍부한

109) 한국특종물업연합회 대구시지부 자료.

110) 대한건축사협회·대구직할시건축사회 자료.

111)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경험과 축적된 기술 및 첨단진단장비를 이용하여 에너지 손실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에너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업체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유도 및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 新技術 普及(에너지 利用 合理化 示範事業) :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우수 선진기술을 조사·발굴하여 시범보급 대상설비로 선정하고 선정된 설비에 대해 저리의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관련업체에 확대보급하고 있다.

3) 技術開發·情報提供 : 산업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기술을 개발하여 관련업체가 적용토록 홍보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아울러 국내외 절약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보유하고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4) 集團에너지 供給 :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환경개선효과가 큰 지역난방 및 공업단지 열병합발전과 같은 집단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도입촉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술지원, 시설자금 지원,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5) 資金支援 : 산업체 저효율 에너지사용설비의 개체, 보완과 신기술을 비롯한 열병합발전 시스템,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의 도입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6) 技術教育 및 세미나 :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7) 弘報·出版 : 각종 매스컴과 계몽행사 등을 통한 범국민적 에너지 바로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절약의식의 고취와 실천을 유도하며 각종 간행물의 발간을 통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8) 열사용 기자재 관리 : 각종 보일러, 압력용기, 단열재 등 열사용 기자재의 품질 및 효율향상을 위하여 형식승인을 하고, 보일러, 압력용기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불량 기자재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9) 대체에너지 開發 및 普及 : 태양에너지 이용, 폐기물의 에너지화, 석탄이용 등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연구자금의 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보급을 위한 자금지원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7. 大韓宿泊業中央會 大邱直轄市 支會

사단법인 大韓宿泊業中央會 大邱直轄市 支會는 일제하에서 大邱旅館組合으로 발족하여 일 본인들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중 8.15 해방으로 해산된 후 1946년 4월 10일에 대구시여관조합을 창립되면서부터 조합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66년 4월 23일에 사단법인 대한숙박업 중앙협회 경북도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1982년 11월 8일에는 행정관할 구역변경에 따라 다시금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직할시 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동 지회에서는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권익보호 및 행정당국과의 협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3년 현재 총회원수는 1,300명이며, 93년도 예산액은 약 1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동 지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시찰 및 관광사업
- 환경시설 개선향상을 위한 정보전달 및 홍보
- 행정당국의 지시강조사항 홍보 전파
- 회원자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년 1회 4시간)
- 준법정신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자율지도업무 수행.¹¹²⁾

8. 韓國服裝技術經營協會 大邱直轄市支部

韓國服裝技術經營協會 大邱直轄市支部는 1981년 발족된 대한복장기술협회 대구지부가 1983년 10월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협회는 《복장일보》, 《남성의 멋》 등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옷바르게 입기 캠페인, 마춤양복의 우수성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¹¹³⁾

第5節 經濟關聯 研究機關

大邱地域의 경제규모에 비해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단체나 기관은 지극히 적을 뿐 아니라 그 역사 또한 매우 일천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지 대구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 상황이기도 하다. 적어도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서는 韓國

112)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직할시 지회 자료.

113)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대구직할시지부 자료.

開發研究院(KDI)를 비롯한 정부출자의 몇몇 연구기관과 대학내에 존재하는 순수 경제관련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경제관련 연구기관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실물경제의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다소 장기적인 연구분야에 투자할 만큼의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물론이고 대기업의 규모도 매우 방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의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경제 예측과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는 경제 및 경영분석을 위해 자체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지방자치제의 등장과 함께 地域經濟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연구기관 설립의 중요함을 자각하게 되었다. 앞으로 2000년대의 地方化와 國際化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의 차원에서도 경제관련 연구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본고에서는 비록 일천한 역사를 가진 경제관련 연구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을 자료적 차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I. 大邱慶北開發研究院(Taegu-Kyungbuk Development Institute)

1. 設立背景과 目的

1980년대 후반까지 대구지역경제의 상대적 낙후 현상은 지역경제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당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만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역경제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조직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수년 동안 탁상공론으로만 논의되어 오던 지역경제관련 연구기관의 설립문제는 1989년 1월에 있었던 지역경제인 간담회에서 地域經濟研究院의 설립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거쳐 1990년 9월에 연구원 설립 기본계획(안)이 확정됨으로써 현재의 大邱慶北開發研究院의 윤곽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同 研究院의 설립목적은 “국제화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발전과제 및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연구개발하고, 지역 경제 사회의 전반에 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모집,

정리, 체계화하여 이를 지역사회에 널리 보급, 이용케 함으로써 대구·경북지역의 발전에 기여”¹¹⁴⁾하는데 있다.

2. 沿革

- 1989. 1 지역경제인 간담회시 지역경제연구원 설립논의
- 1990. 9 연구원 설립 기본계획(안) 확정
- 1990. 12. 21 연구원 설립 발기인 총회, 정관제정
- 1991. 4. 11 제1차 이사회(이사장 李海鳳, 부이사장 이상경 취임)
- 1991. 6. 7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연구원 설립허가
- 1991. 6. 17 財團法人 大邱圈經濟社會發展研究院 설립등기
- 1991. 6. 18 연구원 개원(초대원장 夫光植 취임)

3. 組織現況

1993년 현재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조직현황을 보면 이사회 24명(감사 2명 포함), 원장 1명(부광식), 연구원 11명(연구조사부장 1명, 기획조정실 4명, 동향분석실 3명, 과제연구실 3명), 사무국 5명, 전산실 3명 등이 있으며, 비상임연구위원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시 수시로 구성, 위촉된다. 또한 1993년 현재 연구원의 기금확보액은 약 70억 9천만원이며, 예산규모는 11억 4천만원여에 이르고 있다.

4. 主要事業

1) 研究調査 政策開發 事業

- 지역산업경제의 연구 조사 : 산업구조, 산업조직, 금융, 재정 / 유통시장, 노동시장 / 도시경제, 농어촌 경제 / 주택문제.
- 동향분석 : 경기동향, 산업동향 / 업종별 동향 / 물가동향, 수출입동향
-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연구 : 도시계획, 도심재개발 / 중소도시개발, 농어촌 개발 및 지역산업 진흥 / 교통, 환경, 인구문제 / 토지이용계획, 관광개발.

114)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자료, 1992.

기간행물로서 발간되고 있다. 그리고 연구실적 결과를 크게 기본과제와 수탁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基本 研究課題

- 1991. 12. 대구경제백서 (대구직할시와 공동발간)
- 1992. 6. 산업조사보고 : 화섬직물업, 비철금속업, 섬유기계업, 가정용 전자산업(설문조사 시리즈 92-11)
- 1992. 6. 대구지역 산업의 성장구조 분석과 개선방안(정책연구자료 92-1)
- 1992. 9. 지역경기동향 지수 개발모형-대구지역 DI작성을 중심으로(정책연구자료 92-2)
- 1992. 9. 산업조사보고 : 건직물업, 공작기계업, 전자부품업, 조립금속업(설문 조사 시리즈 92-12)
- 1992. 12. 대구지역 경제사회 주민의식조사(여론조사분석 92-22)
- 1992. 12. 지역경제 예측모형-이론적 모형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 제92-1호)
- 1992. 12. 대구 경북 자동차부품산업의 실태와 육성방안(연구보고서 제92-2호)
- 1992. 12. 지방재정과 지방금융의 상호보완-대구시를 중심으로(연구보고서 제92-3호)
- 1992. 12. 대구 서비스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연구보고서 제92-4)
- 1993. 2. 산업조사보고 : 섬유산업, 기계산업, 전자산업, 금속 및 비철금속업(설문조사 시리즈 93-11)
- 1993. 2. <대구 장기발전 구상> 수립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여론조사시리즈)
- 1993. 4. 제2차 道綜合計劃 樹立을 위한 경북도민 의식조사(여론조사시리즈)
- 1993. 5. 일본주요도시 장기발전 계획(정책참고자료 93-1)

2) 受託 研究課題

- 1992. 6. 경북 북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 조사연구(경상북도)
- 1992. 10. 북구 도시발전계획(대구직할시 북구)
- 1993. 2. 대구직할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대구직할시)
- 1993. 2. 대구장기발전 구상(대구직할시)
- 1993. 2. 제2차 道綜合開發計劃(경상북도)
- 1993. 2. 영천시 장기발전계획(경상북도 영천시)
- 1993. 4.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대구직할시)

이밖에도 진행중인 수탁연구과제로는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의뢰한 도시개발공사 장기발전 기본계획과 대구직할시에서 의뢰한 대구 섬유산업 발전 5개년계획 등이 있다.

II. 產學經營技術研究院(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1. 設立背景과 目的

1980년대 후반부터 대구지역 경제인들은 지역 경제의 상대적 위축 현상에 대한 우려와 산학협동의 필요성에 대한 표면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화 시키는데는 사실상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갈수록 빨라지는 국제화와 개방에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지역의 발전을 위한 무언가 획기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1990년 1월에 대구지역 중견기업인과 소장학자 40여명이 모여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발전을 주도해 보자”¹¹⁵⁾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 후 몇번의 실무모임을 거쳐 1990년 6월에 창립총회를 갖고 產學研究院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同 研究院의 설립목적은 “산학협동을 통한 경영활성화와 기술개발의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업계와 학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자료와 정보를 모집, 분석, 처리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지역사회에 널리 보급하고 이용, 실천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¹¹⁶⁾하는데 있다. 그리고 同研究院은 대구지역에서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하여 만들어낸 최초의 민간 연구기관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沿革과 組織機構

1990. 1. 지역의 중견기업인과 소장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산학협동을 위한 기구 설립 논의.

1990. 6. 창립총회, 정관제정, 산학연구원으로 출범 (초대 이사장: 구영모, 초대원장: 최용호)

1991. 1. 상공부로부터 사단법인 산학경영기술연구원으로 설립허가 받음

1991. 3. 사단법인 산학경영기술연구원 설립등기

1993년 현재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은 섬유산업, 기계부품, 기타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하는 업계회원 67명과 경상계 이공계분야의 학계 회원 102명, 그리고 대구은행을 비롯한 6명의

115) <교수신문>, 1994. 1. 1.

116) 산학경영기술 연구원 소개 자료

기관회원과 행정기관, 언론 및 기타 법인체와 같은 유관기관 회원 24명, 기타 3명 등 총 20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연구원의 규모가 이처럼 커짐에 따라 조직기구 역시 이사장, 원장, 감사, 부원장, 연구운영위원회, 사무국 및 7개부(연구기획부, 조사분석부, 교육개발부, 진단자문부, 출판정보 서비스부, 대외협력부, 회원협력부)로 편성되어 있다.

3. 主要事業

1) 產學協同 세미나

- 정기세미나 : 지역기업의 경영기술수준의 제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월1회의 정기세미나를 개최.
- 특별세미나 : 특별한 정치경제적 이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특별한 주제가 있을 경우 개최.
- 심포지움 주관 : 지역경제 활성화의 경영교육 진흥, 기술개발 및 산학협동을 위한 심포지움.

2) 經營 技術研究 및 調査分析

- 경영 및 기술실태에 관한 조사분석
- 경영 및 기술환경 변화에 관한 조사분석
- 최신 경영 기술기법의 도입 및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경영전략 수립 및 이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경영사례 및 기술개발의 사례 모집

3) 教育 開發, 經營 技術診斷 및 諮問

- 경영자의 교육훈련 : 경영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 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 / 종업원 교육.
- 경영 기술 진단 : 정부기관 또는 기업의 경영 및 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자문 / 기업체가 위탁하는 경영 기술 자문 및 진단.
- 시장 조사 : 고객만족도 조사 / 기업의 이미지 조사.

4) 出版 및 經營 技術情報 서비스

- 학술지 및 연구보고서의 간행
- 소식지 간행
- 경영 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도서 및 간행물의 확보
- 경영 기술과 관련된 연구물 및 정보의 모집 보급

5) 國內外 交流

- 국내외 타연구기관과의 경영 기술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 저명한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의 초빙, 세미나 개최
- 국내 경영 기술 연구진의 해외파견 지원
- 국제적 권위를 가진 해외 경영 기술 연구기관과의 제휴.

4. 主要事業 實績

이미 주요사업에서 밝혔듯이 1990년 5월부터 매월 정기세미나가 이루어져 왔으며, 1993년 9월로 41차의 세미나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3년 5월에는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지역경제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토론회도 주관하였다. 세미나를 통한 연구발표 이외에도 경영 및 기술 실태에 관한 조사분석, 최근 경영 기술기법의 도입 및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경영전략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경영개발사례 및 기술개발사례 수집 등 경영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외부기관의 학술용역 의뢰도 늘어나고 있다. 포항철강 공업단지로부터 포항지역 노사문제에 관한 학술조사를 의뢰받은 것을 비롯하여 지하철공사가 주변상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의뢰한 것 등이 그 예이다.

또한 1993년 9월 현재 진행중인 연구사업으로는 大邱科學産業研究團地造成과 관련된 誘致對象 施設調査, 家計金融 및 金融機關 利用 實態調査, 義城郡 長期綜合發展 計劃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산학공동연구와 정보교류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출판물의 발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1993년 6월까지 그 주요실적은 다음과 같다.

- 출판 정보서비스 사업 : 소식지 발간—제4권 25호
- 산학경영기술 연구총서 발간사업
 - 제1집 : 《21세기 대구 경북의 지역발전》
 - 제2집 : 《철강산업의 노사관계》
 - 제3집 : 《전환기의 노동시장 변화》
 - 제4집 : 《기업의 문화, 전략 및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 제5집 : 《대구·경북경제의 과제와 전망》
 - 제6집 : 《경제이론과 한국경제》
- 국제학술토론회 결과보고서 발간사업 :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지역경제의 대응
- 한일경제세미나 결과보고서 : 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와 지역경제의 발전방향

- 조사용역사업 : 자동차 선호도 조사/지하철 공사가 주변상가에 미치는 영향 조사/우리나라 주요그룹의 이미지 실태조사.

이와같이 동 연구원에서는 짧은 기간동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와 산학경영기술분야에서 다량의 연구업적을 내고 있으며, 금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¹⁷⁾

- ① 업계와의 유대강화 및 지식경험(연구경험)의 체계화
- ② 대학과 기업들간의 인적 기업가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학의 가교역할 강화
- ③ 공동목표 의식의 함양과 상호신뢰기반의 확충
- ④ 산학 양 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교류증대
- ⑤ 지역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역사회의 현안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 ⑥ 산학협동의 촉매기능 강화
- ⑦ 산학협동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 및 정보자원의 확충으로 사안에 따른 유기적 프로젝트팀 구축을 위한 토대의 구축
- ⑧ 학술 및 산업의 국제협력 창구역할을 강화 등이다.

III. 大邱社會研究所(Taegu Institute of Social Studies)

1. 設立趣旨 및 性格

大邱社會研究所는 1985년 11월에 대구지역 소장교수들을 중심으로 성립된 地方社會研究會를 그 모태로 하고 있다. 1991년 12월에 5년여의 연구경험을 토대로 급변하는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地方社會研究會를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연구소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다가 6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2년 5월에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요구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삶의 질의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통일된 선진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¹¹⁸⁾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대구사회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목적에 따라 대구사회연구소는 지역사회와 전체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각 분야별 지역동향을 분석하는 일상적 사업과 특정주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연구결과를 정기간행물, 연구서 등을 통해 출판하고 정책토론회 및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사회연구소는 연구

117) 崔龍浩,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의 현황과 한일협력방안〉, 산학경영기술연구원, 1993, pp. 13~15.

118) 대구사회연구소 설립취지문

소원의 자발적 기금출연에 의한 純粹 民間研究機關이라는 점과 지역경제 문제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연구분석하는 綜合的인 政策研究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沿 革

- 1985. 11. 8. 지방사회연구회 창립
- 1991. 12. 지방사회연구회 송년모임에서 연구소 설립안을 마련키로 함
- 1992. 1. 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비모임
- 1992. 2. 12. 지방사회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연구소로 전환할 것을 결의
- 1992. 2. 28. (가칭)대구사회연구소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1992. 4. 28. (가칭)대구사회연구소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 1992. 5. 20. 정관초안 확정, 이사진 등 임원진 확정
- 1992. 5. 22. 대구사회연구소 창립

3. 組織 및 機構 現況

대구사회연구소의 조직은 1994년 1월 현재 이사 27인(초대 이사장 : 서석구), 고문 7인, 감사 2인, 자문위원 16인, 소장 1인(초대소장 : 김민남), 4개 실무부서장(사무국장, 연구국장, 편집실장, 편집실장, 조사자료실장)과 상근연구원 3인, 사무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연구분야는 교육문화연구부를 비롯해 8개 연구부가 각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편 대구사회연구소의 인적구성을 보면 임원외에 연구위원과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위원은 대학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이며, 연구원은 대학원 석사과정 2학년 이상인 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1993년 말 현재 8개 연구부(교육문화연구부, 노동연구부, 농업연구부, 도시개발연구부, 법제연구부, 보건의료연구부, 산업연구부, 환경연구부)에 연구위원 63인, 연구원 55인과 비상임 연구위원 8인, 비상임연구원 5인 등 연구위원 71인, 연구원 60인, 임원 29인을 합해서 모두 160인의 연구소원이 활동 중이다.

4. 基本事業 및 成果

연구소의 기본사업으로는 연구분야별 기초자료 수집 정리, 지역동향분석(《대구·경북 지역

동향》으로 발행), 지역실태조사 및 여론조사, 자체 및 외부 연구프로젝트 수행, 정기간행물 및 연구서 등 출판사업, 정책토론회 및 시민토론회 개최, 논평세미나 개최 등이다.

출범 이후 10차례의 월례토론회, 1차례의 시민토론회, 5차례의 논평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4차례에 걸친 지역실태조사와 1993년도 중점 공동연구과제 “대구지역 빈민의 생활상태와 빈곤정책 연구”, 창립 2주년 기념 시민대토론회 “전환기, 대구·경북의 선택”을 기획하여 추진중이다. 이밖에도 지역동향을 분석하여 연구소의 경험자료를 축적하고 《대구·경북 지역동향》(1992년 8월호를 창간호로 하여 매월 발간)으로 출판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연구성과를 배포하고 있다.

Ⅳ. 大邱銀行 綜合企劃部 調查研究室

대구은행 종합기획부 조사연구실은 지역경제를 연구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 할 때부터 지역경제 분석을 시도하고 격월간으로 《大邱地域 經濟分析》이라는 정기간행물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대구은행 종합기획부 조사연구실의 변천과정과 실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調查研究室的 機構 變遷過程

1967년 10월 7일 총무부 단일부서만으로 출발한 대구은행은, 1968년 5월 25일 업무부를 신설한데 이어, 동년 12월 21일에는 총무부에서 비서실을 독립시키고, 1969년 3월에는 업무부에서 검사부를 독립시켰다. 1965년 11월 15일에 총무부에서 기획조사실을 분리시켜 기구가 3부2실로 확대되었다. 이 때 신설된 기획조사실이 오늘날 조사연구실의 모태이다. 그 후 대구은행의 업적신장과 경제여건 및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획조사실은 그 조직이 조사부로 확대되기도 하고 조사실로 축소되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재의 조사연구실에 이르기까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69. 11. 15. 기획조사실 신설
- 1972. 6. 1. 《大邱地域 經濟分析》誌 창간
- 1973. 1. 15. 기획실내 자료실 설치
- 1973. 3. 31. 《대구은행 5년사》 발간
- 1973. 10. 1. 기획조사실을 기획조사부로 개칭

- 1975. 5. 16. 기획조사부를 기획부와 조사부로 분리
- 1976. 10. 30. 기획부와 조사부를 기획조사부로 통합
- 1978. 4. 8. 기획조사부 전산과를 신축 전산센터로 이전
- 1981. 11. 24. 기획조사부를 기획부로 개편, 기획조사부의 경제조사과를 기업분석부와 통합하여 조사부 신설
- 1983. 4. 19. 조사부 경제조사과를 기획부로 흡수시키고, 조사부 신용조사과와 심사부 및 관리부를 통합하여 융자부로 개편, 조사부와 심사부 및 관리부는 폐지.
- 1985. 2. 23. 기획부를 종합기획부로 개칭
- 1987. 4. 27. 종합기획부내 기업정보 상담실 신설
- 1988. 1. 28. 조사과와 기업분석과를 합쳐 조사부 신설
- 1993. 2. 26. 조사부의 조사과는 종합기획부의 조사연구실로, 기업분석과는 융자부 기업분석실로 개편, 조사부 폐지.

1993년 현재 종합기획부 조사연구실에는 지역경제 조사와 금융경제 조사 부문에 8명, 行報와 畫報 부문에 5명, 도서실 운영 1명으로 총 15명이 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업무는 지역경제와 금융경제 조사, 은행금융정책 연구,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간행 등이다. 이 가운데에도 약 25년 동안 10여회 이상의 조직개편 작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은행의 단순한 조사 차원을 넘어서 20여년간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經濟調查 業務와 主要實績¹¹⁹⁾

대구은행에서는 1972년 2월 기획조사실 내에 <대구지역 경제조사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대구지역 경제동향의 연구에 첫발을 내디뎠다. 同 委員會는 1971년 12월 대구시 당국과 대구은행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을 펴고, 이 지역의 산업과 업계의 실태를 조사분석함과 동시에, 여기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그러다가 동위원회의 조사연구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업계와 유관기관 및 학계 등에서 지역경제 조사자료의 활용도와 관심도가 높아지자, 대구은행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취지에 따라 1972년 8월에 동 위원회의 조사위원을 기획조사실로 편입시켰다. 그후 동 위원회는 기획조사부 및 조사부의 조사과로, 그리고 1993년 2월부터 종합기획부의

119) 《대구은행 20년사》, 1987. 10, pp. 214~218.

조사연구실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제조사업무는 대구지역의 경제동향조사를 위주로 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국내외의 경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도 아울러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와 지역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모집 분석 및 지역통계자료의 작성, 대구은행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제반 정보와 자료모집, 직간접적인 조사 등이다. 이에 따라 1972년 6월에 앞에서 언급한 경제분석의 조사결과를 지역단위 경제분석지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大邱地域經濟分析》지를 발간하였으며, 1992년 6월에 지령 120호로 20여년 동안 한번의 결호도 없이 면면히 맥을 이어오고 있다. 同誌는 그간의 업적을 인정받아 이미 1976년 5월에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제2회 <KMA경제 경영도서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관계기관 및 각계 인사의 요청에 따른 자료제공을 위한 제반조사, 대구지역 경제 협의회에의 자료제공, 산업동향 조사, 은행내 업무관계조사 및 중간관리층 이상의 임직원을 위한 월례경제동향 보고 및 동보고서의 발간, 대구은행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경영자료 특집의 발간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1991년부터는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수상 논문집을 발간함으로써 특히 지역 대학(원)생들의 지역경제와 금융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V. 大邱直轄市 市政專門研究班과 市政研究委員會

대구직할시 시정전문연구반 역시 순수하게 지역경제를 연구하는 민간연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구직할시 당국이 시정을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시산하에 연구반을 편성하여 지역경제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정전문연구반과 시정연구위원회의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設置經緯와 目的

대구직할시에서는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6년 4월 26일에 기획담당 관실에 시정연구계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시정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1987년 7월 18일에 대구직할시 시정전문연구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1987년 9월 1일에 동 연구반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밀도있고 종합적인 시정연구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¹²⁰⁾ 그리고 시정발전에 관한 중요문제를 연구심의하기 위해 시정연구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거 1985년 9월 13일부터 시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組織現況

1993년 현재 시정연구반의 조직구성을 보면 도시계획 1명, 지역경제 1명, 교통 2명, 환경 1명, 일반행정 1명 등 총 6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시정연구위원회는 시정의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1992년에는 동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일반행정, 지방자치, 공법학, 예술, 섬유 등 부문에 5명을 증원하여 20명으로 재편성하였다.

3. 主要業務와 實績

시정전문연구반의 주요업무는 시정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 당면시정과 관련된 시책개발, 도시행정에 관한 자료모집 및 분석검토, 연구용역과제 검토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정전문연구반의 최근 주요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1년도에 동 연구반은 직할시 승격 10주년을 맞아 시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직할시정 10년》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구의 어제와 오늘 및 사진으로 본 직할시 10년을 마련하였고, 본편에서는 일반현황과 산업경제를 비롯한 19개 부문별 행정성과를 실었으며, 부록으로 직할시정 10년 회고의 장을 마련하여 각계 전문가가 본 시정 10년간의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 연구반은 또한 향후 5개년간(1992~1996) 대구의 발전전략 및 부문별 계획을 구체화시킨 제3차 대구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소양 및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방자치 해설》이라는 책자의 발간, 도시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시민의식을 설문조사하여 시민기초수요조사 보고서의 발간과 11편의 시정연구논문 작성, 기타 시정에 필요한 주요현안 문제에 대한 자문과 협조활동을 하였다.

또한 1992년도에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행정용어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용어 해설》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시정연구논문 발표와 시정백서의 발간에도 참여하였다. 시정백서는 시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망하여 지난해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진했던 부문은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며 장래 시사의 중요한

120) 대구직할시, 《市政白書》, 1993, pp. 94~95 참조.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88년에 처음으로 발간된 대구직할시의 시정백서는 그 이후 중단되어 오다가 1992년에 두번째로 발간되었다. 1992년 7월에 발간된 시정백서의 구성은 시정의 개관, 부문별 성과와 계획, 유관기관 사항, 시정의 주요일지 등 총 3편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매년 시정백서가 지속적으로 발간된다면 대구시의 중요한 사료로 남게 될 것이다.

한편 시정연구위원회는 1991년 5월 17일에 개최한 회의에서 1991년도 시정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책건의 및 시정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이외 1992년 시정용역과제 심의, 제3차 대구발전5개년 계획(안) 자문, 시정연구 논문 11편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 확대 재편된 동 위원회는 동년 3월에 첫회의를 소집하여 1992년도 시정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책건의 및 시정연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992년 연말에는 1993년 용역과제 심의, 시정연구논문 19편을 제출하였다. 이처럼 시정연구위원회 위원에게 시정의 주요현안을 부여하여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연구논문을 제출받아 책자로 발간하는 《市政研究誌》는 1993년 10월에 통권 제13호를 헤아리고 있다. 이밖에도 대구시에서는 조직내 연구분위기 확산과 창조적 업무수행 풍토 조성, 그리고 시책의 개선 발굴로 합리적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연구한 논문을 수합하여 1989년부터 매년 《市政研鑽誌》를 발간하고 있다.

VI. 大邱商工會議所 附設 大邱經濟研究센터

대구상공회의소 부설 대구경제연구센터는 1991년 7월 25일에 대구지역 경제의 구체적인 현안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발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정책입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동 연구센터는 1993년 말 현재 지역의 경제관련 교수와 신문사 논설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17명)와 실무 담당자 3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주요사업은 대구경제연구총서를 발간하는 사업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연구와 조사사업 및 지역경제의 현안과제에 대한 심포지움 개최 등이다. 대구경제연구센터에서는 비록 설치된지 불과 2년여에 불과하고 실무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지역경제문제와 관련된 발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1993년 말 현재 다음과 같은 13권의 ‘大邱經濟研究叢書’를 간행하였다.¹²¹⁾

121) 대구상공회의소 부설 대구경제연구센터 자료

- 1991. 11. 지역업계의 대북방교역 활성화 방안
- 1991. 11. 대구지역 제조업 인력수급의 원활화 방안
- 1991. 12. 대구지역 경제활성화와 쾌적한 미래도시 창조방안
- 1991. 12. 대구지역 산업공해 현황과 산업공해 처리방안
- 1992. 1. 21세기를 향한 대구도시권의 성장과 관리방안
- 1992. 8. 대구지역 제조업의 공장자동화 현황과 효율적 추진 방안
- 1992. 9. 다품종 소량생산체제하에서의 원가계산 시스템
- 1992. 12. 대구지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 1993. 6.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효율화 방안
- 1993. 9. 대구지역 자동차산업의 육성방안
- 1993. 10. 대구지역 산업정보화의 현황과 전개방향
- 1993. 11. 대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상공시책의 강화 방안

이밖에도 경제연구자료로서 〈物流管理時代 도래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1992. 4.), 〈국제환경협약체결에 따른 영향과 당면과제〉(1992. 7.), 〈중소기업관련 금융지원제도 안내〉(1993.4) 등이 있다.

VII. 大邱地域 各 大學校 附設 經濟關聯 研究所

대구상공회의소 부설 대구경제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대학부설 산학관련 연구소 명부〉에 따르면, 경북대학교에 산업기술연구소를 비롯한 9개의 연구소, 영남대학교에 기초과학연구소를 비롯한 7개의 연구소, 계명대학교에 산업경영연구소를 비롯한 6개의 연구소, 대구대학교에 사회과학연구소를 비롯한 5개의 연구소, 효성여자대학교에 산업경영연구소를 비롯한 8개의 연구소가 부설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지역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경영학 관련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연구소를 대학별로 1개씩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慶北大學校 經濟經營研究所(Economics and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1) 概 要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는 1985년 4월 1일에 경제 및 경영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기업경영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¹²²⁾ 동 연구소는 1990년 3월 6일에 대통령령 제12941호에 의거 법정연구소로 등록되었다. 1993년 말 현재 연구소의 조직은 소장, 간사, 조교 및 경제경영관련 전임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활동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연구논문집 편집 및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가 있다.

동 연구소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 경제 경영이론의 연구
- 한국경제와 기업경영의 실증연구
- 경제 및 경영에 관한 각종 용역사업
-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연구지 간행
-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2) 研究實績

경제경영연구소에서는 설립시부터 每分期 마다 《經商論集》을 정기간행물로서 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전임연구원들의 연구논문들이 게재되고 있으며 1993년 12월에 《經商論集》 제21권 제4호가 발간되었다. 이밖에도 동 연구소의 주요 학술활동으로는 교내연구발표회 및 초청세미나, 특별세미나, 학술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내연구발표회 및 초청세미나는 주로 전임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업적을 발표하게 하는 場으로서 매년 5~7회정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세미나는 국내외의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경제경영관련 당면문제나 이론적 연구결과를 발표케 함으로써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場으로서 역시 매년 4~5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학술세미나는 심포지움 형태로 198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경영연구소 학술세미나 연혁〉

- 1989. 5. “한국증권시장의 현황과 전망” (증권시장 학술세미나)
- 1989. 12. “한일자본주의의 비교” (慶北大—京都大 공동 한일경제비교 국제학술 심포지움)
- 1990. 11. “UR협상이 대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경제경영연구소—대구상공회의소 공동세미나)
- 1991. 5. “변화하는 환경과 기업경영” (경북대—고베대 공동 국제학술세미나)
- 1992. 4. “환경관리정책” (환경세미나)
- 1992. 5. “고속철도 개통이 대구지역 산업경제에 미칠 영향” (고속철도세미나)

122)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자료.

1992. 7. “Inovation and Business Dynamics”, Fuji Xerox/Space Alpha, Kobe, Japan (경북대-고베대 공동 국제학술세미나)

1993. 6. “세계경제변화와 기업경영전략” (경북대-고베대 공동 국제학술세미나)

2. 嶺南大學校 産業經濟研究所

1) 概 要

산업경제연구소는 영남대학교내에 부설되어 지난 20여년 동안 연구활동을 수행해 왔던 産業經濟研究所와 經營研究所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경제, 경영, 무역 및 지역산업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 1985년 3월에 설립되었다.¹²³⁾ 동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학술적인 연구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계의 문제를 연구하여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1993년 말 현재 연구소의 조직은 소장, 부소장, 운영위원회와 6개의 室(경제분석실, 기업경영분석실, 국제무역분석실, 지역경제분석실, 노동문제분석실, 행정 자료실)로 되어 있으며, 40여명의 연구위원이 활동을 하고있다.

동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경제, 경영, 무역, 지역경제, 노동문제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특히 산학협동연구
- 연구발표, 강연회 및 공개강좌의 개최
- 지역경제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지역인사와의 정기간담회 개최
- 기업경영진단 및 경영자의 교육을 통한 기업지원
- 업무관리자의 훈련 양성
- 국내외 산업정보의 모집 분석 제공
- 연구지 발간과 연구총서 출판
- 국내외 특수과제의 분석 제공
- 국제공동 학술연구 및 정보교환

2) 研究 및 事業實績

동 연구소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주요 사업활동에 의거 1985년부터 매월 정기연구발표회를 갖고 있으며, 이 연구활동의 결과를 실은 전문연구지 《産業經濟》를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舊 산업경제연구소에서 이미 《産業經濟》가 13집까지 발행되었으며, 舊 경영연구소에서도 《경

123) 영남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자료.

영논총》이 17집까지 발행되었다.

또한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역공공기관과 지역업체가 의뢰한 연구조사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바, 1986년 12월에 펴낸 〈서문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와 1989년 12월에 완료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업체 설립방안 연구〉 등이 이와 같은 특수용역 연구 조사활동의 결과이다.

한편 동 연구소에서는 1992년 3월부터 지역산업교육의 일환으로서 여성경영자 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지역내의 여성경영자들에게 새로운 기업경영지식을 습득케하는 한편 여성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동 연구소에서는 국내연구기관, 정부기관,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국내외의 연구자료를 교환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자들과의 공동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 공동연구의 결실로서 1987년 9월에 ‘經濟發展과 社會發展’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지역 경제 경영인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산업체와 협조하여 연구 조사 교육활동 등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3. 啓明大學校 産業經營研究所

1) 概 要

계명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는 산업활동과 기업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경영의 과학적인 기초와 합리적 전략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1971년 2월 4일 설립되었다.¹²⁴⁾

1993년 말 현재 동 연구소의 조직현황은 소장, 운영위원, 감사, 간사 및 9개의 연구부(기획부, 국제경제 연구부, 지역경제 연구부, 중소기업 연구부, 노사문제 연구부, 섬유산업 연구부, 유통산업 연구부, 연수부, 기업진단 원가계산부)가 있다. 그리고 동 연구소는 계명대학교 경제 경영관련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위원 55명, 연구원 5명, 보조연구원 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 主要事業과 實績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수행해온 주요사업과 그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經營經濟誌 發刊》

1969년도 제1집에서 1992년도 제25집에 이르기까지 경영, 경제, 무역, 회계, 경영정보, 상업교육, 관광분야 전반에 걸쳐 총 36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124)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자료.

・外部依賴 研究實績

1977~1978 경제적 유인의 인구억제정책에 대한 효과분석

1984~1985 한국에 있어서의 Office-Automation(OA)의 실태분석

1988~1989 2,000년대를 향한 대구지역 경제의 과제와 발전방안

1989~1990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國際學術會議 開催

1982년 제 1회를 日本 桃山學院大學에서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1991년 계명대학교에서 제 12회째를 개최하기까지 한일 경영비교, 한일 경제비교 등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3년단위로 발간하고 있다.

・貿易學校 運營

동 연구소에서는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대구상공회의소의 협조를 받아 무역학교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설하여 1975년 제 1기를 시작으로 1991년 제 20기에 이르기까지 총 976명의 수출역군을 배출하였다.

・原價計算 業務

동 연구소에서는 재무부로부터 정부회계 원가계산 의뢰기관으로 지정되어 1978년부터 1991년 12월까지 13년간에 걸쳐 제조원가, 수입원가, 공사원가, 용역원가 등 1,597건에 총 6,300품목의 원가계산을 실시하였다.

・企業經營 診斷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업체의 경영진단 및 지도를 실시하여 기업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별연구위원의 독자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공동연구과제의 개발을 위해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曉星女子大學校 産業經營研究所

1) 概 要

효성여자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는 산업경제의 연구분석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방안을 연구하여 지역경제와 개별기업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81년에 설립되었다. 1993년 말 현재 동 연구소의 조직은 소장, 운영위원회 및 6개의 연구실(지역국제상무연구실, 중소기업연구실, 경영분석 자문실, 기업회계 조세연구실, 경영정보시스템연구실, 경영교육 훈련연구실)에 경상계열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24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국내외 산업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 지역경제에 대한 자료조사 및 현황분석
- 지역경제 정책 연구 및 분석
- 기업경영 진단 및 분석
- 지역 중소기업과 산학협동 연구
- 경영자, 관리자, 종업원의 교육훈련 및 연수
- 연구위원의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 기타 기업경영상의 제반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

2) 主要 研究事業 및 經營諮問 實績

산업경영연구소에서는 주로 연구위원들의 연구성과를 모아서 《經營經濟》라는 정기간행물을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1993년에는 제9집이 출판되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수행한 주요 연구사업과 경영자문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研究事業

북한의 경제관리제도 개선과 대외경제 개방화와의 상관관계 분석

- The Effects of the NAFTA on Korean Trade
-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 지역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 대구지역 종합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실증적 연구
- Cellular Layout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작업부하균등을 위한 지식형 휴리스틱 모델의 개발
- 체계적 위험 예측모형의 예측능력에 관한 연구
- 기업합병 정책의 성과 및 동기에 관한 연구
- 기업사회 회계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 공업단지내 새마을운동 공동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기술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R & D관리를 위한 연구
- 중소기업 고가설비 공동이용에 관한 연구

이밖에도 다수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2) 經營諮問

- 철강회사의 기업분석과 경영정보시스템의 개발
- 기계회사의 원가관리
- 유통회사의 회계관리
- 기계, 유통, 의류회사의 유통 및 마케팅
- 자동차부품회사의 Layout
- 섬유회사의 QC교육 및 JIT교육

第6節 小 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대구지역 경제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대구지역 경제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함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했던 애초의 계획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조사결과는 각 단체의 사실 나열에 그치고 말았다. 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자료의 부족과 필자의 역부족으로 인해 사실의 나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대구지역에 존재하는 주요 경제관련 단체와 연구기관에 대하여 가능한한 빠뜨리지 않고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필자의 무지와 지면관계로 본의아니게 누락된 단체나 기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비록 부족한 사실의 나열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조사결과에 대해 약간의 의의를 부여한다면 그동안 대구지역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에 대해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흩어져 있던 자료를 처음으로 한곳으로 모았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대구지역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하며, 여기서는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느낀 몇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대구지역 경제관련단체의 공통적인 문제점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1節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구지역에는 몇 개의 대표적인 경제단체를 제외하고는 그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소규모 영세단체이다. 이는 물론 대구지역의 기업자체가 거의 대부분 소규모 영세기업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년간 단체 예산규모가 1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들 영세단체는 회원 혹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급급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단체의 발전을 도모할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둘째,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에 있어서 업무의 방만함과 비체계성의 문제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단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각 경제단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지도, 지원, 건의활동에서부터 조사연구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물론 회원이나 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업무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다분히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업무에 얽매일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비록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양적인 실적은 증대할지라도 단체의 내실을 기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유사관련단체들간의 정보교류 체계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구지역 경제와 같은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단체들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공동조사와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한다든가 관련단체들간의 정보교환체계를 마련하여 업무의 중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화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 경제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 이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우르과이 라운드(UR)의 타결로 말미암아 이른바 제2의 개항시대, 자유무역주의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로 불려지는 1990년대에 지역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경제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외경쟁력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역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매우 적을뿐 아니라 그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축적된 연구업적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5節에서 살펴보았듯이 1970년대 초에 대구은행 조사부에서 발간한《大邱慶北地域經濟分析》誌를 제외하고는 1980년대 말까지 대구지역경제를 대변할 만한 정기간행물이 없었으며, 전문적인 연구기관은 더욱 그러했다. 다행히 1990년대에 들어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몇개의 기관이 지역경제인들의 자각에 의해 태동하였지만 여전히 지역경제에 대한 구체분석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정책으로 반영되는 메카니즘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제 지역의 발전은 지역 연구자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도 생산적인 연구를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둘째, ‘산학협동’이라는 용어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부르짖어왔다. 그러나 사실 몇몇 기초 과학분야를 제외하고는 지역에서 산학협동 연구가 현실화된 경우는 드물었다. 특히 지역경제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산업계와 학계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다.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산학협동 자체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학계와 산업계를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학계에서는 그들의 고유한 연구영역에 대해 산업계가 간섭해서는 안되고 산업계에서는 연구비용만 제공해 주기를 바랐다. 이에 반해 산업계에서는 당장 가시적인 이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한 연구분야에 투자하기를 꺼려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연구업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물경제에서처럼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연구기관은 다분히 미래지향적이고 장기투자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산업계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최소한 10년 후의 미래를 대비하는 원시적 안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학계 역시 진정한 의미의 산학협동을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연구방법을 지양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계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려는 진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역의 경제관련 연구기관에는 대부분 비상임 연구위원이나 연구원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연구위원이나 연구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예산부족과 함께 실제로 지역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연구인력층이 거의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경제관련 연구기관 가운데 그나마 10여명의 전임 연구원을 확보하고 있는 大邱慶北開發研究院에서조차 프로젝트 사업의 상당부분이 외부용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경제관련 연구기관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관련 연구자층의 양성과 지역경제의 각 분야에 대한 전임연구위원이나 연구위원의 확충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경제단체의 문제점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지역의 경제단체와 경제관련 연구기관간의 정보교류는 물론이고 각 대학교 부설 경제관련 연구소간, 민간 연구기관들간의 정보교류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어느 경제단체에서 무엇을 조사하였는지, 어느 연구기관에서 어떠한 연구를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역경제를 보다 심도깊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작업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구지역 경제관련 단체와 연구기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상적으로 느낀 문제점을 토대로 이들 단체와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물론 앞에서 제기한 지역의 경제관련 단체와 연구기관이 가지는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예산과 인적자원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풍부한 예산과 인적자원만 있다면 사실 위의 문제들의 대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란 언제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와 요구되는 결과를 얼마나 최저비용으로 생산해내는가의 문제이다. 물론 얼마나 경제활동 규모를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예컨대 단체나 연구기관의 예산확충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각 단체나 연구기관의 자구적인 노력 정도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할 수밖에 없다. 예산확충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경제단체의 업무의 방만함과 비체계성의 문제는 대부분 백화점식 업무처리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경제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매기고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사업들을 과감하게 축소시키는 내부정비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경제관련 단체들간의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는 조사사업이나 연구사업은 연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업무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단체와 연구기관의 정보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실무적 차원에서의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지방화와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장기발전에 대한 경제관련단체와 연구기관의 역할은 점점 증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역경제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 및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확충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구조 속에서 대구지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產學協同의 차원을 넘어서 產學官 삼위일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한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산업계는 자신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과제를 학계에 위탁하고 그 결과를 관계에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 ‘산학협동’이란 단순히 산업계에서 학계의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지역의 연구자들이 기업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포함된다. 최근까지도 외국의 연구자들이 공장견학을 하려고 하면 모든 정보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면서도 지역의 연구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학계는 산업계와 관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연구를 하여야 한다. 학계 역시 지역경제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연구실에서 자료의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계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직접

관찰하는 이른바 현장연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는 학계에서 제시하는 지역의 경제정책에 대한 제안과 산업계의 건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입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계와 학계와 관계의 이와 같은 구조가 상호접합을 이루고 있을 때 대구지역 경제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第 15 章 大邱經濟의 課題와 展望

第 1 節 活力있는 大邱經濟의 確立을 위한 政策課題

I. 大邱經濟의 새로운 基盤造成

1. 21世紀를 향한 環境變化

머지 않아 大邱經濟도 21세기를 맞는다. 21世紀를 내다 볼 때, 대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環境與件에는 엄청난 변화가 밀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글로벌」化이다. 종래 사용되어 온 國際化란 말은 사람이나 物資의 國際的 交流를 뜻하지만, 「글로벌」化는 國境을 넘는 資本移動, 즉 경제에 國境이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¹⁾

이런 상황에서 企業은 독자적 이념하에서 움직이게 되므로, 세금을 어느 나라에 낼 것인가도 기업 스스로가 선택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리하여 21세기 지구사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상호의존관계가 한층 더 깊어져 갈 것이고, 동시에 21世紀는 技術革新이 國家의 霸權을 좌우하는 소위 「테크노헤게모니」의 時代가 될 것이다.

요컨대 21세기 사람과, 物資, 돈, 情報가 國境을 넘어 자유롭게 내왕하고, 經濟를 비롯 文化·學術·教育面 등에서 다양한 교류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國際化·地球村化 時代를 맞이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世界人口의 급속한 팽창,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의 소득격차의 확대, 식량이나 에너지需給의 不安定化, 森林감소에 의한 사막화의 진전 등 한 나라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地球的 環境問題도 심각화 되어 가고 있다.²⁾

이러한 세계 각국의 相互依存關係가 더욱 더 깊어져 가고 있는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國家的으로나 地域的으로나 世界 各國과의 交流協力關係를 더욱 더 확충·심화시켜 나가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다.

한편 21세기에는 太平洋 주변지역의 발전이 두드러져, 世界文明의 중심이 環太平洋 지역으로부터 環太平洋 地域으로 이행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美蘇冷戰體制의 와해로 東西間의

1) 牧野 昇, 《全豫測 90年代の世界》, 三菱總合研究所, 다이iamond社, 1990, p. ii.

2) 石弘之, 《地球環境報告》, 岩波新書, 1988, pp. 1~16.

경제교류 및 협력이 진전되는 가운데, 우리 나라 東海를 둘러싼 環東海圈 經濟協力體制의 구축도 논의되고 있어, 東海에 沿하면서 鐵鋼, 電子, 纖維 등 우리 나라 輸出의 主力品目을 생산하고 있는 大邱·慶北圈은 점차 環太平洋時代의 지구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產業基地의 지역으로 부상되어 가고 있다.

환태평양권내의 地域經濟圈으로서 우리 나라 東海에 연한 韓國, 北韓, 日本, 中國, 러시아 등 數個國으로 구성되는 소위 東北亞經濟協力圈의 구축문제가 學界, 外交, 經濟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³⁾ 豆滿江 經濟開發事業 등은 이미 UNDP에 의한 계획수립의 단계로까지 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日本의 첨단기술과 풍부한 자본력, 韓國의 重化學工業 중심의 생산기반, 北韓의 저렴한 勞動力, 中國과 러시아의 資源 등이 결합되어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면, 이 地域의 경제발전이 촉진되고, 또 國際平和의 기틀도 공고히 다져질 것이 기대된다.⁴⁾

이러한 對外面의 환경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대내적으로도 產業經濟의 先進化와 價値觀의 多樣化·個性化, 高齡化, 高度技術化·情報化, 都市化 등 큰 조류가 밀어 닥치고 있으며, 地方化, 核家族化의 진전 등 社會의 구조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를 내다볼 때, 특히 技術高度化와 情報化가 國家經濟나 地域經濟의 발전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렉트로닉스, 生命工學, 新素材, 新에너지 등 尖端技術分野에서 研究開發事業이 크게 진전되어 과거 몇 차례에 걸친 技術革新의 물결에 필적하는 새로운 기술혁신의 전개가 예상되며, 동시에 通信技術과 情報處理技術과의 융합에 의한 다양한 情報·通信 네트워크 시스템이 급속히 보급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기술혁신 및 정보화의 진전은 경제활동면에서의 효율화의 증진, 生活面에서의 편리성의 향상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社會制度나 人間의 가치관까지도 변화시켜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의 추세로 보면, 제3차산업의 신장, 제2차산업 내부에서의 研究開發, 企劃, 販賣

-
- 3) PO-HANG International Symposium(1992. 5. 14~15)에서 발표된 다음의 여러 논문을 참조할 것. 1. Liu Zhong-shu, Plan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and Jilin Province, China. 2. Kong Deyong, The Cooperation of East Asia-Pacific Region and the Development Plan of TUMEN River Area. 3. Ra, Jong-yil, Prospects of Security and Cooperation System in North East Asia. 또한 포항 RIST주최심포지움(「환동해중심도시로서의 포항권개발방향」 1992년 4월 24일 개최)에서의 여러 논문도 참조바람.
- 4) 日本北九州 國際東アジア研究センター主催, 「東アジアにおける政治・經濟・文化の接合の可能性」にかんする國際セミナー에서 발표된 諸論文參照.

등 비생산부문의 확대, 정보, 디자인 등에 의한 商品의 非物的 價値의 증대 등 경제의 소프트化, 서비스化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 금후 경제의 소프트化, 서비스化는 더욱 진전되고, 정보, 패션, 知的 서비스, 레저 등과 관련되는 知識集約型 하이터치(高感性)산업이 성장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고도화와 정보화가 몰고 올 광범한 분야에 걸친 충격과 변화는 우리 大邱地域의 산업경제와 지역사회에도 미칠 것이 분명한 바, 이에 대응해서 21세기에 상응하는 地域社會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능동적으로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大邱經濟의 새로운 기반조성은 대구경제를 둘러싼 이러한 對内外 環境變化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認識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환경변화에의 기민한 適應能力의 배양에 최선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2. 都市化와 都市型 産業

解放直前 20만 6천명에 불과했던 大邱人口는 48년이 지난 오늘날 무려 그 11배가 넘는 230만명으로 늘어나, 세계적인 大都市로 성장, 이에 따른 都市化 過程도 급속히 진전되었다. 1980년대들어 大邱가 直轄市로 승격되면서, 대구직할시는 물론 慶北道内 龜尾, 浦項 등 몇개 도시의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에, 주변 농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소위 都市化現象이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大邱의 都市化速度는 급진적이었다. 이러한 대구의 도시화 과정을 주도 내지 뒷받침 한 것은 역시 이 都市의 工業化 과정을 주축으로 하는 산업경제의 成長템포였다고 할 수 있다.⁵⁾

大都市圈에는 대체로 外部經濟指向型의 공업이 입지한다. 외부경제지향형이란 他工場 또는 금융·정보·서비스등의 外部經濟를 이용하기 위해 입지하는 공업을 말한다. 즉, 도시에 집적된 外部經濟를 이용하여 複合利益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업은 重化學工業과 같은 자원이나 輸送力의존의 素材供給型 工業이 아니라, 인간의 두뇌나 社會資本에 의존하는 소위 도시형 공업을 말한다. 예컨대 美國의 경우를 보면, 라디오工業은 디자인이나 消費者의 취향에 민감한 산업으로서 과거에는 「뉴욕」에 가장 적합한 도시형 산업이었지만, 요즘은 規格化가 진전하여 大量生産方式이 확립되고, 外部經濟의존의 필요성이 줄어들자, 이 산업은 그후 大都市圈을 벗어나 수송이 편리한 「低賃金地域」으로 진출해 갔던 것이다.

大都市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적 分業이 극도로 발달하여,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5) 大岡哲, 《新·都市開發の時代》, 鹿島出版会, 1990, pp. 18~19.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非物的 産業인 서비스業, 自由業 등이 집중·집적되어 대도시에서 특유한 中間層을 형성하고 있다. 辯護士, 醫師, 會計士, 俳優, 歌手, 畫家, 디자이너, 廣告宣傳員 등 각종 자유업과 그 豫備軍들이 그것이다. 또한 호텔, 바, 카바레, 레스토랑, 볼링場 등 각종 遊興·宿泊施設의 職業人口도 모이게 되어, 제3차 産業의 구성비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勞働者의 경우에도 대도시에서는 「블루칼러」보다 「화이트칼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도시의 집중, 집적된 事業體의 人口가 그 자체로서 거대한 市場을 이루어 大都市 産業人口의 과반수는 이 거대시장을 위한 생산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現代都市가 經濟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다른 한편에서는 集積의 不利益도 점차 대량 複合的으로 발생하여, 최근에는 住宅難, 交通難, 「슬럼」化, 靑少年問題, 都市基盤施設의 부족, 公害 및 環境惡化 등 소위 都市問題가 잇달아 여러 측면에서 야기되어 都市發展의 부정적 측면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現代國家는 나라마다 都市計劃이나 都市政策 등을 수립하여 도시화에 따라 야기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는 한편,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발전의 未來像을 설정하여 이 目標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계획성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부심하고 있다. 즉, 현대국가는 경제 중심의 論理에서 비롯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住民의 論理에 입각한 도시정책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⁶⁾

이러한 先進諸國의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나라와 같은 開途國들은 일찍부터 經濟의 논리와 住民의 논리를 상호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도시화 정책을 보다 合理的, 效率的으로 추진할 수 있는 利點을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大邱地域의 경우에도 도시발전의 基本方向은 경제의 效率性논리와 주민의 生活논리와와의 조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大邱가 스스로의 都市規模에 맞는 經濟力을 구축하고, 주변지역인 慶北일원에 대한 中樞管理都市로서의 波及效果도 크게 미칠 수 있으려면, 主力産業으로서 우선 무엇보다도 都市型産業을 꼽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大邱經濟를 발전시키는 안목은 大邱·慶北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廣域經濟圈에 있어서의 유기적인 産業네트워크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高速交通輸送網의 정비와 情報通信網의 확충이 불가결한 요건이다.

6) 夫光植, 《大邱·慶北經濟의 課題와 展望》, 產學經營技術研究院, 1992, p. 11.

또한 大邱·慶北圈內의 中樞管理都市인 대구시에는 도시형 산업을 정착·발전시키는 과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있어서의 研究開發, 人材育成的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都市型 産業 가운데서도 尖端技術産業 분야에서는 연구개발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研究開發關聯基盤의 정비가 긴요하며, 특히 對企業서비스에서의 情報處理 등 소프트웨어分野의 인재육성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情報化, 서비스化의 진전과 국제적인 經濟構造調整下에서 금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은 도시형 산업이다. 都市型 産業의 概念에 관해서는 반드시 일치된 定義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行政機能, 高次都市機能, 기업의 本社機能, 人口集積 등 都市的 集積과 결부되어 발전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다.⁷⁾

이러한 都市型 産業이 성장하는 요인으로서 우선 첫째로, 都市化의 진전을 들 수가 있다. 최근의 人口移動의 동향을 보면, 서울 등 首都圈지역은 말할 나위도 없고, 地方에서도 어느 정도의 人口規模를 가지는 都市에서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볼 수가 있다. 둘째로는, 消費需要가 量的 충족을 중시하는 단계에서 質的 충실화를 추구하는 단계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所得水準의 향상은 소비의 고도화, 개성화, 다양화의 추세를 강화하고 있고, 女性의 사회진출은 이런 경향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셋째로는, 産業의 知識集約化, 高附加價值化의 진전이다. 研究開發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러한 尖端産業의 발전에는 도시에 집적하는 첨단기술정보, 연구자간의 네트워크, 市場情報, 國際情報 등이 필요하다. 금후 성장이 기대되는 都市型産業으로서는 다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연구개발을 중시하는 尖端技術産業이다. 이는 도시에 集積된 첨단기술정보나 고도의 試作·生産機能을 배경으로 하여 도시에 입지하는 것이다. 또한 우수한 研究員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도 도시에의 立地가 중시되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이나 도시에 집적하는 企業의 本社機能 등으로부터 파생하는 서비스需要를 배경으로 성장하는 고도의 對企業 내지 事業所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産業을 지원하는 情報處理, 情報通信, 經營管理, 리스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다양화, 고도화, 개성화된 消費需要에 대응한 새로운 對個人서비스, 예컨대 外食産業, 패션産業, 도시형 레저産業 등이다. 도시형산업을 기존의 産業分野의 틀속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어렵지만, 어쨌든 이상과 같이 정의되는 도시형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이미 어느 정도의

7) 小林幸雄, 《都市政策の新展開》, ぎょうせい, 1991, pp. 71~73.

도시적 집적을 가지고 있는 中樞都市를 核으로 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고도의 研究開發據點 구축이나 產業構造의 전환에 대응하는 人材育成 등 소프트한 인폴러스트럭처의 整備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地域產業政策의 추진이 중요하며, 同時に 交通·通信, 物流體系 등 산업의 입지기반의 整備가 또한 중요하다.⁸⁾

3. 새로운 地域產業政策의 緊要性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제2차와 제3차 國土綜合開發計劃의 추진을 통하여 국토의 均衡開發이란 基本理念에 입각해서 서울 등 首都圈으로의 산업집중을 억제하고, 地方振興을 도모하는 시책을 펴왔다. 이러한 시책은 대체로 公共事業의 지역적 배정, 補助金의 지급이나, 國庫負擔率의 인상, 地方債利子보전 등 財政上의 조치나 社會間接資本施設의 건설 등을 통해 주로 產業基盤整備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기업에 대해서는 稅制·金融면의 혜택을 주어 지방으로의 공업입지를 촉진하는 식의 정책이 주류였다. 또한 이에 보조를 맞추어 地方自治團體의 시책에서도 공업단지나 道路 등 인폴러스트럭처의 정비와 공장유치시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이러한 시책하에서 그동안 1960~1980년대의 高度經濟成長期에는 주로 浦項, 蔚山, 昌原, 麗川, 光陽 등 임해지역으로의 素材型 중화학공업의 입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이것이 국토의 均衡發展에도 어느 정도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의 地域間 격차라는 시각에서는 오히려 首都圈과 地方間의 격차를 더욱 擴大시켜 온 것이 문제이다.⁹⁾ 한편, 1990년대로 접어들어서는 內陸部나 遠隔地로의 加工組立型工業 또는 都市型工業 등의 地方立地化를 중심으로 산업입지의 보다 광범한 地方分散化가 이루어지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生産에 있어서의 情報價值가 증대하고, 기업의 中樞管理部門이나 연구개발부문이 정보를 찾아서 都市圈으로 집중함과 더불어, 이들 中樞部門 등의 高度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對企業서비스業이나 製品開發 등에 필요한 고도의 試作機能을 가지는 工場群이 수도권에 입지하여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는 산업의 首都圈集中化가 더욱 심화되어 산업의 지방분산화는 더욱 어려워질 위험도 없지 않다.

게다가 요즘 貿易摩擦의 회피나 低賃金 등을 목적으로 부쩍 늘어나고 있는 많은 공장들의 海外進出은 지방에의 공장입지를 저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즉, 地方에의 공장입지는 해외

8) 日本經濟企劃廳 總合計劃局編, 《都市型産業による地域經濟活性化》, 東洋經濟新報社, 1988, pp. 41~42.

9) 위의 책, pp. 42~43.

입지와 강력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설사 工場誘致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장의 生産形態의 변화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波及效果가 그다지 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철저한 工場自動化(FA)는 고용기회를 적게 하고, 광역적인 네트워크化나 해외로부터의 部品調達 등의 증가는 공장주변의 地方企業에로의 과급효과를 약화시킨다.¹⁰⁾

또한 이미 高賃金國家가 되고 人力難까지 겪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과거와 같은 高度成長을 지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는 미래를 내다 보면, 財政確保란 측면에서도 産業基盤整備를 위한 자금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財源은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역산업의 振興方向은 지방의 몇몇 中樞都市를 핵으로 하는 廣域經濟圈의 형성이란 전략적 發展軸의 설정이 필요불가결 하다.

이러한 중추도시에의 高次都市機能의 집적을 높임으로써 도시형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핵으로 해서 經濟圈域內的 中樞都市, 中心都市, 中小都市, 農山漁村地域 등으로 자율적·중층적으로 産業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交通·通信網의 정비와 지역의 國際交流를 추진함과 동시에, 地域産業政策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研究開發·人材育成 등 소프트産業의 육성〉

研究開發이나 人材育成은 그 자체가 하나의 高次都市機能이며 都市型産業으로서도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니와, 소프트한 産業기반으로서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역할이 큰 것이다. 또한 地域內發型 企業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기술·인재 등 경영자원의 레벨·업이 긴요하며, 事業化씨앗의 創出을 위해서도 연구개발이나 인재육성이 중요하다.

지역에 있어서의 研究開發機能을 정비하는 데는 지역의 연구개발의 中樞가 될 고도의 연구개발거점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고도의 研究開發거점을 단독의 地方공공단체만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廣域經濟圈차원에서 지방공공단체, 大學, 民間企業들로 구성되는 강력한 推進體制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또 國家에 의한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점을 문자 그대로 지역의 研究開發의 거점이 되게 하려면 그 지역이나, 國內 그리고 해외로 까지도 研究分野의 情報발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中核的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라야 한다.

10) 大韓民國政府, 《第3次 國土綜合開發計劃, (1992~2001)》, 1992, pp. 5~6.

〈地域內發型 企業의 육성〉

지역에 활동의 본거지를 둔 地域內發型 企業이 지역경제의 고용에 점유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커거니와, 支社, 分工場 등의 경우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다. 國際化, 開放化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공장의 지방유치가 곤란해지고, 그러면서도 중추관리기능의 地方立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 地域內發型 기업의 육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¹¹⁾

또한 지역에 있어서의 研究開發機能의 저변을 확대하고 層을 두텁게 해가기 위해서는 高度研究開發거점의 연구성과 등을 地域內發型 企業의 응용·개발연구, 또는 實用化研究 등으로 연계시켜 지역의 기술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 技術基盤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지역의 公設시험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바, 이를 위한 公設시험기관에의 資金投入을 증대하고, 그 기능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야 한다.

〈地方主導型 地域産業政策〉

地域産業政策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 지방과 국가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 國家施策上的 방법, 수단 등까지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있는 自主性발휘를 가능케 할 體制確立이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

地方主導型 地域産業政策이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施策課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로, 지역의 연구개발기능의 거점이 될 중핵적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중핵적 연구기관은 연구개발형 대학이나 大學院대학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나, 대형 工業技術연구개발기능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官과 民의 출자에 의한 제3섹터형 연구개발 法人을 설립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채택될 수 있다.

또한 거점지역에서의 연구개발기능을 제고시키려면, 중핵적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民間企業 등의 연구기관의 입지를 촉진하여 연구집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기관의 입지는 집적이 集積을 부른다는 면이 있지만, 처음에는 적극적인 立地促進策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하다.

둘째로, 고도의 연구활동을 하는데는 국내나 해외 연구자와의 긴밀한 人的 교류나 최첨단 연구정보에의 빈번한 「억세스」가 필요불가결하나, 地方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이런 면에서 불리한 형편에 있다. 이 때문에 거점지역에 있어서의 高速交通網이나 정보통신망의 정비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研究交流의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거점지역에 근접한 지점에 國際空港을

11) 長洲一二·中村秀一郎·新野幸次郎 編, 《地方の時代と地域經濟》, ぎょうせい, 1982, p. 49.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셋째로, 高度研究開發據點을 비롯한 지역에 있어서의 基礎的 연구나 그 성과의 實用化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어서의 產·學·官의 연계체제를 강화하는데 시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① 地方大學의 연구개발기능의 불비, ② 行政面에서의 대응태세 결여, ③ 地域企業의 협력체제의 불비 등의 제반 문제점 때문에 산·학·관의 협동연계체제가 잘 구축되어 오지 못했다.

앞으로는 지역의 產·學·官에 의한 공동연구의 실시나, 연구자들간의 정보 및 연구교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있어서의 研究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제3섹터의 활용 등으로 지역의 산·학·관의 연구자 교류의 場을 제공하고, 연구씨앗의 발굴, 개발·실용화의 촉진, 공동연구의 알선, 연수, 세미나의 개최, 出版, 技術情報의 제공 등 다양한 면에서의 연구교류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¹²⁾

넷째로, 地域內發型企業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의 기업가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高附價 價值製品의 개발 등 革新導入을 촉진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 창조적인 企業群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면, 이는 널리 지역기업을 자극하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리하여 革新의 성과와 혁신을 일으키는 잠재력이 지역에 축적될 때, 지역은 자율적인 內發型 산업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업가활동을 활성화하는 추진시책으로서 「인큐베이션」의 활용, 異業種교류, 融合化에 의한 「이노베이션」도입 등의 시책이 중요하다. 「인큐베이션」이란 독창적인 발상의 기업화를 목적으로 創業段階에 있는 미숙한 기업에 대해서 장소·자금·인재나 경영상담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년 歐美諸國에서는 인큐베이션 센터가 급증하여 地域經濟振興의 한 수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日本에서도 民活法の 대상시설인 「리서치 코아」가 갖추어야 할 한 기본시설로서 각 지역에서 그 창설이 추진되어 왔는 바,¹³⁾ 이를 참고로 우리 대구지역에서도 이 제도는 하루 속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 기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방책으로서 異業種交流와 融合化가 유효하다. 市場의 세분화나 業際化 등을 배경으로 신규사업의 창출이나 사업의 다각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12) 日本經濟企劃廳 總合計劃局 編, 앞의 책, p. 104.

13) 新近幾創生推進委員會編, 《すばるプラン》, ぎょうせい, 1988, pp. 86~92.

또한 經濟企劃廳總合計劃局編, 앞의 책, pp. 115~116.

하며, 특히 한정된 지역시장을 대상으로 폭이 좁은 技術노우하우에 의존해 온 지역의 중소 기업들로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폭넓은 교류를 통해 열어나가기로 해야 할 것이다. 異業種 기업들이 서로 경영자원을 연계시키고, 新製品의 공동개발이나 신규서비스 사업의 창출 등으로 교류·협력해 나간다면, 이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효율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¹⁴⁾

다섯째는, 研究者들이 이 곳에 정착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매력있는 生活環境을 정비하는 시책도 중요하다. 각종의 知的 서비스산업이나 하이테크관련산업, 리조트산업 등과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새 시대의 都市만들기 사업’이 중요하다. 이 경우 단순한 연구를 위한 施設이나 공간의 제공만이 아니라, 음식점을 포함한 유흥장이나 휴일을 즐길 수 있는 리조트·레저시설, 쇼핑센터 등도 마련하는 한편, 자녀들의 教育環境을 정비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¹⁵⁾

이렇게 볼 때 21세기를 향한 大邱經濟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基盤造成의 핵심과제는 大邱에 고도의 研究開發據點을 형성시키고, 실질적인 產·學·官 협동체제를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纖維産業의 기술의 첨단화는 물론, 대구경제력을 주도할 새로운 주력성장산업의 발전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축으로 하여 지방의 중추대도시인 대구의 도시규모와 그 지리적 특성에 알맞는 都市型 工業이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II. 纖維産業의 高度화와 새로운 成長産業의 振興

1. 大邱纖維産業의 發展課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섬유산업은 대구의 주종산업으로서 大邱經濟를 지탱해 온 기간산업이다. 현재 대구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섬유산업의 비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섬유산업이 쇠퇴하거나 사양화되면, 대구경제는 그 존립기반을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구의 섬유산업은 전국 섬유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¹⁶⁾ 대구의 섬유산업의 사양화는 전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대구 섬유산업은 특히 1970~1980년대의 기간동안에 輸出主導의 생산체제로 구조조정이

14) 日本經濟企劃廳 總合計劃局編, 앞의 책, pp. 126~128.

15) 山崎 充, 《地域經濟活性化の道》, 有斐閣選書, 1984, p. 50.

16) 大岡 哲, 《新·都市開發の時代》, 鹿島出版會, 1989, pp. 6~9.

이루어지면서 設備의 확충, 노후직기의 개체, 織機 및 公定자동화의 進進 등 生産기반을 강화하는데 淸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技術革新이란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리하여 대구의 섬유산업이 부가가치면에서 對 전국섬유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현재 24%를 넘는 수준인데다, 특히 화섬의 경우 대구의 生産비중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產地로서의 비중을 확보하고 있다.¹⁷⁾ 1990년대 이후의 대구섬유산업의 發展段階는 지금까지의 발전을 토대로 知識集約인 첨단기술산업화 단계로 進입해 들어 가고 있는 만큼, 섬유산업은 이제 도시형 성장산업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의 섬유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며 첨단기술산업화를 이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課題 및 시책이 체계적이고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

1) 大邱纖維産業發展 5個年計劃의 推進

전국 차원에서는 商工資源部 주관으로 「纖維産業構造改善 7개년계획」(1990~1996)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대구지역에서도 1994년부터는 대구섬유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바, 전국계획과 연계시켜 地域計劃을 추진함으로써 계획의 성과를 더욱 제고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산업구조개선 7개년계획」의 基本目標은 ① 2000년까지 수출규모를 300억달러로 늘려, ② 우리나라를 세계 1위 纖維輸出國으로 부상시키며, ③ 品質水準은 이탈리아, 프랑스 수준으로 높이며, ④ 서울을 세계 「패션」중심지로 발전시키고, ⑤ 內需시장을 총수요의 50%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 등으로 설정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施策方向으로는 지금까지의 노동집약적인 후진국형 산업구조를 技術集約인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을 基本방향으로 삼고 있다.¹⁸⁾

우리나라 섬유산업 전체내에서 大邱地域 纖維産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본다면, 섬유 산업구조개선 7개년계획상에 책정된 주요 戰略事業들은 대구의 지역계획에서도 수용되어 상호 유기적인 관련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의 섬유산업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대구를 세계적인 纖維都市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 戰略核心事業의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그것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⁹⁾

17) 夫光植, 앞의 책, p. 214. 또한 大邱慶北開發研究院, 《大邱纖維産業發展5個年計劃》, 研究報告書, 1993, p. 13.

18) 大邱慶北開發研究院, 위의 보고서 pp. 12~14.

19) 商工部·纖維産業聯合會, 《纖維産業構造改善 7個年計劃(1990~1996)》.

① 纖維産業基盤의 강화, ② 纖維情報基盤의 강화, ③ 纖維人力 供給체제의 정비, ④ 텍스타일 패션·디자인의 강화 및 어패럴산업의 육성, ⑤ 産·學협동체제를 주축으로 한 研究開發體制의 확립, ⑥ 異業種交流의 제고, ⑦ 產地組合 기능의 강화, ⑧ 섬유업계 中小企業에 대한 연수교육 제도의 확립, ⑨ 國際化, 개방화기반의 확충, ⑩ 지원시책 및 관련법규의 정비.

그리고 이러한 10대 전략과제를 달성하는데, 그 근간이 될 주축 核心事業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6대 주축사업이 선정되고 있다.

- ① 纖維技術振興院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 지역섬유기술기반을 구축한다.
- ② 섬유기술개발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기존 研究機能을 강화한다.
- ③ 섬유리소스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섬유에 대한 각종 情報機能을 강화한다.
- ④ 섬유협회를 법인화하여 산하에 산업진흥재단을 배속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산·학·관·연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 ⑤ 纖維技術大學을 설립하여 섬유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섬유기술의 국제적 수준을 높인다.
- ⑥ 섬유센터(텍스피아 대구)를 설립하여 산지의 都賣機能 및 貿易機能을 강화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섬유산업발전 5개년계획은 大邱直轄市와 大邱纖維業界가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수립한 것이니 만큼 계획 속에 들어 있는 세부계획사업들의 추진은 보다 의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事業成果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그 推進機構로서 섬유협회를 법인화하여 강력한 産·學·官 협동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바다.

2) 纖維産業 高度化를 위한 戰略施策

(1) 纖維産業의 構造高度化

섬유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중심과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先進國型 산업구조를 이룩하는데 있다.²⁰⁾

대구섬유산업발전 5개년계획도 내용적으로는 <表 1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産業構造高度化事業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삼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들 핵심과제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됨으로써 21세기 대구섬유산업의 發展展望은 더욱 밝을 것으로 예견된다.

20) 大邱慶北開發研究院, 앞의 보고서.

〈表 15-1〉 纖維産業의 構造高度化

후진국형 산업구조 (노동집약적 구조)	선진국형 산업구조 (기술집약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성장 —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 — 기술 및 패션의 대외의존 — 숙련기술인력의 과다의존 — OEM 수출위주 — 의류수출중심 — 단위업종별 경쟁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 성장 —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 기술혁신 및 패션의 국제화 — 설비의 자동화 추진 — 자가상표 수출위주 — 사·직물·산업용 수출확대 — 토탈 경쟁체제

(2) 生産構造의 高度化

먼저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화섬 및紡績부문의 공급안정체제를 유지하고, 제직, 편직 및 봉제부문 등은 증설보다 낙후, 노후시설의 개체를 유도함으로써 설비의 자동화, 첨단화를 촉진하여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고, 대구 섬유산업의 國際競爭力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老朽設備 개체율은 전국의 경우 1995년까지 42%수준으로, 200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80%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으로 있으며, 大邱地域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노후설비를 개체해 나가야 한다. 대구지역의 경우, 織物工業도 1986년 7월부터 1989년 6월까지 3년간 染色工業 등과 함께 産業合理化業種으로 지정되어, 그 기간에 2차에 걸쳐 연장되어 1995년 6월 말까지 합리화지원을 받게 되었다. 직물공업의 합리화기간 중 대구·경북지역에는 전국 지원 규모의 93.2%인 2,358억원이 배정되었으며, 기간별로는 1차 기간에 1,750억원, 2차 기간에는 608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²¹⁾

1차 기간에는 주로 自動化織機로의 개체에 중점이 두어졌으나, 2차 기간에는 「워터·제트·룸」(WJL)과 「레피어」직기 등 尖端革新織機로의 개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합리화기간 중에 노후직기는 40.8%나 감소한 반면, 전체직기에 대한 自動化率은 25.0%에서 68.6%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리하여 이 기간 중에 人力은 17.2%가 감소된 반면에, 生産性은 52.3%, 輸出은 196.4%나 신장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衣類의 소비패턴이 점차 고급화·개성화되고 있으며, 流行의 주기도 점점 짧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소품종대량생산체제를 多品種少量生産體制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직기제작회사들과 제휴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직

21) 大邱直轄市·大邱慶北開發研究院, 《大邱經濟白書》, 1991, p. 582.

기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즉, 구매자들이 아무리 많은 양을 주문하더라도, 또 언제 어느 때에 주문을 받더라도, 在庫品에 의존함이 없이 즉각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하고 능률적인 생산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DI시스템과 Bar Coding방법을 개발 보급하여 연사, 직물업체와 衣類업체가 하나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注文에서 생산 공급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製品의 多樣化 및 高級化

우리 섬유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사 및 원단은 단지 15% 정도만 차별화된 고급소재일 뿐, 대부분이 중·저급의 일반 소재들이기 때문에 素材의 다양화를 기해야 한다. 그래서 전국계획에서는 소재 고급화의 비율을 1995년까지 30% 수준으로, 2000년까지는 이태리 수준인 50% 정도로 올릴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바,²²⁾ 대구지역에서는 더 더욱 素材開發情報化 기능과 研究開發體制를 강화하여 소재의 고급화 비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패션디자인의 國際化를 위해서는 대구시내에 패션거리를 조성하여 패션쇼의 대중화를 기하고, TV를 통한 패션의 日常生活化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패션 감각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동시에 창조적 패션인재의 양성에 힘쓰며, 특히 패션정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패션디자인情報센터의 설립과 패션디자인團體의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의 섬유업체는 지금까지 주로 의류용 섬유제품의 생산에 치중해 옴으로써, 제한된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여 中國 등 후발 개발도상국들의 맹렬한 추격을 받아 오기도 했는 바, 앞으로는 室内用, 산업용, 비의류제품 분야에도 진출하여 섬유산업의 다변화를 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尖端技術產業化의 基盤構築

대구지역은 그간 시설근대화와 技術向上 노력을 통해 合纖纖維織物부문에서는 日本과 北유럽산지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의 산지를 형성하여, 다수의 연관산업도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구의 섬유산지가 국제적인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고유의 기술을 바탕으로 ME 등의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추구함과 동시에, 高附加價值製品의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고도의 기술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된다.

22) 大邱慶北開發研究院, 《大邱纖維產業發展5個年計劃》, pp. 14~15.

그런데 고도의 기술개발이나 尖端技術의 능동적인 흡수는 개별기업이나 단일업체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대구의 경우에는 섬유업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연구개발체제의 네트워크화, 시스템화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企業附設研究所의 설립, 섬유기술진흥원의 기능강화, 綜合纖維技術研究所의 설립 및 국제적인 기술 교류체제의 확립, 產學協同을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 그리고 협동사업의 체계적 조직화 등 지역섬유업체의 연구개발체제가 하루 속히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나가야 한다.

한편 政府에서는 「中小企業의 經營安定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生産技術研究院에서 1992년도부터 매년 석·박사 50명씩을 내보내고, 전국 14개 대학에 설치되고 있는 纖維工學科에서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조정하며, 30억원 규모의 獎學基金을 설치하여 매년 10여명의 우수인력을 선발 海外研修를 시키는 등 인재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²³⁾

우리 대구지역에서는 분야별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해내기 위한 纖維技術大學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섬유기술발전에 중심체 역할을 수행할 纖維綜合技術研究所의 설립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섬유기술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섬유산업의 情報化와 관련된 기초기술의 개발과 정보화지원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할 纖維情報綜合管理體系를 구축하여 산지의 생산, 유통면의 정보화는 물론, 해외기술정보의 확보와 異業種間 기술정보교류 및 산학간 협동연구 등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섬유업체 정보화네트워크체제도 확립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5) 大邱纖維센터(텍스피아)의 建立

정보수집 및 무역기능의 산지이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貿易 및 技術情報, 텍스타일, 패션 디자인정보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지역섬유제품의 產地브랜드화를 촉진하는데 중심체 역할을 할 소위 「섬유국제장터」의 건립이 요망되고 있어, 이미 지역섬유업체의 관심은 지대하다.²⁴⁾

기왕이면 이 施設物은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멀리 21세기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훌륭한 내부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국제수준의 이벤트와 見本市, 展示會 등도 빈번히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대구를 세계적인 섬유산업의 情報發信地로서의 역할도 하게 하는 것이므로, 대구를 세계적인 섬유도시로

23) 大邱直轄市·大邱慶北開發研究院, 《大邱經濟白書》, 1991, p. 584.

24) 앞의 보고서, p. 585.

발전시키는데 있어 불가결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2. 새로운 成長産業의 振興

1) 有望成長業種의 育成

(1) 地域適性成長業種

과학기술처가 수립한 全國土의 技術地帶網구축계획에 의하면, 전 국토가 5개 기술벨트지대(① 서해안지대, ② 남해안지대, ③ 동해안지대, ④ 남북간지대, ⑤ 동서간지대)로 구분되고 있으며, 大邱地域은 남북간 기술벨트지대(서울-수원-안성-구미-대구-부산을 잇는 축)에 속하고 있다. 이 남북간 기술벨트지대에는 生命工學, 전자, 반도체, 통신 등 첨단산업분야의 기술벨트를 조성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이러한 국가적인 산업 및 기술의 立地施策도 감안하면서 21세기를 향한 대구의 지역적 성장업종을 선정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産業基盤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대구에는 섬유공업외에도 기계, 금속, 전자, 자동차부품 등 오랜 역사와 기술기반을 가진 업종들이 있으며, 이들의 기술고도화·첨단화는 섬유 중심의 대구의 工業構造를 다변화시키고, 지역경제의 성장력기반을 확충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대구는 이미 機械金屬, 전자, 자동차부품의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는데다, 역내 대학의 우수인력 공급능력도 수도권을 제외한 어느 지역보다도 뛰어나 있으므로, 특히 기계공업과 電子工業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성장업종으로 등장하고 있는 「메카트로닉스」(MT)분야는 금후 대구지역 공업성장을 주도하는 주축공업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간 연관관계란 측면에서도 「메카트로닉스」산업은 대구의 섬유공업은 물론, 구미의 전자기공업, 浦項의 철강공업, 머지않아 생겨날 達城의 쌍용자동차공장, 대구의 三星自動車工場 등 과도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발전하게 될 것인 바, 이 산업이 대구 및 주변지역의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이고, 그 발전전망은 밝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메카트로닉스산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우수인력공급 측면에서 대구가 우위에 있는 업종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E)산업이다.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 半導體, 통신기계, 소프트웨어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수 있는 대규모 研究所의 설립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제도의 도입, 확충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들 업종의 유치기업·신규기업들이

25) 大邱慶北開發研究院, 《大邱纖維發展 5個年計劃》.

입주할 수 있는 尖端産業團地의 조성이 불가결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추진 중인 성서 첨단산업단지 및 尖端科學産業研究團地의 조성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²⁶⁾

이밖에 光學, 제어, 계측 등 精密器機분야와 醫療用器機분야도 내륙입지형 고부가가치업종이기에 대구지역에 적합한 적성업종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서술한 첨단섬유, 메카트로닉스,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등은 國策特性化 산업인 동시에, 대구지역으로 보아서는 비교우위의 확보가 가능한 內陸立地型 첨단산업들이므로, 이의 유치·육성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연구기관의 입지화에 힘쓰는 한편, 연구결과와 商品化와 생산 및 판매망의 구축사업 등에도 최선의 노력이 경주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대구지역에는 성서 3차단지의 일부지구에 三星商用自動車工場이 입지할 예정으로 있다. 자동차공업은 기계·전자·소재 등 모든 분야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산업연관효과도 큰 산업이다. 상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의 경우보다는 첨단부품, 첨단기술 등의 사용비중이 낮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각종 部品業界와 관련산업의 생산과 고용면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都市型 뉴비지니스의 育成

지식,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 産業情報化의 전진, 소비의 다양화·개성화·고도화 등 21세기를 향한 경제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속에서 선진제국의 대도시는 물론, 국내에서는 서울 등지에서부터 소프트웨어개발, 엔지니어링, 컨설팅, 디자인, 광고기획, 회의개최, 인쇄·출판, 문화·오락서비스업, 用役業 등 각종 對기업, 對개인서비스업 등 이른바 도시형 뉴비지니스가 성장업종으로서 새로운 각광을 받아 가고 있다.²⁷⁾

이들 새로운 도시형산업은 산업사회가 종전의 대량생산체제에서 脫工業化 사회, 즉 정보화·지식집약화 사회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기업내부의 제품개발, 생산활동과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의 분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분화된 기업지원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업체의 창업이 활발해지는데서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消費生活이 다양해지고, 高感性化가 됨에 따라 對개인서비스업도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산업을 가리켜 도시형 뉴비지니스라고도 한다.

26) 大邱直轄市·大邱慶北開發研究院, 《大邱經濟白書》, p. 569.

27) 崔龍浩, 〈大邱經濟 産業構造 高度化 方向과 戰略〉, 韓國銀行 大邱支店主催 地域經濟學術세미나, 1993. 10.

〈表 15-2〉 對企業서비스業의 事例

산업분야	신서비스산업	신 서비스 사업 (사 례)
생산기능	설계·공정관리 설비기기 리스·임대 생산관련 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빌딩임대	산업디자인, 상업디자인, 설계기술과전 디스플레이, 종합리스, 점포리스, 자동차리스, 사무용기기 임대, 상품검사·계량 증명업, 기술·특허정보제공, 안정성평가, 시스템엔지니어링, 인텔리전트빌딩
고용기능	인재확보 복리후생 능력확대	인재파견업, 재취업보조업, 종업원교육서비스, 종업원 의복향상시스템, 비즈니스 스쿨 .
판매기능	마케팅정보 공급 조사대행 판매촉진 수송대행서비스	시장조사업, 시장정보제공, 기업신용조사, 우편서비스, 소프트 엔지니어링 서비스, 해외사무실대행, 판촉용 VTR제작, 쇼핑웨어하우스, 세일즈 프로모션
관리기능	기획 정보처리관련 정보수집관련 유지·관리	컨설팅, 썬크탱크, 기획대행, 소프트웨어제작, 컴퓨터운용대행, 컴퓨터입력·검색, 데이터 보관·관리, VAN산업, 해외정보제공, 기업용 CATV, 인터뷰대행, 빌딩관리, 공장청소, 건물개축

이들 뉴비지니스는 각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를 갖춘 인재들에 의해 창업되는 것이며, 그 가운데는 대규모 기업이 생산하기 어려운 또는 대기업 상품들사이의 틈새시장을 겨냥한 소규모수요를 상대로 하는 소위 니치산업(Niche Industry)들이 큰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다.

이들 니치산업은 수요의 개성화, 다양화에 부응하는 전문성을 위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이지만,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도시형 뉴비지니스는 다종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는 대도시를 기반으로 번창하며, 대도시의 활력을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한다. 大邱市의 경우에도 금후 도시형 뉴비지니스가 성장산업으로서 점점 그 지위가 상승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表 15-3〉

對개인서비스업의 사례

산업분야	신서비스산업	신 서비스 사업 (사 례)
생활관리 가정관리	안전서비스 가사대행 가정합리화 가계관리 생활정보 주거서비스	가정용방법·방화서비스, 노약자안전서비스, 청소대행업, 주택개조, 운전대행업, 개인용리스 내구소비재수리업, 컴퓨터가계진단서비스, 자산운용컨설팅, 샐러니 론·신판업 중고주택감정·중개서비스, 주말휴양시설, 주차장임대
쇼 핑	재택쇼핑 스페셜 스토어 외식산업	카다로그판매업, 통신판매업, 통신슈퍼, 디스카운트 스토어, 편의점, 전문점체인, 교외형전문점, 패스트푸드, 케주얼 레스토랑, 알코올음료체인, 카페 바
사교·사회 참 가	Social support 관혼상제	회합사무대행서비스, 홈파티 기획·연출 커뮤니티신문, 결혼소개업, 결혼식장체인
스 포 츠· 레 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종합체육클럽, 테마파크, 별장임대서비스업, 야외레저기획서비스업, 스키가정배달
교육·교양	능력활용·개발 뉴미디어 활용	CAI, CMI교육서비스, 평생교육프로그램, 외국어전문학원, 교육정보서비스, 개인출판대행, 종합적 통신교육, 인재파견서비스
노 인 서 비 스	노인서비스	중고령의료호텔, 보형식양로원, 노인건강센터, 24시간 재택간호, 고령자맨션, 효도관광

2) 成長産業 振興을 위한 基盤造成

(1) 業務團地(Office Park)의 造成

개방화, 글로벌화시대의 새물결에 기민하게 적응하며, 21세기를 향한 지역주도 성장산업을 의욕적으로 육성해 나가자면, 지방도시인 大邱市의 경우에는 業務機能, 本社機能, 국제화, 정보화기능, 행정기능 등 종합적인 중추관리기능을 집적시킬 業務團地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서도 수도권의 과도한 비대화를 억제하기 위해 地方大都市의 중추관리기능을 강화시키고자, 釜山, 大邱, 光州, 大田 등 지방대도시의 성장관리를 계획하는 가운데 大邱市에 대해서는 특히 업무단지에 특화된 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²⁸⁾ 이는 매우 타당한 계획이라 생각되며, 대구지역으로서는 이를

28) 다음 2個 表는 崔龍浩, 앞의 보고서, p. 29에서 引用.

수용하여, 기왕이면 세계적으로도 名物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업무단지를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業務團地에는 지역의 主力産業 업체들의 本社를 유치, 입지시켜, 국경없는 시대에 세계를 상대로 하는 24시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情報의 수·발신기능, 금융·행정기능, 국제회의와 패션쇼, 전시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제반 시설물을 입주시켜야 한다. 이러한 업무단지는 21세기를 향한 대구지역의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업무단지의 건설사업은 官과 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규모는 런던과 오오사카, 파리 등의 업무단지의 규모를 참고로 비교적 규모가 큰 단지를 조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²⁹⁾

(2) 科學産業研究團地의 造成

대구지역에 지역적성 첨단산업을 입지시켜 육성 발전시켜 나가려면, 대구시에서 이미 수립한 과학산업연구단지의 조성산업은 반드시 실시로 옮겨져야 한다. 당초에는 이 사업은 國家計劃으로써 추진할 것으로 예정이 되었던 것이 그 후 예정이 변경되어 이제는 지역의 독자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이 科學産業研究團地의 건설계획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지역경제계의 최대의 숙원사업이 되어 왔으나, 국가계획으로서의 지정이 철회됨에 따라, 그후의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에 있다. 더구나 이 단지가 조성될 예정지인 성서3차단지에는 일부지역에 삼성상용자동차공장을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어 과학산업연구단지의 조성계획에 여러 모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의 계획으로는 대구의 과학산업연구단지내에 國策研究所, 기업부설 연구소 등을 유치·입지시키는 한편, 국제적인 科學技術 교류센터를 설치하여, 국제적인 기술 및 연구교류를 통한 첨단핵심기술의 개발과 첨단산업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며, 동시에 지역소재 대학과의 연구면의 제휴를 통한 產學協同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것이 삼성상용 자동차공장의 유치로 당초목표가 다소 변질·퇴색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실정이다.

그러나 대구의 과학산업연구단지의 조성계획은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三星商用自動車工場의 유치여부에 관계 없이 그 당초의 목표는 결코 변질되거나 퇴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³⁰⁾ 사실 21세기를 주도할 산업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성

29) 國土開發研究院, 《第3次國土綜合開發計劃》, pp. 135~136.

30) 大邱直轄市, 《大邱長期發展構想》, 1993, pp. 139~140.

장·발전하는 산업인 만큼, 대구경제의 미래운명은 바로 이 과학산업연구단지의 조성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Ⅲ. 流通業의 現代化와 物流體系의 整備

1. 流通業의 現代化

오늘날 많은 小賣店은 근년의 소비자 需要의 다양화, 新製品러시에 의한 취급품목의 증대, 상품수명의 단축화, 출점비용의 증대 등의 요인때문에 점두재고를 극한으로까지 압축하면서, 판매효율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都賣業에 대한 소액·다빈도 발주가 일반화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업에서는 物流活動의 개선·강화가 극히 중요해지고 있다.

都賣業에 있어서도 食品·雜貨 등 대량생산품을 취급하고, 이들을 대형소매업으로 납품하는 物流機能特化型 도매업에서는 과잉재고를 회피하며, 공급부족이나 결품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머천다이징기능의 강화와, 流通加工과 多頻度 소액운송을 가능케하는 물류(배송)기능의 강화가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독립적인 中小小賣店으로 식료품·잡화 등 대량생산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이 도매업으로서의 업적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선소매점으로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기능을 강화하면서 상품에 관한 제반 정보도 제공하는 情報機能特化型 도매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물류기능특화형 도매업에 있어서이건, 정보기능특화형 도매업에 있어서이건, 물류활동의 강화는 기본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주·發注·納品으로부터 出庫·배송까지의 전과정을 하나의 공정으로 파악하고, 일련의 수·발주정보의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과 입출고 등의 하역업무·배송업무 등 물류작업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일체로서 개선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³¹⁾

한편 小賣業은 지역경제에 있어 취업 및 소득의 중요한 담당자일 뿐 아니라, 소매집적체로서의 商店街는 생활서비스기능 및 文化的 기능면의 사회적 역할도 크다. 특히 상점가의 이들 기능은 최근들어 「도시가꾸기」란 都市政策的 観点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나아가 지역개발이나 도시가꾸기에 있어 상품기능의 어메니티性이나 어뮤즈멘트性까지도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流通業의 취업비율은 도매업의 경우 그 광역성에 비추어 상위도시일수록 높고,

31) 崔龍浩, 앞의 논문, p. 26.

소매업의 경우는 오히려 지방권이나 하위도시에서 그 취업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小賣業은 지역적 산업이기 때문에 그 성장형태는 지역시장을 포섭하는 과정으로서 나타난다. 1970년대의 대형슈퍼의 전국적 체인화는 그 전형적 예이며, 1980년대의 일반적 市場條件의 성숙화하는 이러한 양적 확대전략의 변화를 초래하여 대형소매자본은 경영의 다각화, 신서비스상품의 도입 등에 의한 지역시장의 심화에 주력하고 있다. 生産面의 다품종소량체제로의 이행도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零細소매상이나 大型소매상이나 새로운 업태에 의해 도태당한다고 하는 소위 「商業近代化」의 도식은, 취업형태의 전환이나 상업집적 내지 상점가의 재편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결코 적지는 않은 바, 지역에 있어서의 소매업의 역할이 새삼 중요시되어가고 있다.³²⁾ 우리나라의 경우 都市化의 진전과 더불어 1960~70년대에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 중심으로 소매업의 성장률이 높았었으나, 1980년대 이후로는 소매업성장이 「地方化」단계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1980년대 이후로는 수도권의 소매업 성장률이 둔화되는 반면에, 지역간 성장률 격차가 평준화 경향을 나타내고, 도시부에서는 「郊外化 現象」이 또한 나타나고 있다.

또한 百貨店이나 量販店 등 지역의 대형소매자본은 新業態의 전개로 컨비니언스·스토어, 디스카운터 스토어, 홈센터, 無店鋪販賣등의 업태개발을 통하여 소비수요의 환기에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1980년대 이후의 지역소매업 再編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이밖에 지역자본에 의한 中堅프렌차이즈·체인의 진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형소매자본이나 지역중견자본들의 新業態 전개에 의한 지역시장침투는 재래시장의 기존 영세소매상의 존립기반을 잠식하여, 이로 인한 이들 영세소매상의 轉廢業을 통한 지역소매업의 개편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영세소매업은 그 집합체인 상점가 또는 장터의 구조개선 재정비 등을 통하여 현대적 점포형태로 바뀌어 가며, 이것이 都市發展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지역에 있어서의 이러한 새로운 小賣資本의 업태전개는 自營商人層의 분해와 雇傭市場의 확대라는 형태로 勞働市場의 재편성을 초래하고 있다. 소매업에 있어서의 방대한 영세자영상인층의 퇴적은 「過剩人口의 풀」로서 不完全 취업형태로 간주되어 왔지만, 반면에 中高齡層의 취업에 기여하는 지역적 역할도 수행해 왔던 것이다.³³⁾ 더구나 빠른 속도로 高齡化社會로 이행해 가고 있는 지역경제로 보아서는 취업면에서 영세소매업은 중요한 역할을

32) 日本中小企業廳指導課 監修, 《中小企業の新しい戰略・傾向》, 同友館, 1991, pp. 194~201.

33) 絲園辰雄外 3人編, 《小賣業》, 大月書店, 1989, pp. 126~127.

하고 있고, 특히 在來市場이나 商店街를 중심으로 집합체를 이루어 상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의 存立樣式은 지역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경제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시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流通產業의 현대화 및 발전방향을 주시하며, 都賣團地의 조성을 통한 도매업의 진흥과 재래시장의 근대화, 부도심지 상가 및 지하상가 조성 등을 통한 소매업의 진흥에도 주력하고 있지만,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역유통산업의 발전과 도시개발과를 어떻게 연계지워 그 조화를 기해 나갈 것인가에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2. 物流革新의 地域的 展開

물류활동이란 完製品 또는 原料의 공급원으로부터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화물의 수송, 보관, 하역, 포장, 가공 등의 활동을 총괄해서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러한 활동이 최근에는 技術革新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어, 이들 활동에 소요되는 物流코스트와 시간이 크게 절감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³⁴⁾

파레트(Pallet)방식, 컨테이너방식 등의 도입을 비롯해서 하역·배송시스템에 있어서의 기계화·일렉트러닉스화에 의한 自動化, 정보화는 물류활동에 있어서의 情報流通革命이 진행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이러한 물류혁명의 흐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

더구나 도시로의 人口集中과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 따른 去來物資의 종류 및 수량의 비약적 증대는 교통의 혼잡과 더불어 都市流通體系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에, 이러한 物流시스템에 있어서의 정보유통혁명의 추진은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도 대구시 당국에서는 최근들어 시내 北區지역·교통의 요충지에 41만평에 달하는 공간에 綜合流通團地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 1993년 7월부터 입주자 분양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1994년부터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내역은 다음과 같이 되고 있으며, 總建設費用 1조 6,20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까지 완성할 예정으로 있다.³⁵⁾

34) 앞의 책, p.132.

35) 深見義一外 2人, 《流通問題入門》, 有斐閣雙書, 1970, pp. 275~282.

〈表 15-4〉 綜合流通 團地施設內譯		(단위: 천평)
무 역 센 타	무역관, 전시장, 야외전시장, 호텔	40
도 매 단 지	패션마트, 개별기업관, 산업용재, 가전제품 도매관	145.7
물 류 단 지	유통물류, 섬유허물류, 철강단지	57.3
지 원 시 설	아파트, 열병합발전소, 오수처리장, 전화국	16
공공용지, 기타	도로, 공원 및 녹지	153

貿易센타- 해외 바이어들이 이곳에서 모든 무역업무 완결

都賣團地- 판매 및 정보기능, 쇼룸, 종합 쇼핑점 등을 입주시켜 1차적 도매기능 수행 및
낙후된 봉제, 디자인, 패션 등 창조적 기능의 개발로 고부가가치 실현

物流團地- 물적 유통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한편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漢藥材 도매시장도 유통센터 형태로의 그 건설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증대하는 유통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西大邱貨物驛의 건설계획과 대구시 동, 서방 적지에
綜合貨物터미널 건설계획도 추진될 예정으로 있다.³⁶⁾

또한 삼성, 럭키 등 대기업에서 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별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스스로
유통시스템의 합리화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민간부문에서의 革新導入으로 대구지역
전체로 본 물류시스템의 발전은 가일층 촉진되어, 이것이 대구 流通產業의 근대화는 물론
도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IV. 活氣찬 中小企業의 育成

1.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發展段階

우리나라 中小企業은 1950년대까지는 국민의 生活必需品 충족을 위한 내수산업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발전을 하다가,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에는 정부의 輸出振興政策에 힘입어
기업수나 경영규모면에서도 현저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수출진흥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시되어, 주로 금융지원, 조직화 등의 측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로 접어들어 重化學工業化 과정이 진행되면서 정부지원책의 중점이 대기업

36) 大邱直轄市·大邱慶北開發研究院, 《大邱經濟白書》, 1991, p. 399.

육성쪽으로 옮겨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1970년대에는 중소기업이 數的으로 줄어들기까지 했다. 반면에 財閥企業들이 형성되고 中堅企業들이 늘어나, 심지어 1976년까지는 전체기업수가 줄어들기까지 했다.³⁷⁾

한편 1980년대로 들어와서는 전체기업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수도 늘어나, 전체 기업수에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도 1976년의 95.9%에서 1986년의 97.6%로 향상되었다(1960년대의 중소기업 비중은 99% 이상이었음).³⁸⁾ 이처럼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大企業 중심으로 재벌체제가 형성되면서 經濟力의 집중화가 이루어진 반면에, 중소기업의 기반은 약화되었다. 재벌에 의한 기업그룹의 형성과 경제력 집중은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업에 대한 높은 參入障壁을 형성하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재벌기업들의 사업확장은 기존 유망 중소기업을 흡수, 통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위축되기 마련이었다. 이리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는 產業聯關的 보완관계보다도 오히려 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되어, 이것이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동안의 중화학공업의 건설과정에서 초래된 資本財수입의 對日依存구조와 完製品수출의 對美依存構造의 심화,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된 素材部品工業의 저개발은 중소기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본시 部品生産者로서의 중소기업과 완제품생산자로서의 대기업사이에는 生産工程上的 유기적인 네트워크체제가 형성되어 相互補完的 체제가 구축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분업이 고도로 발달하며, 중소기업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³⁹⁾

그런데 政策的인 측면에서 본다면, 1950년대의 우리 나라 중소기업정책은 生業的·家族經營단계의 중소기업경영에 대한 금융지원 중심의 단편적, 미봉적 지원책이 위주였으나, 1960년대로 들어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부터는 비로소 중소기업에 대한 본격적 체계적인 정책이 모색되어, 中小企業銀行의 설립, 中小企業基本法의 제정, 중소기업제품의 輸出促進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이 펼쳐지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대기업과의 下請系列化 및 專門化 촉진에 중점을 두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近代化 시책에 주력했으나, 결과는 중화학공업육성이란 產業政策의 우위성 때문에, 資源配分이

37) 大邱直轄市, 《大邱長期發展構想》第2章 第3節.

38) 夫光植, 앞의 책, p. 251.

39) 夫光植, 앞의 책, p. 251.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중소기업의 발전은 기대될 수가 없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 특히 1986년 對外黑字經濟가 실현되면서부터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시도되어, 특히 중소기업의 저변확대 및 構造高度化정책에 중점을 두어 1990년대를 「中小企業의 年代」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보완적 상호의 존관계를 증진시키고자 대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대한 資金, 經營, 技術 등 여러 면으로의 협조를 공여토록 촉구하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⁴⁰⁾

1990년대는 우리 나라 경제 전체로 보아 國際化, 開放化, 情報化를 이룩해야 할 시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가경제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中小企業은 하루 속히 經營·기술면의 革新을 이룩하여 國際競爭力을 확보하고, 生産·판매 등 모든 활동면의 정보화·컴퓨터화를 이룩하여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므로써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도 네트워크체제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大邱地域 中小企業의 戰略課題

1) 中小企業支援施策의 地域的 受容態勢

大邱市는 중소기업도시라 일컬어질 만큼 전국적으로도 중소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1992년 현재 대구의 總製造業體數 4,656개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7%나 되며,⁴¹⁾ 이들 중소기업의 성패여부가 지역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육성, 개발시키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全國經濟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구의 경우에도 21세기를 향한 중소기업시책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구축에 그 기본방향을 두어, 知識集約的 生産시스템의 구축과 기술혁신에 최중점을 두어야 할 실정에 있는 것이다. 대구가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중소기업도시인 만큼, 정부의 中小企業支援施策은 지역적으로는 대구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1980년대로 들어와 중화학공업이 발전국면을 맞이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에 대한 부품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재인식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시책이 종합성·체계성을 띠면서 보다 적극화되었다. 즉 1982년부터는 中小企業振興長期計劃(1982~1991)이 추진되면서 그 효과적인

40) 清成忠男, 《中小企業》, 日經文庫, 日本經濟新聞社, 1986, pp. 20~21.

41) 商工資源部, 《中小企業에 關한 年次報告書(1993年度)》, p. 35.

추진을 위해 기존 中小企業關係法을 개정·보완한데 이어,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1986) 등을 제정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기에는 무역흑자에 따른 원화절상, 임금상승에 대처하며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와 해외진출까지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안을 둔 「中小企業의 經營安定 및 構造調整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1989)을 제정하여, 이에 입각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도 설치하여 1조원 이상을 조성키로 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 정부는 1989년 8월에 「中小企業技術開發計劃」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정보화사업의 지원, 生産技術研究機關의 설립 등 다각적인 지원방향을 강구하는 한편, 기술개발자금의 지원, 기술지도, 기술인력의 양성, 훈련, 중소기업간의 기술교류 촉진,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시행해 왔고, 1989년부터는 「中小企業情報化促進 5個年計劃」도 수립, 추진 중에 있다.⁴²⁾

중소기업도시인 대구로서는 이들 중앙정부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적용받음에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용태세를 정비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하며, 특히 이들 시책을 전달하는 입장에 있는 대구시 당국 및 관련기관들은 중간매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실정을 옹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地域中小企業의 技術開發促進

1990년의 대구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관련 資金支援 실적을 보면, 우선 研究開發資金의 경우 지원받은 대구의 업체수는 전국비 6.5%(금액기준으로는 6%)였는데 비해, 個別情報化資金의 경우는 대구 업체수의 비중이 8.3%(금액기준으로는 9%)였다. 또한 공정개선 및 施設近代化資金의 경우는 대구 업체수의 비중이 11.4%(금액기준으로는 11.9%)나 되었다.

한편 創業助成資金의 경우는 지원받은 대구의 업체수 비중이 5%(금액기준은 4.2%)였는데 대해, 20인 이상의 小企業資金의 경우는 대구의 업체수 비중이 14%(금액기준도 14%)나 되었다. 그리고 技術先進化業體의 발굴실적은 대구의 업체수가 10%를 차지했고, 大企業移讓事業資金의 배정실적에 있어 대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9%(금액기준 5%)에 불과 했다.⁴³⁾

이러한 실적을 두고 볼때, 대구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화자금, 工程改善 및 시설근대화자금, 소기업자금 등에서 비교적 많은 지원을 받은 반면에, 연구개발자금, 창업조성자금, 대기업이 양사업자금 등에서는 비교적 적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자금지원이

42) 大邱直轄市·大邱慶北開發研究院, 《大邱經濟白書》, 1991, p. 279.

43) 夫光植, 〈우리나라 中小企業情報化의 緊要性과 地域의 課題〉《春溪朴光淳博士還甲記念論文集》, 1993, pp. 205~206. 또한 商工資源部, 앞의 보고서, 제2장도 참조.

불균형한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研究開發資金과 創業助成資金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대구의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노력면에서 부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업원 20인이하 중소기업이 전체 제조업체의 56%나 되는 대구의 중소기업계로 보아서는 기술개발, 新商品開發 등을 위한 자율적인 연구개발 노력은 개개 기업별로는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못하다. 따라서 同種 業種別로 또는 그룹별로 공동의 연구개발시설을 갖추어, 新技術, 신상품개발 등을 위한 공동의 R&D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시책도 이러한 공동개발체제로 추진되는 研究開發投資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들의 공장내 生産現場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생산기술을 조금씩이라도 개선, 개량하며, 이를 축적해 나가는 經驗工學의인 기술개발 노력은 혁신적인 신기술의 도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이러한 생산현장에서의 점진적인 기술향상 노력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는 工場內 學習 및 연구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의 技術情報交流를 촉진하여 해외 선진기술의 흡수, 소화에도 주력해야 하는 바, 국제적인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機構, 시설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 제3섹터의 投資方式으로 지역의 독자적인 中小企業振興센터와 같은 시설물을 건립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기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면, 지역업체의 기술개발 노력이 크게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 展示會, 국제회의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특정기술을 위한 研修教育 등도 실시한다면, 많은 성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⁴⁴⁾

3) 産·學協同體制의 構築

지역중소기업의 기술을 첨단화하고 革新的인 중소기업을 많이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지역에 존재하는 大學들과 지역의 中小業界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기필코 필요하다. 21세기의 산업사회는 尖端産業이 주도하는 사회인 만큼, 중소기업도 첨단기술산업화를 추구해야 하고, 그러자면 대학의 연구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産學協同을 증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⁴⁵⁾

대구는 예로부터 教育都市로서 6개 綜合大學을 위시해서 전문대학 등 많은 대학이 있어 연구시설과 연구인력이 풍부하므로, 산학협동에는 유리한 기반이 확보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44) 大邱直轄市·大邱慶北開發研究院, 《大邱經濟白書》, 1991, pp. 288~291.

45) 日本의 경우 大阪府, 名古屋 등 主要都市에는 훌륭한 中小企業會館들이 設立되고, 中小企業人들이 多様な 交流研修活動을 할 수 있는 프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산학협동체제가 옹게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大學側에서나 지역의 중소기업계측에서도 상호교류를 위한 意志가 서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信賴가 부족한 것도 양자간의 협동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선진제국의 경우, 美國의 실리콘벨리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의 연구결과가 대학주변의 공업단지내 기업 또는 新規工場에 의해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새로운 또다른 기업을 派生(spine off)시키기도 한다. 벤처캐피털, 인큐베이터 制度 등은 이러한 새로운 신규기업의 spine off 과정을 촉진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⁴⁶⁾ 우리 대구지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산학협동에 바탕을 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개발과 함께 혁신적 중소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산학협동체제의 구축사업은 地方自治團體인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위에서 언급한 地域中小企業振興센터내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常設機構로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협동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요컨대 산학협동을 촉진, 지원하는 行政窓口가 지방자치단체내에 설치되어 효과적으로 활용, 운용되는 체제가 하루 속히 확립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4) 研修教育體制의 確立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稅制 등 여러 면으로의 지원시책이 체계화되어 종합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21세기를 내다 볼때 여러 지원시책 중에서도 특히 研修教育面의 지원시책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갈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시책은 주로 금융, 세제, 組織化面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펼쳐져 왔으나, 앞으로는 국제면의 開放化, 自由化가 진전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책에도 제한이 가해져 갈 것이며, 더구나 산업발전의 단계로 보아서도 앞으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중점은 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특히 중소기업 經營者 및 從事者들에 대한 연수·교육에 두어질 것이다.

21세기의 產業組織은 첨단기술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水平的 네트워크체제가 근간을 이룰 것이며,⁴⁷⁾ 중소기업이 그런 단계에까지 도달하려면, 정보화·지식집약화를 주축으로 하는 革新의 도입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정보화 혁신을 이룩하자면 중

46) 長州一二外 2人, 앞의 책, p. 336. 또한 日本經濟企劃廳 綜合計劃局編, 앞의 책, pp. 155~117.

47) 中村秀一郎, 《挑戰する中小企業》, 岩波新書, 1985. pp. 155~158.

소기업의 경영자와 종업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研修·교육의 지속적 실시가 불가결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러한 연수교육면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구가 우리 나라에서는 대표적인 中小企業都市인 만큼, 일본의 中小企業大學校 제도를 우리 대구에도 도입하여,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수·교육사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수교육기관의 建設費와 運營費는 제3섹터방식에 의해 조달되도록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반면에 21세기를 향한 지역중소기업계의 발전에 미치는 그 投資效果는 어떤 지원책에 비해서도 크다고 할 것이다.

5) 國際化·開放化에의 對應

쌀개방에서 국제화·개방화의 의미가 명확히 이해되듯이, 지역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국제화·개방화의 의미는 충격적인 것이다. 대구의 중소기업상품이 이제 바로 대구의 시장에서 선진제국의 상품과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 國境없는 지역경제가 빠른 속도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냉혹한 국제경쟁에서 우리 지역의 中小企業들이 살아남고 오히려 그 충격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성장을 지속하고 발전해 나가려면, 지역의 중소기업계 스스로가 經營革新, 기술개발, 공동의 연구개발 등 모든 면에서 피나는 자율적인 대응노력을 펼쳐나가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지역의 官과 民이 하나가 되어 지역사회 전체가 능동적으로 國際化 물결에 적응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⁴⁸⁾

이처럼 경제·사회의 内外一體化가 가일층 진전됨에 따라 우리 나라 국제기능의 지역분산이 진요해지고 있으며, 지역의 국제화 중에서도 중소기업에게 가장 익숙한 海外貿易活動이 더욱 활발해지고, 점차 對外投資 활동을 확대해가는 단계로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국제화를 더욱 촉진시키자면, 우선 지역의 特産物, 傳統技術 등의 지역자원을 살린 해외무역의 가일층의 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하지만, 그러자면 지역의 중소기업이 지역무역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하고, 이들의 대외활동을 뒷받침할 空港·港灣, 국제적 情報網 등 국제화 관련 사회간접자본이 정비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지역사회 전체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의 國際化基盤事業을 의욕적으로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8) 앞의 책, pp. 174~177.

〈姉妹結緣의 체결〉

우리 대구지역의 국제화를 촉진하자면 우선 그 중추가 될 대구시 전체로서의 국제교류의 기반구축이 중요하며, 특히 外國都市와의 자매도시 제휴는 중요한 과제이다.⁴⁹⁾ 서울, 釜山 등 타도시에 비해 국제화 노력면에서 대구가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바, 금후 자매결연의 체결은 물론 사람 대외교류를 활발화시킴과 동시에, 海外文化의 소개, 지역정보의 海外發信 등 문화교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市内 거리나 商店 등의 간판이 모두 한글만으로 되어있는 것도 하루 속히 시정 되어야 할 것이다.

〈國際關聯 프로젝트의 活性化〉

지방자치단체나 商工會議所 등이 주도하여 海外見本市場으로의 공동출자, 해외연수의 실시 등 국제관련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역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국제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해외기업과의 거래기회의 확보, 海外派遣人才의 육성 등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를 살려 국제화를 더욱 증진시켜나갈 수가 있다.⁵⁰⁾

또한 지역중소기업이 보유하는 技術, 경영노하우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관심도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해외기술연수원의 공동인수, 技術協力 등 경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프로젝트가 더욱 더 활발해질 것이며, 지역중소기업들이 이들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가함으로써 국제화 물결에의 능동적 적응이 촉진될 수가 있을 것이다.

〈國際化에 대응한 人才育成〉

지역의 국제화와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화에 대응한 인재육성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이런 측면에서의 노력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국제화를 위한 지역중소기업의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教育機關을 설립하는 등, 공동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⁵¹⁾

〈國際交流 컨벤션活動의 활성화〉

지역사회 전체로서 국제교류이벤트를 활성화시키면서, 특히 이들 이벤트에 지역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國際交流이벤트 중에서도 해외무역·투자관계 컨벤션을 많이 개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貿易·投資關係 컨벤션의 개최는 지역중소기업의

49) 日本中小企業廳 指導部 指導課, 앞의 책, pp. 111~118.

50) 日本中小企業廳長官 官房調査課編, 《最新中小企業キ-ワ-ド》財團法人 經濟調査會, 1992, p. 146.

51) 앞의 책, p. 147.

국제화, 나아가 지역 전체로서의 국제화 진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므로, 지역사회 전체로서 이들 무역·투자 컨벤션사업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國際見本市·國際商談會 등에도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가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지역주도로 개최되는 국제교류이벤트에는 반드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는 태세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교류이벤트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정보의 수집, 이미지향상, 市場調査 등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⁵²⁾

〈外資企業과의 提携〉

국제화·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외자기업의 국내진출이 활발화되고 있다. 외자기업의 국내진출은 우리 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競爭相對의 증가를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事業提携를 통하여 비즈니스·찬스를 확대시키는 길이 되기도 한다. 외자기업과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비즈니스 찬스의 확대 뿐만 아니라, 經營의 국제화, 共同事業의 추진, 기술도입, 정보입수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나아가, 공동연구, 新規 研究開發事業에의 공동진출 등 다양한 제휴관계를 맺어갈 수도 있다.

외자기업의 유치·입지화를 위해서는 投資自由地域의 설치 등 국제화에 대응하는 工業團地의 조성 내지 국제적인 교류거점의 조성, 정비가 필요하다. 대구지역내 또는 그 인접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유지역을 조성하여 외자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루 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大企業에 비해 정보·기술등의 경영자원이 빈약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異業種교류나 同業者組合 등에 의한 경영자원의 상호보완·고도이용으로의 노력이 진행되는 도상에 있었지만, 앞으로 외자기업들이 진출해 들어온다면, 이들과의 교류를 통한 經營의 고도화를 기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영면의 국제화도 촉진되어 갈 것이다.

第2節 2000年代 大邱經濟의 未來像

I. 主要經濟指標의 展望

1. 人 □

최근에 수립된 大邱長期發展構想에 따르면, 2000년대 대구직할시의 행정구역내 계획인구는

52) 앞의 책, p. 147.

인구의 자연증가추세 둔화, 도시화의 진전속도 둔화 등 외적인 요인과 대구직할시의 과거 인구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2001년에 300만명, 2011년에는 330만명(도시계획구역내로는 3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家口數로는 가구당 평균인구가 1980년에는 4.4명이었으나, 이것이 2001년에는 3.6명, 2011년에는 3.3명 등으로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볼때, 대구의 가구수는 1990년의 약 62만 가구에서 2011년에는 103만 가구로 증가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³⁾

2. 地域總生産(GRP)

최근에 발표된 統計廳 자료에 따르면, 대구직할시의 GRP는 경상가격으로 1986년의 3조 7,300억원에서 1991년의 8조 4,900억원으로 늘어나, 實質經濟成長率은 이 기간중 年평균 9.6%로서 전국평균 10.8%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慶尙北道의 연평균 성장률 10.5%에 비해서도 낮은 실적이었다.⁵⁴⁾

1인당 GRP는 대구직할시의 경우 1986년에 179만 3,000원(2,035달러)이었던 것이 1991년에는 381만 5,000원(5,201달러)이 되어 1986~1991년 기간중 2배로 늘었으나, 전국평균을 100으로 본 수준지수는 1991년에 79.6에 불과하여, 경북의 109.3에 비하면 더욱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慶北의 인구는 계속 감소했는데 반해, 大邱의 인구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대구의 1인당 GRP가 1991년 현재 전국 15개 市·道중 끝에서 두번째인 14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수 없으며, 전국평균을 100으로 본 수준지수가 1985년의 80.4에서 1991년에 79.6으로 낮아졌다는 것 또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⁵⁵⁾ 이렇게 된 그 주된 원인이 纖維産業 一邊倒인 대구의 취약한 産業構造에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된 후 인구가 급속히 늘어난 데도 하나의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수립한 대구장기발전구상에 따르면, 대구의 GRP가 1986년의 약 3조 8,000억원에서 2011년에는 136조 8,767억원이 되어, 1인당 GRP도 전국평균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다. 또한 대구 GRP성장률도 전국수준을 상회하여 대구GRP의 對 전국비중이 1986년의 4.2%에서 2001년의 5.8%, 2011의 6.3%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⁵⁶⁾ 이렇게 대구 GRP의 위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까닭은 섬유산업의 高

53) 大岡 哲, 앞의 책, pp. 98~115.

54) 大邱直轄市 《大邱長期發展構想》 p. 57.

55) 統計廳, 《道內總生産推計結果(1985~1991年度)》, 1993, p. 37 및 p. 71.

56) 위의 책, pp. 36~37.

附加價值化와 새로운 첨단기술산업의 입지화가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것도 1인당 GRP의 위상을 높이는 작용을 할 것이다.

3. 産業構造

대구장기발전구상에 의하면, 대구의 산업구조는 2011년까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表 15-5〉 産業構造의 變化 (단위 : %)

구 분		1985	1991	1996	2001	2006	2011
전 국	제1차산업	14.9	10.3	—	8.1	—	—
	제2차산업	31.0	31.5	—	32.8	—	—
	제3차산업	54.1	58.2	—	59.1	—	—
대 구	제1차산업	1.6	1.0	0.7	0.5	0.4	0.3
	제2차산업	32.9	33.1	33.3	33.5	32.6	31.7
	제3차산업	65.5	65.9	66.0	66.0	67.0	68.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의 1차산업은 그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2차산업은 2001년까지는 상승했다가, 그 후 낮아져 가며, 3차산업은 계속 높아져 2011년에는 68.0%나 되어 산업구조가 서비스화, 소프트화의 비중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⁵⁷⁾

4. 就業構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취업구조도 달라질 것인 바, 대구장기발전구상에 따르면, 대구의 산업별 취업구조는 〈表 1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2011년의 대구의 취업구조는 산업구조의 변화패턴과는 다소 다르게 1990년 이후 1차 산업과 2차산업의 就業比重은 계속 낮아지는 반면에, 3차산업의 취업구조는 1990년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더듬어 目標年度인 2011년에는 3차산업의 취업비중이 70%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⁵⁸⁾

57) 大邱直轄市, 《大邱長期發展構想》, pp. 58~60.

58) 위의 책, pp. 60~61.

〈表 15-6〉 大邱의 産業別 就業構造의 展望 (단위: 천명, %)

구 분		1990	1996	2001	2006	2011
계	획 인 구	2,310.0	2,900.0	3,150.0	3,300.0	3,400.0
15	세 이 상 인 구	1,624.0	2,128.6	2,349.9	2,508.0	2,618.0
경	제 활 동 인 구	897.0	1,277.2	1,456.9	1,605.1	1,727.9
경	제 활 동 참 가 물	55.2	60.0	62.0	64.0	66.0
취	업 륜	97.1	97.2	97.3	97.5	97.5
취	업 인 구	871.0	1,241.4	1,417.6	1,565.0	1,684.7
취 업 인 구	농 · 임 · 어 업	18.0	19.9	17.0	15.7	11.8
	(%)	(2.1)	(1.6)	(1.2)	(1.0)	(0.7)
	광 · 공 업	307.0	396.0	450.8	485.1	493.6
	(%)	(35.2)	(31.9)	(31.8)	(31.0)	(29.3)
	사 회 간 접 및 기 타 서 비 스 업	546.0	825.5	949.8	1,064.2	1,179.3
	(%)	(62.7)	(66.5)	(67.0)	(68.0)	(70.0)

5. 生活環境 및 社會開發指標

대구장기발전구상상의 생활환경지표 및 사회개발지표를 열거해 보면 〈表 15-7〉 및 〈表 15-8〉과 같다.

이들 표에서 주요한 지표만을 살펴 보면, 우선 住宅普及率이 1990년의 63.6%에서 2011년의 90.0%로 향상되고, 道路率도 같은 기간 중 14.2%에서 28.0%로 높아지며, 下水처리율은 30.5%에서 100.0%로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사회개발지표로는 우선 綜合病院이 1990년의 8개에서 2011년에는 20개로 늘어나며, 老人福祉館은 1990년까지 없었던 것이 2011년까지는 8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체장애인시설도 1990년의 6개에서 2011년에는 46개로 늘어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⁵⁹⁾

59) 앞의 책, pp. 61.

1) 生活環境指標

〈表 15-7〉 大邱의 生活環境指標

구 분		단 위	1990	1996	2001	2006	2011
주 택	주택보급률	%	63.6	73.9	80.0	85.0	90.0
	주택수	천 호	334	469	594	738	883
	아파트	천 호	98	217	347	454	581
	연립주택	천 호	8	10	12	15	18
	단독·다세대주택	천 호	228	242	255	269	284
교 통	1일 총통행량	천통행	—	6,183	6,810	7,501	8,262
	도로를	%	14.2	20.0	22.0	25.0	28.0
	포장률	%	83.0	90.0	95.0	97.0	99.0
	자동차 1대당 인구	명	10.3	7.0	4.7	3.8	3.5
	지하철 수송분담률	%	—	7.0	14.3	26.5	31.7
상 수 도	보급률	%	97	98	99	99	99
	1인1일 급수량	ℓ	385	473	520	534	548
	최대수요량	천t/일	985	1,416	1,776	1,945	2,059
	시설계획량	천t/일	1,220	1,680	1,820	2,220	2,220
하 수 도	하수처리률	%	30.5	90.0	100.0	100.0	100.0
	하수발생량	천t/일	950	1,450	1,727	1,820	1,875
	하수처리량	천t/일	290	1,330	1,730	1,820	1,875
쓰 레 기	1인당 배출량	kg/일	2.1	1.75	1.6	1.5	1.3
	총배출량	t/일	4,851	5,075	5,040	4,950	4,420
	불연성물질	%	65	52	40	28	20
	가연성물질	%	35	48	60	72	80
분 뇨	1인당 배출량	l/일	1.0	1.0	1.0	1.0	1.0
	총배출량	K/일	2,310	2,900	3,150	3,300	3,400
	수세화률	%	60	70	80	83	85

2) 社會開發指標

〈表 15-8〉

大邱의 社會開發指標

구 분		단 위	1990	1996	2001	2006	2011
의료·보건	병·의원	개	1,41	1,871	2,080	2,480	2,980
	종합병원	개	8	10	15	17	20
	의사수	명	2,797	3,816	5,580	6,400	7,260
	병상수	개	6,716	13,980	17,700	22,000	23,400
	보건소	개	7	8	10	14	14
사회복지	노인복지관	증설수	—	3	3	5	8
	노인작업장	증설수	—	7	2	3	2
	여성회관	개	1	2	4	6	8
	양노원	개	4	20	32	47	65
	경노당	개	397	497	617	707	807
	신체장애인시설	개	6	16	26	36	46
	부랑인 시설	개	1	3	4	4	4
교육	유치원 취학률	%	20.0	40.0	60.0	70.0	80.0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명	31.8	30.0	30.0	28.0	26.0
	국민학교 취학률	%	100.0	100.0	100.0	100.0	100.0
	국민학교 학급당 학생수	명	47.4	46.0	45.0	43.0	40.0
	중학교 진학률	%	99.0	100.0	100.0	100.0	100.0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명	50.4	50.0	45.0	43.0	40.0
	고등학교 진학률	%	95.0	98.0	100.0	100.0	100.0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명	52.5	50.0	40.0	38.0	35.0
	대학교 진학률	%	60.0	70.0	80.0	85.0	90.0
문화	구민회관	개	—	1	4	9	10
	도서관	개	5	7	10	14	16
	박물관	개	4	5	6	6	8
	과학관	개	1	2	3	4	5
	문화예술회관	개	1	1	1	2	2
	국제문화센터	개	0	0	1	1	1
	오페라하우스	개	0	0	1	1	1
	조각공원	개	0	1	2	3	4
	야외공연장	개	0	1	3	4	6

II. 實現可能性과 展望

1. 實現可能性

대구경제의 未來像을 나타내는 위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떤지를 좌우하는 궁극적인 요인은 대구의 産業構造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대구경제가 계속 활력있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느냐에도 달려 있다.⁶⁰⁾

그런데 산업구조의 변화는 市場에 있어서의 기업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대구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것도 政府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바로 지역의 企業들인 것이다.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줄 뿐이다. 需要의 변화, 기술의 변화, 世界經濟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기업은 쇠퇴하고, 변화에 앞장서 적응하는 기업은 성장, 발전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I) 産業構造의 전환을 저해하고 있는 제반 규제를 폐지하는 일.

(II) 전환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倒産이나 失業을 방지하고, 전환의 마찰을 줄이는 일.

(III)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新技術의 개발 등에 의해 전환을 촉진하는 일.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한 정부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하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전환을 수행하는 것은 기업이다. 바야흐로 市場需要나 기술,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 등 대내외 환경조건 변화동향으로 볼 때, 지역의 기업들은 이 줄기찬 환경여건의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 남기가 어려워지고 있다.⁶¹⁾

J.A.슈페터는 經濟發展의 원동력이 기업의 혁신을 도입하는 기능에 있음을 강조하며, 혁신의 내용을 ① 新商品의 생산, ② 새로운 生産方法의 도입, ③ 新販路의 개척, ④ 原料·半製品의 新供給源의 확보, ⑤ 낡은 조직의 파괴와 新組織의 형성 등 5가지를 들고 있다.⁶²⁾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동안 우리 경제의 復興期, 成長期, 調整期의 각 단계에서 이들 혁신을 수행하며, 우리 나라 산업구조의 전환, 고도화를 실현시켜 왔던 것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들의 産業構造轉換活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정부의 역할은 컸다고 평가된다. 우리 나라도 日本通産省(MITI)의 산업정책과 같은 정책을 써왔다고 할 수 있거니와, 産業政策에는 쇠퇴산업의 전환을 마찰없이 이루게 하는 調整

60) 앞의 책, pp. 62~63.

61) 安東誠一, 《地方の經濟學》, 日本經濟新聞社, 1986, pp. 140~141.

62) 金森久雄編, 《イノベーションと産業構造》, 日本經濟新聞社, 1987, p. 18.

政策과 신산업을 육성하는 積極政策이 있다. 쇠퇴산업을 온존시키기 위한 소극적 산업정책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전환촉진을 위한 前向的 積極정책을 많이 써왔다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이 대내외 환경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여 재빠르게 業態轉換을 할 수 있는데는 많은 교육받은 우수한 勞動力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노사협조가 잘 되어 노사간의 강한 연대감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歐美諸國에서는 노동조합이 기술혁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예가 적지 않았던데 비해, 日本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生産性を 올리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받아들이는데 진취적이었다는 예는 우리 대구지역 산업구조의 未來를 전망하는데도 참고가 된다.

일본의 勞働組合은 위험한 일, 힘든 일, 더러운 일들은 가능한 한, 機械에 맡기고, 생산성을 올려 賃金を 높여가려는 태도가 강하다. 이는 일본의 勞使間에는 일체감이 강하고 또는 기업내 노동조합제도나 終身雇傭制度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오르면 이것이 즉각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新生産方法이 도입되더라도 職을 잃는다는 걱정이 없기 때문이다.⁶³⁾ 우리 나라도 대체로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의 경우와 비슷한 패턴으로 기업의 革新導入過程이 진행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한편 기업의 혁신도입활동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국민의 貯蓄率 문제이다. 국민의 저축율이 높아야 자본축적이 풍부해져 기업의 혁신도입을 위한 투자활동도 용이해지고, 그 결과 산업구조의 전환이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60~1970년대의 高度成長期에는 국민의 저소득→낮은 저축율 때문에 借款 등 외자에 의존해서 투자재원을 조달해왔지만, 1980년대 들어 특히 1980년대 후반기부터 經常收支의 흑자를 실현하면서 부터는 국민의 저축율이 35%나 되어, 드디어 투자율을 상회하는 高貯蓄國家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기업은 산업구조조정에도 재빠른 적응을 할 수 있게 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대구지역의 경우에도 기업의 혁신도입능력이란 점에서는 전국의 경우와 비슷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다만 大邱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혁신도입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이 때문에 纖維一邊倒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데도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이

63) J.A.Schumpeter,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translated by Redvers Opie), Harvard University Press, 8th Printing, 1968, p.66 - : (1) The introduction of a new good, (2) The introduction of a new method of production, (3) The opening of a new market, (4) The conquest of a new source of supply of raw materials, (5) The carrying out of the new organization of any industry.

나타나지를 못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의 경우에는 內陸地域이라는 불리한 입지적 조건도 감안해서 정부차원의 특별한 지원책이 공여되어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地域經濟의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유망성장산업을 유치 입지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쨌든 대구경제가 지역의 完全雇傭을 이룩하고, 주민의 生活水準을 높여나가는 것이 地域經濟政策의 목적인 만큼, 이를 달성하자면,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산업구조의 전환은 불가결한 것이다.⁶⁴⁾ 成長하지 않고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더라도 고용은 늘지 않고, 失業이 발생한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성장하지 못한다. 새로운 산업구조는 世界經濟와 조화를 이룬 것이라야 하고, 所得이나 기술진보와도 잘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2. 展 望

大邱直轄市의 인구는 현재의 230만명에서 21세기에는 300만명을 넘는데까지 증가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UR협상이 타결된 것을 계기로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은 더욱 거세게 지역경제에 밀어 닥치고 있다. 특히 가속적인 開放化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다른 면에서는 대구산업구조의 변화를 촉진하는 작용도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개방화의 충격으로 촉진되는 대구산업의 구조변화가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는 부정적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단정짓기가 어렵지만, 이미 200만명이 넘는 인구규모와 이미 형성된 產業基盤, 그리고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제반 필요조건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대구의 산업구조의 변화방향은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될 수 있다.

더구나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21세기를 내다 본 대구장기발전구상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대구산업의 構造改編計劃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반 전략시책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있으므로 지역산업구조의 개편과업은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의 업계에서도 이제는 치열한 國際競爭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혼신의 革新導入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고 있고, 外資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첨단기술의 도입에도 적극성을 띠어갈 것이므로, 產業構造轉換의 주체적 노력 및 역량이란 측면에서도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기대해

64) 金森久雄, 앞의 책, p. 22.

볼 수가 있다.⁶⁵⁾ 이렇게 볼때 大邱長期發展構想에서 제시된 지역경제의 成長目標 및 산업구조의 개편목표는 대체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 이것을 발판으로 한 生活環境改善指標 및 社會開發指標들도 거의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65) 앞의 책, p. 23. 또한 平松守彦, 《グローバルに考え, ローカルに行動せよ》, pp. 207~208.

編輯委員會 及 執筆委員

《編輯委員會》

委 員 長	金 英 夏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副委員長
委 員	尹 容 鎮	慶北大學校 教授
	金 相 榮	慶北大學校 教授
	崔 龍 浩	慶北大學校 教授
	朴 勝 偉	嶺南大學校 教授
	金 宅 圭	前 嶺南大學校 教授
幹 事	金 若 秀	大邱市史編纂委員會 研究員
(分科別順)		

《執筆委員》

崔 龍 浩	慶北大學校 教授(1章)
金 忠 實	慶北大學校 教授(2章)
朴 泰 植	大邱銀行 調查研究室長(3章 1·4節)
李 京 均	大銀金融經濟研究所 產業研究室長(3章 2節)
金 圭 昌	曉星女子大學校 教授(3章 3·5節, 13章)
李 種 永	慶北大學校 教授(4章)
盧 宅 煥	嶺南大學校 教授(5章)
陳 炳 龍	大銀金融經濟研究所 經營研究室長(6章)
徐 相 浩	每日新聞 論說委員(7章)
李 秀 炯	嶺南日報 論說委員(8·9章)
李 春 根	大邱慶北開發研究院 動向分析室長(10章)
崔 晚 基	啓明大學校 教授(11章)
禹 在 賢	大邱大學校 教授(12章)
金 鍾 翰	慶北大學校 講師(14章)
夫 光 植	慶北大學校 名譽教授(15章)

(執筆順)

大邱市史 第三卷

1995年 1月 18日 印 刷
1995年 2月 20日 發 行

發 行 大 邱 廣 域 市
編 著 大 邱 市 史 編 纂 委 員 會
印 刷 大 邱 慶 北 印 刷 工 業 協 同 組 合
